조선 근로자들은 단결하라!

2 호 2월 25일

평양 근로자사 발행 1957

조선 근로자들은 단결하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잡 지

제2호 (135)

1957년 2월 25일

내 용

당 생 활

강사 및 선동원들에게 주는 자료

서적 해제 및 평론

농촌경리의 금후 발전을 위한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평남도 농업 협동 조합 관리 일'군 대회에서 하신 연설

김 일 성

동무들!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바와 같이 농촌 경리의 발전은 전체 인민 경제의 발전과 인민 생활의 개선 향상을 위하여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알곡과 공예 작물을 증산하지 않고는 인민들의 식량 문제와 경공업 원료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목축업을 발전시키지 않고는 축력을 보장할 수 없으며 주민들에게 육류와 기타 축산 제품을 공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 건설에 있어서 공업이 지도적 역할을 담당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농촌 경리가 공업 발전을 따라 가지 못한다면 공업도 한 자리에 답보하게 될 것이며 자기의 지도적 역할도 옳게 놀 수가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공업 발전에 적응하여 농촌 경리를 발전시키며 공업과 농업이 유기적으로 옳게 련결되여야 만 우리는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농업 발전에 대하여 항상 깊은 주의를 돌리고 있습니다.

전후에 우리 나라 농촌 경리는 매우 곤난한 형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의 옳은 정책과 농민들의 애국적 로력 투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3개년 계획 기간에 우리 농촌 경리는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심한 전쟁 피해와 전후 2년간이나 계속된 자연 재해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에는 알곡 총 수확고에서 전쟁 전 수준을 회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릉가하게 되였습니다. 알곡 생산이 궤도에 오르게 됨으로써 공예 작물 생산과 목축업도 발전시킬 수 있는 일정한 조건이 조성되였습니다. 이것은 큰 성과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평안남도는 당과 국가에서 내세운 정책들과 농산 계획들을 성실하게 집행하였습니다. 평남도는 1956년에 자기의 알곡 생산 계획을 12,5%나 초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대규모의 관개 공사를 완수하였으며 다수확 작물인 옥수수 파종 면적은 도내 전체 밭 면적의 50% 이상을 보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평남도에서는 식량이 부족하던 산간 군까지 완전히 식량이 여유 있는 군으로 되였습니

다. 그 중에서도 농업 계획을 각 부문별로 초과 실행한 곳은 개천군이며 수도작에서 제일 수확을 많이 거둔 곳은 문덕군이며 축산업에서는 양덕군이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당의 로선과 농촌 정책에 튼튼히 립각하여 각 부문별로 계획을 초과 수행하였으며 조합의 경제적 토대를 강화한 협동 조합들이 적지 않습니다. 개천군 봉화 농업 협동 조합, 광명 농업 협동 조합, 안주군 남칠 농업 협동 조합과 동 군 선흥리 서산 농업 협동 조합, 원풍리 북송 농업 협동 조합, 룡강군 옥도 농업 협동 조합, 문덕군 박비리 박비 농업 협동 조합, 상팔리 룡남 농업 협동 조합, 순안군 산양 농업 협동 조합들은 다수확과 다각적 부업 생산으로써 조합원들의 수익성을 제일 잘 높인 조합들입니다. 그 밖에도 덕천군 제남 농업 협동 조합은 양잠업에서 제일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평남도 당 위원회와 평남도 인민 위원회 일'군들, 각 군 당과 군 인민 위원회, 각 협동 조합 일'군들과 전체 농민들이 발휘한 열성적인 노력에서 얻은 결과입니다.

나는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와 공화국 정부의 명의로써 평남도 전체 농민들과 농업 협동 조합원들과 특히 우수한 농업 협동 조합원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둔 성과는 아직 첫걸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알곡 생산이 부족하여 매년 20여 만톤의 량곡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습니다. 면화를 비롯한 경공업 원료들은 거의나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기로부터 농촌 경리 발전에 관한 문제는 오늘에 있어서 더욱 더 중요하게 제기됩니다.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12월 전원 회의는 우리 나라 농촌 경리의 현 상태를 구체적으로 타산하여 5개년 계획의 첫해인 1957년 계획 과제들을 규정하였습니다. 1957년 계획에 의하면 알곡 생산을 계속 증가시켜 작년도에 비하여 2,5%의 증산을 보장하며 그 중에서 벼는 적어도 5만톤 증산할 것이 예견되였습니다. 공예 작물 생산을 급속히 장성시킴으로써 면화는 1,8배, 아마는 1,7배, 대마는 1,5배, 황색 엽연초는 1,4배로 각각 작년도 생산 수준을 릉가할 것이 규정되였습니다. 동시에 목축업도 상당히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농촌 경리에 대한 1957년 계획 과제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능히 할 수 있는 확실성 있는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매개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 어떻게 사업을 조직하며 전체 농민들을 어떻게 증산을 위한 로력 투쟁에로 고무 추동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금번 이 회의도 평남도 내 농업 협동 조합들과 농민들이 1957년 국가 계획 과제를 어떻게 하면 수행할 뿐만 아니라 초과 수행하겠는가 하는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금번 회의에서 많은 동무들이 자기 토론에서 훌륭한 의견들을 제기하였습니다.

동무들은 금년에 평남도에서 알곡을 국가 계획에 비하여 5만톤 증산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부면에서 국가 계획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초과 수행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문제는 이 결의를 실행하는 데 있습니다. 나는 이번 기회를 리용하여 농촌 경리를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말하려 합니다.

1, 관개 시설을 더욱 확장할 데 관하여

어느 나라에서나 농촌 경리에서 기본 문제는 알곡입니다. 특히 우리 나라 농촌 경리에서는 더욱 그러하며 그 중에서도 벼가 중심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개 사업은 조선 농업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고리의 하나로 되는 것입니다. 논을 만들 수 있는 평야 지대가 많고 수원이 비교적 풍부한 평남도에 있어서는 다른 도에 비하여 관개 공사의 의의가 더욱 크다는 것을 강조하여야 하겠습니다. 관개 공사를 더 많이 실시함으로써 자연을 극복하며 매년 안전하고 높은 수확을 거두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관개 공사만 잘 실시한다면 대략적인 계산에 의하더라도 북반부 전체적으로 약 30만 정보의 간석지와 륙전과 수리 불안전답을 훌륭한 논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하게 될 것은 의심할 바 없습니다.

관개 사업의 중요성은 지난 3년간의 평남도에서의 경험이 여실히 증명하여 줍니다. 평남도내 농민들이 지난 3개년 계획 기간에 관개 시설을 확장하는 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나는 이미 1954년 12월에 평남도 내에서 4만 정보에 달하는 수리 불안전답을 수리 안전답으로 전환시키며 논 면적을 계속 확장할 것을 동무들에게 제기하였습니다. 동무들이 이 과업을 훌륭히 수행하였다는 것이 도 당 위원장 동무의 보고에서 이미 지적되였습니다. 우리 당의 정책을 옳게 받들고 평남도 농민들이 모든 애국적 열성을 다한 결과 3개년 계획 기간에 평남 관개 공사, 승호 양수장 공사를 비롯하여 139개소의 관개 하천 공사가 국가 자금에 의하여 진행되였습니다. 이 공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3년간에 만 하여도 평남도에서는 4만 여 정보의 관개 면적을 확장하였습니다. 이것은 결코 적은 면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 전 지역에서 1928년부터 1945년까지의 18년간에 확장한 소위 수리 조합 관개 면적과 거의 동일한 면적을 불과 3년간에 우리는 평남 한 개 도에서 하여 놓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가 농촌 경리의 발전과 농민 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얼마나 큰 배려를 돌리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똑똑히 보여 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성과는 평남도내 농민들이 이 공사의 의의를 옳게 인식하였으며 그의 실현을 위하여 모든 열성을 발휘하였다는 것을 말하여 줍니다. 평남도 농민들은 이 공사에 실로 619만 2천 여 공수라는 막대한 로력을 투하하였습니다. 특히 평남 관개 공사에서 숙천군, 문덕군, 평원군 및 안주군내 농업 협동 조합원들은 평균 100 여 공수 이상씩 동원되였습니다. 그 외에도 강남, 승호, 중화, 대동, 증산군 등에서도 로력을 아끼지 않고 동원되여 공사 기일을 단축하였으며 그리하여 제때에 작답까지 하여 생산을 보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열성으로써 평남도 농민들은 자기 생활을 훨씬 개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에도 막대한 리익을 주었습니다.

지난 기간 평남도에서는 국가 자금에 의한 대규모적 관개 공사 외에 농민들 자체의 힘에 의하여 적지 않은 중 소 규모의 관개 하천 공사가 진행되였습니다. 3년 동안에 평남도내 농민들은 자체 자금과 자체 로력에 의하여 150 여 개소의 중 소 관개 공사를 실시하여 3천 7백 여 정보의 관개 면적을 확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43개소에서 900 여 정보의 면적을 관개할 수 있는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협동 조합들의 이러한 창발성을 계속 장려하여야 하며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더욱 활발히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평남도 농민들의 이러한 로력이 그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이 고귀한 로력은 그들에게 응당한 보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관개 사업을 실시한 결과 평남도에서 1956년 1년간에 만 그 전 해에 비하여 6만 여 톤의 벼를 더 수확하게 되였습니다. 1956년에 평남도 알곡 총 수확고는 전쟁전 1949년에 비하여 115,4%, 1953년에 비하여서는 123,3%로 장성되였습니다 그 중에서 벼의 수확고는 더욱 빨리 증가하였습니다. 1956년에 평남도 벼 수확고는 29만 7천톤에 달하였는 데 이것은 전쟁 전 1949년에 비하면 약 9만 톤의 증산으로 됩니다. 결과에 과거 식량이 곤난하던 적지 않은 지대들에서 금년에는 입쌀밥을 먹고도 쌀이 남아서 많은 량을 국가에 수매시키고 있습니다.

숙천군 창동리 연풍 농업 협동 조합같은 데서는 과거에 논 정보당 700~800키로그람 정도의 수확 밖에 거두지 못하던 것이 작년에는 3톤 170키로그람을 수확하였습니다. 그들은 현물세, 임경료, 관개 사용료 등을 납부하고도 매호 당 평균 4톤의 벼를 분배 받았습니다. 과거에 이 지방 농민들은 잘 해야 3년 농사를 지어서 두해 밖에 먹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는 매년 안전하게 정당 3~4톤의 수확을 낼 수 있게 되였으며 식량을 저축하면서도 매호 당 거의 1톤에 가까운 벼를 국가에 수매시킬 정도로 생활이 향상되였습니다. 이와 같이 농민들은 잘 살게 되고 국가에도 리익을 주게 되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모든 도에서 관개 하천 공사를 계속 활발히 추진시켜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평남도에서 얻은 경험을 다른 도에도 적극 보급시키며 모든 가능한 대상들을 선택하여 관개 공사를 적극 전개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남도 농민들은 할 만한 관개 공사를 다 하였는가? 이제는 더 할 것이 없는가? 결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도 평남도 내에 관개 공사를 실시할 만한 대상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선 내가 1954년 12월에 제기한 4만 정보의 수리 불안전답 중에서 약 7천 정보는 계속 수리 불안전답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비적 조사 자료에 의한다면 평남도에서 5개년 계획 기간에 대 중 소 규모의 관개 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약 3만 6천 정보의 관개 면적을 확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일 이 과업을 실현한다면 평남도에서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남도 당 단체들과 전체 농업 지도 일'군들과 전체 농민들은 5개년 계획 기간에 계속 관개 공사를 실시하여 관개 면적을 확장하여야 하겠습니다.

5개년 계획 기간에 국가적으로 되는 비교적 대규모 관개 공사——증산'벌과 온천벌, 문덕군 삼천포 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관개 공사(약 25 000—30 000정보를 관개할 수 있음)——를 완성할 것이며 그리고 약 1만 여 정보를 관개할 수 있는 중 소 규모의 수백개 대상을 협동 조합 자체에서 실시하여야 하겠습니다. 협동 조합에서 하여야 할 관개 공사들은 자체의 힘으로도 할 수 있고 또는 자체가 자금을 내고 관개 수리국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위탁 공사나 협동 조합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공사들은 우리가 조사한 외에도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몇십정보라도 좋으니 이것들을 계속 조사하여 관개 시설을 많이 하면 할수록 수확의 안전성을 더욱 보장할 수 있고 정당 수확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관개 공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자금이 일부 부족한 농업 협동 조합에 대하여서는 농민 은행에서 제때에 융자도 보장하여야 하겠습니다.

금후 관개 공사 대상을 규정함에 있어서 류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간석지, 황무지 또는 천수답을 개조하는 것을 첫째 건설 대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는——수확이 낮은 륙전을 수전으로 개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결코 좋은 륙전을 관개 공사의 첫 대상이나 다음 대상으로 정하여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벌써 3년간 경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륙전에 다수확 작물을 심고 비배 관리를 잘 한다면 수전보다 못지 않게 수확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수확 작물이 잘 될 수 있는 지대는 그냥 륙전으로 다수확 재배 면적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입쌀 만 먹고 살 수 없으며 우리에게는 입쌀 외에도 옥수수, 콩, 팥, 밀, 보리 등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957년에는 관개 공사를 일부 진행하는 외에 주로 과거 관개 시설의 수리 정리 사업에 대부분 투자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3년간 전쟁에서 파괴된 기설 구조물들과 수로들을 3개년 계획 진행시에는 대체로 림시적으로 복구하였고 또는 현상 유지를 하여 왔기 때문에 물이 새고 파괴될 위험성이 있는 곳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957년은 그것들을 복구 정비하는 해로 정하고 완전히 정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평남 관개 공사도 비록 완공되였지만 그 리용률을 더욱 제고하기 위하여 더 많은 지선을 뽑거나 또는 그 물에 양수장도 설치하여 관개 면적을 더 확장하기에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1957년도에는 1958년도에 실시할 신규 공사들의 준비 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대상의 조사, 세밀한 설계, 자재와 공구의 생산 및 준비 등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류의할 점은 새 관개 시설의 확장에만 주력하지 말고 그와 아울러 5개년 계획 기간에는 대소 하천 정리 공사를 대대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일제 말년에 산림이 란벌되였으며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 미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산림이 몹시 파괴되였으며 또한 매 해의 사태로 인하여 하천의 하상은 대부분 하안과 동일하거나 심지어는 그보다 높아진 곳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하여 우량이 조금만 많거나 또는 소낙비나 올 때에는 토지의 류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천 정리 사업을 전 인민'적으로 진행하여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는 몇 개 강을 제외하고는 전부가 다 소 하천들입니다.

큰 강들은 당분간 급한 문제로 되지 않습니다. 거기는 주로 큰 제방들을 구축하여야 하며 소하천들은 주로 하상 정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 사업은 협동 조합 자체에서도 하고 대규모적인 것은 국가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하천 정리를 위하여서는 제방 공사 뿐만 아니라 하천 상류와 량안 급경사지에 사태 방지를 위한 조림 사업도 대대적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 공사는 매우 주요한 일이기 때문에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동지들은 이 사업을 등한시하고 새 토지 확장에만 급급합니다. 조선 속담에 《산'돼지를 잡으려다가 집 돼지를 잃어 버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새 토지를 획득하는 동시에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획득한 경지를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문제입니다.

경지의 보호와 관련하여 그의 람용 현상을 퇴치하여야 하겠습니다. 무용한 도로를 뽑거나 부지를 턱없이 많이 잡거나 또는 함부로 전주를 경지에 세우는 일을 없이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경지의 람용 현상을 없애기 위하여 경지를 딴 목적에 리용하는 데 대하여서는 강한 통제를 실시하며 더 엄격한 수속 절차를 수립하여야 하겠습니다.

2, 선진 기술을 적극 도입 보급하여 정당 수확고를 제고할 데 관하여

우리 나라에서 농업 협동화 운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농촌 경리의 기술적 개조에 비하여 경리 형태의 개조가 비할 바 없이 빨리 진행되였다는 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경리 형태의 개조에 비하여 농촌 경리의 기술이 매우 뒤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후 3개년 계획 기간에 개인 농민들을 협동화하는 사업에서는 결정적 승리를 쟁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은 아직 주로 낡은 기술에 토대하고 있습니다. 농촌 경리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려면 경리 형태 뿐만 아니라 기술도 개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앞에는 농촌 경리를 기술적으로 개조하는 과업이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과업은 물론 어려운 과업이며 장구한 시일을 요합니다. 적어도 제2차 5개년 계획까지나 수행하여야 농촌 경리의 기술적 개조에서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술적 개조가 어려우며 우리 농촌 경리의 기술 토대가 뒤떨어져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가능한 모든 선진 영농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한편으로 현대적 기계와 기술로써 농촌 경리를 장비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는 동시에 다른 편으로 간단히 도입할 수 있는 선진 농기계, 선진 영농 기술 및 농민들의 각종 창의 고안을 부단히 장려하며 보급시켜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야 농업 생산을 급속히 발전시킬 수 있으며 우리 농촌의 기술 토대를 근본적으로 개조하는 데 더욱 빨리 접근할 수 있습니다. 선진 기술을 도입하는 문제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선진 기술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시정하고 그것을 대담하게 계획적으로 지방 실정에 알맞게 도입하여야 하겠습니다. 부분적인 농업 지도 일'군들과 농민들 가운데는 선진 기술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동무들은 생각하기를 뜨락또르나 꼼바인과 같은 큰 기계와 외국의 선진 영농법 만이 선진 기술이요 우리 농민들의 창의에 의한 새로운 영농 방법은 선진 기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로비자찌야》라고 하면 크게 주의를 돌리지만 랭상모라는 말에는 큰 흥미를 느끼지 않습니다. 만일 랭상모라는 말 대신에 이것을 어떠한 힘든 외국 술어로써나 불렀더라면 더 잘 도입되였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과거에 없던 새로운 영농 방법과 생산 도구를 창안하여 그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면 이것은 곧 선진 기술입니다. 물론 우리는 선진 국가들에서의 발전된 기술을 앞으로도 계속 배워야 하며 우리 실정에 알맞게 적극 도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로동자들과 기술자들의 창안에 의한 새로운 농기계, 우리 농민들의 창발성에 의한 새로운 더 능률적인 영농 방법들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 농촌 경리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많은 자연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조건하에서 이 문제는 더욱 중요합니다.

선진 기술에 대한 그릇된 인식은 그의 적극적인 도입에 적지 않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실례로서 벼 농사에서 랭상모를 붓는 방법은 훌륭한 선진 영농 기술입니다.

랭상모는 수모나 륙모에 비하여 건전하게 모를 육성할 수 있으며 륙모에 비하여 약 20~30일 일찌기 이앙할 수 있으므로 더 긴 성육 기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 높은 수확을 낼 수 있습니다. 김 락희 동무가 지도하는 개천군 봉화 농업 협동 조합에서는 작년에 5,7정보의 논에 랭상모를 이앙하여 정당 평균 5톤 300키로그람의 수확을 거두었으며 최고는 7톤 이상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조건에서 륙모는 정당 4톤 700키로그람의 수확을 냈습니다. 이 보다 더 우수한 실례로는 전 성복 동무가 지도하는 협동 조합에서는 랭상모를 6정보에 이앙하였는데 정당 9톤 500키로그람씩 생산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륙상모는 정당 4톤 800키로그람을 생산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랭상모가 륙상모보다 정당 4톤 700키로그람이나 더 높은 수확을 보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랭상모를 하면 이앙기가 다른 모에 비하여 빠른 까닭에 이앙 로력을 일시에 많이 투하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처음에 랭상모, 그 다음에 륙상모, 마지막에 수모의 순서로 이앙할 수 있으므로 로력을 합리적으로 조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반적으로 이앙을 일찌기 끝냄으로써 전체 수확고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훌륭한 선진 영농 기술이 지금 광범히 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랭상모를 하기 위하여서는 약간의 자재들과 로력을 투하하여야 합니다.

금년에는 가능한 모든 로력을 다하여 랭상모를 전반적 조합에서 논 면적의 20%까지 실시하도록 투쟁하여야 합니다. 랭상모를 실시한다면 적어도 정당 1톤 이상

의 벼 수확고를 더 제고할 수 있는 일을 왜 실시하지 않겠습니까? 그에 소요되는 자재는 자체로도 준비하고 부족하면 국가에서도 생산하여 공급하여야 하겠습니다.

육종 및 선종 사업에서도 우리는 많은 선진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수확 작물인 옥수수의 파종 면적을 확장한 것은 좋으나 종자 선택에서 선진 경험을 보급하지 못한 데로부터 더 거둘 수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례를 들어 은산군 추평 농업 협동 조합에서는 옥수수 재배에서 백색 마치종 순종을 보존 발전시키는 데서 다년간의 경험을 쌓은 정 삼렬 조합원의 선진 영농 방법을 옳게 살린 결과 77정보의 옥수수 밭에서 정당 평균 4톤 700키로그람의 다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선진 경험이 도'적으로는 고사하고 부근 협동 조합들에도 옳게 보급되지 못하였습니다. 종자 선택을 잘하지 못한 협동 조합들에서는 추평 협동 조합에서 달성한 성과의 절반도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보급되지 않고 있는 훌륭한 선진 영농 방법은 얼마든지 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기계에 대해서 말하여 봅시다. 축력 제초기, 뿌라우, 쌍륜 쌍화리 등은 아주 능률적인 선진 농기계입니다. 축력 제초기같은 것은 손으로 김을 매는 것에 비하여 약 7~8배 이상으로 능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국가는 농민들을 위하여 이러한 농기계들을 적지 않게 생산하였으나 잘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공급 사업에도 많은 결함이 있습니다. 어떠한 농기계는 훌륭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그러한 농기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기계 공업성에서 농기계 직매점 같은 것을 설치한다면 농기계 공급 사업이 현저히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말한 바와 같이 우리에게 선진 농기계나 선진 영농 기술이 없어서 그것을 도입 보급하지 못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많은 선진 영농 기술과 농기계들이 창안되고 있는 데 그것을 경시하며 대담하게 계획적으로 도입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선진 기술을 도입함에 있어서 매개 지방의 기후, 풍토, 토양 조건 등을 옳게 타산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낡은 것을 고집하며 선진 기술을 경시하는 보수주의와 투쟁하는 동시에 실정에 맞지 않는 기술을 기계적으로 강제로 도입하려는 경향과도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국가는 선진 기술 도입에 대하여 더 적극적인 방조를 주어야 하겠습니다. 선진 기술 도입을 위한 자재를 공급하여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융자적 방조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농민들에게 선진 영농 기술을 선전하며 그의 도입 방법, 선진 농기계의 사용법 등을 일정한 계획 밑에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로 농업 기술 발전에 대한 과학 일'군들의 방조 사업을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지금 형편은 농학자들이 농민들에게 효과적인 방조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농민들은 순전히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영농하고 있습니다. 례를 들어 열두 삼천리'벌의 한 곳에서는 농민들이 어떠한 모를 심으면 더 잘 될가 하여 이것도 심어 보고 저것도 심어 보고 합니다. 이러한 암중모색으로써는 농민들이 많은 실패와 고통을 겪을 뿐더러 성과도 거둘 수 없습니다. 또는 우에서 말한 랭상모를 도입하려는 의욕이 있어도 그 방법을 몰라서 도입 못하는

실례가 적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곳에 과학자들과 농업 기술 일'군들의 방조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 농학자들은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몇 개 도에 한 두 장소의 시험장을 차려 놓고 거기에 앉아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동무들이 다 아는 바와 같이 같은 도에서도 군에 따라서 기후, 토양 기타 조건이 다르며 심지어 같은 군에서도 산 부근과 해변'가에서는 토양과 기타 조건이 서로 달라 집니다.

그러면 과학자들의 방조 사업을 어떻게 개선하여야 하겠습니까? 과학자들은 한자리에 앉아서 만 사업할것이 아니라 각 지방에 내려 가서 지도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개별적인 군, 개별적인 협동 조합들의 실제적 조건에 알맞는 영농 기술을 연구해 내여야 할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몇 개 군의 협동 조합에 극히 간단한 자체의 시험 포전을 설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하여 기술자를 초청하고 그의 지도 밑에 협동 조합 자체에서도 일정한 시험 연구를 진행한다면 그 지대 실정에 맞는 우수한 기술을 창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 포전의 운영에서 로력과 자재는 협동 조합이 담당하고 학자는 다만 그들을 지도하면 될 것입니다.

농학자들과 농사 시험장 과학 일'군들의 사업을 이와 같이 개편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째로 농촌에서 기술 간부를 양성하며 협동 조합들에서의 기술 지식 수준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협동 조합들에서는 관리 간부나 조합원들의 기술 수준이 매우 낮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초보적인 기술 지식도 소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술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조직적 대책이 강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반드시 시정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광범한 농업 협동 조합 기술 간부 양성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개 도에 수개 소의 협동 조합 기술원 양성소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 중등 지식을 소유한 정도의 조합원들을 선발하여 약 1년 정도의 단기 강습을 주되 극히 초보적인 농업 기술을 가르쳐 주어도 좋습니다. 높은 과학 리론을 강의할 것이 아니라 주로 실무 교육의 방법으로 간단한 지식, 례컨대 랭상모의 도입 방법, 옥수수의 선진적 경종 방법, 선진 농기계 및 농약의 사용법 등을 배워 주며 극히 초보적인 식물학, 토양학, 농학, 축산학, 양잠, 양봉 등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들이 중심으로 되여 협동 조합에서의 기술 수준을 현저히 제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협동 조합의 기술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서는 중학교를 졸업한 청년 로력을 농촌에 고착시켜야 하겠습니다. 일정한 중등 지식을 소유한 청년들이 협동 조합들에 없다면 새 기술을 급속히 소유하며 보급하기 곤난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형편은 이 방면에서 매우 잘못되고 있습니다. 평남도 27개 군 중 20개 군을 종합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현재 농촌 로력 총수 중에서 초중 이상 졸업생들의 비중은 불과 4% 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대단히 낮은 비중입니다. 이러한

낮은 비중이 공화국 북반부에 초중 이상 졸업생 수가 적어서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농촌 로력에서 중학교 졸업생의 비중이 극히 낮은 것은 우리 청년들의 사상 의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적지 않은 부분은 농사 짓는 것을 천한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중학교나 졸업하면 의례 펜'대나 들고 사무 기관에서 일하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호미를 베는 것은 창피한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절대 다수는 농촌에서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만 졸업하면 농촌에 있기를 싫어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초급 중학교 의무 교육제를 실시하며 더 나아가서는 고급 중학교 의무 교육제도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 청년들의 생각대로 한다면 장래에는 농사 짓는 사람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청년들의 이러한 생각은 대단히 옳지 못한 일제 사상 잔재입니다. 바로 다름아닌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과거에 우리 조선 농민들을 천시하였으며 학대하였습니다. 청년들의 머리 속에 있는 이러한 일제 잔재 의식을 철저히 뽑아 버려야 하며 그들을 로동에 대한 영예감으로써 교양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촌 경리에 종사하며 자기 농촌을 아담하게 아름답게 꾸미기 위하여 복무하는 것을 영예롭게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향토에 대한 사랑이며 자기 조국에 대한 사랑입니다.

당 단체들과 민청 단체들은 청년들을 이러한 방향으로 교양하는 데 특별한 주의를 돌려야 하겠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 더 많이 농촌에 고착된다면 그들은 협동 조합에서의 기술 발전의 중심으로 될 것입니다. 협동 조합에 지식을 소유한 청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농촌의 기술 수준은 더욱 빨리 제고될 것이며 농촌에서의 문화 수준이 급속히 제고될 것이며 농촌은 더욱 명랑하고 활기를 띠게 될 것입니다.

선진 기술의 도입 및 정당 수확고의 제고와 관련하여 비료 문제에 대하여 말하여야 하겠습니다.

비료를 많이 주며 특히 시비 방법을 개선하는 것은 정당 수확고 제고에서 결정적 의의를 가집니다. 농민들은 화학 비료를 더 많이 달라고 요구합니다.

국가는 농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며 알곡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화학 비료의 증산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흥남 비료 공장은 우리가 처음에 계획하였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복구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화학 비료는 약 28만톤 이상 생산할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흥남 비료 공장 로동자들은 농민들을 더욱 방조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류안 비료는 금년에만 3만톤 초과 생산할 것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나는 로동자들이 자기의 결의를 반드시 실천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류안 비료 외에 질안 비료와 가리 비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주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에 더 많은 화학 비료가 공급될 것이며 앞으로 생산량이 계속 증가될 것입니다.

화학 비료를 더욱 많이 생산할 뿐만 아니라 농업성은 그의 분배 사업을 개선하여야 하겠습니다. 더 많이 요구되며 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곳이거나 얼마 요구

되지 않는 곳이거나를 불문하고 평균주의적으로 분배하는 경향을 없이 하여야 하겠습니다. 화학 비료에 만 의거할 것이 아니라 농민들은 또한 자급 비료를 적극 생산 시비하여야 하겠습니다. 록비도 많이 생산하고 특히 구비 생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매개 협동 조합에서 무축 농가를 퇴치한다면 축산을 발전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구비를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또한 니탄이 비료로서 효과적으로 리용될 수 있습니다. 니탄 자원이 우리 나라 각 지방에 많이 있는 만큼 이것을 반드시 개발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민들은 비료로서의 니탄의 가치를 과소 평가하며 그것을 잘 리용하지 않습니다. 만일 니탄을 잘 부식시켜 옳게 만 리용한다면 훌륭한 비료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협동 조합들에서는 지방 니탄 원천을 자체 힘으로 적극 개발하여 비료로서 리용하여야 하겠습니다. 동시에 풍부한 매장량이 집중되여 있는 곳에서는 국가도 니탄 채굴 사업을 전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농업 협동 조합을 강화할 데 관하여

전후 기간에 농촌 경리 분야에서 거둔 가장 큰 성과의 하나는 농업 협동화가 급속히 진행되였다는 사실입니다. 작년 11월말 현재로 북반부에서 전체 농가 호수의 79,3%, 전체 경지 면적의 76,4%가 협동 조합에 망라되였습니다. 평남도에서는 전체 농가의 85% 이상이 협동화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농촌 경리에서 발생한 거대한 전변입니다. 이것은 우리 농촌이 새로운 길——사회주의의 길에 확고히 들어 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농민의 대부분을 협동화의 길로 인도함으로써 우리는 농업 생산력을 급속히 제고하며 농민들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을 지어 놓았습니다.

우리 협동 조합들은 조직된 지 오래지 않으며 모두가 다 청소합니다. 우리 협동 조합들은 혹심한 전쟁 피해를 회복하는 가장 곤난한 시기에 조직되였으며 발전되였습니다. 우리 농민들에게는 협동 조합을 조직한 경험도 없었으며 협동 조합을 관리하여 본 일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곤난한 조건 하에서 우리 나라 농업 협동 조합이 오늘과 같이 장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촌 경리의 면모는 벌써 판이하게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평남도내 많은 농민들은 작년에 이전에는 생각 조차 할 수 없었던 많은 수입을 내였습니다.

그리하여 조합을 조직하기 전에 평안남도에 빈농민이 약 35%가 있었다면 지금에는 불과 5% 미만으로 감소되였습니다. 전후에 우리가 거둔 성과는 이와 같이 협동 경리가 우월하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협동 조합들이 자기의 우월성을 완전히 발휘하기 까지에는 대단히 거리가 멉니다. 우리 나라 협동 조합들은 아직 그 우월성의 절반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협동 조합의 모든 우월성을 더욱 충분히 발휘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과업은 협동 조합을 더욱 더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야만 지금보다도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으며 농민들의 생활을 부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조직된 협동 조합들이 잘 되여야 전체 농민들을 협동 경리의 길에 끌어 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협동 조합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협동 조합 관리 간부들을 옳게 선발하고 그들을 고착시키며 꾸준히 교양하여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은 협동 조합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관리 위원장에 많이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관리 위원장이 일을 잘 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그 지방의 농사 형편을 잘 알아야 하며 조합원들의 구체적 형편을 잘 파악하여야 하며 그들에게 신망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관리 위원장은 그 지방 농민중에서 열성도 있고 대중에게 신망도 있는 동무를 선출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농업 협동 조합 관리 간부들은 매개 조합원들의 일상 생활에 침투하여야 합니다. 조합원들과 혼연 일체가 되기 위해서는 장기간 그들과 같이 살고 그들과 같이 일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은 인민 경제의 어느 부문 보다도 지방적 특성이 많은 부문입니다. 농촌마다 사정이 다르며 골짜기마다 조건이 다른 것이 농촌 경리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협동 조합 관리 간부로서는 신망 있고 열성 있고 농사에 경험 많은 그 지방 농민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데 근거하여 협동 조합 관리일'군들은 반드시 조합원 총회에서 민주주의적으로 선거하여야 합니다. 특수하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부에서 임명하거나 파견하는 현상을 앞으로는 없이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관리 간부들의 지도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그들을 고착시키며 함부로 이동시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흔히 군 당이나 군 인민 위원회에서는 능력이 없다는 구실로 그들을 자주 이동시킵니다. 심지어는 과거에 빈농이였고 토지 개혁에 열성적으로 참가하였으며, 협동 조합 조직 전에는 모범 농민이였으며, 협동 조합 조직에서도 선두에 나선 그런 관리 위원장을 능력이 부족하다 하여 이동시킨 실례까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옳지 않습니다. 조금 능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함부로 조동시키지 말고 인내성 있게 교양하며 도와 주어야 하겠습니다. 협동 조합 관리 간부들의 빈번한 조동은 그들의 지도 수준 제고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입니다.

둘째로 협동 조합들에서 조합원들에 대한 계급 교양 사업을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농민들의 사상 의식을 개조하지 않고서는 농촌을 완전히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할 수 없습니다. 조합원들의 사상 의식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일이 잘 될 것이며 협동 조합이 강화될 것이며 따라서 조합원들 자신이 더욱 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사업에서 아직 부족점들이 많습니다.

우선 조합원들에게 그들이 농촌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선구자라는 영예감을 높이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협동 조합원들이 낡은 것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길에

들어 섰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영예감이 높아지면 낡은 방식으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농민들이 더욱 더 깊이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더욱 더 새로운 영농 방법을 찾으려고 애쓸 것이며 새 기술을 도입하며 개인 농민들에게 모범을 보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협동 조합에 더 많은 애착을 느끼게 될 것이요, 조합의 공동 재산을 애호하게 될 것이며, 그것을 더욱 증가시키기에 힘쓸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협동 조합원들에게 사회주의적 근로자로서의 영예감을 가지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협동 조합원들을 지주 계급들과 그들의 가혹한 착취를 증오하는 정신으로 교양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엊그저께 지주의 악독한 착취로부터 해방되였는 데 벌써 그 쓰라림을 잊어버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더우기 나어린 청소년들은 지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들이 농민들을 어떻게 착취하였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학교나 인민 학교들에서 과거에 지주가 어떻게 착취하였으며 농민들이 어떻게 살아 왔는가를 학생들에게 잘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교과서에도 그러한 것이 적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시정되여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착취와 착취 계급을 증오하는 사상으로써 교양하는 것은 농민들로 하여금 새 생활의 개척에서 더욱 더 열성을 발휘하게 하는 중요한 힘으로 됩니다. 더우기 우리 조국 남반부에는 아직도 지주 계급이 그대로 남아 있으며 북반부에서 도주하여 간 지주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지주와 그들의 착취에 대한 증오는 농민들과 그의 후대들을 조국 통일의 위업에로 더욱 고무 추동하게 될 것입니다.

세째로 협동 조합을 조직하며 협동화 운동을 지도함에 있어서 이러 저러한 편향을 없이 하여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나라에서의 협동화 운동은 옳은 궤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당 로선과 어긋나는 편향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지적하여야 할 것은 협동 조합을 너무 크게 조직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현 조건에서는 규모가 너무 큰 것이 적당치 않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협동 조합 관리 간부들은 아직 수준이 어렵니다. 그들에게는 협동 조합을 관리하여 본 경험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조합의 규모가 크면 그것이 잘 운영되지 못할 것은 틀림 없습니다. 또한 우리 협동 조합들은 현대적 기술로써 장비되지 못하였습니다. 협동 조합들의 기계화 수준은 매우 낮으며 더우기 현대적 운수 수단도 없습니다. 만일 협동 조합들이 현대적 기술로써 장비되고 기계화 수준이 높으며 현대적 운수 수단을 가지고 있다면 규모가 큰 것이 더 합리적이며 더 높은 생산 능률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주로 수공업식인 도구를 리용하며 손 로동이 지배적인 우리 조건에서는 규모가 크면 오히려 불합리합니다. 또한 자동차도 없고 전화도 없는 조건에서 규모를 크게 한다면 관리 간부들이 온종일 걸어 다녀도 전체 작업반을 다 돌아 보는 것 조차 힘들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규모가 크면 우리 조건에서는 로력 조직도 매우 복잡하여 지며 곤난하게 될 것입니다. 각 작업반들이 넓은 지역에 분산되게 될 것이며 필요한 경우에 로력을 기동성 있게 움직일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규모가 너무

큰 것은 우리 조건에서 불합리합니다. 우리는 간부들의 수준과 기술 장비 정도에 알맞게 협동 조합들의 규모를 결정하여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실지 경험이 또한 너무 큰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증명하여 줍니다. 똑 같은 조건에서도 그리 크지 않고 적당한 정도로 아담하게 조직된 협동 조합들은 대부분 다 잘 살고 수입이 더 많습니다.

내 생각 같애서는 우리 나라의 조건에서 40호로부터 100호 좌우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여 이미 크게 조직된 협동 조합을 분할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크게 조직된 것은 적극적으로 방조하며 관리 간부들과 조합원들이 더욱 노력하여 잘 운영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새로 조직할 때에는 너무 크게 하지 말아야 하겠으며 또한 이미 있는 조합들을 합치는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지방에서 협동 조합들을 합치려는 경향에 대하여 반드시 말하여야 하겠습니다.

부분적 지방에서 협동 조합을 합치는 《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극히 부분적이나마 평남도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고 함남 같은 데서는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경향입니다. 우에서 말한 바와 같이 협동 조합이 너무 큰 것이 우리 조건에서 불합리한 것 만큼 합치는 것은 더욱 좋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협동 조합들은 경제적 토대가 서로 다르며 발전 수준이 서로 다릅니다. 수익이 높은 데도 있고 그렇지 못한 데도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합치게 되면 한 편 조합원들은 합치기 전보다 수입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동시에 다른 편 조합원들에게서는 반드시 남에게 의존하려는 경향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좋지 못한 일입니다. 심지어 함남도 어떤 협동 조합에서는 합친다고 하니까 이미 가지고 있던 돼지를 40마리중 90%를 처분하여 버린 엄중한 사실까지 있었습니다.

어떤 동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을 협동 조합은 잘 사는 데 건너 마을 협동 조합에서는 잘 못사니까 그들을 도와 주기 위해서 건너 마을 협동 조합과 합쳐야 하겠다》고 합니다. 못 사는 사람을 도와 주려는 이 동무들의 생각은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도와 주려는 것은 잘못입니다. 우리 협동 조합원들은 누구나 다 잘 살게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선진적인 협동 조합을 뒤떨어진 협동 조합의 수준에 끌어 내리워서 똑같이 논아 먹는 식으로써는 모두가 다 잘 살게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소부르죠아적 평균주의이며 사회주의와는 공통성이 없습니다. 사회주의는 뒤떨어진 협동 조합들을 선진적인 협동 조합의 수준에로 끌어 올릴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야 모든 협동 조합이 선진적인 수준에로 올라 오며 더욱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뒤떨어진 협동 조합과 합치는 방법으로써 그들을 《도와》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한다면 모두가 다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반대로 될 수 있습니다. 뒤떨어진 협동 조합 자신이 자기 힘으로써 경리를 개선하고 수익을 높여서 선진적 협동 조합을 따라가게끔 적극 방조를 주어야 합니다. 협동 조합들을 합치는 <운동>은 적어도 앞으로 3—5년간은 그만 두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말할 것은 협동 조합을 새로 조직함에 있어서 너무 높은 형태만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농민들의 의식 수준도, 그들의 경제적 처지도 고려함이 없이 덮어 놓고 높은 형태가 좋다고 하면서 제3 형태를 조직하려는 경향이 황해남도 같은 데 있었습니다. 비록 평남도에서는 지금까지 이러한 일이 없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조직할 때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지는 많고 로력이 적으며 비교적 잘 살아 온 농민에게 처음부터 제3 형태를 요구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농민들에게 처음부터 제3 형태를 강요한다면 중농의 리익을 침범할 수 있습니다. 협동 조합을 새로 조직할 때에는 농민들의 의식 수준, 그들의 경제적 처지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한 자원적 원칙에 의하여 이러 저러한 형태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자원적 원칙의 위반과 조급성은 협동화 운동에서 가장 엄중한 해독을 가져 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직 개인농으로 남아 있는 농민들을 이미 조직된 협동 조합에 새로 인입함에 있어서도 자원적 원칙을 엄수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물론 개인 농민들에게 협동 조합의 우월성을 계속 선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 농민들을 천대하여도 안 되며 또한 그들을 억지로 협동 조합에 인입하려고 하여도 안됩니다. 협동 조합에 들어 온 후에 개인농으로 있을때보다 적어도 생활 수준이 떨어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 협동 조합에 들어 오지 않은 농민들을 인입하려면 협동 조합 자체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협동 조합이 강화되고 조합원들의 생활이 아직 남아 있는 개인 농민들의 생활 보다 높아진다면 그들은 권고하지 않아도 협동 조합에 들어 올 것입니다. 분산된 산간 지대를 제외 한다면 아직 협동 조합에 들어 오지 않고 있는 농민들이란 그 대부분이 비교적 잘 사는 농민들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네째로 목축업을 발전시키며 공예 작물을 더 많이 재배하며 각종 부업 경리들을 조직하여 협동 조합의 부수입을 증가시켜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알곡 생산을 기본으로 하며 거기에 중점적 력량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알곡 하나만 가지고서는 협동 조합들의 수입을 급속히 증가시킬 수 없습니다. 축산업도 발전시키고 공예 작물과 채소도 생산하며 과수원도 경영하며, 양잠 양봉 등도 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경리를 다각적으로 조직한다면 협동 조합의 부수입을 훨씬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만일 로력을 잘 조직하고 예비를 옳게만 동원한다면 기본 부문인 알곡 생산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협동 경리를 다각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업 경리 발전은 많은 경우에 알곡 생산의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우선 축산업에 관하여 말하여 봅시다. 현재 축산업 발전에서의 기본은 협동 조합들에서 무축 농가를 퇴치하는 문제입니다. 매개 농호에서 조선 소, 돼지, 양, 닭, 오리 등을 기르게 된다면 농민들의 부수입이 증가될 뿐 더러 국가적으로 육류 생산을 현저히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양 한 마리만 기르면 1년에 세루 양복 한 벌씩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무축 농가를 퇴치할 수 있는가? 물론 퇴치할 수 있습니다. 실지 경험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성천군 온정리 백운 농업 협동 조합에서는 1954년 조직 당

시에 소는 여섯 마리 있었고 조합에 망라된 농호 116호중 66호가 무축 농가였습니다. 그런데 1956년에는 공동 가축으로서 소는 50두, 양은 81두에 달하였으며 축산물 판매로부터 현금 56만 3천원을 획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 가축으로서 소 7두, 돼지는 137두에 달하였고 무축 농가는 완전히 퇴치되였습니다. 이 협동 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이 자체 구입하였거나 새끼 돼지를 생산 공급하는 방법으로써 이러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다른 협동 조합들도 이러한 모범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특히 산간 지대 협동 조합들에서는 반농 반목축의 방향으로 경리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런 지방에서는 알곡 하나만 가지고는 도저히 수입을 제고할 수 없으며 조합원들의 생활을 개선할 수 없습니다. 목축업을 발전시키려면 사료 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료 기지를 확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한지들을 많이 리용하여 목초를 광범히 재배하여야 하겠습니다. 경지로서 효과적으로 리용할 수 없는 땅을 그대로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목초 재배지로서 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땅에 옥수수와 같은 작물을 심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옥수수가 잘 안되여도 사료 획득에는 매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동원할 만한 사료 원천은 적지 않습니다. 례컨대 아까시아 나무나 또는 칡, 말굴레풀, 쥐콩, 크로바 등 두과 식물이 풍부한 데 이런 것은 사료로서 매우 좋습니다. 만일 이런 것들을 인공적으로 재배한다면 더 많은 사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료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씰로쓰 생산입니다. 작년에 우리는 처음으로 씰로쓰를 광범히 생산하여 보았습니다. 우리의 첫 경험은 이것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한 협동 조합에 나가 보니 씰로쓰를 많이 생산하여 지금은 가축에게 낮에도 퍼 먹이고 밤에도 퍼 먹이니까 콩을 먹이지 않고도 살이 통통 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 당이 시키는 대로 하면 다 잘 된다고 합니다. 씰로쓰를 생산하여서 실패한 협동 조합은 별로 없으며 모두가 성공하였습니다. 이런 효과적인 방법은 계속할 뿐 아니라 더욱 장려하여야 하겠습니다.

목축업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지방 실정에 알맞는 축종을 택하며 종자를 개량하여야 하겠습니다. 평남도 같은 곳에서는 돼지는 물론 조선 소, 양, 산양 등 초식 동물이 좋습니다. 면양은 세모종 또는 반 세모종으로 개량하여 기르며 조선 소를 젖소로 개조하는 사업도 연구하여 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일 이것이 성공만 한다면 축력으로도 쓸 수 있고 고기도 먹고 우유도 먹을 수 있습니다. 협동 조합에서 목축업을 처음부터 준비 없이 집단적으로 하려면 힘들지만 매개 농호에서 두 세 마리씩 키운다면 능히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하려면 큰 축사도 지어야 하고 추가적 로력이 요구되며 사양 관리도 힘들며 사료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매 농호에서 조금씩 나누어서 기른다면 큰 축사도 필요 없으며 로력도 더 요구되지 않고 사양 관리도 쉽습니다. 사료 문제에 있어서도 농가에 있는 적지 않은 예비를 더 동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예 작물과 채소 생산에 대하여 말하여 봅시다. 우리 나라에서는 섬유 원료가 매우 부족합니다. 우리 경공업은 농촌 경리로부터 극히 적은 수량의

면화를 공급 받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우리는 국내에서 섬유 원료를 충분히 해결하기 곤난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화학 섬유를 얻기 위하여 적극 연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능한 모든 힘을 다하여 공예 작물 생산을 증가시켜 섬유 원료의 수입을 감소시키며 공업에 방조를 주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기후 조건 특히 평남도 같은 데서는 면화, 연초, 대마, 락화생, 해바라기, 피마주 등 모든 것을 심을 수 있습니다. 협동 조합들에서 이러한 것을 많이 심어 공업에 도움을 주며 동시에 자기 부수입을 증가시켜야 하겠습니다. 해바라기, 피마주 등은 알곡 파종 면적을 잡아 먹지 않고도 매개 농가에서 밭머리, 집 주위 등에 많이 심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녀맹원들, 민청원들, 심지어 소년단원들까지 동원하여 군중'적 운동으로 전개한다면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면화, 담배, 아마, 대마 등은 적지 적작의 원칙에 근거하여 가능한 파종 면적을 보장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면화는 잘 되는 좋은 땅을 택하여 파종하여야 합니다. 공예 작물 재배 면적을 확장하기 위하여서는 국가에서 그의 수매 가격을 옳게 정하여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예 작물 수매 가격은 국가의 리익도 고려하고 농민들에게도 유리하도록 하여 그의 재배를 자극할 수 있게끔 설정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는 공예 작물 재배를 장려하기 위하여 비료, 종자 등을 적극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물질적 조건을 조성하여 주어야 합니다.

채소를 많이 재배하여 조합원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뿐 아니라 로동자들에게도 공급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도시와 공장 주변의 협동 조합들에서 채소를 많이 심어 로동자 지구에 공급하여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합원들의 수입을 높이며 로동자들을 도와 주는 것으로 됩니다. 도시 주변 협동 조합들은 로동자 지구에 채소와 기타 식료품을 판매하는 직매점을 설치하거나 또는 공장들과 거기에 있는 국가 및 소비 조합 상점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중매 상인들의 손을 거치지 않으므로 로동자들에게도 유리하고 농민들에게도 유리하며 상품을 더 원활히 공급할 수 있습니다.

협동 조합의 부수입 원천으로써 과수원도 확장하여야 하겠습니다. 평남도에는 야산이 많은 까닭에 과수원을 대대적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사과, 포도, 밤 같은 것이 평남에서 아주 잘 됩니다. 조선 사과는 맛좋기가 세계적으로 유명하며 평남 사과는 조선에서 이름났습니다. 맛좋은 사과를 많이 생산하여 주민들에게 공급하며 수출도 하여야 하겠습니다. 과수원을 확장하려면 협동 조합들에 묘목을 집중적으로 생산 공급하여야 합니다. 국가에서 이 사업을 적극 방조할 것입니다. 동시에 가능한 정도에서 협동 조합 내에서도 묘목을 생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밖에도 뽕나무를 많이 심어 양잠업도 발전시키며 양봉도 하여야 하겠습니다.

요컨대 매개 협동 조합의 구체적 조건을 옳게 타산하여 부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모든 원천을 백방으로 동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무들!

이상에서 나는 농촌 경리 발전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문제만을 언급하였습니

다. 많은 동무들이 자기 토론에서 1957년도 농촌 경리 계획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초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과에 도취하여 자만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 농촌 경리는 아직도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알곡과 공업 원료가 대단히 부족합니다. 이것을 동무들은 잠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 알의 쌀, 한 그람의 면화라도 더 생산하기 위하여 모든 열성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는 동무들이 자기 결의를 빛나게 실천하리라는 것을 믿어 마지 않습니다. 협동 조합이 강화되고 농민들의 열성이 제고된 조건에서 농촌 지도 일'군들의 사업을 개선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먹치기식으로 우리 농촌을 지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농촌 지도 일'군들은 우리 농촌의 새로운 환경에 따라서 새로운 방법으로 지도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나선 목전의 임무는 금년도 영농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후에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철저히 계획적으로 추진시켜야 할 것입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종자를 량'적으로 확보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우량 종자를 준비 보장하는 문제입니다. 매개 지방의 기후, 풍토 조건에 알맞는 우량 종자를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동기 자급 비료 생산을 강력히 추진시켜야 하겠습니다. 비료가 수확고 제고에서 결정적이라고 하면서도 아직 소요량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굼뜨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관개 수로 준설 공사를 추진시키며 관개 시설의 수리 보수를 실시하여야 하겠습니다. 전모 육성을 위한 자재와 농기구도 준비하며 필요한 기술 강습도 진행하여야 합니다.

우리 앞에는 지금 당장 할 일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 모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동무들의 증산 목표가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즉시로 이 모든 사업에 전력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금년 농사의 성과 여부가 크게 달려 있습니다. 나는 동무들이 금년 농업의 성과를 위하여 영농 준비에 모든 힘을 다할 것을 바랍니다. 동무들이 이 사업을 반드시 성과적으로 수행하리라고 믿습니다.

정 의 의 군 대

김 일성 동지의 직접적 지도하에서의 우리 당에 의한 인민 군대의 창건, 이는 조선 인민이 혁명적 실천에서 쟁취한 위대한 승리였다. 우리 당에 의하여 조직된 인민 군대는 창건 첫날부터 우리 인민이 달성한 고귀한 혁명적 전취물들을 수호하며 우리 조국과 민족을 보위할 고상한 력사적 사명을 지니였었다.

영웅적 조선 인민군이 걸어온 승리와 영광에 가득찬 전투적 행로는 그가 당과 인민의 이 절실한 기대에 무한히 충실한 진정한 인민의 무력이며 정의의 군대이라는 것을 빛나게 보여 주고 있다.

해방후 조선 인민이 달성한 민주 건설의 성과들과 우리의 인민 민주주의 제도를 수호하며 인민의 평화적인 창조적 로력을 보위하기 위한 가혹한 투쟁의 시련을 영예롭게 극복하여 온 조선 인민군은 특히 지난 조국 해방 전쟁에서 고상한 애국주의와 전례 없는 대중적 영웅주의를 발휘하여 미제 침략자들과 리 승만 도당을 격파 분쇄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자유와 조국의 독립을 수호하였을 뿐만 아니라 극동 및 세계 평화 유지에 막대한 기여를 하였다. 우리 당에 의하여 진정한 애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정신으로 교양되고 무장된 조선 인민군은 자기 조국과 인민에 충실하며 평화 위업에 충실한 정의의 군대로서의 영웅적 기개를 전 세계에 보여 주었다.

경험은 어떠한 침략자도 혁명적 당의 령도하에 자각되고 단결된 인민, 그리고 위대한 사회주의 대가정 속에 결속된 인민과 그의 군대를 굴복시킬 수 없으며 그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을 탈취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리하여 찬란한 미래를 향하여 매진하고 있는 조선 인민은 자기의 력사적 경험을 통하여 모든 행복하고 보람찬 생활, 영웅적 인민의 높은 긍지와 영예가 우리 인민 군대의 위훈 찬연한 전투적 길과 깊이 련결되여 있다는 것을 절실히 리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 조선 인민군 창건 제9주년을 맞는 전체 조선 인민은 우리 인민의 진정한 무력이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지도하에서 더욱 더 단련 강화되고 있는 것을 무한히 자랑하며 조선 인민군 전체 장병들에게 끓어 넘치는 사랑과 존경을 보내며 전 인민적 영예와 축하를 드리는 것이다.

혁혁한 승리적 위훈으로 빛나는 조선 인민군이 백전 백승하는 그 힘의 원천은 무엇에 있으며 어떠한 제국주의 침략자들의 침해로부터도 자기의 고상하고 신성한 임무——우리 인민의 리익과 조국의 자유 독립을 고수할 수 있는 그 위력의 원천은 무엇에 있는가?

그것은 정의의 군대로서의 우리 인민 군대의 성격 자체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다.

우리 인민군 장병들의 혈맥 속에는 우리 선조들의 애국적 전통, 특히 김 일성 동지의 항일 무장 투쟁의 애국적 전통과 불굴의 혁명 전통이 고동치고 있다.

우리 인민 군대는 오랜 세월을 두고 자기의 진정한 무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온갖 쓰라린 고통을 다 겪어 온 조선 인민의 절절한 애국적 지향과 념원에 의하여 창건되였다.

이처럼 조선 인민군은 조선 인민의 절실한 민족적 념원에 의하여 창건된 인민의 군대이며 빛나는 애국 전통을 직접 계승하고 있는

혁명 군대이다.

그가 전체 조선 인민으로부터 육친적인 사랑과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기인한 것이며 그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 복무한다는 고상한 사상과 당과 정부의 령도하에서 쟁취한 우리 인민의 혁명적 전취물들을 고수한다는 견결한 의지로써 관통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사정에 기인되는 것이다.

실로 정의의 군대인 조선 인민군 장병들에게 있어서 우리 인민의 혁명적 전취물들을 수호하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 복무한다는 것은 다함 없는 자랑과 궁지로, 가장 보람 있는 임무로 되고 있다.

지난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 우리 인민 군대가 조국의 촌토를 피로써 지키고 어뢰정으로써 적 순양함을 수장하였으며 몇배나 우세한 적의 공중 비적들을 격파한 그 청사에 길이 빛날 영웅적 위훈은 그들이 품고 있는 우리 혁명에 대한 충실성,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성에 의하여 이루어 진 것이다.

전후 우리 인민의 거창한 평화적 로력 투쟁을 보위하기 위하여 평화의 방선에 믿음직하게 서 있는 조선 인민군은 각 방면으로 자기의 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한편 도시와 농촌, 기타 복구 건설에서 수 많은 업적을 쌓아 올렸고 사회주의 건설에서 거대한 로력적 위훈을 세우고 있다. 우리 인민군 장병들의 애국주의적 헌신성과 고상한 도덕적 풍모는 여기에서도 여실히 표시되고 있다.

이 모든것은 군대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조국을 반역하고 인민을 탄압하는 반동적 리 승만 도당에게 복무함으로써 후방으로부터 즉 인민들로부터 어떠한 지지도 받지 못하고 철저히 고립되여 있으며 전투에서 용감성과 영웅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어떤 원천도 가지고 있지 못하는 리 승만 괴뢰군과 같은 일체 낡은 군대와 근본적으로 구별되게 하는 정의의 군대로서의 우리 인민 군대의 중요한 성격이다.

우리 인민 군대가 백전 백승하는 위력의 원천은 또한 그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충실한 군대이라는 데 있다. 맑스—레닌주의에 기초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의하여 교양되였고 그 기치에 무한히 충실한 조선 인민군은 조선 인민의 정의의 위업이 세계 프로레타리아 혁명 운동의 중요한 일환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철저히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자기 조국과 인민을 수호하는 그의 임무가 곧 세계 각국 인민들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투쟁,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한 투쟁과 밀접하게 련결되여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조국과 인민을 수호하는 자기 사명을 영예롭게 수행하여 왔으며 또 수행하고 있는 조선 인민군은 비단 우리 인민의 열렬한 사랑과 지지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의 무한한 신뢰와 성원도 받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군대가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타국 인민들에 대한 멸시와 증오의 사상으로, 협애한 민족주의, 배타주의 사상으로 교양되여 타국 인민에 대한 파렴치한 탄압자, 교살자로 복무하며 세계 인민들의 리익에 배반되게 행동함으로써 모든 나라 인민들로부터 격렬한 증오를 받고 있는 그러한 제국주의 군대와 근본적으로 구별하게 하는 정의의 군대로서의 우리 인민 군대의 성격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이 우리 인민 군대의 불패의 위력의 원천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번 미, 영 무력 침공자들이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을 개시하였을 때에 명백히 보았는 바 그때에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사상으로 교양되였으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인민 군대는 전 세계 각처에 자기의 무수한 벗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주 뚜렷히 보여 주었던 것이다.

영웅적 조선 인민군이 정의의 군대로서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성격과 특징들이 우리 군대의 힘의 원천을 이루고 있으니 우리의 과업은 이 모든 것들을 더욱 더 확고 불발하게 공고 발전시키는 데 있다.

조선 인민군의 튼튼한 수호 밑에서 우리 당이 부르는 전후 복구 건설의 길에서 3개년 계획을 빛나게 초과 완수하고 사회적 생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전쟁의 상처를 기본'적으로 회복하고 전쟁전 생산 수준을 릉가하는 거대한 성과를 쟁취한 조선 인민은 오늘 승리의 개가 드높이 승승 장구의 기세로 1957년도 인민 경제 계획 실행의 길에 들어 섰다.

우리 당 중앙 위원회 12월 전원 회의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이 해에 우리는 인민 경제의 주도적 부문인 중공업, 특히 금속, 석탄, 화학, 기계, 전력 공업 부문의 급속한 발전을 계속 도모하는 동시에 인민 생활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광범한 대책을 예견하면서 생활 필수품 생산을 적극 확장하여야 한다.

물론 추가적 투자를 하지 않거나 또는 극히 적게 하면서 작년보다 현저히 장성된 금년 계획을 성과있게 수행한다는 것은 그리 용이한 일이 아니며 우리가 해야할 일은 많다.

그러나 당 중앙 위원회 12월 전원 회의가 강조한 바와 같이 현존하는 내부 원천을 옳게 동원 리용하며 지난 3년 동안에 만들어 놓은 훌륭한 설비들을 최대한으로 리용한다면 우리는 밑천을 더 들이지 않고도 훨씬 더 많은 생산을 낼 수 있다.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당의 이 호소를 받들고 대중적으로 궐기하였다. 각처의 공장, 기업소들과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 자기들의 증산 목표를 반드시 실천하고야 말 만만한 투지 밑에 이 해의 첫달부터 그들의 결의를 빛나게 실천하고 있는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실로 오늘 기록적인 성과들을 달성하고 있다.

오늘 강력한 인민의 무력인 조선 인민군이 조국 보위의 초소에 굳건히 서 있음으로 하여 자기들의 이러한 창조적 로력 투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그 성과가 공고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는 조선 인민은 또한 우리의 위업이 적들——미제와 리 승만 도당들에 의하여 항상 위협당하고 있다는 것을 순시도 잊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국제 국내 사태와 제국주의 반동들의 음모를 높은 혁명적 경각성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는 조선 인민은 자기들이 진행하고 있는 정의의 위업을 보위하기 위하여 인민의 무력을 가일층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고 있다.

최근 미제를 선두로 한 제국주의자들은 평화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반대하기 위하여 국제 긴장 상태를 격화시키려고 발광하고 있다.

애급에 대한 영, 불, 이스라엘의 군사적 침략 행동이 쏘련을 선두로 한 사회주의 국가들과 아세아 및 아프리카의 다수 국가들의 강경한 태도와 애급 인민의 영웅적 투쟁에 의하여 좌절되였으며, 미제를 두목으로 한 국제 반동이 웽그리야에서 도발하였던 반혁명 음모가 사회주의 진영의 적극적 성원을 받은 웽그리야의 로동 계급과 근로 대중의 단합된 력량과 쏘련 군대의 직접적 원조에 의하여 파탄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자들은 아직도 자기들의 패배를 교훈으로 삼으려 하지 않고 세계 도처에서 침략적 파괴 활동과 음모를 계속 감행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중근동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을 압살하고 이 지역 인민들을 예속하기 위하여 소위 《아이젠하워주의》를 내걸고 이 지역에서 침략과 전쟁 정책을 강행하려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원자 무기로 장비되는 특별한 사명을 가진 원자 군부대들을 창설하고 극동으로부터 중근동을 걸쳐 서구라파에 이르는 일련의 타국 령토에 그 주둔 기지를 설치하려고 획책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이러한 악랄한 책동에 발맞추어 최근 리 승만 도배는 미제의 사촉하에 남조선에서 《북진》 소동을 더욱 발광적으로 선동하고 있으며 공화국 북반부에 대한 파괴적 책동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전후 시기에 있어서도 당과 정부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조선 인민의 절실한 념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온갖 가능한 조치들을 계속 취하고 있는 바 특히 8만명의 조선 인민군 축소는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진시키기 위한 행동상 모범이였다. 그러나 조선 인민의 이 일치한 념원을

무시하는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은 괴뢰군을 발악적으로 증강시키면서 전쟁 준비에 광분하고 있는바 오늘 괴뢰군 사단 수는 정전 당시에 비하여 2배 이상으로 늘었으며 1957년도 군사 경찰비 지출은 실로 괴뢰 정부 전체 예산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북진》 소동의 그늘에서 침략적, 매국적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미제와 리 승만 도배는 작년 11월 28일 서울에서 《한미 우호, 통상 및 항해 조약》을 조작함으로써 남반부 인민들을 더욱 혹심한 불행과 고통 속에 몰아 넣는 또 하나의 침략적, 매국적 행동을 감행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전체 우리 인민과 남 북 조선의 애국자들 속에서 응당한 격분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은 최근 또 다시 전체 조선 인민의 일치한 요구를 배반하고 유엔 총회 11차 회의에서 조국의 통일 달성을 방해하는 결의안을 비법'적으로 채택케 하였으며 특별 정치 위원회에서 남조선을 일방적으로 유엔에 가입시키려고 시도하는 등으로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길 우에 또 하나의 새로운 장애를 조성하려 하고 있다. 전체 조선 인민의 일치한 규탄을 받고 있는 이러한 행동을 감행함으로써 그들은 우리 조국의 분렬을 더욱 심화시키며 조선에서의 긴장 상태를 더욱 격화시키고 남조선을 새 전쟁 도발의 근원지로 삼으려는 그의 의도를 다시 한번 명백히 하였다.

바로 이러한 현 정세는 우리 인민 앞에 혁명적 전취물들을 철저히 고수하기 위하여 인민 군대를 백방으로 강화해야 할 의무를 더욱 증대케 한다. 우리는 우리의 위대한 전취물들을 보위할 수 있는 국방력을 소유함이 없이는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도, 조국의 평화적 통일 위업도 보장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전체 인민군 장병들은 당과 인민의 이 절실한 요구에 보답하여 소정의 전투 정치 훈련을 높은 질'적 수준에서 성과 있게 조직 진행함으로써 자기의 군사 정치적 지식을 더욱 제고하고 군사적 기능을 현대 전쟁의 요구의 수준에까지 제고시키며 부대의 강철같은 군사 기률과 군사적 질서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는 한편 인민들과의 련계를 더욱 강화하고 원쑤들에 대한 혁명적 경각성을 더욱 높여야 할 것이다. 인민군 장병들은 조국과 인민과 당에 무한히 충성한 강철의 혁명 투사로서 인민들의 지지와 신뢰, 인민들의 기대와 희망에 어그러짐이 없이 어떠한 원쑤들의 침해로부터도 조국과 인민의 자유 독립을 수호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여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체 인민들은 인민 군대를 지지 원호하는 사업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우리 인민 군대와 국방력을 강화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 후방을 가일층 공고히 하기 위하여 더욱 앙양되고 긴장된 로력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1957년도 인민 경제 계획의 성공적 완수를 위하여 궐기한 전체 근로자들은 모두다 《증산과 절약》의 전투적 구호하에 내부 예비를 적극 탐구 리용하며 국가 재정과 원료 자재를 애호 절약하며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하고 원가를 저하시키며 국가 및 로동 규률을 강화하기 위한 애국적 증산 경쟁 운동의 불'길을 더욱 높임으로써 금년도 계획을 성과 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인민 군대를 더욱 강화하는 길이며 우리의 정의의 위업——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키는 바로 그 길이다.

10년 여에 걸쳐 축성하여 놓은 거대한 생활력을 가진 인민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위대한 쏘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 인민들과의 국제주의적 친선 단결을 강화하면서 정당한 위업 달성을 위하여 나아가는 조선 인민은 백전백승의 맑스—레닌주의에 의하여 지도되며 조선 인민의 근본적 리익을 대표하는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탁월한 령도를 받고 있다.

어떠한 원쑤도 우리의 무궁 무진한 창조력과 단결되고 통일된 력량을 타승할 수는 없으며 우리 인민의 전진 운동을 막아 낼 수는 없다.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충실하는 것은 우리의 숭고한 의무이다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부위원장 박 금 철

오늘 사회주의는 이미 한 나라의 범위를 벗어나 세계적 체계로 전환되였다. 이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세계 혁명 발전의 거대한 전진을 의미한다. 그의 위력은 크며 그의 영향력과 견인력도 비할 바 없이 크다. 아직 자본주의 쇠사슬을 벗어 버리지 못한 자본주의 국가 프로레타리아트와 근로자들의 혁명적 력량도 크게 자라났다. 민족적 자유와 독립을 갈망하는 피압박 민족들도 제국주의 기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으며 또 나오고 있다. 전 세계의 선량한 량심을 가진 진보적 인류의 압도적 다수가 전쟁을 반대하는 강력한 평화 옹호 력량을 이루고 있다.

오직 쏘련 한 나라 만이 사회주의 국가로 있을 때에 비하면 국제 공산주의 운동은 놀랄만큼 거대한 전진을 가져 왔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국제주의적 단결을 더는 강조할 필요가 없게 되였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왜냐 하면 공산주의 운동은 그 본질에서 국제주의적이며 국제 사회주의 력량의 단결과 친선의 형태는 앞으로 더욱 풍부히 될 것이며 국제적 단결의 의의는 더욱 증대성을 띠여 가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세계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한 우리들의 숭고한 위업을 방해하는 자들이 우리의 성과가 크면 클수록 더욱 더 발광적으로 발악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승리한 사회주의 및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국가 건설, 경제, 문화 건설, 인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투쟁에서 이미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들을 적들로부터 고수하며 그를 더욱 공고 발전시켜야 하며 완성하여야 하는 바 이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지난날에도 그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여기에는 사회주의 진영 각국간의 참다운 국제주의적 친선과 단결의 기초 우에서 이루어지는 정치, 경제적 또는 과학, 문화적 호상 협조와 원조가 필요하며 이 나라들 사이의 사회주의 건설의 풍부한 경험의 호상 교환이 필요하다.

다른 편으로 지구상에는 아직 국제 제국주의 진영이 존재하는 바 그들은 다같이 자기 나라의 모든 혁명적, 진보적 력량에 탄압을 가하는 한편 승리한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파괴, 암해 공작에 광분하고 있으며 민족적 자유와 독립을 위한 식민지 및 예속 국가 인민들의 투쟁을 압살하려 하고 있으며 세계 각처에서 침략과 전쟁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가 체험한 조선 전쟁, 얼마전의 웽그리야에서의 반혁명적 사건과 애굽에 대한 영, 불 식민주의자들의 침략 만을 례로 들더라도 이것을 증명하기에는 충분하다. 이것은 평화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진영의 강대한 힘이 날로 장성해 가는 데 겁을 집어 먹은 제국주의자들의

발악적인 모험적 파괴, 침략 행위이다.

만일 조선이나 웽그리야나 애급이 고립 무원하게 남아 있었다면 어떻게 되였을 것인가? 만일 그렇게 되였다면 이 나라 인민들은 오늘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한심한 처지에 놓여 있게 되였을 것이며 아세아와 구라파와 그리고 아프리카의 북부에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새로운 전쟁의 온상이 생겼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 인민은 쏘련과 중화 인민 공화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의 지지 원조와 전체 진보적 인류의 동정과 성원에 의하여 미제가 강요한 3년간의 간고한 전쟁에서 미제를 비롯한 강대한 제국주의 군대의 련합 세력을 격퇴하고 승리적 정전을 달성하였다. 웽그리야 인민은 쏘련 군대의 원조로 하여 반혁명 반란을 진압하고 자기들의 사회주의적 전취물을 고수하여 냈다. 애급 인민은 쏘련을 비롯한 세계 평화 옹호 력량의 지지 성원으로 하여 영, 불 식민주의자들의 침략을 저지시켰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 사변들에 있어서 긍정적 결과를 가져다 준 요인은 맑스—레닌주의적 사상에 기초하고 있으며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기치 밑에 단합된 사회주의 세계 혁명 세력과 그 영향 아래 이루어 진 평화 옹호 력량이다. 전체 진보적 인류의 단합된 힘이 침략을 물리치고 전쟁을 막아 냈으며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였으며 이 나라 인민들의 영예를 수호하였다.

사회주의 및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 그 어느 한 나라의 성과는 곧 전체 사회주의 진영, 나아가서는 세계적 범위에서의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성과로 되며 그 어느 한 나라의 손실이 또한 마찬가지로 이 전체의 손실로 되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들의 리해 관계는 공통하며 따라서 원쑤들의 파괴 행위로부터 이 나라들의 혁명의 전취물을 공동으로 수호하며 이 나라들 간에 호상 친선하며 단결하며 협조하며 원조하여야 한다는 것은 필요 불가결한 것이며 또 의무적인 것으로 되여야 한다는 것은 물론이다.

사회주의 국가들, 각국 공산당 및 로동당들, 전 세계 로동 계급 및 근로자들의 친선과 단결을 강화하며 그 주위에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감행되는 침략과 전쟁을 반대하며 평화와 민족적 자유를 옹호하는 일체 진보적 력량을 단합시키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는 것도 또한 자명하다.

제국주의 침략 계층들은 오늘도 자기들의 음흉한 침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속 《랭전》을 격화시키고 있으며 세계 각처에서 모험적 파괴 침략 음모를 더욱 더 로골화하고 있으며 배타적 애국주의, 협소한 민족적 감정, 민족적 불화의 일부 잔재들을 리용하여 사회주의 제국의 단결을 파괴하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 분렬을 조성시키며 전 세계에서 부단히 높아지고 있는 맑스—레닌주의 사상의 권위를 훼손시켜 보려고 소위 《반 공산주의 선전》에 광분하고 있다.

조성된 현 실정은 국제 사회주의 력량의 전투적 단결을 가일층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있어서 오늘 각국 공산주의자들 앞에는 무엇보다도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옹호하며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제 원칙에 충실하는 것이 선차적 의무로 제기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단결은 맑스—레닌주의의 공통한 사상에 기초하고 있으며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정신에 립각하고 있으므로 이 기초를 공고히 하는 것은 곧 우리의 단결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진리 또는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제 원칙으로부터의 리탈은 그것이 어떠한 구실하에서 진행되든지간에 곧 수정주의, 기회주의를 의미하며 사회 배외주의, 부르조아 민족주의를 의미하며 따라서 그것은 국제 공산주의 대렬의 단결을 약화시키며 우리들의 원쑤를 도와 주는 제국주의의 앞잡이로 전락되였다는 수 많은 사실을 우리는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경험에서 보고 있다.

일찌기 레닌은 《…모든 나라 정부들과 부르조아지가 로동자들을 분렬시키고 그들을 호상 사촉하기에 더욱 더 열중하면 할수록…자기 계급의 단결, 국제주의, 사회주의적 주장을 고수하는 것이 의식적 프로레타리아트의 더욱 더 현실적 의무로 된다》고 교시하였다.

레닌의 이 가르침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더욱 특별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오늘과 같은 복잡한 정세하에서 우리의 국제적 단결을 약화시키려는 어떠한 요소라도 용납할 수 없다.

이로부터 우리는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진리,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경험에 의하여 확증된 사회주의 혁명 및 사회주의 건설의 일반적 합법칙성,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검열된 제 원칙——이 모든 것으로부터의 어떠한 종류의 동요, 리탈, 수정주의적 및 민족주의적 립장에로의 전락, 최근에 류포되고 있는 소위 《민족적 공산주의》 사상 등과의 견결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국제 공산주의 운동을 발전시키며 이 운동의 대렬을 일층 단결하며 강화함에 있어서 쏘련의 존재와 그가 달성한 세계사적 성과들은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 후 국제 공산주의 운동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 섰으며 각국 프로레타리아트의 국제적 단결은 새로운 형태에서 일층 발전 강화되였으며 또 되고 있다. 이것은 10월 혁명 승리의 결과 지구의 6분의 1의 지역에 세계에서 첫 사회주의 국가인 쏘련이 출현하게 되였으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강력한 중심을 이루어 놓았기 때문이다.

쏘련이 국제 로동 운동의 중심으로 되고 있는 것은 그가 비단 강대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쏘련이 바로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의 수립, 사회주의 국가 건설과 사회주의 경제 문화 건설, 사회주의의 원쑤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가장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쏘련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와 옹호는 항상 우리 공산주의자들의 신성한 의무로 된다.

현 시기 사회주의 제국간의 단결, 각국 공산당 및 로동당들 간의 단결을 강화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것은 국제 프로레타리아트의 공통적인 과업과 매개 나라들의 민족적 리익의 일치성, 맑스—레닌주의의 보편적 진리와 그를 적용함에 있어서 매개 나라들의 특수성에 대한 옳바른 인식 문제이다.

지금 우리 진영의 단결을 분렬 약화시키려는 원쑤들의 공세의 화' 살이 바로 이 측면에 집중되여 있다.

맑스—레닌주의는 매개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혁명 및 사회주의 건설의 형식과 방법들은 해당한 나라들의 구체적인 사회 력사적 조건과 민족적 특성에 의하여 각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맑스—레닌주의는 매개 나라에 특수성들이 있다 할지라도 맑스—레닌주의의 보편적 진리와 사회주의 혁명 및 사회주의 건설의 일반적 합법칙성은 반드시 세계적 규모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우리 당은 항상 맑스—레닌주의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그의 진리와 형제 당들의 경험들을 우리 나라의 구체적인 현실에 부합되게 창조적으로 적용함에 심중한 주의를 돌려 왔으며 그 행정에서 온갖 기회주의적 편향들과 타협없는 투쟁을 진행하여 왔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 국가——쏘련의 해방군이 주둔한 북조선의 민주 기지 로선을 반대한 우경 투항주의 분자들과 당을 대중으로부터 고립시키려던 좌경 기회주의 분자들의 책동을 분쇄하고 항상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기치를 옹호하여 왔다.

또한 우리 당은 일부 동무들이 우리 나라의 실정을 연구하지 않고 심지어는 과거 우리 인민의 애국적 전통과 문화 유산 등을 무시하고 외국의 경험을 기계적으로 모방함으로써 당 사업 발전에 저해를 주던 교조주의적 편향을 제때에 시정하고 우리 사업에 주체를 확립하며 우리 혁명의 력량을 강화하기에 계속 노력하고 있다.

사회주의 진영의 단결과 국제 로동 운동의

대렬을 강화함에 있어서 매개 나라들의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내부 통일과 단결의 강화는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국제 사회주의 력량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쏘련 공산당을 중심으로 하는 각국 공산당 및 로동당들 간에 리간을 조성하며 매개 나라 당들의 내부를 와해시키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당내 사상 의지의 통일을 와해하려는 일체 불건전한 요소들에 대하여 높은 경각성을 견지하여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최근 웽그리야 사변에서 있은 경험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당내에 임레 나지와 같은 반당적 종파가 제때에 제거되지 않고 조장되였을 때에 그는 당을 마사먹으며 혁명을 위기에 처하게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명심할 필요가 있다.

우리 당은 그 창건 초기부터 당내에 어떠한 프락치야의 존재도 허용하지 않으며 그와 추호도 타협하지 않는 원칙을 시종 일관 견지하여 왔다.

최근에 만 하여도 우리 당 중앙 위원회 8, 9월 전원 회의는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이 우리 북조선과 우리 당에 대한 도발적 깜빠니야를 격화하고 있을 그때에 엄중한 반당적 종파 활동을 감행한 일부 분자들을 제때에 폭로 비판함으로써 당의 사상 의지 및 행동상 통일을 가일층 강화하였다.

우리는 우리 혁명의 참모부인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며 우리 혁명의 전취물을 철석같이 고수하며 우리의 초소를 굳건히 고수하는 것을 사회주의 진영의 단결과 국제 로동 운동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전 세계 로동 계급과 근로자들은 자본주의의 노예적 기반으로부터 자신을 해방하기 위한 공통한 리해 관계로부터 출발하여 일찌기 맑스와 엥겔스가 제기한 《만국의 프로레타리아들이여 단결하라!》라는 혁명적, 전투적 구호, 즉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정신에서 살아왔으며 또 살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이 어떠한 파괴, 침략 활동을 감행하든 지 간에 우리의 단결은 확고하며 우리의 대렬은 부동하다.

작년 말과 금년 초에 걸쳐 진행된 사회주의 제 국가간, 각국 공산당 및 로동당들 간의 회담들은 우리의 국제주의적 친선과 단결을 일층 강화함에 있어서와 제국주의 반동 계층들의 책동을 분쇄함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이 회담들에서는 맑스—레닌주의 리론의 일련의 중요한 원칙적 문제들과 사회주의 각국의 대내외 정책 문제들에 대한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견해 및 행동의 일치성을 보여 주었다.

이것은 국제 공산주의 대렬을 가일층 단결함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새로운 성과와 전진을 의미하며 국제 제국주의 진영에 대한 거대한 타격을 의미한다.

전 세계 로동 계급의 공동의 위업과 조선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며 자기 대렬을 더욱 더 결속시키고 있는 조선의 전체 근로자들은 이 회담들이 달성한 성과들을 큰 만족감으로 맞이한다.

사회주의 제 국가 인민들, 각국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이와 같은 전투적, 혁명적 친선과 단결이 보장되여 있는 한 그리고 전 세계 평화 애호적 력량이 이 주위에 튼튼히 단합되여 있는 한 우리는 능히 적들의 모든 기도를 분쇄하고 력사가 지향하는 바 우리의 위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것이다.

우리 당 제2차 대회와 그의 력사적 의의

박 연 백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당 제2차 대회는 우리 당과 우리 혁명 발전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대회는 1948년 3월 27일—30일에 걸쳐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이 시기는 해방후 그때까지의 우리 조국 력사에 있어서 극히 엄중한 시기였다. 남반부를 강점한 미제와 그의 주구 리 승만 도당은 이 시기에 남조선에서 단독 《선거》 음모를 로골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우리 조국에는 국토 량단과 민족 분렬의 위기가 더욱 심각화되였으며 우리 당이 령도하는 조선의 혁명 세력과 반혁명 세력간에 계급 투쟁은 일층 첨예화되였었다. 다른 한편으로 대회가 진행된 그 시기는 조선 인민들이 우리 당의 령도하에 공화국 북반부에서 제반 민주 개혁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여 우리 혁명의 강력한 원천지를 창설 강화함에 있어서 거대한 승리를 달성하였으며 북반부는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에 들어 선 시기였다.

이러한 시기에 소집된 우리 당 제2차 대회는 자기의 기본'적 주의를 국토 량단과 민족 분렬을 책동하는 미제와 그의 주구 리 승만 도당의 남조선 단독 《선거》 책동을 파탄시키고 전체 애국적 민주 력량을 더 일층 튼튼히 결속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을 실현하며 그러기 위하여 해방후 2년반 나머지의 기간에 북반부에서 제반 민주 개혁과 민주 건설을 진행하는 행정에서 달성한 제 성과와 당 및 국가 건설에서 달성한 경험들을 총화하고 그 토대 우에서 우리의 민주 기지와 우리 당 대렬을 더욱 강화함에 돌렸다. 그리하여 대회에서 토의된 기본 문제들은 이 정신으로 일관되였었다. 대회에 상정된 기본 문제들은 당 중앙 위원회 사업 결산 보고, 당 규약 수정, 당 중앙 지도 기관 선거 등이였다.

대회에서 김 일성 동지는 당 중앙 위원회 사업 결산 보고를 진술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자기의 보고에서 조국의 통일 독립과 북반부에서 민주 기지 창설 및 강화를 위하여 당이 실시한 정치 로선 및 조직 로선의 정확성을 천명하면서 그 실천을 위한 투쟁에서 달성한 거대한 성과들을 총화 분석하고 앞으로의 당의 투쟁 대책들을 제기하였다. 또한 우리 당의 창건 및 그의 강화 발전을 총화하고 새로운 정세하에서 제기되는 당 건설의 기본'적 과업들을 천명하였다. 대회는 김 일성 동지의 보고를 전'적으로 지지하며 그에 근거하여 당 중앙 위원회가 실시한 정치 로선의 정당성을 일치하게 확인하면서 해당한 결정들을 채택하였다. 또한 대회는 당 건설 경험을 총화한 기초 우에서 당 앞에 제기된 새로운 과업 수행을 성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당을 조직 사상적으로 강화할 목적에 부합되는 당 규약 수정안을 접수하였다. 그리고 대회는 김 일성 동지를 수위로 하는 당의 새 중앙 지도 기관을 선거하였다.

제2차 당 대회에서 토의 제시된 이와 같은 기본 문제들을 오늘 우리들이 다시 회고하며 연구하는 것은 우리 당 및 혁명 발전의 력사를 정확히 리해함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현

우리 당의 정치 로선을 더욱 깊이 파악하며 그를 실천함에 있어서 거대한 리론'적 및 실천적 의의를 가진다.

* *

제2차 당 대회에서 진술한 김 일성 동지의 보고에서와 대회의 전 행정 및 대회 결정에서 강조된 가장 중요한 기본 문제의 하나는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의 국토 량단과 민족 분렬 획책을 파탄시키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을 실현함으로써 우리 혁명의 기본 임무를 전국적 범위에서 완수할 데 관한 문제였다. 조국의 통일 독립을 달성할 데 관한 문제는 해방후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항상 우리 당과 혁명 앞에 제기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본 과업이라는 것은 주지되여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 문제가 특히 중요성을 띠고 제2차 대회에 제기된 것은 당시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에 의하여 규정되였었다. 대회 당시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는 대회전 어느 시기보다도 엄중하였으며 따라서 조국 통일에 관한 문제는 일층 첨예성을 띠게 되였다.

제2차 당 대회에서 진술한 자기의 보고에서 김 일성 동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미제는 남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자기의 제국주의 침략 목적을 추구하면서 두가지 기본 정책을 실시하여 왔다. 즉 정치적으로는 그들의 침략 정책에 항거하는 온갖 민주 력량을 탄압 말살하며 조선 민족을 분렬하며 자기들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에 도움을 줄 온갖 반동 세력을 조장 비호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경제적으로 조선의 민족 공업과 민족 경제 발전을 조해하여 조선을 경제적으로 예속시키려는 것이였다. 그리하여 미제는 남반부를 강점한 첫날부터 군정 통치를 조선 인민에게 강요하면서 남반부의 온갖 민주 력량을 탄압하였으며 해방 직후 조선 인민의 창의에 의하여 수립된 인민 위원회들을 강제로 해산시키고 매국노 리 승만을 비롯한 일체 반동 세력을 규합하여 그를 비호 조장하였으며 남반부의 모든 경제를 파탄시키고 우리 조국의 경제 문화적 재부의 략탈을 감행하였다. 이와 함께 그들은 우리 나라를 통일된 민주주의 자주 독립 국가로 발전시킬 것을 예견한 조선 문제에 관한 모쓰크바 3상 회의 결정 실현을 파괴하기 위한 온갖 책동을 감행하여 왔었다.

그들은 2차에 걸쳐 소집되였던 쏘미 공동 위원회 사업을 고의적으로 파탄시켰으며 또 쏘미 량군 동시 철거와 조선 문제의 해결을 조선 인민 자신에게 맡기자는 쏘련 대표단의 정당한 주장을 거부하고 조선 문제를 비법'적으로 《유엔》에 상정시켰다. 미제는 《유엔》내에 있는 자기의 거수기들을 리용하여 소위 《유엔 조선 위원단》을 조작하고 그의 감시하에 1948년 5월 10일에 남조선에서 단독 《선거》 음모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리하여 우리 조국에는 미제와 리 승만 역도에 의하여 국토 량단과 민족 분렬이 영구화될 엄중한 위험이 조성되게 되였다. 대회는 당시 우리 조국에 조성된 이러한 정세를 분석하면서 미제가 해방후 남조선에서 일관하게 추구해 온 정책은 우리 나라를 분렬시키며 식민지 예속화하기 위한 침략적 로선이라는 것과 그들이 감행하려는 단독 《선거》는 《선거》의 미명하에서 국토 량단과 민족 분렬을 영구화하며 괴뢰 정부를 조작하여 자기들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을 합법화하려는 더욱 악랄한 흉책이라고 락인하였다. 따라서 대회는 미제의 남조선 단독 《선거》 음모가 가지는 위험성, 그가 우리 조국과 인민에게 끼칠 수 있는 엄중한 후'과에 대하여 전 조선 인민에게 경고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대회에서 진술한 자기의 보고에서 미제는 남조선에서 모략적인 소위 《선거》를 통하여 남조선을 우리 조국에서 영원히 분렬하여 식민지로 변화시키며 나아가서 전 조선을 완전히 점령하여 조선을 동방 침략의 군사기지로 변화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대회는 남조선에서 미제와 리 승만 역도의 단독적인 소위 《선거》 음모를 결정적으로 배격 파탄시키고 조국의 통일 독립을 달성하기 위한 유일하고 정당한 우리 당의 방침을 채택하였다.

우리 당은 처음부터 시종 일관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주주의적 완전 자주 독립을 주장하였으며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해방후 조선 문제에 관한 모쓰크바 3상 회의 결정을 지지하며 그의 실천을 위해 투쟁하였다. 그리고 적들의 음모 책동에 의하여 그 실천이 파탄되자 조선에서 량군 동시 철거와 조선 인민 자체의 힘에 의한, 전국적인 민주주의적 선거에 의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주장하였다.

김 일성 동지의 정확한 령도하에 우리 당 중앙 위원회는 적들이 남조선에서 단독 《선거》 음모를 로골적으로 획책하기 시작할 때에 벌써 당의 이러한 방침을 천명하면서 전체 인민들에게 우리 조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시한, 또한 북반부에서 이미 달성된 민주 개혁과 민주 건설의 성과를 법'적으로 총화 확보하는 조선 림시 헌'법 초안을 제시하여 토의케 하였으며 조국 통일 계획을 토의하기 위하여 남북 조선의 전체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 단체 대표들의 련석 회의 소집을 제의하였다.

대회는 당 중앙 위원회가 취한 이러한 조치들을 전'적으로 지지하면서 국토를 량단하고 민족을 분렬하며 우리 나라를 미제의 식민지로 예속화하려는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의 단독 《선거》 음모를 배격 파탄시키고 평화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선거를 통하여 조선 인민 자체의 힘에 의한 조국의 통일 독립을 실현할 것을 주장한 당의 방침을 다시 전국에 천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회에서 진술한 자기의 보고에서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은 일반적, 직접적, 평등적 비밀 투표에 기초하여 최고 립'법 기관을 전 조선적으로 선거할 것을 주장한다. 이와 같이 선거된 진정한 인민의 최고 립'법 기관은 헌'법을 승인하고 민족적 륭성과 인민을 행복의 길로 인도할 진정한 민주주의 인민 정부를 반드시 조직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선거와 이런 방법으로 정부를 수립하는 것은 오직 외국 군대가 철거하는 조건하에서만 가능하게 될 것이다》(《김 일성 선집》 1954년판 제2권 47페지). 대회는 당의 이러한 조국의 평화적 통일 방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전체 조선 인민과 모든 진정한 민주 력량과 또 우리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요망하는 일체 애국적 량심을 가진 인사들과 튼튼히 단결을 지어 미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노예 정책의 교활한 책동을 반대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을 전 당과 전 인민에게 호소하였다.

조국이 엄중한 위험에 처한 시기에 진행된 제2차 당 대회와 대회에서 천명된 이 조국 통일 방책은 전체 조선 인민들에게 강력한 고무력으로 되였으며 통일적 민주주의 자주 독립 국가 건설을 위한 조선 인민의 새로운 투쟁 강령으로 되였으며 또 그것은 그후의 우리 혁명 발전에 있어서 거대한 력사적 의의를 가지였다.

제2차 당 대회는 자기 사업의 전 행정을 통하여 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 정책을 더욱 철저히 폭로하였으며, 어떠한 곤난한 조건하에서도 주저함과 굴함이 없이 조국 통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선 인민의 선두에 서서 나가는 것은 오직 우리 당 뿐이며 우리 당 만이 진정으로 조선 인민의 리익을 위해 철저하고 용감하게 싸우는 투사이라는 것을 전체 인민에게 다시 한번 뚜렷이 보여 주었다. 그리하여 인민 대중 속에서 우리 당의 위신과 우리 당에 대한 인민 대중의 신임은 더 일층 제고되였다.

대회 후의 력사적 사실이 확증해 준 바와 같이 전체 조선 인민들은 제2차 당 대회가 제시한 조국 통일 방책을 일치하게 지지하며 그의 실천을 위한 적극적 투쟁에서 거대한 성과를 쟁취하였다.

우리 당의 발기에 의하여 1948년 4월에 소집된 남북 조선 제 정당, 사회 단체 대표자 련석 회의는 남조선에서의 망국적 단독 《선거》를 뽀이코트하며 미제와 리 승만 역도를 고립시키며 정치적 견해와 신앙의 여하를 불문하고 전체 애국적 력량을 단결하여 조국의 통일 독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투쟁할 일치한 결의를 표명하였다. 그리하여 남북 조선 전체 인민

들의 반대 투쟁에 의하여 남조선 《5, 10 단선》은 철저히 파탄되였다. 또한 제2차 대회와 그에서 채택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 방책은 더욱 광범한 애국적 민주 력량을 우리 당의 주위에 튼튼히 집결함에 있어서 새로운 계기로 되였다. 김 일성 동지는 대회에서 진술한 자기 보고에서와 그리고 그후 여러 기회에서 미제의 악랄한 침략 정책이 더욱 로골'적으로 폭로됨으로써 일체 민주주의적 력량은 물론 모든 애국적 량심을 가진 인사들과 지어는 일부 우익 진영내 인사들까지 미제를 반대하여 나선다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우리는 미제를 반대하고 조국의 통일 독립을 념원하는 일체 력량을 당 주위에 집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리하여 적을 철저히 고립시킴으로써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을 루차 강조하였다.

우리 당은 김 일성 동지의 이러한 교시를 받들고 2차 당 대회가 천명한 조국의 평화적 통일 방책 실현을 위한 투쟁 행정에서 자기 주위에 조선의 애국적 민주 력량을 더 일층 광범히 결속시켰다. 당은 그에 기초하여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이 전 조선 인민의 반대 뽀이코트에도 불구하고 비법'적으로 단독 《선거》를 날조하여 괴뢰 정부를 조작한 새로운 정세에 대처하여 남북 조선 총 선거를 통하여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창건하였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창건은 조국의 통일 독립과 민주주의적 발전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진을 가져 왔으며 자유와 독립을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기치하에 새로운 단계로 발전되였다.

국토 량단과 민족 분렬의 위기를 타개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을 실현할 데 관한 제2차 당 대회 결정 정신은 오늘에 있어서도 커다란 의의를 가지고 있다. 우리 당 제3차 대회는 결산 기간에 제2차 대회 정신에 근거하여 당 중앙 위원회가 실시하여 온 조국 통일을 위한 제 대책들과 그 투쟁의 정당성을 전'적으로 지지하면서 당의 평화적 조국 통일 방책을 재삼 천명하였다.

그러나 오늘 미제와 리 승만 도당들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반대하고 《북진》 통일을 고창하면서 조국의 분렬을 영구화하려 하며 매국적인 《한미 우호, 통상 및 항해 조약》을 체결하고 남조선을 일방'적으로 유엔에 가입시키려고 책동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남북 조선의 각계 각층 인민들 및 인사들을 더욱 광범히 단결시켜 조국의 평화적 통일 앞에 새로운 장애물을 조성하고 있는 원쑤들의 이러한 책동을 파탄시키고 조국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더욱 완강하게 투쟁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전체 인민은 당의 호소에 호응하여 제3차 대회 결정 실천에 일치하게 궐기하고 있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은 이 투쟁에서 종국적 승리를 확신하고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 *

우리 당 제2차 대회는 공화국 북반부에 확립된 인민 민주주의 제도를 일층 강화 발전시킴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였다. 대회는 해방후 인민 정권의 수립 및 강화를 위한 투쟁에서와 공화국 북반부에서 제반 민주 개혁의 실시 및 민주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과 인민이 달성한 거대한 승리와 성과들을 총화하였다.

공화국 북반부에서 민주 기지 창설을 위한 투쟁은 허다한 곤난을 극복하는 행정에서 수행되였다. 우리 당은 김 일성 동지의 명철한 지도하에 해방 직후부터 인민 민주주의 길로 발전할 데 대한 우리 혁명 발전 로선을 규정하고 미제의 남조선 강점으로 인하여 조성된 우리 나라 혁명 정세의 복잡성과 우리 혁명의 간고성과 장기성을 예견하면서 위대한 쏘련 군대의 진주로 인하여 유리한 조건이 지어졌던 북반부에서 혁명의 원천지, 민주 기지 창설의 명백한 로선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당시에 박 헌영 간첩 종파 도당들과 기타 일부 종파 분자들은 당의 이 정당한 정치 로선을 반대하고 민주 기지 창설을 원치않았다. 박 헌영 도당은 자기의 상전 미제의 지시를 실행하기 위하여 해방 직후부터 우리 나라에서 미제의 지지를 받는 부르죠아 공화국을 수립할 데 대한 소위 《로선》을 들고 나왔으며 또 다른 일부 종파 분자들은 우리 혁명을 처음부터 사회주의 혁명인듯이 주장하였다. 우리 당은 우리 혁명의 원쑤인 미제와 리 승만 도당과 투쟁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혁명 대렬 내의 이러한 우경 및 좌경 기회주의자들과의 투쟁 속에서 당의 정치 로선을 고수하고 북반부에서 인민 정권을 수립하였으며 그에 의거하여 토지 개혁과 산업 국유화를 비롯한 제반 민주 개혁을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북반부에 인민 민주주의 제도가 확립되였으며 조국 통일의 기초로 될 민주 기지가 창설되였고 사회주의 기초 건설의 준비를 위한 물질적 조건이 조성되였다.

대회에서 진술한 자기의 보고에서 김 일성 동지는 해방후 인민 정권 수립과 민주 개혁 실시 행정에서 당이 부닥쳤던 제 난관과 그를 극복하는 투쟁에서 당이 달성한 승리와 성과들을 상세히 총화 분석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이와 같이 북조선에서 우리 당의 주도적 역할하에서 승리적으로 실시된 위대한 제 민주 개혁들로부터 출발하여 다음과 같은 총 결론을 지을 수 있다. 북조선의 제 민주 개혁의 승리들은 우리 조국의 완전 독립을 보장하는 튼튼한 정치 경제적 기초를 축성하였으며 현하 우리 조국에 조성된 정세하에서 우리 북조선을 조국이 민주주의적으로 발전할 튼튼한 기지로 전변시켰으며 미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예속화의 정책으로부터 우리 조국을 구원하는 강력한 민주 세력의 기지로 전변시켰다》(동상 57—58페지).

우리 당 제2차 대회 전 시기에 벌써 북반부는 민주 기지를 일층 공고히 하며 인민 생활을 더욱 향상시키며 조국 통일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의 인민 정권을 가일층 강화하면서 인민 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키며 점차 사회주의에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들어 서게 되였다. 그리하여 우리 당은 1947년에 처음으로 인민 경제 계획을 작성하여 계획 경제 실행에 착수하였다. 이에 있어서 당은 김 일성 동지가 지적한 바와 같은 경제의 국가적 부문과 조합'적 부문과 개인'적 부문의 발전을 국가적 부문이 우세하고 지배적 역할을 노는 조건하에서 결합시키는 원칙에서 생산과 무역 및 금융에 대한 계획적 원칙과 국가적 관리에 대한 원칙을 실시하는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전 당을 경제 건설에로 동원하였다. 당의 이 경제 정책은 우리 당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확고히 실시하고 있는 당의 일관한 경제 정책——우리 나라의 인민 민주주의적 발전과 조국 통일을 보장하며 인민 생활의 부단한 향상을 도모하는 경제 정책의 기초였다.

대회 보고에서 김 일성 동지가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시 우리의 경제 건설에는 허다한 난관과 애로가 존재하였다. 적들의 비방과 파괴 암해 활동은 물론 우리의 일부 동지들 중에서도 우리가 인민 경제 계획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고 의심하며 주저하였었다. 또한 우리의 경제 기술 인재가 부족하였고, 원료 자재 물자가 부족하였고, 일'군들의 관리 운영 경험이 부족한 등등의 조건하에서 일제가 혹심하게 파괴한 우리의 인민 경제를 복구 건설하는 것은 극히 곤난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당은 확신을 가지고 대담하게 실천을 통하여 경험을 축적하면서 전체 인민을 첫 인민 경제 계획의 승리적 완수에로 인도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이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우리는 《…처음에는 그 계획에 대하여 만져보고 그 다음에는 조금씩 실행하여 보고 또 그 다음에는 실행에 대한 확신성을 점점 가지고 실행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서 용감하게 투쟁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1947년 인민 경제 계획 예정 수'자는…100%로 빛나게 완수되였다》 (동상 1권 517페지).

우리 나라 력사상에서 첫 인민 경제 계획인 1947년도 인민 경제 계획의 성과적 수행은 조국 통일과 북반부 인민 민주주의 제도 강화 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또 하나의 거대한 성과였으며 과도기 경제 건설에서 당이 달성한 첫

승리였다. 김 일성 동지는 자기의 보고에서 1947년도 인민 경제 계획 실행의 성과를 총화하면서 이것은 공화국 북반부가 새 인민'적 민주주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며 인민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 당 경제 정책의 정확성과 그 승리를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제2차 당 대회는 이상과 같은 성과들을 총화하고 우선 우리 인민 민주주의 제도의 경제적 기초를 강화할 데 관하여 강조하였다. 대회는 우리 당이 1947년도 인민 경제 계획 수행을 위한 투쟁을 통하여 경제를 건설할 줄 아는 당으로 되였다는 것을 지적함과 동시에 경제 사업에서 우리의 일부 일'군들에게 존재하는 부족'점과 결함을 비판하였다. 대회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경제 사업에 존재한 결함은 아직 일'군들의 경제 건설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관리 운영 방법이 서투르며 생산 기업소들의 새로운 인민'적 제도와 질서, 규률이 부족한 그것이였다. 또한 일부 경제 일'군들은 우리 당의 경제 정책을 옳게 리해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사업함으로써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은 사회주의적 경제 부문를 미약하게 발전시켰다. 이 점에 있어서 대회는 류통 부문, 수산 부문 및 지방 산업 부문들에 대하여 특히 지적하였다.

대회는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에로 이행하는 과도기의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당의 경제 정책을 다시 한번 천명하면서 우리 경제 사업에 존재하는 결함을 극복하고 당 경제 정책 관철을 위한 과업을 전 당에 제시하였다. 대회는 경제 사업에 대한 당 단체들의 지도를 개선하며 전체 당 단체들과 당원들이 경제 건설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며 경리 운영 방법을 배우며 당 사업을 생산에 더욱 접근시킬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생산 기업소들에서 질서와 제도와 규률을 확립하고 근로 대중의 창발적 열성을 조직 동원하여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하며 탐오 랑비 현상과 투쟁하며 증산과 절약을 엄격히 실시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면서 대회는 당면한 1948년도 인민 경제 계획의 성과적 수행에로 전 당과 전 인민을 불러 일으켰다.

제2차 당 대회가 제시한 이 호소는 우리 인민 경제 발전과 그에 대한 당'적 지도의 개선에 있어서 새로운 계기로 되였다. 대회의 호소에 호응 궐기한 전체 인민의 앙양된 열성에 의하여 1948년도 인민 경제 계획은 성과적으로 초과 완수되였으며 그리하여 국영 산업은 1946년에 비하여 2,6배 이상 장성하였다. 동시에 우리 당 단체들의 경제에 대한 지도 수준도 일층 제고되였다.

계속하여 당은 공화국의 정치, 경제, 문화적 지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1949—1950년 인민 경제 2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그의 성과적 수행을 위하여 투쟁하였다. 2개년 계획은 미제와 리 승만 역도의 전쟁 도발로 인하여 끝까지 수행되지 못하였으나 전쟁전에 벌써 북반부의 일부 산업 부문의 생산고는 일제 통치 당시의 최고 수준을 멀리 초과하였으며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은 대단히 향상되였다. 이리하여 전쟁전에 북반부 인민들은 일찌기 우리 나라 력사상 볼 수 없었던 가장 행복한 《황금》 시대를 체험하게 되였다.

제2차 당 대회가 제시한 당의 경제 정책과 경제 사업 지도에 관한 일련의 기본'적 문제들은 그후 전 기간에 걸쳐 당의 지도적 지시로 되여 왔으며 제1차 5개년 계획을 실행하는 오늘에 있어서 역시 주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오늘 우리의 인민 경제 규모가 더욱 확대 발전되였고 우리의 산업이 기술'적으로 일층 현대화되고 복잡해졌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오늘 우리의 전체 당 단체들과 당원들은 경제 사업을 더욱 깊이 연구하며 새 기술을 습득하며 선진 기술 및 작업 방법을 생산에 도입하며 복잡해진 관리 운영 사업을 더욱 능숙하게 조직 지도할 것이 요구된다. 동시에 현재 우리의 경제적 조건하에서 수행되는 제1차 5개년 계획의 완수 및 초과 완수를 위하여 최대한의 내부 예비를 동원 리용하여 더 많이 증산하고 절약할 것이 요구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 당과 전체 근로 대중은 고도의 긴장성으로써 제1차 5개년 계획 수행에 궐기하였으며 벌써 새로운 성과들을 달성하고 있다. 이러한 제 사실은 작년 8, 9월 전원 회의에서 철저히 폭로되였고 전 당에 의하여 분쇄된 최 창익, 박 창옥, 윤 공흠, 서 휘, 리 필규 등 반당 종파 분자들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우리 당의 경제 정책이 과거에 있어서나 현재에 있어서나 시종 일관 정확하였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당은 이것으로써 자만할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우리 당 중앙 위원회 1956년 12월 전원 회의는 제1차 5개년 계획의 기본 방향과 과업을 다시 해명하면서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우선 당면한 1957년도 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적지 않은 난관과 애로를 극복하는 더욱 긴장한 투쟁이 요구되며 최대한의 증산과 절약, 창의 창발성이 요구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오늘 당의 이 호소에 호응하여 우리의 근로 대중의 정치적 및 로력적 열성은 전례없이 고도로 앙양되였으나 우리의 일부 경제 지도 일'군들은 당의 경제 정책 관철을 위한 자기의 사상 동원에 있어서, 또 대중 지도에 있어서 앙양된 대중의 열성에 뒤떨어지고 있다. 생산 경제 지도 부분에서 사업하는 일부 지도 일'군들 중에서는 생산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가능한 모든 내부 예비를 탐구 리용하려는 노력이 없이 안일하게 사업하려는 경향, 또는 당의 경제 정책 정신에서 리탈되는 기관 본위주의적 경향과 심지어는 증산과 절약에 대한 대중의 창발성을 묵살 억압하려는 경향까지 있는 바 이러한 경향은 우리의 전진 운동, 당의 경제 정책 관철에 저해를 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부 일'군들이 당의 경제 정책을 깊이 연구하지 않으며 대중의 무진장한 힘과 재능을 믿지 않는 사상적 표현이며 지도에서 관료주의, 주관주의적 작풍의 표현인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급속히 극복되여야 할 것이다.

당은 현 모멘트에 있어서 우리 당원들의 당성의 중요한 척도는 당의 경제 정책을 옹호하며 그를 관철하는 여하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 당 제2차 대회는 경제 건설에 대한 과업과 함께 그를 보장하기 위하여 우리의 인민 주권을 백방으로 강화할 과업을 제시하였다. 대회는 지나온 투쟁 경험을 총화하여 혁명에서 주권 문제가 가지는 의의, 그의 역할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의 리론의 정당성과 그 승리를 시위하면서 우리 혁명의 장래 발전과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인민 정권의 강화와 그의 역할 제고 문제에 특별한 주의를 돌렸다.

대회에서 김 일성 동지는 튼튼한 정권을 가지지 못한 어떠한 계급이나, 인민이나, 민족이나, 국가를 물론하고 승리해 본적이 없다는 것을 인류 력사는 증명해 준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더우기 우리 조국이 통일되지 못하였고 미제가 남반부를 강점하고 있는 조건하에서 이 문제는 일층 중요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였다. 동시에 김 일성 동지는 우리 인민 정권 기관 사업에 일부 존재하는 부족점들과 결함을 분석 비판하면서 그를 시정하고 대중과의 련계를 부단히 강화할 것을 특히 강조하였다. 그후의 생활이 보여 준 바와 같이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은 우리 당과 김 일성 동지의 이 교시를 받들고 또 항상 당과 김 일성 동지의 지도를 받으면서 인민 정권 강화에서 거대한 승리를 달성하였다. 인민 정권을 강화할 데 관한 제2차 당 대회의 정신과 김 일성 동지의 교시는 역시 오늘에 있어서도 중요한 실천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제3차 당 대회와 지난 당 중앙 위원회 8, 9월 전원 회의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현 우리 나라의 정치 정세와 당이 수행하는 과업의 중대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의 인민 정권을 가일층 강화하는 것은 전 당과 전 인민의 일상적 중요 임무로 된다. 우리는 전후 처음으로 실시된 지난해 11월에 지방 주권 기관 선거 사업을 승리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앞으로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를 맞이하게 된다. 우리는 이미 선거한 지방 정권 기관들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앞으로 있을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 사업에서 또 승리를 달성함으로써 우리 인민 주권을 밑으로부터 우에 이르기까지

더욱 튼튼히 하는 과업을 영예롭게 수행할 것이다.

우리 당은 상술한 바와 같은 공화국 북반부 인민 민주주의 제도를 가일층 강화할 데 관하여 2차 당 대회가 제시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북반부를 조국의 통일 독립의 튼튼한 물질적 토대로, 불패의 성새로 전변시켰으며 그에 립각하여 전쟁의 대시련을 이겨 낼 수 있었으며 그를 오늘 더 일층 강화할 수 있었다. 조선 인민은 실제 생활을 통하여 북반부 민주 기지 창설에 관한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과 민주 기지가 가지는 거대한 의의를 깊이 체득하였다. 그러므로 오늘 전체 인민들은 우리 당 제3차 대회 결정을 받들고 민주 기지 강화를 위한 투쟁에서 더욱 높은 애국주의와 헌신성을 발휘하고 있다.

* *

제2차 당 대회에서 토의된 문제들 중 기본적 위치를 차지한 것은 우리 당 건설에 관한 문제였다. 대회는 우리 당 건설에서 달성한 성과들, 특히 우리 당의 창건과 당 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총화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당의 창건과 그의 강화 발전의 행정은 극히 복잡하였다. 당은 당의의 적들과 당내 좌우경적 기회주의 분자들, 각종 형태의 종파 분자들과의 비타협적 투쟁을 거쳐 왔다.

우리 당은 해방 직후 당 조직 로선을 반대하는 각종 종파들의 반당적 분렬 행동과의 엄격한 투쟁의 불'길 속에서 창건되였다. 과거 우리 나라 공산주의 운동의 특수성과 해방후 우리 나라의 정세와 우리 당 창건의 복잡성으로 말미암아 당내에는 과거 오래'동안 파쟁에 관습된 일부 종파 분자들과 그의 영향을 받은 일부 분자들이 잠입하게 되였다. 이러한 사정은 우리 당이 처음부터 당내 종파적 경향에 대하여 더욱 경각성을 높이며 자기 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보장하기 위한 복잡한 길을 걷게 하였다. 당내에 잠입한 종파 분자들은 음으로 양으로 종파적 시도를 감행하면서 당의 통일과 당 발전을 저해하려 하였다. 우리 당은 그 창건 첫날부터 특히 공산당 북조선 조직 위원회 제3차 확대 집행 위원 회의, 로동당 창립 대회 등을 통하여 종파 분자들의 종파적 행동에 대하여 엄격한 타격을 주었다.

우리 당은 김 일성 동지를 수위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의 정확한 지도하에 당을 분렬시키며 조직적으로 약화시키려는 종파 분자들과의 강력한 투쟁을 진행함으로써 창건 초기 당 내에 조성되였던 엄중한 결함들을 시급히 극복하고 공산당 대렬을 강화 발전시켰으며 그후 로동당으로 전환하여 대중적 정당으로 발전되였다. 제2차 대회 당시 우리 당은 자기 대렬에 75만 여 명의 당원을 망라한 통일되고 단련된 강대한 당으로 장성되였다.

대회는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제시되였고 당 중앙 위원회의 정확한 지도하에 전체 견실한 당원들에 의하여 옹호 관철되여 온 당 조직 로선의 정당성과 그 로선의 승리를 다시 확인하면서 그 로선을 반대한 종파 분자들에게 엄격한 비판과 교양을 주었다. 또한 우리 당이 신민당과 합당하여 대중적 정당—로동당으로 발전하도록 취한 당의 조치가 완전히 정당하였다는 것과 우리 당이 대중적 정당—로동당으로 발전하는 것이 우리 혁명 추진에서 가지는 거대한 의의를 지적하였다. 동시에 대회는 지나 온 기간 우리 당이 조국 통일과 공화국 북반부에서 민주 개혁 및 민주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달성한 모든 위대한 성과들은 자기 대렬의 조직'적 통일과 사상 의지의 일치성을 보장하였으며 김 일성 동지를 수위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전 당이 일치하게 단결하여 투쟁한 결과이라고 강조하였다. 대회는 지나 온 투쟁 경험, 당 앞에 제기된 새로운 중대한 과업, 우리 당이 광범한 근로 대중을 망라한 대중적 정당으로 발전되였다는 것, 그리고 아직 당내에 종파잔재가 남아 있다는 것 등을 고려하면서 우리 당 대렬의 순결성을 보장하며 당의 통일 단결을 강화하며 당의 전투력을 일층 제고하기 위하여 투쟁할 것을 전 당에 강조하였다. 특히 대회는 당내 종파의 해독성을 경고하면서 종파적 오유를 범한 당원들에 대한 엄격한 비판을 주었으며 또 과거 종파에 관계했거나 혹은 종파의 영향을 받은 당원들은 자기의 사상과 행동에서 종파 경향을 철저히 시정할 것을 거듭 충고하였다. 당의 통일을 강화할 데 관한 당의 이러한 사상은 대회에서 진술한 김 일성 동지의 보고와 대회의 결정서, 그리고 대회에서 수정 접수된 새 규약에 일관하게 표현되였었다. 대회는 당 단체들과 당원들에게 당의 통일을 위한 투쟁을 규약상 엄격한 요구와 의무로서 규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2차 대회에서 채택된 당 규약에는 《당의 공고화를 위하여 당내 종파 분자들과 투쟁하며 당 규률을 엄격히 준수하며 당 대렬에 잠입한 반당 분자 및 이색 분자들과의 투쟁은 각개 당원들과 당 단체들의 신성한 임무》이라고 규정하였다.

우리 당이 대중적 정당—로동당으로 발전하였으며 당 대렬이 급속히 장성된 당시 조건하에서 당의 공고화를 위하여 제2차 당 대회가 제시한 이상과 같은 문제들과 그가 취한 일련의 대책들은 그후 우리 당의 강화 및 발전에 있어서 획기적 의의를 가지였다.

김 일성 동지를 수위로 하는 우리 당 중앙 위원회는 제2차 당 대회의 정신을 정확히 실행함으로써 우리 당을 더욱 세련되고 통일 단련된 강철의 대오로 강화 발전시켰으며 그리하여 우리 당이 전쟁의 어려운 시련을 타승하였으며 곤난한 전후 복구 건설에서 전체 인민을 승리에로 인도할 수 있게 하였다. 제2차 당 대회의 경고를 사상적으로 접수하지 않고 자기의 종파적 야욕과 습성을 버리지 않은 종파 분자들 만은 그후 당이 어려운 과업들에 직면했던 시기들에서 자기의 정체를 폭로하고 당을 반대하여 출연함으로써 당에 죄악을 끼쳤으며 자기 자신을 망쳐 버리였다. 우리 당은 당내 종파 분자들에 대하여는 추호의 양보와 타협도 용허하지 않는 엄격한 투쟁으로써 자기 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부단히 강화하여 왔다. 우리 당 제3차 대회는 제2차 당 대회 이후 당 중앙 위원회가 진행한 그러한 투쟁의 정당성과 당의 통일을 강화함에 있어서 달성한 성과에 대한 일치한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당이 달성한 이 성과들을 고수하며 당내 종파 잔재에 대하여 계속 경각성을 제고할 것을 강조하였다. 작년 8, 9월 전원 회의는 우리 당 력사적 대회들과 당 중앙 위원회의 거듭되는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반당'적 종파 행동을 감행한 종파 분자들에게 강력한 타격을 주었다. 우리 당은 이것으로써 자만하여 당내 종파 잔재에 대한 우리의 경각성을 해이할 것을 용허하지 않으며 오늘도 또 앞으로도 계속 당의 통일과 단결의 강화를 위하여 경각성을 제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당 제2차 대회는 당 건설에 있어서 당의 통일 단결의 강화에 관한 문제에 기본'적 주의를 돌리면서 당 조직 사업 및 사상 사업에 관한 일련의 중요한 과업들을 제시하였다. 이에 있어서 특히 주요한 의의를 가진 것은 초급 당 단체를 강화하며 당원들의 당 생활을 강화할 데 관한 문제이였다. 이 문제에 관하여 대회가 강조한 기본 정신은 오늘에 있어서도 큰 실천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대회에서 진술한 자기의 보고에서 김 일성 동지는 우리 당 초급 당 단체들의 역할과 그의 강화가 가지는 의의를 해명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세포 생활은 당원들의 사상적 일치성과 조직적 통일성을 보장하여 당원들을 일상적으로 교양 훈련하며 당의 정치 로선을 실 생활에서 실현케 하는 기본 조직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 세포를 강화하는 것은 전 당을 강화하는 가장 기본'적 요소이다》 (동상 제2권 77페지). 그러므로 대회는 초급 당 단체 총회를 계획적으로 충분한 준비와 높은 정치적 수준에서 진행하며 모든 당원들에게 적합한 당'적 분공을 주며 그의 실행을 지도 검열하며 당'적 통제를 강화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대회는 초급 당 단체를 강화하기 위하여 초급 당 단체 핵심을 육성함에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였다. 당원들의 정치적, 실무적 준비 정도

가 다 동일하지 않으며 더우기 당 조직의 급속한 장성으로 인하여 당내에는 당 생활 경험이 어리며 정치적 단련이 미약한 적지 않은 수의 당원들이 있는 조건하에서 이 문제는 특히 중요하다. 핵심 분자들을 양성하여 그들의 선도적 작용과 적극적 방조에 의하여 전체 당원들의 정치적 열성과 적극성을 제고시킴으로써 초급 당 단체를 강화하며 나가서 전 당을 강화할 수 있다고 대회는 지적하였다.

초급 당 단체의 역할에 관한 김 일성 동지의 교시와 제2차 대회의 정신은 오늘도 역시 우리 당 단체들에서 명심하여 실천할 것이 요구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물론 오늘 우리 당은 제2차 당 대회 시기에 비하여 더욱 발전 강화되였다. 그러나 이미 육성 단련된 초급 당 단체 핵심들 중 많은 부분이 전쟁 시기에 희생 혹은 이동되였으며 우리 당 내에는 전쟁 시기 혹은 전후 시기에 입당한 당 생활 경험이 어린 당원들이 적지 않게 있다. 또한 오늘 우리 당 앞에는 더 복잡하고 중대한 과업이 제기되여 있으며 따라서 그것은 당 단체들의 더욱 높은 적극성과 역할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당은 당 대렬의 통일 단결을 강화하며 당 단체들이 조국 통일과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자기 앞에 제기된 중대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초급 당 단체를 강화하며 당 핵심들을 육성하며 그들에 튼튼히 의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험은 초급 당 단체와 그 핵심이 약하며 또 그가 당원들의 당 생활을 잘 통제 지도하지 못하는 곳에서는 당 정책 집행에서 결함들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당은 오늘에 있어서 더욱 초급 당 단체와 그 핵심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제2차 당 대회에서 강조된 당 건설 문제들 중에서 오늘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문제의 하나는 관료주의를 반대하고 당 일'군들의 지도 방법을 개선하며 당의 군중 로선을 관철할 데 관한 문제이다.

김 일성 동지는 자기의 보고에서 일부 일'군들의 사업 작풍에서 표현되는 관료주의적 및 형식주의적 경향을 심각히 분석하면서 대중에게 명령하고 호령하며 대중과 리탈하는 경향과 하부 지도 사업에서 간부들과 당원들의 오유와 결함을 시정하고 가르쳐 줄 대신에 욕질하고 당'적 책벌을 람용하는 책벌주의적 경향, 그리고 문제를 주관적으로, 독단적으로 처리하며 또는 표면과 형식만 취중하고 내용 없이 무책임하게 처리하는 경향 등을 엄격히 비판하였다. 동시에 김 일성 동지는 당의 전통적인 군중 로선과 군중 공작 방법을 다시 천명하시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당의 력사는 비록 청소하지만 인민 대중에게 복무하며 그들에게서 배우며 그들을 인도하는 당의 군중 로선과 지도 작풍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당의 이러한 군중 로선의 전통은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하는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의 항일 민족 해방 투쟁과 당 창건을 위한 투쟁 속에서 수립되고 검열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우리 당 창건 첫날부터 당과 대중과의 련계의 의의를 강조하시면서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할 데 대하여 또 그러기 위하여 옳은 군중 관'점과 군중 공작 방법을 습득할 것을 전 당에 교시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벌써 조선 공산당 북조선 조직 위원회 제3차 확대 집행 위원 회의에서 일부 당 단체들이 군중 속에서 사업하기를 등한히 하며 군중과 리탈하는 경향을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대중과의 광범한 련계가 없이 그리고 이 련계를 일상적으로 강화함이 없이는 또한 대중들의 목소리를 청취할 줄 모르며 그들의 정당한 요구를 알지 못하며 대중을 가르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대중에게서 배워야 되겠다는 준비가 없이는 로동 계급의 당인 공산당이 진실로 로동 계급과 모든 근로자들을 인도할 능력을 가진 대중적 정당으로 될 수 없는 것이다»(동상 제1권 8페지).

제2차 당 대회는 김 일성 동지의 보고에 근거하여 일부 당 단체들과 지도 일'군들에게 존재하는 관료주의, 형식주의 경향을 퇴치하고 옳은 군중 관'점을 확립하고 대중과 튼튼히 련계를 맺을 줄 아는 군중 공작 방법을 수립할 것을 강조하였다. 우리당의 많은 당원들이 과거 해방전 항일 해방 투쟁에서의 단련이 없거나 부족하며 오래'동안 일제하에서 자본주의적 교양을 강요 당하여 왔다. 그러므로 우리 당원들 속에서는 낡은 사상 잔재로부터 관료주의, 형식주의 등 각종 그릇된 사업 작풍이 나타나게 되였다. 이 문제는 당 창건 초기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있어서 차이는 있으나 오늘에 있어서도 완전히 극복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제2차 대회가 강조하였으며 그후 일련의 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들 특히 김 일성 동지의 력사적 2월 연설, 1955년 4월 전원 회의, 제3차 당 대회 등에서 계속 강조되였으며 오늘도 당내 투쟁의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되고 있다.

국가 및 사회 생활의 모든 령역에 걸쳐 우리 당의 지도적 역할과 영향력이 더욱 증대되고 당에 대한 대중의 신망과 기대가 장성할수록, 그리고 대중의 자각성과 적극성이 앙양될수록 우리 당원들과 지도 일'군들은 대중에게서 더 많이, 더 세밀히 배울 줄 아는 허심하고 겸손하고 진지한 노력이 요구되며 대중이 더욱 잘 납득하고 각성하도록 그들을 가르치며 인도할 줄 아는 능숙한 공작 방법을 소유해야 한다. 이러한 군중 관'점과 공작 방법을 확립 단련함이 없이는 대중의 앞에 서서 나갈 수 없으며 당의 로선을 대중 자체의 로선으로 전환시킬 수 없으며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더욱 강화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당은 오늘 우리 당원들의 군중 관'점 확립과 공작 방법의 개선, 반관료주의 투쟁에 대하여 특히 관심을 돌리고 있다.

당 건설 문제에 있어서 우리 당 제2차 대회가 가지는 의의는 이상으로써 끝나지 않는다. 대회는 당의 사회적 성분을 개선할 데 관한 문제, 당 간부 사업에서 당'적 원칙을 확립하고 간부 육성 사업을 개선할 데 관한 문제, 대중 단체 지도에 관한 문제, 당 이데올로기 사업을 개선할 데 대한 문제 및 기타 일련의 중요한 과업들을 제시하였으며 이 문제들에 대한 대회의 정신과 결정들은 우리 당 중앙 위원회에 의하여 정확히 실천되였으며 우리 당 사업의 모든 부문을 개선 전진시켰다.

오늘 우리는 제2차 당 대회가 제시한 모든 과업 실천을 총화하고 새로운 과업을 제시한 제3차 당 대회의 결정을 받들고 당의 가일층의 강화와 그의 전투력 제고를 위해 투쟁하고 있다.

* *

일반적으로 당의 생활에 있어서 대회가 가지는 거대한 의의에 대하여는 주지되여 있다. 그런데 우리 당 제2차 대회는 우리 당 력사에 있어서 특히 중대한 의의를 가지였다. 그것은 제2차 당 대회가 상술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정세가 극히 엄중한 시기에 전 당과 전체 조선 인민들에게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을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투쟁 강령을 제시하였으며 해방후 우리 당 및 국가 건설에서 달성한 훌륭한 성과와 경험을 맑스—레닌주의적으로 분석 총화하여 전 당을 새로운 경험과 자부심과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무장시켜 준 데 있다. 또한 그것은 대회가 그후 우리 혁명과 우리 당 발전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 정치 로선과 투쟁 과업들을 천명해 준 데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당원들은 우리 당의 전체 투쟁 력사와 함께 제2차 당 대회의 력사적 의의를 계속 더욱 심오하게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프로레타리아트의 민족적 과업과 국제적 과업의 불가분적 통일

김 영 남

최근 국제 생활에서 벌어진 사변들은 미제
를 두목으로 하는 국제 제국주의자들이 사회
주의 진영 제 국가를 반대하여 세계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려는 공동의 음모를 로골화하고
있음을 폭로하였다.

전 세계 근로자들 앞에는 맑스—레닌주의 원
칙들을 철저히 고수하여 프로레타리아 국제주
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며 혁명적 력량의 통
일과 단결을 일층 강화할 과업이 더욱 긴절
하게 제기되고 있다.

제국주의와의 투쟁에서의 로동 계급의 국제
적 단결은 그들의 민족적 과업과 국제적 과
업의 성과적 수행, 세계적 범위에서의 프로레
타리아트의 력사적 사명의 완전한 수행을 보
장하는 종국'적 담보로 되여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전 세계 프로레타리아
트는 국제 반동 부르죠아지라는 자기들의 공
통의 계급적 원쑤를 가지고 있다. 여기로부터
자본주의를 반대하며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모
든 나라 로동 계급의 공통적인 투쟁에 있어서
그들의 단결과 호상 지지 및 국제적인 련대성
이 필요하게 되며 공산주의 운동의 리익과 그
의 승리를 위한 국제적 과업들이 제기된다.
이 과업들은 사회주의가 세계적 체계로 전환
되고 로동 계급의 해방 운동의 사회적 지반이
광범히 확장되고 있는 반면에 그들의 해방 운
동을 반대하여 자본주의를 옹호하기 위한 세
계 각국 제국주의자들의 동맹이 형성된 오
늘에 있어서는 더욱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현 단계에 있어서 프로레타리아트의 국제적
과업의 중요한 내용은 우선 쏘련을 선두로 한
전체 사회주의 진영의 단결과 친선적 협조를
강화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의 통일을
보장하며 사회주의 국가들과 평화 애호 국가
들을 반대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행동과
도발 정책을 분쇄함으로써 사회주의의 위업과
세계 평화를 공고화하며 철저히 수호하는 그
것이다.

세계 각국 프로레타리아트들이 이러한 과업
의 중요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를 자기의 민
족적 과업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은 매
개 나라들에서의 로동 계급의 승리는 물론 그
들의 공동의 원쑤인 국제 반동 부르죠아지에
대한 승리를 보장하는 주요한 담보로 되며 공
산주의 운동의 한 측면으로 되고 있다. 이것
은 사회 발전의 객관적 법칙에 의하여 규정
되는 필연'적 현상인 것이다.

프로레타리아트의 민족적 과업과 국제적
과업의 통일에 있어서 그의 기본 원칙으
로 되고 있는 것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이
다.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이것은 제 인민간
의 평등과 친선 및 자주권의 호상 존중의 사상
이며 자본주의적 노예와 식민지적 억압을 반
대하는 로동 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의 투쟁의
사상이며 전반적인 평화와 민주주의 및 사회주
의를 위한 투쟁에 있어서 세계 근로자들의 단

결에 대한 사상이다.

로동 운동 내에서 발생하였고 맑스—레닌주
의 학설에 기초하고 있는 프로레타리아 국제
주의는 세계 각국 로동 계급의 력사적 목적의
공통성과 계급적 련대성을 표현하고 있다.
로동자들의 근본적 리해 관계의 공통성과 력
사적 목적의 공통성은 우선 그들의 사상적 통
일에서 표현되고 있으며 이에 기초한 로동 계
급의 단결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 승리의 필수
적 조건으로 되고 있다.

세계 각국 로동자들의 통일과 계급적 련대
성은 민족적 리해 관계와 민족적 과업에 대립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와 전'적으로
부합되는 것이며 매개 나라들에서의 혁명적
로동 운동은 로동 계급의 민족적 및 국제적
과업의 유기적인 불가분적 통일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프로레타리아트의 모든 력사적 경험, 특히
쏘련 공산당의 경험은 오직 국제주의의 기치
하에서 만 로동 계급의 승리가 달성될 수 있다
는 것을 확증해 주고 있다.

제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시기에 있
어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은 사회주의
혁명에 관한 레닌적 리론과 긴밀히 결부되고
있다. 제국주의 전선의 약한 고리에서의 제국
주의 련쇄의 파괴와 한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의 승리는 세계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개시 및
전제 조건으로 되고 있으며 세계 프로레타리
아 혁명은 한 나라에서 승리한 사회주의 혁명
과 자본주의 국가들에서의 로동 운동 및 식민
지 예속 국가들에서의 민족 해방 투쟁과의 협
조, 동맹에 기초하여서 만 종국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현 조건하에서 프로레타리아트의 국제적 련
대성은 무엇보다도 단일한 진영을 형성하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형제적 협조를 의미
하며 또 제국주의와 전쟁을 반대하는 각국 로
동 계급의 행동의 통일을 의미하고 있다. 이
러한 국제적 련대성은 자본으로부터의 해방과
평화, 민주주의 및 사회주의를 위한 근로자들
의 공동 투쟁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위대한 10월 사회주의 혁명과 쏘련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은 프로레타리아트의 국제적 련
대성의 승리를 의미하였으며 구라파와 아세아
의 여러 나라들에서의 인민 민주주의 제도의
발생 발전과 세계 사회주의 체제의 확립 등은
국제주의의 백전 백승의 위력을 확증해 주는
새로운 력사적 사실들이였다.

오늘 사회주의의 조국인 쏘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 간에는 새 형의 국제
관계, 즉 완전한 평등과 민족적 독립의 존중
및 호상 협조와 방조에 기초한 형제적 친선과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바 이는 인류 력
사에서 일찌기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현상으로
서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만 볼 수 있는 관계이
며 근로자들의 국제적 련대성의 훌륭한 체현
인 것이다.

사회주의 제 국가 근로자들의 련대성은 무엇
보다도 이 나라들이 서로 동일한 사회주의 체
제를 가지고 있는 사실로써 규정되는 것이며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사상과 그리고 종국적
목적의 공통성의 인식과 국제 제국주의의 침
범으로부터 자기의 전취물을 공동으로 고수할
필요성으로부터 흘러 나오는 것이다.

지금 제국주의자들이 자기의 력량을 결합하
기에 광분하면서 침략적 군사 쁠럭들을 조작
하고 있으며 약소 국가들을 예속화하려고 시
도하고 있으며 각국 프로레타리아트들을 사상
적으로 와해시키며 호상 대립시키려고 날뛰고
있는 조건하에서 프로레타리아트의 국제적 단
결과 련대성은 더욱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프로레타리아트의 행동의 국제적 통일을 위
하여 완강하게 투쟁하고 있는 철저한 투사는
맑스—레닌주의당들이다.

쏘련 공산당 20차 대회가 있은 후 로동 계급
의 국제적 단결을 파탄시키려는 제국주의자
들의 시도가 더욱 발광적으로 되였다는 사실
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들은 쏘련 공산당
20차 대회에서 구체화된 평화와 국제적 협조
를 위한 투쟁 강령의 실현을 두려워 하고 있
다. 특히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력의 급격한 장
성과 국제 프로레타리아트의 행동 통일의 강
화와 쏘련 인민을 선두로 한 평화 애호 인민

들의 국제 긴장 상태 완화를 위한 적극적 투쟁, 그리고 근로 대중들의 창조적 적극성의 장성 등은 제국주의자들을 몹씨 불안하게 하였다.

자기들의 침략 계획이 가는 곳 마다에서 파탄을 당하고 있는 미제를 두목으로 한 제국주의 침략 계층들은 쏘련 공산당 20차 대회의 결정이 가지는 력사적 의의와 국제 정세에 주는 무한한 영향력을 약화시키며 쏘련에 대한 세계 근로자들의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날조와 중상과 비방의 발광'적 깜빠니야를 전개하였으며 특히 쏘련 공산당 20차 대회에서 전개된 쓰딸린에 대한 개인 숭배 및 그 후'과에 대한 비판과 그리고 웽그리야에서의 사건과 관련하여 그들은 맑스—레닌주의 사상에서와 쏘베트 사회주의 제도에서 《결함》을 찾아 보려고 애쓰며 전 세계 근로자들 앞에서 쏘련 공산당을 비롯한 각국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위신을 훼손하는 동시에 각국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국제적 련계를 약화시키며 국제 로동 운동과 공산주의 운동 진영내에 혼란과 분렬을 일으켜 보려고 시도하였으며 또 하고 있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의 이러한 시도와는 정반대로 전 세계 근로자들은 쏘련 공산당 20차 대회의 결정들을 자기의 투쟁 강령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의 성과적 실행을 위하여 자기들의 혁명적 력량을 더욱 결속시키고 있다.

계급적 원쑤들의 발광적인 공세와 위협 앞에서 사회주의 진영 내부의 일부 사람들은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적 립장을 철저히 고수하지 못하고 특히 웽그리야 사건을 분석함에 있어서 맑스—레닌주의의 제 원칙 특히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으로부터 실제적으로 리탈하여 오직 원쑤들에게 만 유리한 그러한 반맑스주의적 결론들을 지었던 것이다. 비록 이와 같은 것이 부분적 현상이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프로레타리아트의 민족적 과업과 국제적 과업의 불가분적 통일성과 로동 계급의 국제적 련대성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원칙으로부터의 일탈인 이상 우리는 그것을 묵과할 수 없다. 특히 현 국제 정세를 맑스—레닌주의적으로 분석하며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한다는 구실 밑에 프로레타리아트의 국제적 련대성의 사상적 기초를 외곡하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서의 쏘련의 지위를 약화시키려는 시도의 해독성을 폭로 분쇄하는 것은 오늘 우리 앞에 제기된 긴절한 과제로 되여 있다.

쏘련을 선두로 하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국제적 련대성, 세계 혁명의 근거지인 쏘련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와 옹호는 로동 계급의 민족적 과업과 국제적 과업의 성과적 해결을 위한 가장 주요한 무기이며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보장하는 기본 담보로 된다.

쏘련을 중심으로 한 세계 프로레타리아트의 국제적 련대성이 없었더라면 웽그리야 인민들은 국제 제국주의의 적극적인 책동하에 호르찌 파쑈 도당이 도발한 반혁명적 반란을 격멸하지 못하였을 것이며 구라파의 심장부에 새 전쟁 발원지가 출현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제국주의 침략 계층들과 웽그리야의 반혁명 분자들은 웽그리야에서 사회주의 제도를 말살하고 파쑈 독재를 복구함으로써 구라파에 전쟁의 발원지를 조성하려고 시도하였으며 또 그들은 사회주의 국가들을 분렬시켜 하나 하나씩 전복하려는 자기들의 음모를 우선 웽그리야에서 실현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므로 웽그리야에서의 반혁명을 진압하는 문제는 이 나라에서 전복된 계급들의 반항과 국제 제국주의자들의 파괴 활동을 분쇄하며 인민의 사회주의적 전취물을 고수하기 위한 웽그리야 로동 계급과 근로 대중의 민족적 과업일 뿐만 아니라 바로 사회주의 진영을 수호하며 세계 평화를 공고히 하며 인민 민주주의 제 국가의 사회주의에로의 힘찬 전진 운동을 보장하기 위한 세계 프로레타리아트의 국제적 과업의 중요한 한 고리로 되는 것이였다.

웽그리야 인민에 대한 쏘베트 군대의 방조는 쏘베트 인민의 웽그리야 및 기타 사회주의 국가 근로자들에 대한 국제주의적 의무 수행의 고상한 표현이였으며 국제주의 원칙에 립각한 정당하고도 필수적인 행동이였다. 쏘베트 군대의 방조에 의하여 웽그리야 인민은 제국주의 세력의 침범을 격퇴하였다. 그리하여 구라파 중앙에서의 전쟁 발원지 창설의 위험성이 청산되였다.

이상의 제 사실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본질은 바로 전 세계 프로레타리아트들이 호상 지지하며 평화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위업을 공동으로 옹호하는 데 있는 것이다. 사회 발전의 객관적 행정이 요구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오늘 국제 로동 운동의 성과들이 장성됨에 따라 프로레타리아트의 련대성의 역할과 의의는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화되고 있다.

프로레타리아트의 국제적 련대성의 역할은 세계 사회주의 체계의 형성과 함께 더욱 장성되였다. 구라파와 아세아 제 국가 인민들이 쏘련의 경험을 모범으로 하여 쏘련의 지지와 방조하에 사회주의의 길에 들어서게 되자 국제주의는 보다 강력한 지반을 가지게 되였으며 자기 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 섰다. 그리하여 오늘의 국제주의는 세계 로동 운동의 민족적 대렬의 련대성을 의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진영 제 국가의 호상 관계의 확고한 원칙으로 되여 있다. 오늘 프로레타리아트적 국제주의의 련대성은 이것을 반대하는 분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멸되거나 또는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로동 계급과 근로 대중들의 투쟁에서 보다 광범히 보다 강력하게 체현되고 있는 것이다.

쏘련 공산당을 비롯한 사회주의 제 국가 공산당들과 로동당들은 국제주의 원칙에 립각하여 프로레타리아트의 민족적 과업과 국제적 과업의 정확한 결합에 대한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바 그것은 이 당들이 백전백승의 맑스—레닌주의 리론에 의하여 지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로동 계급의 과학적 사상인 맑스—레닌주의는 프로레타리아트의 민족적 과업과 국제적 과업의 불가분적 통일을 론증해 주고 있는 동시에 프로레타리아트의 민족적 과업 수행의 전제로 되는 그의 민족적 자주성과 애국주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는 조국과 민족적 전통 및 문화에 대한 허무주의적 무관심한 태도를 반대하고 있다. 자기의 인민을 사랑하지 않으며 자기 조국의 애국자로 되지 않고서는 국제주의자로 될 수 없다. 그것은 매개 나라가 번영하며 이 나라들에서 생산과 문화가 발전되고 인민 생활이 향상되는 기초 우에서 만 사회주의 진영의 전체적인 강화 발전이 달성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사회주의 진영의 매개 나라의 발전이 전반적으로 사회주의 진영의 력량과 위력에 의존하고 있는 것과 같이 매개 사회주의 국가의 성과는 또한 국제 사회주의 력량을 확대 강화하게 되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 인민들의 국제주의적 호상 지지가 없이는 매개 나라의 로동 계급은 자기의 민족적 과업을 수행하지 못한다.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는 인민들의 권리와 그들의 정당한 민족적 리해 관계와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고 있는 바 오직 이러한 경우에 만 근로자들을 국제주의적 련대성의 사상으로써 무장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 진영 제 국가 인민들의 국제적 련대성의 계속적인 강화는 오직 모든 인민들의 리익을 존중하며 호상 방조하며 형제적 련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며 매개 나라 인민들이 호상 협조의 유익성을 실제적으로 체득하는 조건하에서 만 가능한 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 진영 제 국가의 통일과 련대성을 파괴할 목적으로 이 나라 인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사회주의적 조국에 대한 애국주의적 감정과 민족적 전통에 대한 사랑을 부르죠아 민족주의에 복무시키는 방향으로 돌리려고 시도하고 있는 바 이를 위해 그들은 우선 쏘련과 사회주의에 대한 온갖 비난과 날조를 감행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제국주의의 억압하에서 신음하던 여러 나라 인민들에게 있어서 자기 나라의 독립과 자기 민족의 전통에 대한 감정은 각별히 예민한 것이다. 따라서 인민들의 민족적 감정과 전통들을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무기로 악용할 목적으로 민족주의자들이 떠버리는 악선동적인

공담들은 일부 락후한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들 앞에는 이미 오래 전부터 맑스—레닌주의 리론에 의하여 명확히 분석 규정된 프로레타리아적 애국주의와 부르죠아 민족주의간의 근본적 대립에 대한 정확한 견해를 다시 한번 프로레타리아트에게 상기시키며 사회주의 진영의 국제적 통일과 련대성을 파괴할 목적에 복무하는 온갖 종류의 부르죠아 민족주의 사상의 표현을 폭로 분쇄하는 투쟁에로 로동 계급을 궐기시킬 과업이 중요하게 나서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로동 계급의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는 국제주의와 긴밀히 결합되고 있는 바 그것은 매개 인민의 민족적 자유와 독립이 오직 사회주의적 발전과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형제적 협조 및 국제 로동 운동과의 련대성의 기초 우에서 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프로레타리아트의 국제적 단결과 련대성을 파괴하고 근로자들을 부르죠아 민족주의에로 유도할 목적으로 제국주의자들은 소위 《민족적 공산주의》라는 구호를 조작하였다. 이 구호로써 그들은 우선 사회주의 국가들을 맑스—레닌주의로부터 리탈시키며 사회주의 진영 대가정으로부터 리탈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

쏘련을 선두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의 통일 단결은 유일한 맑스—레닌주의 사상에 기초함으로써 철석같이 공고한 것이다.

레닌이 가르친 바와 같이 부르죠아 민족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는 부르죠아지와 프로레타리아트의 두 계급적 진영에 적응한, 그리고 민족 문제에서의 두가지 정책과 두가지 세계관을 표현하는 두개의 비타협적인 구호이다. 따라서 《민족적 공산주의》란 존재할 수도 없는 것이며 제국주의자들이 선전하는 이 구호는 본질에 있어서 민족적 기회주의이며 낡은 자본주의의 지배를 유지하기 위한 악선동인 것이다.

만일 오늘 사회주의 진영 내에서 일부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리해 관계를 다른 사회주의 나라들의 리해 관계에 대립시키거나 또한 사회주의 진영의 전반적인 리해에 대립시킨다면 이것은 필연코 객관적으로 제국주의에 복무하는 것으로 되며 민족주의의 포로로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리해 관계를 첫 자리에 내세우는척, 또 그를 옹호하는 척하지마는 사실에 있어서 그들의 행동은 자기 나라와 사회주의 제 국가를 분리시키며 사회주의 진영의 립장을 약화시키며 결국 자기 나라의 리익을 제국주의자들에게 파는 것으로 된다. 그러므로 이들은 애국주의자인 것이 아니라 민족적 기회주의자로 전락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의 조건하에서 민족적 기회주의는 주로 어떠한 면에서 표현될 수 있는가?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에서의 개별적 나라의 민족적 특수성이 가지는 의의를 과장하는 동시에 이것을 보편적으로 인정된 법칙들, 원칙들에 대립시키려는 시도에서 표현될 수 있다. 바로 제국주의자들은 《민족적 공산주의》라는 부르죠아적 구호를 선전하면서 이와 같은 것을 달성하려고 광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칙들과 쏘련의 선진 경험들로부터 리탈된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의 《특수한 방도》를 운운한다는 것은 소여의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 사업에 손실을 끼치며 사회주의 제 국가의 통일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제국주의에게 방조를 주는 것으로 된다.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이 걸어 온 해방과 사회주의 건설의 길은 맑스—레닌주의 학설이 가르친 길이며 10월 혁명이 처음으로 열어 놓았고 쏘베트 인민들에 의하여 검열된 혁명적 길인 것이다.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은 10월 혁명과 쏘련에서의 프로레타리아 독재와 사회주의 건설의 경험을 자기 나라의 구체적인 력사적 조건들에 창조적으로 적용함으로써만 사회주의의 리론과 경험을 더욱 풍부히하고 있다.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의 방법과 형태 및 속도들은 각이할 수 있으며 이것은 매개 나라 발전의 력사적, 구체적 조건들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에로 가는 길은 10월 혁명이 열어 놓은 그러한 공통적 길인 것이다.

맑스—레닌주의의 기본 원칙, 10월 혁명의 로선의 기본 내용은 프로레타리아트 당의 지도적 역할, 프로레타리아트 독재, 로동 계급과 농민 및 기타 근로자층과의 공고한 동맹, 사회주의 경제와 문화 건설에 대한 국가의 계획적인 지도와 조직자적 역할,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립각한 각국 근로 인민들의 국제적 단결과 애국주의 등등이다.

우리들이 자기의 민족적 과업과 국제적 과업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그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상과 같은 맑스—레닌주의의 기본 원칙들을 철저히 고수하여야 한다. 동시에 이러한 기본 원칙들은 오직 일정한 민족적 특수성을 통하여서 만 생활에서 구현되며 창조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의 각이한 방도에 관한 맑스—레닌주의적 관점의 본질은 그가 사회주의에로의 이행 과정에 있어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동일하게 필요한 공통적인 합법칙성의 존재를 인정하는 동시에 매개 나라의 발전의 구체적 조건들과 관련된 특수성과 이러 저러한 차이점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기에 있는 것이다. 때문에 사회주의에로의 각이한 나라들의 이행 방도에 대하여 말하면서 우리는 한개 나라의 발전에 있어서의 모든 경험들을 다른 나라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려고 하거나 다른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방법들을 그대로 모방하려는 교조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동시에 또한 자기 나라의 특수성과 특징들을 과장하면서 사회주의에로 가는 모든 로선의 공통성을 망각하며 한개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경험을 다른 나라에서의 경험에 대립시키면서 교조주의를 반대한다는 구실밑에 쏘련에서의 주요 경험들이 가지는 국제적 의의까지 부인하며 맑스—레닌주의 학설의 기본 원칙들이 가지는 보편 타당적인 의의를 부인하려는 수정주의적 경향과도 결정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일부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범한 오유들을 비판한다는 구실 밑에 일반적으로 프로레타리아 독재와 당의 지도적 역할을 과소 평가하며 인민 경제 지도 분야에서의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 원칙을 부인하려는 경향도 역시 배격되여야 한다.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떠나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건설을 운운한다는 것은 사실상 프로레타리아트를 반대하는 것이며 사회주의를 반대하여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것으로 된다.

맑스—레닌주의가 가르치는 바와 같이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은 반드시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계급적 내용으로 하는 국가적 형태를 거쳐서 만 가능한 것이며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국가적, 당'적 지도는 사회의 물질적 생활 발전의 모든 객관적 행정을 분석한 데서부터 나오는 엄격한 론리적 결론인 것이다.

계급 투쟁이 긴장해질수록 프로레타리아트는 자기의 민족적 과업과 국제적 과업의 유기적인 결합에서 그들의 성과적 수행을 보장하는 유일한 결정적 무기인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오늘 《민족적 공산주의》의 구호를 리용함으로써 사회주의 국가들을 분렬시키려던 제국주의자들의 시도는 파탄되였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공통적인 목적과 공통적인 리해 관계로써 결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들 간에는 적대적 모순이란 없으며 그들의 단결과 통일성은 매개 국가의 독자성과 옳게 조화되고 있다. 물론 사회주의 국가들의 호상 관계에서 부분적, 일시적인 오해나 오유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공통적인 사상과 공통적인 사회 제도에 기초하여 형제적인 호상 리해의 정신 밑에서 언제나 긍정적으로 해결될 수 있으며 시정될 수 있다.

최근에 쏘련 및 중화 인민 공화국과 일련의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 간에 진행된 회담과 공동 성명들은 그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국가들의 불패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경제 문화적 련계를 전 세계에 시위하였다.

쏘련과 중국을 위수로 하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위대한 단결은 평화와 모든 인민들의 진보를 위한 주되는 성새로 되고 있다. 특히 인류 력사에서 처음으로 사회주의에로의 길을 열어 놓은 쏘련과의 불패의 단결은 사회주의 진영 매개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의 성과적 건설을 위한 기본 담보로 되고 있으며 기타 모든 나라들에서의 진보적 력량의 위력한 지지자, 동맹자로 되고 있다.

우리는 사회주의 진영의 매개 나라들의 발전 행정을 일별하는 것 만으로도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친선 관계, 특히 쏘련과의 친선 관계와 단결이 매개 나라들의 독립의 강화와 사회주의 위업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놀고 있는가를 더욱 명백히 알 수 있다.

파쑈의 노예로부터 구라파와 아세아 인민들을 해방시킨 쏘련은 이 나라들에서의 인민 민주주의 제도의 창설 및 강화 발전을 보장하였으며 제국주의 세력의 침범으로부터 그들의 사회주의 건설을 보호하여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승리적 전진을 보장하는 기본 력량으로 되고 있다.

쏘련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단결은 자본주의 국가들에서의 공산주의 운동의 장성에 거대한 영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피압박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을 고무함에 있어서도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사회주의 진영 제 국가는 얼마전에 해방된 아세아와 근동 인민들을 재차 식민지 노예로 만들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새로운 흉악한 침략적 행위를 반대하여 결정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쏘련을 중심으로 결속된 사회주의 국가들의 이러한 통일과 단결은 평화의 주요 담보로 되고 있으며 새로운 전쟁 도발의 위험성을 제거하며 인류 사회의 진보를 보장하는 성새로 되고 있다. 때문에 금후 인류 사회의 발전의 운명은 사회주의 제 국가의 국제적 단결에 달려 있으며 이러한 단결은 맑스—레닌주의의 전 세계적 승리를 위한 기본 조건으로 되는 것이다.

위대한 쏘베트 군대에 의하여 해방된 조선 인민은 조선 로동당의 령도 밑에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 나라 북반부에 강력한 인민 민주주의 제도를 창설 강화하였으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조국 해방 전쟁에서 위대한 력사적 승리를 쟁취하였다.

오늘 조선 인민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장엄한 투쟁에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쏘련과 중화 인민 공화국을 비롯한 형제적 제 국가 인민들과의 친선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면서 빛나는 성과들을 거두고 있는 바 이러한 친선과 단결은 해방 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선 인민의 력사적 승리의 주요 담보의 하나로 되고 있다.

쏘련은 조선 인민을 해방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해방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선 인민의 통일 독립과 민주 건설,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서도 백방으로 되는 지지와 방조를 줌으로써 우리의 성과를 계속 보장하였다.

조선 인민의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 있어서 중국 인민 지원군의 참전은 사회주의 진영 제 국가의 불패의 친선과 호상 원조의 새로운 형태였으며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고상한 표현으로서 우리의 력사적 승리의 주요한 담보의 하나이였다.

전후 경제 건설 시기에 있어서도 쏘련과 중국을 비롯한 형제적 제 국가 인민들은 조선 인민에게 거대한 방조를 계속 주고 있는 바 이러한 국제주의적 방조에 기초하여 조선 인민은 전후 시기에 파괴된 경제를 급속히 복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부문의 산업과 공장, 기업소들을 창설하였다.

지금까지 우리가 정치, 경제, 문화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달성한 제 성과는 조선 로동당의 령도 밑에 우리 인민이 달성한 창조적 로력의 열매인 동시에 쏘련을 비롯한 형제적 제 국가 인민들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국제주의적 원조의 결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우리 당과 정부는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과의 국제주의적 친선 단결을 자기의 대외 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 원칙의 철저한 수행을 위해 백방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

특히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정부 대표단이 형제적 국가들을 친선 방문한 사실은 이 나라들과 우리 나라와의 국제주의적 친선 관계와 단결의 발전에서 거대한 사건으로 되였다.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조선 인민과 쏘련 인민의 형제적 협조는 경제 및 문화 건설의 모든 령역에서 주요한 역할을 놀고 있다. 쏘련과의 긴밀한 련계와 협조는 우리 나라 인민들의 장성되는 국제주의 사상의 력량을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제 인민의 자유와 평등 및 세계 평화의 믿음직한 성새인 쏘련에 대한 조선 인민의 사랑과 신뢰는 무한이 장성되고 있다.

사회주의 조국이며 조선 인민의 진정한 해방자이며 원조자인 쏘련에 대한 우리의 국제주의적인 태도는 곧 세계 혁명과 맑스—레닌주의 사상에 대한 원칙적인 태도로 되는 것이며 민족적 과업과 국제적 과업의 객관적인 통일성으로부터 흘러 나오는 합법칙적인 것이다.

쏘련을 지지하며 옹호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국제주의자로 될 수 없다. 때문에 우리 당은 자기 조국을 사랑하는 동시에 쏘련을 지지하며 수호하는 국제주의 사상으로써 조선 인민을 무장시키고 있다.

우리 당은 프로레타리아트의 국제적 단결을 위한 철저한 투사인 로동 계급의 선봉대의 역할을 약화시키며 우리 나라와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친선 련계와 국제적 련대성을 파괴하려는 사소한 시도라도 이를 묵과하지 않으며 제때에 그를 결정적으로 폭로 분쇄한다.

지난 8월 전원 회의에서 적발 폭로된 종파분자 최 창익, 윤 공흠, 서 휘, 리 필규, 박 창옥 동지들은 맑스—레닌주의 사상과는 아무러한 인연이 없는 자기들의 반당적 종파적 야심을 엄폐하며 우리 당의 맑스—레닌주의적 지도부를 전복하며 당의 혁명적 전통을 말살할 목적으로 로동 운동에서의 소위 《종파의 유익성》을 떠벌리였으며 형제적 당들과의 우리 당의 국제적 단결과 련대성을 파괴할 목적으로 일부 사회주의 국가들이 자국내에 존재한 부분적인 결함들을 시정하고 있는 사실과 관련하여 우리 당의 정당한 맑스—레닌주의적 로선과 정책을 비방 중상하려고 시도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분자들의 반당적 견해와 종파적 파괴 행동은 우리들의 민족적 및 국제적 과업 수행 도상에 장애로 되였는 바 그의 분쇄는 당 대렬의 공고화와 형제적 당들과의 국제적 련대성의 강화, 국제 로동 운동, 공산주의 운동의 통일을 보장하는 위업에의 우리 당의 한갖 기여로 되였다.

지금 조선 인민은 조선 로동당의 지도하에 형제적 국가들의 계속적인 원조에 고무되면서 조선 로동당 3차 대회의 결정을 실행하기 위한 창조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난번 당 중앙 위원회 12월 전원 회의 결정에 의하여 지도되면서 제1차 5개년 계획의 첫해인 1957년도 인민 경제 계획 과제의 성과적 수행을 위한 투쟁에 총 궐기하고 있다.

국제 로동 운동에서와 평화와 진보를 위한 투쟁에서 그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 있는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위대한 사상은 날이 갈수록 조선 인민의 생활 속에 더욱 깊이 뿌리박고 있으며 자기 사업의 정당성과 최종적 승리에 대한 우리 인민의 신념을 더욱 확고히 하면서 민족적 과업과 국제적 과업의 성과적 수행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고무 추동하고 있다.

당원들의 당 생활에 대한 일상적 통제

홍 진 삼

매개 당원들의 당 생활을 일층 강화하며 그들의 당성을 부단히 단련시키는 문제는 우리 당을 공고히 하며 그의 전투력을 더욱 제고하는 기본 고리로 된다.

우리 당은창건 첫날부터 전체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며 그의 당성을 부단히 제고하기 위하여 시종 일관 투쟁하여 왔으며 또 하고 있다.

당의 일상적이며 정확한 지도에 의하여 절대 다수의 당원들은 당과 혁명 앞에서 무한히 충실하며 당이 주는 과업이라면 어떠한 애로와 곤난이든지 무릅쓰고 헌신적으로 실천하기에 준비되여 있으며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철석같이 단결되여 있다.

오늘 우리 당이 당원들의 당 생활과 당성 단련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중요하게 내세우고 이것을 특히 강조하게 되는 것은 비단 우리 당 내의 부분적 당원들이 아직도 당 생활에 잘 참가하지 않고 그들의 당성이 미약한 그것에 만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당 앞에는 적과 상치한 조건 하에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힘차게 추진시키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여야 할 거대하고 어려운 정치 경제적 과업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 당 자체를 강화하며 그의 전투력을 일층 제고시키기 위한 기본 고리는 무엇보다도 당원들의 당 생활과 당성을 강화하는 데 있다.

당 생활에서 두개의 규률을 허용하지 말자.

우리 당 제3차 대회는 당원들의 당 생활에 대한 지도를 강화할 문제를 제기하면서 특히 당원들의 당 생활을 조직 지도하는 간부들로부터 당 생활에 충실히 참가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당원들의 당 생활을 강화함에 있어서 간부들의 당 생활을 강화하는 문제는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주로 간부들의 당 생활을 강화함에 있어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만 언급하려 한다.

전반적인 현상은 아니지 만 일부 성(국), 중앙 기관 및 행정 사무 기관 내 당 단체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정 사업에 대한 당'적 통제권이 부여되지 않은 그 기관 내 초급 당 단체가 간부들의 당 생활을 어떻게 지도 통제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자주 제기된다. 사실 성(국), 중앙 기관들을 비롯한 행정 사무 기관 내 초급 당 단체들이 그 기관 행정 관리 사업을 협조하는 문제와 매개 당원들, 그 중에서도 특히 간부들의 당 생활을 통제하는 문제는 리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성(국), 중앙 기관 내 초급 당 단체를 비롯하여 행정 사무 기관 내 당 단체들에게는 행정 관리 사업에 대한 통제권이 부여되지 않았다. 이것은 사무 기관 내 당 단체들이 행정 책임자들로부터 그가 책임진 행정

사업에 대한 사업 결산 보고를 요구할 수 없으며 그에게 사업 방향과 행정 관리 문제에 대한 과업들을 위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당 단체들이 그 기관 행정 사업에 대하여 무관심하라거나 그 기관 내에서 사업하고 있는 당원들, 특히 간부들의 당 생활에 대하여 방관시하라거나 이에 대한 일상적 지도와 통제로부터 물러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당 내에 두개의 규률을 허용하지 않는 우리 당은 당 규약상 의무를 실행함에 있어서나 당 생활에서 당 단체와 당원 대중의 통제를 받지 않는 그러한 특수한 당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만일 어떤 당원들이 당내에서 특권을 요구하며 당 규률을 준수하지 않고 비조직'적으로 행동한다면 당원들의 사상, 의지 및 행동의 통일은 약화될 것이며 따라서 전체 당원들을 우리 당이 내세운 혁명 과업 수행에로 성과 있게 조직 동원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당은 직위와 공로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당원들에게 꼭 같이 당의 유일한 규률, 당의 유일한 규약상 제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당 생활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아직 일부 당 단체들에서는 큰 간부라 하여 그들의 당 생활에 대해서는 오직 당 중앙 위원회나 당 상급 기관에서 만 지도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릇 생각하고 초급 당 단체로서 응당히 실행하여야 할 그들의 당 생활에 대한 통제로부터 물러서고 있다. 이것은 잘못이다.

이러한 잘못은 성(국), 중앙 기관을 비롯한 행정 사무 기관 내 당 단체들에게 그 기관의 행정 관리 사업에 대한 통제권이 부여되지 않고 있다는 이 사실을 당원들, 특히는 간부들의 당 생활에 대해서까지 통제할 수 없으며 나아 가서는 간부들의 사업에 대하여 비판이나 충고도 줄 수 없는 것같이 잘못 생각하는 데로부터 발생되고 있다. 지어 일부 당 단체들에서는 일부 간부들이 자기 사업을 연구하지 않고 당과 정부의 결정 지시들의 집행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거나 외곡 집행하며 당의 통일과 단결을 파괴하는 반당'적 행위를 감행하여도 그를 방임하는 데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당'적 원칙을 떠나서 무원칙하게 간부라 하여 그들의 당 생활과 사업에 대하여 무관심할 수 없다. 만일 간부라 하여 무원칙하게 그의 당 생활이나 사업에 대하여 방임한다면 당 중앙 위원회 8, 9월 전원 회의들과 그후의 전원 회의들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각급 당 단체들의 회의에서 여지없이 폭로 규탄된 최 창익, 박 창옥, 윤 공흠, 서 휘, 리 필규 등 반당'적 종파 분자들의 소행과 같은 그러한 반당'적 행위도 적발되지 않고 묵과될 수 있다. 이들 반당 분자들이 소속되였던 당 단체들에서는 장기간 반당 분자들이 당 생활에 참가하지 않고 자기 사업을 태공하며 당과 정부의 정확한 제반 시책들을 비난 외곡하여 우리 당 중앙 위원회를 중상 모해하며 마지막에는 자기들의 더러운 정치적 야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반당'적 종파 음모까지 감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때에 적발 폭로하지 못하였다. 지어 부분'적인 초급 당 단체 지도 일'군들은 당의 로선과 원칙들을 고수하여 투쟁할 대신에 반당 분자인 개별적 사람들을 우상같이 믿고 《큰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모두 틀림 없겠지》 하고 그들에게 추종하여 추잡한 종파 음모를 조장시켰거나 그에 휩쓸린 사실까지 있었다. 이러한 당 단체 지도 일'군들은 그들의 주관적 의도 여하를 불문하고 장기간 당 단체 내에서 두가지 규률을 허용하였으며 그리하여 당원들을 평당원들과 간부 당원들로 갈라 놓고 행정 간부들의 지위를 당 생활에까지 옮겨 놓게 하였으며 지어는 반당 분자들을 당 단체 내에서 《신성 불가침》의 존재로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당 단체들이 간부들의 당 생활에 일상적 주의를 경주하며 그의 사업에서 나타난 이러 저러한 결함들을 제때에 비판 시정해 주는 것은 간부들 자신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아무리 능력 있고 당과 혁명에 충실할 각오를 갖고 있는 간부이라 할지라도 만일 그가 군중들로부터 리탈되였거나 당 단체와 당원 대중의 일상적 통제로부터 리탈된다면 그는

결국 발전 변화하는 현실 생활에서 뒤떨어지게 되며 불가피적으로 사업에서 실패와 파탄을 초래케 된다는 것을 경험은 보여 주고 있다는 것이다.

당 단체들이 모든 것을 간부라 하여 그의 자각성에 만 일임하고 방임한다는 것은 간부를 귀중히 여기지 않으며 간부를 존중하지 않는 표시로 평가될 수 있다. 자각성에 일임하고 방임할 것이 아니라 간부들의 사업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도와 주며 사업상 결함과 오유들을 제때에 비판 시정해 주며 당 생활에 충실히 참가하도록 요구성을 높이는 것은 간부를 귀중히 여기며 존중하며 그의 사업을 방조하려는 진지한 념원의 표시인 것이다.

간부들의 당성 단련과 당 생활에 대한 당 단체의 일상적 지도와 통제를 옳게 보장하는 문제는 물론 용이하고 단순한 일은 아니다. 간부들의 당 생활을 당 단체들이 통제할 수 있고 또 반드시 통제해야 한다고 하여 간부들의 위신과 인격을 훼손시키는 사실들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간부들의 당 생활을 통제함에 있어서 매개 당 단체들의 구체적 실정과 간부들의 개성, 취급되는 문제들의 성질 등에 따라 그에 적당한 여러가지의 수단과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성(국), 중앙 기관 내 당 단체들을 비롯하여 행정 사업에 대한 통제권이 부여되지 않는 행정 사무 기관 내 당 단체들에서 행정 사업을 직접 지도하고 있는 간부들의 당 생활을 어떻게 지도 통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당 생활에 대한 통제와 행정 사업에 대한 통제를 혼동하지 말자.

당원들의 당 생활은 우리 당 제3차 대회에서 진술한 당 중앙 위원회 사업 총결 보고에서 김 일성 동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당 회의와 학습회에 참가한 회'수와 당비 납부 등 초보적 요구에 만 머물어 있을 수 없다.

매개 당원들의 당 생활에서 본질적 의의를 가지는 중요 측면들은 우리 당 규약상 제 원칙과 그의 제 요구들로부터 출발하여 당내 의지 및 행동의 통일을 위한 사상 투쟁에 적극 참가하며 당 규률에 대하여 자각적이고 정치, 경제, 문화 건설 분야에서 맡겨진 자기 임무 실행에 충실하며 군중 관'점을 확립하고 군중 공작을 옳게 수행하며 자기의 정치, 문화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데 있다. 매개 로동당원들의 당 생활에서의 충실성 여부는 바로 이러한 규약상 제 요구들의 실행 결과에 의하여 평가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당 생활은 매개 당원들의 사회 정치 생활과 모든 국가적 활동을 포괄한 심오하고 광범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당 단체들은 당원들의 당 생활을 일상적으로 통제함에 있어서 당 생활의 어떤한 국한된 측면에만 대해서가 아니라 전반적 각도에서, 우선 전체 당원들이 동일하게 준수 집행하여야 하며 그들의 당 생활에 있어서 확고 부동한 기초로 되는 당 규약상 원칙과 제 요구로부터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즉 당 단체들은 매개 당원들, 그 중에도 특히 간부들이 당원들의 선두에 서서 당 규약상 제 원칙들을 어떻게 준수하며 당 규약에서 규정된 당원들의 의무와 권리를 실행 보장하기 위하여 어떻게 노력하는가 하는 문제를 당 생활에 대한 통제에 우선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당 단체들이 행정 간부들에게 당 생활에서 충실하고 당 규약상 제 원칙들을 철저히 준수 집행하도록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며 그들의 사업에서와 사회 정치 생활에서 발로될 수 있거나 혹은 발로되는 사소한 결함과 오유라 할지라도 동지적 충고와 비판으로 시정해 주며 그가 어데까지나 당의 원칙과 로선에 충직하도록 일상적으로 지도 통제하는 것은 결코 간부를 경솔히 대하거나 행정 사업을 대행 간섭하거나 상급 당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

만일 어떤 당원들이 자기 맡은 사업을 깊이 연구 집행하지 않고 이를 태공하며 당 및 국가 규률을 위반하며 당과 정부의 결정 지시들을 외곡하거나 그의 실행을 지연시킨다면 당 단체는 그의 직위와 공로 여하를 불구하고 응당한 비판과 타격을 주어야 할 것이다. 사무 기관 내 당 단체들에게 행정 관리 사업에 대한 통제권이 부여되지 않은 이것은 그 당 단체들로 하여금 그 기관 내 당원인 간부들의 당 생활을 강화하며 그들의 당성을 부단히 제고시킴으로써 그들에게 부여된 당'적 및 국가적 과업들을 성실히 실행하도록 지도 통제함에 있어서 하등의 구속도 주지 않으며 방해로도 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우리는 불만족하나마 서로 다른 두가지 개념에 대하여 즉 사무 기관 내 당 단체들이 행정 관리에 대한 통제권이 없다는 문제와 당 단체들이 당원들, 특히 간부들의 당 생활을 통제할 수 있다는 문제가 혼동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사무 기관 내 당 단체들은 그 기관 행정 관리에 대한 통제권은 없으나 간부들의 당 생활에 대한 통제권은 다른 모든 당원들의 당 생활을 통제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다.

그런데 당원들의 당 생활에 대한 당 단체의 일상적 통제라는 것은 당 단체 위원장이나 혹은 몇몇 당 위원들 만이 실시하는 그러한 통제가 아니라 광범한 당원 대중이 참가하는 그러한 통제이다. 만일 당 단체들이 이 사업에 광범한 당 열성자들을 인입하지 않고 또 그들에게 철저히 의거하지 않는다면 당원들의 당 생활을 당 위원장이나 몇몇 당 위원들의 력량만을 갖고서는 옳게 통제할 수 없으며 당원들의 사업에서 오유와 결함들을 제때에 밝혀 낼 수 없으며 문제 해결에서의 일면성과 부정확성을 피할 수 없으며 부분적인 경우에는 있을 수 있는 옳지 못한 일부 행정 간부들의 중압을 감당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현상들에 추종해 버리게 되는 때도 있을 것이다.

간부들의 당 생활에 대한 당 단체들의 일상적 통제는 주로 당원 대중들의 밑으로부터의 통제, 그들의 창발성과 적극성, 당에 대한 충실성으로부터 흘러 나오는 당원 대중들의 밑으로부터의 비판을 강화함으로써 만이 옳게 보장될 수 있다.

당 생활을 통제함에 있어서 밑으로부터의 비판을 발양시키자.

간부들의 당 생활을 강화하고 그의 당성을 부단히 제고시킴에 있어서 당 내 민주주의를 광범히 발양시키며 비판과 자기 비판, 특히 밑으로부터의 비판을 활발히 전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문제는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당 내 민주주의의 발양은, 말로써는 밑으로부터의 비판을 강화하라고 강조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당원 대중들의 진정한 동지적 비판을 허심하게 받지 않고 이를 보복하는 현상들과 당 단체들이 강력히 투쟁하는 동시에 당원들의 권리를 충분히 옹호해 주며 당 단체들과 지도 간부들 자신이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써 비판과 자기 비판의 선두에 서서 비판에 대한 정직하고 량심적인 산 모범을 보여 줌으로써 만이 가능한 것이다.

아직도 일부 성(국), 중앙 기관 내 초급 당 단체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간부들 속에서는 당원 대중의 진정한 제의와 비판들을 접수하지 않고 그를 묵살하거나 여러가지 수단과 방법으로 복수하려는 현상들이 지속되고 있다. 심지어 비판에 대한 박해자들과 투쟁할 대신에 지난 기간 상업성, 건설성 초급 당 단체들에서와 같이 때로는 무원칙하게 일부 옳지 못한 행정 간부들의 편에 서서 그들에게 아첨하며 진정한 당원들에게 《당'적 압력》을 가한 현상들까지 있었다.

당 단체와 당원 대중의 통제로부터 벗어난 김 승화 동무는 행정 간부들이 당원들 앞에서 자기 비판하는 것을 한개의 수치로 생각하고 당원들의 정당한 제의와 비판에 대하여 항상 적대와 증오감으로 대하였다. 그는 창발적 의견을 제의하는 당원들에게 《창안 뿌로까》니 《당에 대한 아첨 분자》니 《공명주의자》니 등등의 감투를 씌우면서 그들을 인격'적으로 모욕하였으며 원칙적 립장에서 투쟁하는 당원들을 박해하였다. 그러나 이곳 초급 당 위원장은 김 승화 동무의 이러한 반당'적 행위

를을 시정시키고 당원들의 권리를 보장하여 주기 위해 투쟁할 대신에 당'적 원칙을 포기하고 그에게 맹종 아첨하였으며 당 회의에서는 그가 어떠한 비당'적 발언을 하여도 《상 동지가 상세히 말씀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결론으로 대신하겠다》는 식으로 언제나 그를 옹호하여 나섰다. 이러한 조건 밑에서는 모든 당원들이 간부들의 당 생활과 사업에서 발생되는 결함과 오유들을 시정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설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적 원칙에 확고히 서지 못하고 당성이 강하지 못한 일부 당원들은 김 승화 동무와 그 기관 사업에 내재하고 있는 엄중한 결함들을 알면서도 보신주의적 경향으로 나갔으며 자기에게 돌아 올 행정적 압력과 복수가 두려워 본체 만체 하였으며 당의 로선은 어떻게 외곡되든지 간에 될수록 무사히 지내자는 데까지 이르게 되였다. 이러한 현상들은 상업성, 건재 공업국 내 초급 당 단체들에도 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당 단체들에서는 간부들에 대한 당원 대중의 하부로부터의 비판이 거의 전개되지 못하였으며 일부 당원들을 당 실제 사업에서 물러 서게 하였다. 그리하여 당 단체와 당원 대중의 통제로부터 거의 완전히 벗어난 일부《지도 간부》들은 정치 사상적으로 락후되고 대중과 리탈되였으며 또 자기 사업을 태공하며 당을 반대하는 종파 음모까지 감행하였다. 이것은 비단 우리 당과 혁명에 손실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간부 자신을 망쳐 먹게 하였다.

이 생생한 경험은 만일 당 단체들이 당내 민주주의를 발양시키지 않고 당원 대중의 적극성을 억제한다면 또 밑으로부터의 동지적인 비판을 마음 놓고 전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지 않고, 비판에 대한 억압과 복수에 대하여 군중의 창발적 제기와 신소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들에 대하여 적극 투쟁하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참을 수 없는 해독적 결과를 산생시킨다는 심각한 경고를 주고 있다.

그러나 다 아는 바와 같이 간부들의 사업과 당 생활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현상들에 대하여 당원 대중의 밑으로부터의 비판을 강화하라는 이 당'적 요구는 결코 간부들을 존엄성 없이 대하거나 당원들 간에 부질 없이 불신임을 조성하여 리간을 시키거나 또 개별적인 비판과 충고로써 능히 처리할 수 있는 문제들까지도 반드시 당 회의에 상정시켜 취급하라는 것은 물론 아니다.

당의 사상 의지 및 행동 통일을 강화하며 당 규률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 있어서 또 간부들의 권위와 신망을 높여 주며 기관 내에서 제도와 질서를 확립하며 유일 관리제 원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밑으로부터의 비판은 결코 간부들의 위신이나 권위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될 수 없다. 그러나 당 내 민주주의를 표방하여 무원칙한 비판을 정당화하려 하거나 혹은 소위 토론에서의 자유 분위기를 운운하면서 당내 민주주의를 비속화하며 당의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를 약화시키려고 시도하는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결정적 타격을 주어야 할 것은 물론이다.

당 단체는 당원들이 호상 보다 튼튼히 단결하는 원칙에서 호상 비판하도록 지도하면서 간부들과의 정상적 사업을 일층 강화하며 당 단체 사업에 대해서도 그들과 함께 수시로 토의하고 그의 방조를 받으며 기관 내부에서와 당원들의 당 생활에서 발생된 결함을 제때에 알려 줌으로써 당 사업에 대한 지도 간부들의 관심을 제고시키는 문제도 또한 중요하다.

당 생활 규범의 사소한 위반도 허용하지 말고 통제를 강화하자.

간부들이 당 단체와의 정상적 관계를 옳게 유지하며 당원으로서 그가 당 규률과 당 규약상 제 원칙들을 솔선하여 준수하며 당 생활에서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는 문제는 참으로 중요하다.

만일 간부들의 당 생활과 당성 단련 문제에 대한 일상적 통제를 론의할 때 그러한 통제는 당 단체가 할 일이고 간부들은 당 단체의 통제를 받는 수동적 립장에 만 서게 된다면 이것은

큰 착오이다. 매개 당원들의 당 생활과 당성 단련을 강화하는 문제는 우리 당을 보다 공고히 하는 기본 고리인 것 만큼 그 책임은 전체 당 기관, 당 단체, 그리고 전체 당원들, 간부들에게 속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아직 부분적 지도 일'군들 중에는 당 생활에서 당원들에게 모범을 보이며, 충실한 당 생활을 통해서 자기의 당성을 부단히 제고하도록 노력할 대신에 행정적 지위가 높아지면 당성도 저절로 제고되는 듯이 생각하고 자고자대하여 당 규률을 준수하지 않고 당 단체와 당원들의 비판과 충고를 《행정 사업에 대한 간섭이요》, 《간부를 중상하오》 하는 등등의 언사로써 억제하며 당원 대중의 동지적인 통제로부터 벗어나려고 시도하는 일들이 있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경향은 당의 사상 의지 및 행동 통일에 대한 무관심한 표시이며 당의 전투력의 제고에 대한 관조적 태도이다.

이러한 간부들은 당 단체나 당원들이 자기에게 돌려 주는 동지적 배려, 특히는 자기의 당 생활이나 사업에 대하여 주는 동지적인 방조까지도 시끄러운 간섭으로 간주하며 집체적 지혜를 무시하고 자기 개인의 《재능》과 《총명》을 과신하며 자기 개인을 당 우에 올려 놓으려 하며 당 생활에서는 특권을 주장한다.

김 승화, 리 필규 동무들은 지난 1년간에 당 회의에 한 차례 밖에 참가하지 않았다. 단 한 차례 참가한 당 회의에서도 리 필규는 당 단체 회의에서는 《들을 만 한 것 없고 배울것이 없다》하여 중도에서 퇴장해 버리였다. 이렇게 하여 이곳 당 단체들에서는 책임 간부들이 당 회의에 안 참가하는 것이 한개의 관례로 되여 있었다.

물론 성(국), 중앙 기관 내 간부들이 여러가지 사정으로 당 회의에 부득이 참가 못할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리해할 수 있다. 그러나 당 회의에 참가하지 않은 모든 경우가 다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 부분적인 간부들은 당 회의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리 긴급하지 않은 회의를 조직하거나 아무 일 없이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서도 당 회의에 참가하지 않은 사실까지도 있었다. 당비를 납부하는 데 있어서 조차도 일부 간부들에게서는 규률을 지키지 않고 남을 시켜서 납부케 하는 참을 수 없는 무책임성을 찾아 볼 수 있다.

정당화될 수 없는 이러한 현상들은 물론 그 책임이 당에 대하여 성실하지 못한 일부 간부들에게 있다. 그러나 동시에 당 생활에서의 극히 초보적인 규범마저 지키지 않는 당원들의 당 생활에 대하여 통제하지 않고 그를 방임한 해당 기관 내 당 단체들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

당 생활에서 주지된 이 초보적인 규범에 대한 란포한 위반을 우리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단순히 단정할 수 없다. 만일 당 생활 규범에 대한 사소한 위반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허용되는 것이 관례로 되거나 그것이 특히는 어떠한 개인에게 있어서는 불가피한 것 같이 간주된다면 두개의 규률을 당 내에서 허용하지 않는 우리 당에 부지 부식간에 두개의 규률, 특수적으로는 간부들에게 만 허용되는 규률을 허용하게 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초래되는 엄중한 후'과를 면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우리 당의 투쟁 경험은 비록 사소한 것 같이 보이는 규률 위반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아가서는 우리 당 건설의 기본 원칙을 침해하며 혁명과 당에 큰 손실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당의 사상 의지 및 행동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사소하게 보이는 결함과의 투쟁이 결코 과소 평가될 수 없다.

출장 현지에서의 당 생활 강화를 위하여

오늘 우리 당은 상부의 지도를 하부에 접근시키며 하부 기관들에 대한 구체적 산 지도를 일층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많은 간부들이 일련의 중요한 당'적 및 국가적 과업들을 책임지고 더욱 자주 하부 지도 사업에 동원되게 된다. 이러한 사정은 장기간 출장 나간 당원들이 당 단체의 일상 지도와 통제에서 제외되여 당 단체의 구체적 방조를 받지 못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군들의 출장이 빈번한 행정,

자무 기관 내 당 단체들 앞에는 출장이 많은 당원들과의 사업을 일층 개선하며 출장 현지에서도 당 생활을 강화하며 국가적 립장에서 자기 임무를 충실히 실행하도록 지도 방조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성(국), 중앙 및 행정 자무 기관 내 초급 당 단체들에서 출장 나가는 모든 동무들의 당 생활을 출장 현장에서 지도할 수 없으며 또 그가 출장 기간에 수행한 사업 보고를 일일이 청취할 수도 없다.

그러나 국가 검열성을 비롯하여 당원들의 출장이 많은 몇개 기관 내 당 단체들에서의 사업 경험은 만일 당 단체들이 출장 나가는 당원들과의 정상적인 련계를 옳게 보장한다면 출장 현지에서도 당원들의 당 생활을 강화할 수 있으며 사업에서 오유와 결함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검열성 당 단체의 경험을 연구하여 일반화할 가치가 있다.

평균 65%에 해당되는 당원들이 현지에서 사업하고 있는 검열성 당 단체는 자기 사업의 중요한 고리의 하나를 출장 현지에서 공작하는 당원들과의 련계를 정상적으로 보장하며 그들의 당 생활을 강화하는 데 돌리고 있다. 성 당 위원회는 일정한 임무를 맡고 같은 지방 또는 같은 기관, 기업소들에서 현지 공작하는 당원들을 위하여 출장 현지들에서 하여야 할 당'적 과업들과 학습 과제들을 제시하여 주고 림시로 당 생활을 지도할 책임을 어느 한 당원에게 위임하고 있다.

이러한 책임을 진 당원의 지도 밑에 현지에서 당원들은 당 생활, 특히 당 학습과 일상 생활들을 옳게 조직하며 사업에서 나타난 결함들과 오유들을 당원들의 집체적 지혜로써 제때에 비판 시정하도록 구체적 대책을 취하고 있다. 출장 현지에서 돌아온 당원들에 대하여는 출장 기간 중 당 생활 정형을 총화하며 그 경험들을 다른 그루빠들이나 당원들에게 보급시키고 있다. 이것은 긍정적 결과들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 당원들이 출장이 빈번하여 당 회의에도 참가할 수 없으며 특히는 당 정책들도 연구할 수 없다 하여 학습을 태공하던 그릇된 현상들을 퇴치하고 있으며 지도와 통제가 부족한 데로부터 발생할 수 있었던 관료주의와 형식주의, 독단주의, 주관주의적 사업 방법들이 현저히 제거되고 집체적 협의와 비판과 자기 비판이 더욱 강화되여 일'군들의 책임성도 더욱 제고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당 단체들이 이렇게 사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직 적지 않은 당 단체들에서는 출장 나간 당원들의 당 생활에 거의 주의를 돌리지 않고 그들을 당의 통제와 지도 밖에 내버려 두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당원들의 출장이 많은 당 단체들에서 출장 현지에서 당원들의 당 생활을 옳게 조직하며 그를 옳게 통제하는 문제는 극히 중요하다.

* *

오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력사적인 우리 당 제3차 대회가 제시한 총 로선에 튼튼히 립각하여 최대한의 증산과 절약으로써 1957년도 인민 경제 계획 과제를 완수 및 초과 완수할 것을 호소한 당 중앙 위원회 12월 전원 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총 궐기하고 있다.

인민 대중은 자기 앞에 제기된 모든 난관과 애로를 타개 극복하면서 지난 1개월 간에 벌써 자기의 증산 과제를 완수 및 초과 완수하면서 지도 일'군들에게 더욱 더 높은 건설적인 요구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지도 일'군들에게 보다 지도에서의 정확성을 요구하고 있다. 당원들 지도 일'군들의 책임성은 점점 더 증대되여 가고 있다.

오늘 특히는 지도 일'군들의 당 생활을 일층 강화하고 당성을 꾸준히 단련 제고하는 문제는 당과 국가 앞에 충실하며 날로 장성하는 대중의 요구에 민첩히 수응하기 위한 기본 고리의 하나이다.

실용주의 철학은 미제 침략의 사상적 도구

신 남 철

실용주의는 19세기 70년대 말에 소위 《제3 세계관》으로서 미국에서 발생한 것이다. 그것은 세계 제패를 실현하기 위하여 전쟁 방화와 식민주의를 자기 정책으로 하는 미 제국주의의 철학적 기초로 되고 있는 주관 관념론이다. 그것은 유물론은 물론 소위 관념론도 반대한다고 하며 세계관의 진리성은 인간 생활의 실제적 가치, 리익, 효능 등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선포한다. 그리하여 철학은 객관적 진리나 합법칙성을 연구하는 일반적 리론 방법이어서는 아니되고 어데까지나 생활에 유익하고 리익이 되는 현실 활동의 경험을 연구하는《과학》이며 그 경험이 인간 정신을 자본주의 세계의 환경에 적응(適應)하도록 지도(指導)하는 《과학》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실용주의 철학 사상은 제국주의적 조건하에서의 산물로서 미국 촬스. 피어스 (1839——1914)에 의하여 시작되였다. 그는 1878년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관념을 명석하게 할 수 있는가》 라는 론문에서 실용주의(프라그마티즘)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였다. 이 말은 희랍어 《프라그마》 (활동, 사실 등)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실제적인 리익과 실용을 진리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사상이다. 이러한 실용주의 사상은 윌리암 제임스 (1842—1910의 저서 《프라그마티즘》 (1907년)에 의하여 하나의 반동적 철학 리론으로서 정식 발족하게 되였고 그것이 죤. 듀이(1859—1952)에 의하여 계승 발전되여 미 제국주의의 가장 반동적 침략적 반과학적인 사상 무기로서 리용되고 있다.

1, 소위 《미국식 생활 양식》의 리론의 본질

미국 반동적 부르죠아 사상가들에 의하여 설교되고 선전되고 있는 소위 《리론》의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메리카식 생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것의 본질은 미국 자본주의를 특종의 자본주의로서 외곡하며 모순도 공황도 실업도 없는 새 형의 자본주의——《민주주의적 자본주의》니 《인민적 자본주의》니 하는 신화로써 특징지어 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제의 대변자들은 미국 자본주의는 《봉건적 잔재를 알고 있지 않으며》 《평화적으로 전쟁과 침략이 없이》 발전하여 《영구한 번영》의 나라로 될 것이라고 기만하고 있다(린지나. 제국주의 반동에 복무하는 영국과 미국의 부르죠아 경제학자들. 1954년, 모쓰크바, 75페지).

그러나 그같은 리론이 완전히 황당 무계한 것이라는 것은 벌써 아동 주졸도 다 아는 사실이다. 레닌은 이미 1917년에 《농업에 있어서의 자본주의 발전의 법칙에 관한 새 자료》 라는 저작에서 미국에는 노예적 봉건적 잔재가 강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지적하였던 것이다(전집, 22권, 12—13페지). 레닌이 지적한 그 잔재들은 오늘 날도 독점 자본에 의하여 보유되고 있으며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노예적, 농노적 로동을 토대로 한 남방 지주와 동북 지대의 산업 자본가들 간의 모순은 1861——1865년 간의 남북 전쟁을 야기시켰고 그것이 북방의 승리로 귀결되자 산업 자본의 세력은 서부와 남부의 농업 지대를 략탈적으로 침윤해 갔고 태평양 연안에 도달한 뒤에는 다시 하와이와 비률빈을 무력으로 강점하여 제국주의 침략 정책을 로골화하였다. 조선에 대한 미 제국주의의 음흉한 침략적 야망도 전세기 70—80년대에 시작되였던 것이다.

20세기에 들어 오면서 미 제국주의의 무력 침공에

의한 팽창 정책은 1차 세계 대전에 참가한 것, 쏘베트 로씨야에 대한 적극적인 무장 간섭자로 나타난 것, 2차 대전 이후 세계 반동과 침략의 중심으로 출현한 것, 조선에 대한 침략 전쟁을 도발한 것, 그리고 오늘 날에는 원자 무기에 의한 세계 제패를 공개적으로 방언하고 있는 것 등으로 특징지어 지고 있다.

타국 인민에 대한 최대한 리윤 추구를 위한 야수적 략탈과 전쟁 방화 정책은 자국내 억만 장자들을 더욱 배불려주고 있으며 반면에 근로 인민에 대한 백여낼 수 없는 세금 부담과 생활의 군사화와 체계적인 파쑈 탄압으로써 빈궁과 무권리를 격화시키고 있는 것은 오늘의 미 제국주의의 실태이다.

그러므로 미국 자본주의의 평화적 발전이라는 허위 날조는 아무도 고지 듣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미국 자본주의의 소위 《영구한 번영》도 또한 거짓말이다. 미국의 소위 《호경기》라는 것은 국가에 의한 군수 산업과 무기의 강매 등에 의하여 초래된 소수 독점 자본가와 전쟁 상인의 《호경기》일 따름이다. 국내에 있어서의 실업과 빈궁의 장성에 의한 계급적 모순은 더욱 격화되어 가고 있다.

미국에 있어서의 자본주의의 일반적 위기와 쇠퇴는 경제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그 상부 구조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국가 기구의 반동적 파쑈화, 부르죠아 사상의 부패화에서 력력히 그것은 나타나고 있다. 스리츠터같은 자는 《미국에는 언제나 사회주의가 없으며 맑스는 옳지 않으며 사회주의에 의한 자본주의의 교체는 필요치 않다》고 방언하고 있다(린지나, 전게서, 80페지).

미국 독점 자본의 옹호자들은 독점 자본의 가일층의 《번영》을 위하여서는 대담하고 선봉적인 실업가(비스네스맨), 자기의 수단으로써 높은 리윤을 기대할 수 있는 새 기업에서 모험하는 자본 소유자가 요구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들은 소위 미국의 《번영》의 주요 원인은 비관도 락관도 하지 않고 생산의 앙양이나 저락을 잘 조절하는 사업가의 간교한 품성이라고 단언한다. 또한 그들은 전쟁과 군국주의도 미국 경제의 《번영》의 주요 원인이라고 파렴치하게 선언한다. 미국 독점 자본의 대변자인 스리츠터는 《미국 경제가 전진할 수 있는 능력은 두번의 세계 대전에 의하여 강화되였다》고 말하고 있으며 또 국채와 조세의 천문학적 증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공전의 《번영》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특히 《미국 상품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를 형성하며 부단한 생산의 확장을 자극하는 랭전(冷戰)의 빛나는 혁명적 리념》에 의하여 가져와 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방언하고 있는 것이다(린지나, 전게서, 80페지).

소위 《민주주의적 자본주의》라는 미국 자본주의의 정체는 이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미 독점 자본의 대변자들은 무엇으로써 《민주주의적》 혹은 《인민적》 자본주의의 리론적 기초를 찾고 있는가.

그들은 소위 《주식(株式)의 민주화》라는 것에 의하여 《민주주의적 자본주의》라는 것이 실현될 수 있다고 한다.

레닌은 《제국주의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즉 《부르죠아 피변가들과 기회주의적인 <나도—사회—민주주의자다 하는 자들> 이 <자본의 민주화> 와 소 생산 기타의 역할과 의의의 강화를 기대하는 (혹은 기대한다고 설복시키려고 하고 있다) 주식(株式)소유의 <민주화>라는 것은 사실 금융과두 정치의 위력을 강화시키려는 수단의 하나다》(전집, 22권, 216페지)라고.

기실 《주식의 민주화》는 금융 자본의 거두에게만 유리한 것이며 수입과 분배의 공평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부르죠아지의 대변자들은 금융 자본의 독재와 그 거두들의 굉장한 부(富)의 증대의 사실과 근로자들의 빈궁의 사실을 엄폐하며 임금 인상에 대한 로동 계급의 요구를 억제하고 리익 많은 주식 회사의 주권을 사라고 강요하는 자본가의 의사를 설교한다. 그리하여 로동 계급의 혁명적 의식을 마비시키려 한다. 미국식 민주주의란 바로 이러한 것이다. 인류의 량심과 민주주의는 미국 독점 자본가의 그러한 야망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미국 독점 자본가들은 사회의 진보와 인류의 안전을 쟁취하려는 모든 운동을 비인간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지금 미국 독점 자본은 공개적인 파쑈 테로 독재를 강화하고 있다. 공화당 정부나 민주당 정부를 물론하고 어느 것이나 미국 독점 자본의 집행 기관으로서 온갖 파쑈 단체의 보호와 그것과의 협조를 공식으로 선포하고 있다. 《쿠 클락쓰 클렌》, 《미국 병단》, 《미국 제1》 《사회 정의 옹호 국민 투쟁 동맹》 같은 야수적 파쑈 단체는 인종 차별과 진보적인 것에 대한 박해를 국가 기관의 비호하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미 제국주의의 경제적, 정치적 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소위 《미국식 생활 양식》이라는 것을 선전한다. 그것은 조직적, 공개적 테로 탄압과 야비한 동물적 흥분 도발과 진실의 위조와 력사 발전 법칙의 거부와 소위 미국식 민주주의를 내용으로 한 것이다. 그것은 인민 대중의 정의와 사회적 진보를 위한 투쟁 의식을 마비시키며 월가 전쟁 상인의 요구이면 어떠한 악행이라도 할 수 있게 《인간은 동물이다》라는 사상으로 교양하기 위하여 문학, 예술, 영화 및 리론을 조작해 내고 있는 것이다.

반동적 부르죠아 학자들과 사상가들에 의한 《미국식 생활 양식》의 선전은 미 제국주의의 국내 모순을 엄폐하려 할 뿐만 아니라 대외 침략 정책을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 대한 미제의 강도적 침략도 그러한 《미국식 생활 양식》의 표현인 것이다.

《미국식 생활 양식》에는 모든 부정적인 것, 죽어 가는 것, 사회의 전진을 방해하는 악독한 폭력이 내포되여 있는 것이다. 철저하게 본능적, 개인주의적이며 방약무인적인 현실적 리익 추구의 리론에 의하여 뒤받들려져 있는 것이다. 그러한 리론이 곧 오늘날의 실용주의 철학으로서 체계화되여 있는 것이다. 즉. 듀이의 실용주의 철학은 미국식 생활 양식의 철학적 반영이다. 도구주의(道具主義)니 실험주의(實驗主義)니 하는 이름으로도 불리워 지는 듀이의 실용주의는 피어스와 제임스의 실용주의 사상이 가장 파렴치하고 로골적으로 전개된 반동적 철학이다. 듀이의 철학은 부패 타락해 가는 미국 부르죠아 의식의 반동성과 야수성을 그대로 반영한 특종의 관념론으로서 맑스주의적 철학적 유물론과는 전'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적인 것이다. 《미국식 생활 양식》과 꼬스모뽈리찌즘을 자기 내용으로 하는 소위 《아메리카니즘》의 철학이 곧 실용주의 철학이다. 미 제국주의의 세계 제패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음모의 리론적 토대가 곧 실용주의 철학이다.

2, 실용주의 발생의 력사적 근원

《신 세계》로 건너간 구라파의 이민들은 광망 무제한 토지를 개척하면서 《식민지 시대》를 현출하였다. 북 아메리카의 동북부 13주에 근거지를 확립한 개척자들, 자본가들은 독립 전쟁을 수행하여 자립적, 통일적 국가 형성에로 나아갔다.

미국 자본가들은 독립 전쟁(1776년)에서 제1차 세계 대전까지의 1세기 반에 걸치는 사이에 승냥이처럼 달려 들어 자본주의적 침략과 략탈과 착취를 진행하였다. 서방에로의 진출은 그들의 구호였다. 그들은 원주민인 인디안과 《말하는 로동 도구》로서 구입해 온 흑인들을 무제한으로 혹사, 착취하며 구축, 학살하면서 막대한 재부를 축적해 갔다. 그들의 동물적인 생활력을 통제하며 방향지어 주는 것은 다만 신구 기독교회의 천박한 세속적 설교 뿐이였다. 이것은 특히 독립 전쟁 시기까지의 전반기에 그러하였다. 신학과 신비주의가 지배적이였다. 통일 국가 형성의 시기 이후에도 미국 자본가들에게 관하여 말한다면 《그들의 탐욕과는 그들의 무지만이 비교될 수 있었다. 문화에 대하여서는 그들은 전연 아무런 개념도 가지지 못하였다. 그들에게는 애국심도 인민에 대한 책임감도 없었다》. 《인민은 돈'벌이를 위하여서는 수단에 선악이 없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구호이였다 (윌리암, 포스터, 미국 정치사 개요, 조선어 번역판, 상, 404페지).

《돈 벌이》를 용이하고 신속하게 또 대량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자본주의적 전쟁 과학과 생산 기술이 요구되였고 실험과 실용이 딸라로 환산되는 리익을 장구하게 계속되도록 확증해 주어야 하는 것이였다.

이와 같은 미국 자본주의의 발전의 최근 단계를 명확하게 반영하는 부르죠아적 사상 리론의 반동성과 반과학성의 표본이 곧 실용주의 철학인 것이다.

간단히 미국에 있어서의 철학의 발전 과정을 살피건대 대체로 3기로 나눌 수 있다. 즉 첫째로 초기 식민지 시대로부터 18세기 후반 독립 전쟁 당시까지에는 구라파로부터 각종의 관념론이 이식(移植)되였으나 보잘 것 없었고, 둘째로 독립 전쟁 당시로부터 남북 전쟁 시기까지에는 계몽적, 유물론적 사상과(프랑클린, 제퍼슨 등)에머슨의 객관 관념론과의 투쟁이 진행되였다. 세째로 부르죠아적 통일 국가 형성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에는 그 전반기에는 독일 관념론의 영향 하에 있었으나 미 자본주의의 급속한 발전과 그것의 제국주의에로의 이행을 반영하여 인종론적, 경험론적 주관 관념론으로서의 실용주의가 미국의 소위 《국민 철학》으로서 등장하게 되였다. 그리하여 맑스주의와의 투쟁이 치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1850년대 이후에 맑스주의 사상의 전파와 로동 운동의 장성과 아울러 민주주의적 권리의 쟁취를 위한 투쟁이 발전하였으나 《장글의 법칙이 군림하는 경제》(포스터, 전게서, 402페지)의 제압하에 구라파 부르죠아지의 각종 철학 사상의 침투와 그 영향하에 《미국 철학》이라는 것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실용주의는 전형적인 미국식의 부르죠아 철학으로서 나타난 것이다.

미국 철학이라는 것은 19세기 후반기에 와서야 겨우 철학의 이름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였고 그 이전에 있어서는 구라파의 종교와 관념론의 이식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기 50년대 이전 시기에 있어서는 헤겔도 그의 《력사 철학》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아메리카는 구라파의 한 사상적 식민지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아메리카의 철학》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고 하여 철학적 세계사에서 제외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남북 전쟁 시기까지 지배 계급의 사상적 무기이였던 신학과 종교 및 구라파로부터 수입한 잡종 관념론은 자연 과학의 발전과 자본주의적 공업 기술의 약진 및 로동 운동의 발전과 더불어 아메리카의 지도자로 자처한 합중국—미국 부르죠아지의 새로운 리론적 무기가 필요하게 되였다. 실용주의 철학은 바로 독점 단계에 들어선 미국 부르죠아지의 물질적 기초와 그에 상응하는 사회 관계에 의하여 만들어진 세계관이며 사유 방법인 것이다. 실용주의는 소위 아메리카니즘 세계관 형성의 최근 단계를 표시하는 것이다.

19세기 70년대 말에 미국 마싸추셋스주 켐부릿지에 자연 과학 및 사회 과학 관계자들에 의하여 《형이상학 구락부》(形而上學 俱樂部)라는 것이 조직되였다. 그들 중에서 피어스와 제임스는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 《형이상학 구락부》가 당면한 문제는 미국 정치적 반동의 대 지주(支柱)로 된 지배적 교회인 카톨릭교와 프로테스탄트교의 신학을 위협하는 두개의《적》——혁명적으로 진출하는 로동 계급과 자연 과학 특히 진화론이였다.

맑스주의와 로동 운동과 진화론 사상이 침투되여 가는 조건하에서 그 켐부릿지 단체는 맑스주의적 유물론과 과학을 반대하기 위하여 리론적 음모를 진행하였다. 그들이 말하는 《형이상학》이라는 것은 변증법과 반대되는 기계적 방법으로서의 형이상학이 아니라 관념과 리론은 인간의 경험에서 독립하여 존재하는 현실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였다. 그러한 의미에서 인간의 경험에서 독립하여 정신 세계가 존재한다는 신학적 개념을 공격한다는 구실하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물질 세계의 합법칙성 개념을 공격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이 말한 《형이상학》이라는 것은 객관적 물질 세계와 객관적 정신 세계에 관한 《신앙》을 동시에 공격한다는 2중의 의미를 가진 것이나 실상은 제3로선의 환상하에 유물론과 과학을 반대하기 위하여 조작된 것이였다. 즉 종교와 신학 리론을 반대한다는 위장(僞裝)하에 과학과 유물론적 진리를 반대하였다. 과학과 맑스주의적 유물론과 로동 운동을 신학과 종교 운동과 같은 계렬에 놓고 있는 가장 반동적 반 과학적인 몽매주의가 실용주의인 것이다. 그것은 신학과 과학을 타협시키려고 하였다.

제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시기에 들어 서면서 이러한 반 과학적인 몽매주의인 《형이상학》 리론이 부르죠아지에게 가장 요구되는 철학적 리론과 방법으로 되였다는 것은 넉넉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이와 같이 하여 미 제국주의 부르죠아지의 철학 리론은 구성되였다. 현실적인 리익과 실용에 적응하는 인간 경험 만이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이요 객관적 물질 세계의 합법칙성에 관한 리론은 허망한 것이라 하여 주관적, 경험적, 실용주의적 방법이 제기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실용주의 철학 형성의 전 과정은 미국 부르죠아지의 철학적 시중'군들의 자체 력량에 의하여 진행된 것이 아니라 영국 부르죠아지의 대변자인 버클레이, 스튜어드, 밀, 벤담, 베인 등의 신앙주의적 공리주의와 독일 부르죠아지의 철학자인 마하, 아베나리우수, 헬름홀츠의 경험 비판론 사상을 끌어 들였으며 불란서 부르죠아지의 철학인 포앙카레, 듀엠의 《과학적》 철학과도 관계가 깊은 혼합물로서 특히 다윈의 진화론에 영향 받은 철학으로서 나타난 것이다. 그것은 마하주의의 미국판이다.

실용주의 철학의 출현의 력사적 근원은 이상과 같다. 윌리암 제임스의 《프라그마티즘》(1907년)이 간행되자 레닌은 그 철학의 반동성과 반과학성을 폭로하였다. 그는 《유물론과 경험 비판론》에서 《프라그마티즘은 유물론과 관념론의 형이상학을 조소하며 경험을, 경험 만을 찬양하며 실천을 유일한 기준으로 인정하며 실증주의《實證主義)적 조류 일반에 의거하며 특히 오스트왈트, 마하, 피어슨, 포앙카레, 듀엠 등에 립각하며 과학은 <실재의 절대적 복사> 는 아니라는 점에 립각한다》(전집, 14권, 327페지, 로동당 출판사판, 《유물론과 경험 비판론》 562페지)고 지적하였다.

3, 실용주의의 반과학적 반동적인 철학적 견해

제임스와 듀이를 두목으로 하는 실용주의 철학자들의 반동적 세계관의 출발점은 경험이다. 그들은 경험의 의의를 왜곡하여 그들의 주관 관념론의 반과학적 《리론》을 전개한다.

경험이라는 것은 감각을 통하여 획득된 외계 사물에 대한 주관적 인상이며 사회적 실천의 매개 환절(環節)이다. 그러므로 경험은 객관적 세계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형성될 수 없는 것이다. 관념론자들이 외계 사물을 부인하고 《내부 의식》의 직접적 과정이 곧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부당한 것이다. 제임스나 듀이의 소위 경험의 본질을 폭로하지 않고서는 그들의 황당한 리론의 반동성을 인식할 수 없는 것이다. 그들은 《존재는 지각된 것》(엣세 에스트 펠씨피)이다. 라는 버클레이의 주관 관념론의 기본 립장에서 주관적 감각에 의하여 형성된 경험이 없이는 자기 자체로서 존재하는 사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감각, 지각에 의하여 객관적 존재가 산생된다고 하여 우리의 의식으로부터 독립하여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사물을 부인한다. 그리하여 피어스, 제임스 및 기타의 실용주의자들은 《지각된 존재》 만이 존재이고 따라서 《존재는 곧 신앙된 것》이라고 날조하면서 버클레이의 《존재는 지각된 것》 이라는 명제를 해석한다.

우리의 의식으로부터 독립하여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물질 세계의 현실적 의의를 부인하고 지각, 의식, 경험 또는 신앙에 의하여 사물이 비로소 출현한다는 것은 완전히 기만이다.

레닌은 감각, 경험으로부터 출발하여 유물론으로 나아 가느냐 또는 관념론으로 나아 가느냐에 의하여 철학의 2대 진영이 구분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철학의 기본 문제는 객관적 사물로부터 감각, 지각, 의식, 경험, 사상 등이 발생하느냐 또는 그 반대이냐 하는 것이며 그것에 의하여 두개의 기본적 립장이 구분되는 것이다. 관념 론자들은 감각 경험의 외부적 기원을 말살하며 분리시켜 감각 경험을 절대화한다. 그들은 사과를 먹으니 시원하고 단 것이 아니라 시원하고 단 사과의 맛을 먹으니 사과는 달고 시원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완전히 괴변인 것이다. 그들은 감각 경험으로부터 출발하여 관념론의 진탕에 빠지고 만다. 실용주의자들의 철학이 사물은 《감각의 복합(複合)》이라는 마하주의자들의 견해와 완전히 일치한다는 레닌의 지적은 전적으로 정당한 것이다.

맑스주의적 유물론에 의하면 경험의 근원은 객관적 존재이며 경험은 곧 객관적 존재의 반영이다. 이것은 반박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 임에도 불구하고 실용주의자들은 《순수 경험(純粹經驗)》이니 《근본적 경험》이니 하는 것에 의하여 세계의 일체 사물이 구성된다는 것이다. 제임스는 그러한 《순수 경험》, 《근본적 경험》 은 아무 누구의 《직접적 경험》 도 아니나 그것의 소재(素材)에 의하여 《경험된 사물》이 구별되여 나온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험이라고 할 때에는 반드시 누구의 경험이다. 아무 누구의 경험도 아닌 소위 《순수》한 경험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제임스는 《감각의 일종 원시적 혼돈》 상태가 곧 소위 《의식의 흐름》이요 그것이《근본 경험》, 《순수 경험》이니 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따위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가, 물론 전'적으로 불가능하다.

제임스의 이와 같은 경험에 관한 리론이 허망하며 신비적이며 관념론적이라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과연 그는 철학의 기본 문제를 해결하는 인식론에 있어서 마음(心)과 물질과의 관계는 아주 신비롭다는 것이다. 객관적 실재를 부인하는 그의 심리학과 인식론에 관한 저작인 《심리학 원리》 (1890년)에서 마음과 물질과의 관계는 두 측면을 가졌다——하나는 마음과 자기의 두뇌와의 관계인 데 아주 신비로우며 다른 하나는 마음과 두뇌 이외의 객관적 실재와의 《인식 관계인 데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신비로운 것》 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리하여 종교적 관념론을 주장하는 출발점을 삼았다.

우리의 유물론적 인식론에 의하면 물질은 우리의 감각 기관에 작용하여 감각, 지각을 일으킨다. 감각은 일정한 방식으로 조직된 물질에 의존하며 물질이 감각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물질이 일차적이며 감각, 의식, 경험 등은 특별한 조직을 가진 고급한 물질로서의 두뇌의 산물이며 제2차적인 것이다.

경험에 관한 제임스의 반과학적 리론은 듀이에 있어서는 더욱 적극화한다. 그는 경험에 관한 버클레이의 견해가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즉 버클레이에 의하면 사람은 다만 수동적으로 감각, 경험을 접수함으로 다만 자기의 경험만을 알 따름이요 적극적으로 지식의 큰 길로 통하지는 못한다 하여 듀이는 그것을 《소극적 경험》이라 하여 반대하는 것이다. 듀이는 《경험과 자연》(1925년)이라는 저작에서 적극적으로 《자연을 리용하며 개발하는 현실적 수단으로 되는 경험》, 《계속적으로 자연의 핵심에 침투하는 수단으로 되는 경험》을 설교한다. 듀이의 이와 같은 말들은 얼른 보아 별로 반대할 것이 없다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그의 경험과 자연의 개념 및 그 호상 관계에 관한 인식론적 견해를 검토한다면 그의 소위 《도구주의》 (道具主義)라는 실용주의의 반 과학적 정체를 리해하게 될 것이다.

경험이라는 것은 인간이 실천 중에서 획득한 인식과 실천의 총화라는 맑스—레닌주의적 반영론과 듀이의 경험에 관한 리론과는 전'적으로 대립된다.

듀이는 기독교 승려인 버클레이를 반대하는 듯이

가장하면서 실상은 뒷문으로 그의 주관 관념론과 승려주의의 안방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듀이에 있어서는 경험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인간과 자연을 《련결》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과 인간 경험과를 《동일》하게 만드는 것, 자연에 깊이 침투하여 자연을 《경험화》하며 그리하여 자연의 독립적, 객관적 존재를 말살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듀이는 객관적 현실을 부인하는 자기의 경험론을 정식화한다. 듀이는 자기의 그와 같은 반과학적 주관 관념론적 견해를 소위 《자연과 경험의 련속성》의 리론이라고 하면서 자연, 객관적 현실을 주관적 경험 속에 해소한다. 《자연은 곧 경험된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버클레이의 《존재는 지각된 것이다》라는 명제, 제임스의 《존재는 곧 신앙된 것》이다 라는 견해와 다를 것이 없는 것이다.

듀이는 경험을 떠나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사물의 진리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존재는 곧 소유(所有)이며 리용되고 향수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으로부터 그는 유물론의 사물의 객관적 진리에 관한 리론은 환상이고 다만 하나의 희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식을 벗어져 난 이런 리론으로부터 그는 《적극적 경험》에 의한 마술(魔術), 신화(神話), 정치, 회화 및 참회(懺悔)등의 현상도 극히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제임스가 유령, 통령술(通靈術), 강신(降神)등을 인정하고 있는 승려주의적 미신을 계승하고 있다.

오늘날 남조선에서는 듀이의 이같은 《리론》이 광범히 선전되고 있다. 신화와 점쟁이가 발호하고 있으며 그것이 미제의 노예화 정책의 철학적, 종교적 토대로 되고 있는 것이다. 제임스의 《근본 경험》이나 듀이의 《자연과 경험의 련속성》에 관한 황당무계한 《리론》은 다 같이 남조선에서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의 몽매주의 정책을 뒤받들어 주고 있는 것이다.

듀이는 객관적 사물의 본질을 다만 경험을 통하여 반영된 관념, 의식 속에서만 찾는다. 객관적 대상 그 자체의 본질, 그 합법칙성, 필연성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그의 불가지론(不可知論)이 나온다. 사물은 오직 주관에 의하여 인간의 수중(手中)에서 리용되여 효과를 발생할 때만 사물의 본질이 인식된다는 것이다. 이것으로부터 모든 객관적 사물은 실용적 가치를 낳는 (딸라를 더 많이 축적케 하는) 수단, 도구에 불과한 것으로 되는 것이다. 사실 듀이에 있어서는 진리의 기준은 실용, 효과, 리익을 가져 오는 주관적 평가에 있는 것이다. 듀이의 실용주의는 곧 도구주의인 것이다. 자기에게 유용하면 진리이고 무용하면 진리가 아닌 것이다. 진리는 목적을 달성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듀이의 도구주의적 진리론에 있어서는 진리 인식을 위한 추상적, 리성적 사유의 역할이 부인된다. 자의적 개별적인 그때 그때의 감각적, 경험적인 유용성이 진리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 까닭으로 객관적인 하나의 사물 현상의 내적 련계, 그 운동의 합법칙성을 인식하는 추상적 사유는 불필요한 것으로 된다. 사물 현상의 가장 일반적인 반영인 변증법적 리해, 변증법적 범주들의 인식은 처음부터 제기되지 않는다. 다만 인식이 감각, 경험의 단계에 정지하고 말 뿐이다.

그리하여 실용주의—도구주의에 있어서는 리성(理性)이 아니라 지혜(知慧)가 중요한 것으로 된다. 즉 객관적 합법칙성을 부인하는 실용주의에 있어서 그것을 인식하는 리성적 사유는 필요치 않은 것이다. 리성적, 론리적 사유에 의하여 과학적 리론이 형성된다. 리성을 지혜로써 바꾸어 버리는 듀이에게는 과학적 리론이 불필요한 것으로 되며 따라서 리론과 실천의 통일이 무시되며 파괴된다. 그는 리론을 무시하며 실천을 찬양한다. 그가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과거의 경험에 의하여 산생된 구체적 암시(暗示)이며 사업의 성공과 실패를 검증(檢證)하여 새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험적 암시라는 것이다. 실천의 지침으로 되는 과학적 리론을 그는 반대하면서 《확실성의 탐구》는 다만 경험에 의하여 확정된 지혜로써 감각적으로 확인되는 실용과 실리를 보장하는 데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지혜를 그는 《창조적 지혜》라고도 부르나 그것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탐욕적인 간지(奸智)에 지나지 않는다. 간지로서의 지혜를 과거의 경험에 적용하여 경험 자체를 개조하여 실리를 더욱 확대하며 많이 획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의 경험을 리용하여 딸라를 더 많이 획득할 수 있게 지혜로써 경험을 개조하자는 것이다. 간지로써 과거의 경험을 개조하여 실리를 더욱 많이 획득하게 하는 것이 곧 실천이며 사업의 성공이다. 그리하여 객관적 사물 운동의 과학적, 합법칙적 반영인 진정한 리론도, 원칙도 그는 반대한다. 그는 과학을 부인하려 한다. 즉 객관적 자연의 운동과 사회의 발전의 합법칙성의 인식을 취소하는 것이 곧 듀이의 《철학의 개조》(1920년)인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듀이는 리익을 추구하기 위하여서는 여하한 방편과 수단도 가리지 않는 미 제국주의자의 야수적 침략을 위한 《지혜》의 철학적 안받침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실용주의 철학의 이와 같은 반과학적 리론의 일반적 특징은 우선 웨르네르, 라이트, 피어스, 제임스, 듀이 등이 일관하여 객관적 필연성을 부인하고 있는 그것이다. 확실한 것은 다만 매개 《사실》의 관념 뿐이라는 것, 객관적 사실의 내'적 련관, 합법칙성 등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주관에 의하여 확증되는 매개의 사실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로부터 그들의 과학의 개념이 나온다. 《과학은 곧 지식의 대상에 관한 과학이요, 지식의 대상은 곧 심리 상태》 라는 것이다(해리 웰스, 《실용주의는 제국주의의 철학이다》 1954년, 중국어판 20페지). 이것이 완전히 버클레이주의인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사실의 진리와 허위는 오직 인간의 생활에 유용하냐 무용하냐 하는 경험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상대주의로서 특징지어 지는 것이다. 이것은 피어스가 《우리의 사상 류형은 틀림 없이 영국식이다》 (동상서, 23페지)라고 말한 것으로도 설명된다. 즉 버클레이, 흄, 베인의 주관 관념론과 불가지론에 의거한다는 말이다. 그러한 상대주의와 불가지론이 귀결되는 곳은 신앙(信仰)이다. 객관적 합법칙성의 지식에서 실천의 기준을 찾는 맑스주의적 유물론자와는 반대로 상대주의자, 불가지론자는 그것을 신앙에서 찾는다. 피어스는 특히 신앙에 관한 베인의 정의——《신앙이란 사람이 그것을 근거로 하여 행동을 준비하는 것》 이라는 것을 퍽 중요시하였다. 신앙주의는 실용주의의 세째 특징이다.

듀이는 종교와 과학과 관념론이 서로 충돌한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이 세가지가 서로 충돌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는 종교와 관념론을 취소하고 과학과 유물론을 옹호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평등으로》 대우함으로써, 《조화》시킴으로써 진정한 과학적 리론의 기초를 파괴하고 종교와 관념론을 옹호하려고 한 것이다. 과학과 종교는 외형은 다르나 본질은 같다는 것이다. 이것은 설명할 필요도 없이 사기사의 괴변이다. 듀이의 관념론적 경험 철학은 과학과 종교의 《련락원》 이라는 것이다. 즉 경험은 경험된 사실의 신앙이며 전'적으로 실용적 의의를 가지는 《가치 령역》이기 때문에 실용적 가치를 산생하는 수단으로서의 과학과 《위안》과 가치를 가져다 주는 종교의 련락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경험 철학에 있어서는 과학과 종교는 조화된다는 것이다. 과학과 리론을 희생하면서 과학과 종교가 조화되는 지혜로서의 철학을 요구한다. 그는 객관적 자연이 내재적 련계의 합법칙적 반영으로서의 과학적 지식을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 듀이는 이와 같이 미 제국주의의 몽매주의를 합리화하는 철학적 기초를 조작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인 모든 죄악——독점 자본가의 온갖 략탈과 착취, 살인, 동물적 본능의 충족, 깽 행위 등은 다 경험의 심화 개조의 견지에서 시인되여야 하는 것이다. 듀이 철학의 《아모랄리즘》(무도덕주의)의 정체는 이 점에서 완전히 폭로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실용주의 철학의 기본 특징은 객관적 합법칙성을 부인하는 경험론과 도구주의적 진리론과 신앙주의다. 이와 같은 세가지 점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면서 변증법적 유물론과 과학적 사회주의와 평화와 자유의 악독한 적으로 된 철학이 곧 실용주의이며 그 중요한 대표자가 듀이인 것이다.

듀이의 사회 정치적 견해에 있어서의 사회 다원주의와 본능주의는 인종론과 꼬스모뽈리찌즘을 옹호하는 반과학적 리론의 토대로 되고 있으며 계급 투쟁과 혁명을 반대하면서 사회의 모순과 불행을 모두 도덕의 문제, 종교와 가치의 문제로 돌리고 있으며 로동 계급의 자기 해방과 민족적 독립을 위한 투쟁에 악의와 중상을 퍼붓는다.

듀이의 사회, 도덕, 교육 및 종교에 관한 리론은 그의 사회 정치적 견해에 관한 사단(四段)의 구성을 이루고 있다. 즉 현대의 자본가 사회의 모든 사회적 문제는 모두 도덕 문제에 귀결되며 도덕 문제는 교육 문제에 지나지 않고 사회의 모든 사업의 최고 달성은 곧 《종교적 개조》에 의하여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회의 물질적 생산이 사회 발전의 원천이며 그 과정에서 맺어지는 생산 관계에 의하여 사회의 성격과 사회 생활의 내용이 결정되며 사회 발전의 합법칙성의 인식에 기초한 로동 계급이 령도하는 투쟁에 의하여서만 인류의 행복은 가져와 진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현실적으로 확증된 진리이다. 그러나 실용주의자 듀이는 이 진리를 반대하여 황당무계한 반동적 리론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과 종교에 의하여 사회적 모순, 사회적 불행이 다 해결된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학교 교육은 사회 발전의 도구라고 한다. 자본주의 제도하에서 학교 교육을 누가 실시하며 그 중심적 과업은 무엇인가. 빈궁과 실업과 착취를 자기의 본질적 속성으로 하고 있는 자본주의 제도를 전복하고 계급과 착취가 없는 사회주의 사회를 실현하는 방법이 자본가와 그 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학교 교육에 의하여 달성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듀이가 말하는 자본주의하의 학교 교육의 기본 임무는

자본주의 제도의 유지와 그것의 공고화에 있는 것이다. 사회 문제 해결의 관건으로서의 교육에 관한 듀이의 리론은 곧 미 제국주의의 침략과 착취의 제도를 보존 강화하자는 반동적 리론에 지나지 않는다. 계급과 착취 제도를 보존하면서 사회 개량, 도덕적 수양, 교육에 의하여 생활을 향상시키자는 그의 주장은 또한 종교의 효능을 잊지 않는다. 사업을 성공하기 위하여서는 종교의 역할이 크다는 것이다. 듀이의 철학의 최후 결론은 《종교적 경험》을 축적하며 개조하여 《인간이 지배할 수 있는 범위 이외의 어떤 힘》에 의뢰하려는 의뢰감을 배양하며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힘에 대한 《순종》(順從)과 《존경》이 곧 종교적 경험의 기본 요소라는 것이다.

그 힘은 곧 인간이 《보면서도 볼 수 없는 힘》으로서 경제적 령락, 전쟁, 파씨즘, 실업, 빈궁, 살인, 강도 등 모든 패덕은 자본가 계급의 착취와 억압에 의하여 조성된 것이 아니고 인간이 지배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힘에 의하여 나타난 것, 《운명적》인 것, 《천의적》(天意的)인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온갖 사회적 불행을 낳는 자본주의의 착취와 억압에 당면하여 그저 순종하며 존경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철학이 미 제국주의의 착취 제도와 전쟁 방화와 파씨즘의 정책을 옹호하며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되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듀이의 철학은 결국 미 제국주의의 신학(神學)이다.

4, 쫀 듀이의 반동적 교육 리론

교육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 계통적으로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자연과 사회의 운동의 합법칙적 지식과 세계 개조의 능력을 교수하며 인민적 품성을 도야함으로써 사회에 복무하는 상부 구조다. 피교육자의 정신과 신체를 사회가 요구하는 세계관과 자질을 구비하도록 단련하며 양성하는 사업이다. 학교 교육은 곧 계획적, 목적적, 계통적으로 정신과 신체에 영향을 주는 방법의 최고 형태다. 교육학은 그러한 교육이라는 상부 구조의 본질과 객관적 법칙과 그 기본 임무와 그 실현을 위한 방법을 연구하는 과학이다.

이 과학에 있어서도 계급 투쟁의 반영으로서의 유물론과 관념론의 투쟁이 진행되였다. 교육 발전사에 있어서도 두 진영의 투쟁이 있었다. 반동적 지배 계급을 반대하는 선진적 교육 사상가들은 유물론적 세계관에 립각하여 사회의 전진 운동을 추동할 수 있는 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투쟁하였다. 불란서 계몽 사상가들과 우리 조선 실학자들의 교육 리론은 고전적 의의를 가진다. 맑스주의적 교육 사상은 인민을 위한 교육과 교육학을 건설하였으며 반동적 부르죠아 교육학과의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 부르죠아 교육학 중에서 맑스주의적 교육학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은 실용주의적 교육학이며 그의 가장 중요한 대표자는 듀이이다. 실용주의 철학의 반동적, 반과학적 리론에 근거한 그의 교육학은 완전 무결하게 제국주의에 복무할 수 있는 인간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의 본질을 외곡한다.

듀이는 자기의 교육에 관한 수다한 저작들에서 《교육은 곧 생활》이며 경험을 개조하여 그 능력을 증가할 수 있도록 재조직하는 작용이라고 선언하였다. 그의 철학설의 기초가 경험론인 것과 같이 그의 교육 리론의 기초도 또한 경험론인 것이다. 물론 교육 작용이 가정, 학교, 사회의 생활을 통하여 진행되며 그 과정에서 과학적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 지식과 경험의 축적을 피교육자가 자의대로 진행하는 것을 방임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상 옳지 않은 것이라는 것도 더 말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교육 작용에는 일정한 강령과 계획하에 진행되는 교원의 지도적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듀이는 이 계획적, 지도적 역할을 부인하고 생활은 곧 교육이며 교육은 곧 생활이다라는 구호로써 아동의 자유 방임을 철저하게 주장한다.

《교육은 곧 생활》이라는 그의 허망한 리론은 주관 관념론적 경험론의 세계관으로써 사회를 설명하는 능력을 배양하려는 반동적 리론인 것이다. 그는 인간의 사회 생활 과정은 곧 하나의 주관적 경험이 하나 하나씩 변화해 가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곧 경험의 개조》를 의미하며 생활을 환경에 적응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교육은 곧 생활》이며 《생활은 곧 교육》이라는 명제를 어린 아동에게 적용한다면 《교육은 곧 성장》으로서 아동의 본능적 경험이 하나 하나씩 성장해 가는 과정이라고 한다. 듀이의 소위 《교육의 무목적론》이라는 목적론과 《아동 중심 교육론》의 반동적 사상은 직접 이것에서 도출되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교육은 인간이 환경에 적응해 가도록 자기의 본능의 활동의 경험을 개조하는 것이다. 무릇 생명이 있는 곳에 행위와 활동이 있으며 생명을 지속해 갈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곧 본능임은

더 말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인간의 본능의 활동에는 정도의 차가 있을 뿐이요 본질적 차는 없다는 것이다. 동물이나 인간은 다같이 환경에 적응하는 생명 지속을 위한 본능의 활동에 있어서 정도의 차만을 가지고 있으며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적자 생존》, 《우승 렬패》의 생존 투쟁이 진행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사회 다윈주의 리론을 교육학에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자본가 계급의 착취, 억압, 민족적 독립의 말살, 인종 차별과 민족적 멸시 ── 민족적 배타주의의 리론적 기초로 되고 있는 것이다. 자본가 계급의 온갖 만행을 본능적인 생존 경쟁의 당연한 결과로 인정하며 그 경쟁에서 생활해 낼 수 있는 인간으로 되도록 길러 주는 것이 곧 교육이라는 것이다.

《교육은 곧 생활》이라는 듀이의 《원칙》은 따라서 생물 유전(遺傳)의 의의를 강조한다. 개인의 모든 생리—심리적 활동은 생물 유전의 결과이며 사회는 곧 그와 같은 생물 유전의 총체일 따름이라는 것이다. 《개인의 집합이 곧 사회를 이루는 데》 그 생물학적 유전의 본능적 측면은 사회 생활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는 것이다. 이자의 교육론은 의식, 무의식적인 본능적 활동과 자본주의적 환경과의 일치, 그것에의 적응, 하나 하나씩의 변화와 개조를 설교할 뿐이고 자본주의 사회의 의식적 변혁, 질적 비약 등은 생각할 수도, 있을 수도 없다는 것을 확신시키려는 것이다.

듀이의 교육론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소위 《민주주의 정신》을 교양하는 문제다. 그는 로동 계급과 모든 근로 인민이 자기들의 자본주의적 생활 환경에 적응하며 자기의 《동거인》(同居人)으로서의 자본가들과 사이 좋게 지내면서 무슨 일에나 서로 《합작》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합작에 의하여 공동적으로, 점차적으로 사회를 개량해 나가는 정신이 곧 《민주주의의 정신》이며 그 정신을 배양하는 노력이 곧 교육이라는 것이다. 그의 《민주주의와 교육》(1916년 간행)은 바로 그러한 정신을 고취한 것이며 그의 교육에 관한 많은 저작들에는 이것이 고취되고 있는 것이다.

남조선에서도 이 책이 수년전에 전 《문교부 차관》 오 천석에 의하여 번역되여 반동적 교육 리론과 정신이 고취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그러한 것과 같이 남조선에서도 민주주의의 미명하에 얼마나 악독한 행위가 자행되고 있는가를 생각할 때 듀이의 교육 리론을 저이들의 금과옥조로 여기면서 그것에 의거하여 본능주의와 《민주주의》를 짓'걸이는 반동적, 반인민적 정체를 리해할 수 있다. 남조선에서 전 서울 대학교 총장이던 장 리욱은 듀이의 이른바 《민주주의 정신》에 의한 교육을 주장하고 있는 교육 행정가의 한사람이다(1955년의 그의 론문 《교육의 본질과 기능》—《새벽》 5호—은 그것을 설명해 준다).

듀이에 의하면 인간은 동물보다 체력이 약한 데다가 복잡한 《사회적 유전》을 접수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이 특히 필요하다는 반과학적 교육 기원론으로부터 인간의 《생》(生)과 《사》(死)라는 생물학적 현상에 특별한 의의를 부여한다. 교육도 하나의 생물학적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환경 적응의 《생》을 요구하는 본능적—생물학적 활동 능력의 배양이 곧 교육이라는 것이다.

우리도 생활과 교육과의 밀접한 관계를 시인한다. 그러나 우리는 생활을 단순히 생물학적 현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이 또한 절대로 교육을 생물학적 현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인간의 생활과 교육은 무엇보다도 먼저 사회적 실천이며 생산과 인류의 행복을 위한 문화 창조의 활동인 것이다. 그것은 낡은 것, 반동적인 것을 제거하고 새것과 인민적인 것을 창조하며 설정하기 위한 투쟁을 승리하기 위한 자질 향상의 활동인 것이다.

듀이의 교육론은 생물학적, 동물적 본능주의를 고취하는 것이며 사회의 계급적 내용과 자본가 계급의 반동적 본질을 엄폐하며 근로 인민의 투쟁 의식을 마비시키려는 것이다. 본능적 욕망을 로골적으로 로출하고 있는 미국식 생활 양식의 야비하고 부패 타락한 표현은 다 듀이의 철학과 교육학에 의하여 정당화된다.

듀이에 의하면 교육은 곧 생활이기 때문에 학교는 즉 사회다. 학교는 그 자체가 일종의 사회 생활이며 사회 생활의 원형(原形)이므로 학교는 생산과 사회적 실천에 참가할 준비를 하는 곳이 아니라 학교 그 자체가 바로 로동 생활이며 경험 생활이며 자기의 개인의 모든 욕망을 충족시키는 생활이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피교육자가 제마음대로 기분과 취미와 욕망대로 학습 생활을 하는 것을 억제하거나 반대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아동은 태양이며 교원은 유성으로서 학생의 뒤를 따르면서 그들이 하는 것을 다만 보살펴 주면 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자본가 사회에 적응하며 만족하도록 하게 하여 주는 것이 교육의 임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본능적 욕망이 작용하는 일상 생활의 소소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하는 데에 국한하여야 하며

객관적 사물의 합법칙성을 체계적으로, 리론적으로 가르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의 교육론은 자본가 계급을 위하여 근로 인민을 로동 노예로 만드는 리론으로 되고 있는 것이다.

듀이의 이와 같은 교육론은 불가피적으로 아동과 청년을 과학적 진리로부터 격리하여 천박하고 야비한 경험의 진구렁으로 몰아 넣게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의 학생이나 남조선의 학생들이 권총을 들고 깽 행위를 하며 간음과 유괴와 살인 강도 등의 끔찍한 짓을 하는 것이 다 그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설교하는 학교 교육과 교육학 리론의 당연한 결과인 것이다. 아동과 청년 학생들이 살인 강도, 간음을 하는 것도 다 경험의 축적과 개조를 위하여 의의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한 폰드의 경험은 한톤의 리론보다 낫다》, 《딸라의 획득》이라는 진리의 경험은 고귀하다는 이 반동적, 반과학적 교육학의 기본 명제는 엄중한 사회적 후'과를 산생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의 강령(기본 리념), 과정안, 교수 요강, 교원의 지도적 역할, 학교와 교실내의 고상한 도덕적, 조직적 질서 등을 무시하며 부인하는 것이 듀이 교육학의 실재적 내용이다. 듀이의 교육 방법에 있어서는 학급 제도, 교과서, 시험 제도 등은 거의 고려되여 있지 않다. 교실 내에는 무정부 상태가 조성된다. 아동들의 경험을 최대한도로 축적시키기 위하여서는 제마음대로 하게 하며 남을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몬테소리》 학교에서는 교실 내에서 최대한의 자유가 허용되여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며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로 이야기하는 것, 책상과 걸상을 어데다가 놓든지, 공부 시간을 지키든지 말든지, 학과목을 무엇을 선택하든지, 복습과 예습을 하든지, 말든지, 그것은 완전히 학생들의 자유인 것이다. 그 자유를 최대한으로 발휘하게 하는 학교 제도가 곧 《명일의 학교》(1915년간)인 것이고 그러한 학교는 미제의 야수적 략탈과 침략이 진행되는 곳에서는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명일의 학교》에서의 교원의 임무는 교재를 더욱 간소화, 직관화하며 더욱 적극적으로 아동들의 자유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피동적 지위에 서 있는 것을 감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물론 남조선에서도 교원의 자질과 교과서의 내용이 천박, 저급하며 직관화해 가고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다. 남조선 권 혁풍의 《신 교수론》(1949년)도 듀이의 사상에 영향받고 있다.

그러므로 듀이의 《교육은 곧 생활》이라는 반동적 경험주의 리론, 아동 중심의 과정안 리론과 아동 중심의 교육 방법론을 폭로 분쇄하는 사업은 현실적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남조선의 교육계가 듀이의 실용주의 철학과 교육학에 근거하여 과정안과 교수 방법론과 교육 리념이 설정되여 있으며 따라서 몽매주의적 노예 교육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 *

오늘날 우리 조국 남반부는 미 제국주의자와 그 주구들에 의하여 교육계도 비참하게 몰락 타락해 가고 있다. 우리 민족의 장래의 꽃인 아동들과 청년 학생들은 과학적 진리와 사회적 실천을 위한 옳은 지식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침략자와 그 주구들에 의하여 완전히 막히고 말았다. 아동들과 학생들에게는 실용주의적 부르죠아 사상이 듀이적 교육학 리론에 의하여 주입되며 《교양》되고 있다.

그리고 남조선의 소위 교육학자, 교육 행정가, 실용주의 철학의 신봉자들이 천박하게 자기들의 무지를 폭로하면서 맑스—레닌주의 교육학과 철학의 진리성과 위력성을 감히 《비판》하려고 들며 《격멸》하려고 들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헛된 수고이며 시시각각으로 진전되는 남조선의 현실에 의하여 반박되고 있는 것이다.

실용주의 철학과 교육학이 인간을 자본주의 사회 제도를 옹호하며 영구화시키는 말하는 도구로 만드는 천박하고 비속한 리론과 방법임에 반하여 맑스—레닌주의 철학과 교육학은 아동을 과학적 지식과 기술로 무장시켜 자기의 개성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킨 의식적 확신의 인물로 양성해 내는 리론과 방법이다. 그리하여 그 리론과 방법에 의하여 단련되고 훈련된 강철의 의지를 가진 무궁 무진의 창조적 능력은 새 공산주의 사회의 건설을 가능하게 하며 그것을 과학적으로 확증하며 보장한다. 실용주의 철학과 교육학과는 반대로 맑스—레닌주의 철학과 교육학은 지식과 리성과 진정한 인도주의로써 착취와 암흑과 반동 세력을 청산하는 투쟁에서 승리를 쟁취하는 물질적 력량으로 되고 있는 것이다.

선진 작업 방법의 도입 일반화는 설비 리용률 제고의 주요 고리

리 동 신

우리 당 12월 전원 회의에서는 1957년도 인민 경제 계획의 성과적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방도로서 최대한의 증산과 절약을 호소하면서 증산의 구체적 방도로서의 설비 리용률의 제고를 강조하였다.

설비 리용률을 제고함에 있어서 선진 작업 방법의 탐구 및 도입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므로 선진적 작업 방법을 탐구 일반화하며 그것을 실지 생산 행정에 적용하는 것은 1957년도 인민 경제 계획의 방대한 과제를 수행 및 초과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 산업 기업소 일'군들이 응당 주목을 돌려야 할 주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1957년도 인민 경제 계획 수행은 물론 제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있어서도 우리는 공업 생산 장성의 상당한 부분을 새로운 작업 방법의 도입과 설비 리용률을 제고시키는 방법으로 달성하여야 하는 바 이것은 현 시기 우리 나라 산업 발전의 제 조건과 요구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제기된 1957년 계획 과제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매개 산업 기업소내의 당 단체 및 행정 기술 일'군들은 설비 리용률 제고의 중요성을 철저히 인식하고 작업 방법을 개선하며 선진적 작업 방법을 탐구 도입하고 일반화하는 사업에 광범한 종업원 집단을 조직 동원하여야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선진 작업 방법이란 본질상 작업장에 주어진 설비 도구, 원료, 자재 등 설비—물자적 제 요소들과 함께 로동력을 보다 완전히 리용하는 작업 방법을 말한다.

우리가 작업이라고 할 때 그것은 실제 생산 현장에서 진행되는 로동 과정의 표상을 의미한다. 그런데 로동은 인간과 자연간에서 수행되는 인간의 활동 과정이다. 인간은 로동 과정에서 일정한 생산적 목적 밑에 로동 수단을 가지고 로동 대상에 작용하는 바 로동 수단과 로동 대상은 로동 과정을 형성하는 필수적 요인이다.

때문에 로동 과정의 결과 즉 작업 활동의 성과를 말할 때에는 반드시 그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 요인으로서 생산에 참가하며 해당한 작용을 노는 로동 수단과 로동 대상의 상태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례컨대 매개 생산 현장들에서의 생산의 기계화, 자동화 수준, 로동의 기술'적 장비 정도, 사용하는 원료, 연료, 보조 자재, 동력 등 로동 수단과 로동 대상의 상태 여하는 생산 성과에 크게 영향을 준다.

그러나 한편 생산 과정에 참가하는 이들 생산 요소들은 생산 과정에서 죽은 물체들의 기계적 호상 작용, 호상 결합 과정을 이루는 것은 아닌 바 그것은 생산이 언제 어떠한 조건하에서나 사회적 생산이며 오직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련결과 관계를 통하여서 만 진행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개별적 기업소들에서의 이 관계는 우리 나라에서 작용하고 있는 사회주의 기본 경제 법칙과 또 이로부터 흘러 나오는 기타의 사회주의적 생산 제 법칙의 작용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다.

우리 나라 기업소들에서의 사회주의 경쟁의 발전 정도와 사회주의적 로동 규률의 확립 정도, 로동자들의 물질 문화적 수준의 개선 정도,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적 분배 법칙에 근거하는 정확한 로동 임금의 조직 정도, 또한 선진적인 생산 조직과 로동 조직의 적용 및 그의 보급 수준 등의 제 요인들은 모두 생산 성과에 영향을 주는 중요 조건들인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 인민 민주주의 사회 경제체계에 의하여 규정되는 생산에서의 사람들간의 호상 관계도 포함하여 기업소의 온갖 기술—경제적 활동은 기업소의 생산 성과에 영향을 주지 않은 요인은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생산에서 작업 성과를 높인다는 것은 생산에 참가한 로동력과 설비 도구 및 원료, 자재, 연료, 동력 등 소여의 품질과 량의 매개 생산적 요소들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다 완전히 리용함으로써 만 달성될 수 있으며 또 이를 위하여서는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로부터 출발하는 선진적 생산 조직과 로동 조직의 제 원칙들에 근거하여 또 그의 유리한 제 조건들을 리용하는 생산—경제적 및 조직—기술적 제 대책들과 방법들을 구명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기업소의 생산과 그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실로 광범하고도 다양하다. 그러나 일정한 생산 목적과 의욕을 가지고 또 일정한 생산 기술을 소유하고 있는 생산의 주체인 인간은 로동 도구를 가지고 로동 대상에 작용함으로써 로동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바 로동 과정의 구체적 표현은 생산 현장에서 진행되는 구체적인 작업 과정이며 그의 매개 작업 동작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생산력과 생산 관계로부터 개별적 공장들에서의 로동 과정의 매개 형성 요소에 이르기까지를 포괄하는 생산에 영향을 주는 온갖 요인들의 작용 결과와 영향 정도는 생산 현장들에서의 구체적 작업 과정에서와 그의 결과인 작업 성과에서 집중적, 종합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산 성과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요인들과 함께 또 그들과의 련관 속에 생산 현장들에서 진행되는 작업 과정을 연구하는 것은 기업소의 생산을 개선하기 위한 주요 고리의 하나로 된다.

특히 오늘날 우리 나라 산업 부문 앞에 부여된 경제— 생산적 제 조건하에서, 기업소 내의 매개 생산 단위들에 주어진 설비와 도구, 원료, 재료와 연료, 동력 등 소여의 설비— 물자적 조건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또 완전히 리용하기 위하여 작업 공정을 개선하며 선진 작업 방법을 도입 일반화하기 위한 투쟁이 가장 긴요한 임무로 제기되고 있다.

선진 작업 방법은 광범한 로동자 군중의 다양한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며 발전한다. 때문에 이것을 탐구하며 일반화하는 사업은 작업 현장에서 진행되는 로동자들의 복잡한 작업 활동을 분석적으로 연구하는 계통적이며 꾸준한 투쟁에 의하여서 만 성과 있게 수행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해방 이후 우리 나라 산업 기업소들에서는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정확한 시책과 세심한 배려 밑에 로동자들의 끓어 넘치는 로동 의욕에 의하여 선진적 작업 방법들이 광범히 발생 보급되였는 바 이는 인민 자신의 수중에 있는 정권과 그의 공업 기업소들로부터 쟁겨 나오는 응당한 열매인 것이다.

선진 작업 방법은 우연히 발생하지 않으며 그것은 우리 나라 사회 제도의 본질로부터 흘러 나오는 근로자들의 고상한 사회주의적 로동 의욕에 의하여 발생 발전하는 필연적 현상이다.

때문에 중요한 것은 매개 생산 현장들에서 발생하는 선진 작업 방법들을 제때에 발견하고 그것을 작업장 마다에 확고히 고착시키는 동시에 그것을 널리 일반화하는 그것이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 먼저 기업소내의 당, 사회단체 및 생산 기술 일'군들은 이 사업을 자연발생성에 맡기지 말고 이 사업의 중요성을 옳게 인식한 기초 우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조직 추동하며 광범한 근로자들과 특히 생산 혁신자들을 이 사업에 동원 인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 ❈

오늘 우리 나라의 기업소들에서 선진 작업 방법을 탐구 도입하며 그를 일반화하여야 할 필요성은 어데 있으며 또 그것은 어떠한 생산 경제적 의의를 가지는가?

그것은 첫째로 1957년 인민 경제 계획 수행뿐만 아니라 우리 인민 경제 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제1차 5개년 계획의 방대한 규모가 예견되는 동시에 증대된 과제—지표의 큰 부분은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에 의하여 대규모의 기본 투자와 설비 및 로력의 투입이 없이 수행되여야 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과제들을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에 의하여 수행하기 위해서는 로동 생산 능률 제고의 중요 요인인 선진 작업 방법을 적극 탐구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둘째로 우리 나라 산업 시설의 많은 부분은 전쟁 기간의 혹심한 파괴로부터 3개년 계획 기간에 기본'적으로 갱신되였으며 또 새 설비로써 교체되지 않은 공장들도 복구 과정에서 이러 저러한 정도로 설비 구조상으로나 능력상으로 현저히 변동되게 되였다.

설비 구성과 능력에서의 이와 같은 현저한 변동은 응당 종래와는 다른 조작 방법과 작업 수'법을 요구하게 된다. 때문에 가장 적합한 작업 방법을 탐구 일반화하는 사업이 절실히 필요하게 된다. 만일 선진적 작업 방법을 도입 일반화하지 않으면 마땅이 거둘 수 있는 생산 성과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세째로 발전되는 인민 경제적 요구에 수응하여 전후 시기에 우리 나라 산업에서 산출되는 생산물 품종이 현저히 확대되였고 새롭고 보다 높은 품질과 정밀도를 갖춘 신 제품들이 생산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인민 경제적 수요 충족을 위하여 이를 더욱 확대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하여서는 소여의 설비에 대한 새로운 작업 방법을 탐구 개척하여 생산에 고착시키는 사업이 새로운 기술 공학적 성과를 도입 정착시키는 사업과 함께 반드시 해결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특히 제1차 5개년 계획 기간에는 우리 나라 산업 생산물의 일정한 부분이 국제 시장으로 진출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 바 이러한 사정은 우리 나라의 수출 상품이 국제 표준 품질 또는 그 이상으로 보장되여야 한다는 신중한 과업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생산물의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것과 함께 그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작업 현장들에서 진행되는 선진 작업 방법의 탐구 보급 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상대적으로 변동없는 설비—물자적 조건하에서는 이 사업의 긴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것이다.

더우기 선진 작업 방법을 탐구 도입하는 것은 인민 경제 계획 수행에서의 원'가 저하 과제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주요 수단의 하나로 된다.

선진 작업 방법의 도입 일반화는 생산량의 증대를 보장하며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함으로써 우선 원'가중의 로력비를 축감하게 된다. 또 선진 작업 방법은 생산물의 품질을 개선한다. 생산물의 품질 개선은 제품의 사용 가치를 증대하며 사용 수명을 연장시키는 동시에 오작품을 퇴치함으로써 오작으로 인한 원료, 재료, 연료 및 로력의 손실을 제거 또는 축감하며 그에 해당한 원'가 저하를 가져 온다. 다음으로 작업 방법의 개선에 의하여 원료, 자재, 연료 등의 물'자들을 절약적으로 소비함으로써 원'가중의 물'자비 요소들을 현저히 축감할 수 있게 하며 특히 수리공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제고하며 그들이 선진 작업 수'법을 도입 적용함으로써 기계 설비의 사용 수명을 연장하며

생산에서 불의의 사고와 이로 인한 작업 중단을 없이 함으로써 마모되는 설비의 단위 가치당 생산물의 수량을 증대시킨다. 그리하여 제품 원'가중의 감가 상각 지출의 절대적 크기를 축감시킨다. 뿐만 아니라 원'가 저하의 제 요인들은 제조비와 공장 일반비를 포함하는 고정비 항목의 상대적 절약을 가져 옴으로써 생산물 원'가 저하의 규모를 더욱 확대하게 된다.

이와 같이 선진 작업 방법을 적용하며 그것을 보급하는 것은 오늘 우리 산업에서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하며 원'가를 저하함으로써 우리의 사회주의적 산업 생산을 확대하며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적 복리를 계속 증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담보의 하나이다.

때문에 우리 당 중앙 위원회 12월 전원 회의에서는 당면한 1957년도 인민 경제 계획의 거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체 당 단체와 당원들에게 선진 기술을 충분히 습득 도입하여 인민 경제 내부적 예비들을 최대한으로 동원 리용하며 설비의 리용률을 현저히 제고하고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하며 각종 원료 및 자재들을 절약하며 제품의 원'가를 계속 저하시키는 동시에 대중의 창발성을 백방으로 지지하며 과학자, 선진 기술자, 로동자들의 발명, 합리적 제안, 창의 창안들을 신속히 생산에 도입하며 그를 광범히 보급시키는 사업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였다.

증산하며 절약하자는 당의 호소를 사상적으로 깊이 인식한 우리 인민은 인민 경제 발전 제1차 5개년 계획의 첫해인 1957년도 계획 과제의 성과적 수행을 위한 투쟁의 길에 들어 섰다.

그런데 이 과제의 수행은 무엇보다도 먼저 로동 생산 능률의 계통적 제고에 의하여 해결되여야 하는 바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는 중요 부문에 대한 대규모의 집중적 기본 투자에 의한 현대적 산업 시설의 신 건설 또는 재건에 기초하여 이루어 지는 동시에 주로는 현존 설비에 대한 리용률을 제고함으로써 이루어 지는 것이다. 즉 생산에서 로동 용량이 큰 생산 공정과 작업 과정에 대한 계통적 기계화와 자동화를 포함하여 공장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설비들을 보다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보다 완전히 부하(負荷)함으로써 달성되여야 한다는 것은 주지하는 바이다.

따라서 로동 생산 능률 제고, 계획의 수행 여부는 전망 계획과 년간 계획 및 매주, 매일의 실천 계획들을 작성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매개 산업 기업소 일'군들이 현존 설비의 리용률을 제고시키기 위한 투쟁의 성과 여하에 의하여 좌우된다.

한편 설비 리용률을 제고시키기 위하여서는 기업소들의 생산 조건에 알맞게 해당한 조직—기술적 대책을 수립 적용하여야 할 것인 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비 리용률 제고의 방법과 목표를 정확히 파악하고 또 선진 작업 방법을 탐구 도입 및 보급하는 사업이 설비 리용률 제고에서 가지는 위치와 사명을 옳게 인식하는 그것이다.

때문에 생산 현장들에서 작업 방법을 개선하며 선진 작업 방법을 적용 보급하는 것이 설비 리용률과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함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주며 또 일'군들이 생산 개선을 위한 투쟁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를 해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설비 리용률은 많은 기타 요인들과 함께 주로는 작업 방법의 개선에 의하여 제고되는 것이며 또 설비 리용률을 제고한다는 것은 그 결과에 있어서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를 가져 오는 바 그것은 설비 리용률의 다음과 같은 본질에 의하여 설명되는 것이다.

설비 리용률의 제고는 **첫째로** 설비의 가동 시간 길이를 증대시키는 데서 달성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생산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진행되며 생산에 관한 여하한 지표도 시간 척도와 분리되여서는 성립될 수 없다.

일정한 단위 시간내의 설비 가동의 긴장도(즉 집약적 부하도——集約的 負荷度)가 같고 제품의 품질이 같은 조건하에서는 단위 설비로부터 나오는 제품의 수량, 즉 설비의 리용률은 그 설비가 가동한 시간 길이(즉 조방적 부하도——粗放的 負荷度)에 비례하여 변동된다.

그러므로 규정된 로동일내의 작업 시간 폰드의 리용 수준은 해당 설비의 가동 시간 길이에 따라 좌우되며 설비의 가동 시간 길이를 연장시키는 것은 로동일 내에 발생하는 온갖 형태의 설비 작업 중단을 퇴치하며 축소하는 그때에 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규정된 로동일 내의 설비의 가동 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로동력과 설비를 보다 완전히 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임으로 해당 기간내의 제품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것은 해당 기간내의 로동자 1인당 제품 생산량으로써 측정되는 로동생산 능률의 제고를 가져오게 된다.

설비 가동 시간의 증대, 이로 인한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는 매개 작업 현장들에서 생산 중단을 초래하는 원인을 제거하며 그를 예방하는 매개 로동자들의 작업 방법 개선 문제와 밀접히 결부되는 바 이에 있어서 설비를 직접 담당 운전하는 기본 로동자와 함께 설비의 보수를 담당하는 수리 인원들과 원료, 연료, 동력의 중단 없는 공급을 담당하는 매개 작업장 로동자들의 기능 수준을 제고하며 특히는 그들 속에서 생겨나는 선진 작업 방법을 탐구 일반화하여 그것을 광범히 보급하는 사업이 각별한 의의를 가진다.

표준적인 조작이 보장되고 있는 조건하에서는 선진적 작업 방법을 소유한 수리공은 보수 작업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함으로써 생산 행정에서 어떠한 불의의 사고도 발생시키지 않으며 또 보수 작업 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해당 설비의 가동 시간을 증대시킨다. 그리함으로써 설비 리용률과 함께 수리 작업의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하는 동시에 기본 생산 부문의 로동 생산 능률도 제고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둘째로 설비 리용률을 제고한다는 것은 또한 설비의 가동 속도를 증대시키는 것을 말하는 바 그것은 설비의 집약적 부하도를 증대시키는 데서 달성될 수 있다.

설비 리용률은 일정한 기간내에 당해 설비로부터 생산되여 나오는 일정한 품질의 생산물 수량에 의하여 판정되는 것 만큼 리용률은 설비가 가동하는 시간 길이에 의하여 규정될 뿐만 아니라 그 설비가 가동하는 매개 단위 시간내에 있어서의 설비의 가동 속도, 즉 설비 가동의 긴장도에 의하여도 좌우되는 것이다.

그 리유는 가동 시간 길이가 동일한 조건하에서는 제품 생산량이 단위 시간내의 설비 가동 속도에 비례하여 변동되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설비의 리용률을 반영하는 종합적인 척도는 설비의 가동 시간 길이를 표시하는 조방적 부하도와 설비의 가동 속도를 표시하는 집약적 부하도와의 상승적인 종합적 부하도에 의하여 표시된다.

그렇기 때문에 설비의 리용률을 제고하기 위하여서는 규정된 로동일 내의 설비 가동 시간 길이를 보다 길게 확보한 다음에는 이 확보된 매 시간에 설비들을 보다 많은 회'수와 보다 높은 밀도로 가동시키는 과업이 나선다.

보다 긴 시간에 걸쳐 보다 빠르게 가동하는 설비로부터는 보다 많은 생산물이 산출되며 따라서 매개 설비에 봉사하는 로동자들의 로동일은 보다 완전히 리용되며 로동 생산 능률은 높은 수준으로 제고되는 것이다.

설비의 집약적 부하도를 높이기 위하여서는 이에 영향하는 많은 요인들 중에서 우선 매개 작업 현장들에서 선진 작업 방법들을 발견 일반화하고 그것을 널리 보급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한편 작업 방법을 개선한다는 것은 이미 설비별로 제정되여 있는 표준 조작법을 정확히 집행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지 만 표준 조작법 자체는 작업 현장들에서 나날이 개선되여 가는 로동자들의 작업 방법상의 제 성과에 의하여 계속 보충되며 완성되여 가는 것인 만큼 그 설비에 가장 적합한 조작 방법과 부하 정도는 로동자들의 다양한 작업 방법상 경험에 의하여서 만 정확한 것으로써 확인될 수 있는 것이다.

소여의 작업장에서 설비와 원료, 연료, 동력 등 설비—물자적 조건이 동일할 때에는 가장 높은 생산 능률과 가장 높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작업 방법은 오직 하나 뿐이다.

로동자들의 작업—조작 방법의 여하에 따라

서는 설비의 기술적 내용이 아무리 훌륭하고 또 아무리 오래'동안 설비가 가동하였다 하여도 설비의 집약적 부하 수준은 낮으며 따라서 결국 설비의 리용률은 낮은 수준에서 답보하고 생산 성과는 보잘 것 없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동일 형의 설비를 다루는 각이한 로동자들을 면밀히 대비 분석하는 동시에 우수한 로동자들의 우수한 작업 순간(瞬間)을 민감하게 포착하여 그것을 작업 요소에 따라 세밀하게 분석 연구하는 사업은 선진 작업 방법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 또 설비 리용률과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하는 투쟁에서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여기에 기업소 일'군들이 리용하여야 할 중요한 무기가 있는 것이다.

해명된 선진 작업 방법이 분석 체계화된 후에는 이에 따라 매개 작업장 설비들에 이미 설정되여 있는 표준 조작 규정들이 응당 재검토되여야 하며 필요한 수정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 리유는 한번 제정된 표준 조작 규정이 고정 불변할 수 없으며 생산 제 조건의 변동에 따라 변동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그것은 로동자들의 높은 작업 결과에 의하여 증명되며 실제 생산 경험에 의하여 지체 없이 보충 시정된다.

때문에 설비 리용률을 제고하며 또 선진 작업 방법의 활발한 보급 및 정착 사업을 보장함으로써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서는 일부 일'군들에게서 보는 바와 같은 기계론적 기술 본위주의의 유해로운 경향들을 철저히 시정하는 완강한 사상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전후 기간에 우리 나라의 대부분의 공장, 기업소들은 전쟁에 의한 혹심한 피해로부터 급속히 복구 개건의 과정을 걸고 있다. 결과에 대부분의 공장들의 설비 구성과 능력에서 큰 변동이 생겼는 바 전쟁전이나 일제 통치 시기의 설비 상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작업 조건을 가지게 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장들에서는 개변된 조건들을 고려함이 없이 전쟁전에 있던 조작 규정들, 더군다나 일제 시대의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하여 설비 리용률과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를 위한 전 공장적 투쟁에 장애를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 방법의 연구와 개선은 현존 조작법의 개선을 가져 오는 가장 현실적 수단이며 또 설비의 집약적 부하도를 제고시키는 주요 무기로서 설비 리용률과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에 주요하게 복무한다. 이것을 옳게 인식하고 이 분야에서의 일부 부정적 경향들과의 적시적이며 부단한 사상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째로 설비 리용률의 제고는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을 제고시키면서 그의 수량을 증대시키는 데서 달성되여야 한다.

설비 리용률은 생산되여 나가는 제품의 수량만으로써 판정될 수 없는 바 제품의 수량과 함께 그의 품질 지표를 고려하여 판정하는 것이 극히 중요하다.

오늘 우리 나라 일부 산업 기업소들에서는 설비 리용률을 평가함에 있어서 산출되는 생산물 수량 만을 표준으로 하고 품질을 도외시하고 있다. 결과에 일부 제품의 평균 품질은 저하되기 시작하였으며 오작품 비률이 저하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부정적 현상들은 또한 생산량 만 고려하고 품질을 무시하면서 적용되고 있는 도급제의 부정확한 적용에 의하여 조장되고 있다.

그러나 설비 리용률의 제고는 사실에 있어서 단위 시간내에 산출되는 제품의 수량이 동일한 조건하에서는 그 설비에서 산출된 제품의 품질 여하에 따라서 규정된다.

보다 높은 품질을 가진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제품의 구조를 사용하기에 보다 편리하게 개조하며 그의 사용 수명을 연장시키며 또는 제품중의 유효 성분을 증대시키는 등 제품의 사용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례컨대 10개월의 사용 수명을 가진 고무신 한 컬레는 5개월 수명을 가진 고무신 두 컬레에 해당하며 또 300л/K^2의 품질을 가진 카바이드의 2톤은 품질 200Л/K^2의 카바이드 3톤에 해당할 것이다.

때문에 생산물 사용 가치의 증대는 이 경우에 생산물 수량의 증대와 동일한 것으로 되는 만큼 수량의 증대와 품질의 제고는 반드시 동일하게 고려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해당 설비의 리용률과 로동 생산 능률 수준은 본질상 생산된 제품의 품질 척도의 크기에 따라 규정된다. 그러므로 제품의 질적 요인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로부터 제품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제 요인들 중 특히 제품 생산 과정에서 우수한 품질을 달성한 선진 로동자들의 작업 방법을 탐구도입 및 보급하는 사업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상과 같이 우리 나라 산업 기업소의 매개 작업 현장들에서 선진 작업 방법을 연구 일반화하고 그것을 보급하는 것은 설비 리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며 또 설비 리용률 제고를 위한 투쟁은 동시에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를 위한 투쟁과 밀접히 련결되여 있다.

선진 작업 방법의 본질 및 선진 작업 방법을 연구 도입 보급하는 사업의 커다란 의의는 대체로 이러하다.

❋ ❋

그러므로 우리 나라 기업소 일'군들은 선진 작업 방법의 본질을 명확히 인식하고 작업 현장들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널리 보급시키는 사업에 광범한 로동자들을 인입하는 사업을 정력'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 기업소의 일부 일'군들 가운데는 선진 로동자들의 창조적인 로력에 의하여 실지 작업 현장들에서 발생 발전하는 귀중한 독창적 작업 방법들을 《우연한 현상》, 《개인적 특기(特技)》로서 부정당하게 평가하며 이것을 소홀히 처리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우연》하며 《특수한》 제 현상의 리면에 숨어 있는 선진 작업 방법 발생의 제 요인들을 구명하여 그로부터 합법칙성을 찾아 내여 그 작업 방법을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광범한 로동자들 속에 해설 침투시키며 나아가서 생산에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서 반드시 지적하여야 할 것은 일부 기업소 일'군들에게서 보는 바와 같이 작업 방법을 개선하는 사업을 설비 리용률을 높이며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하는 투쟁과 분리하여 별개로 취급하는 그릇된 현상이다. 이것은 작업장들에서 생산을 개선하기 위한 일'군들의 실제 사업에서 적지 않은 혼란을 조성한다.

작업 방법을 개선한다는 것은 본질에 있어서 설비의 리용률을 제고시키는 주요 수단의 하나인 동시에 그것은 결국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하는 결과를 가져 온다는 것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때문에 선진 작업 방법을 도입 보급하는 사업은 응당 기업소들에서 설비 리용률과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하기 위한 조직—기술적 사업의 통일된 체계 안에서 그와의 유기적 련관 속에서 동시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더우기 이 사업은 기업소들에서의 대중적 증산 경쟁 및 창의 고안 운동들과 밀접히 련결되여 실시됨으로써 만 실제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실례로 카바이드 전기로 작업에서 본궁 화학 공장 박 길종 브리가다에 의하여 탐구 개척된 선진적 전기로 조작 방법은 창의 고안 성과로서 평가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직장내의 일부 일'군들에 의하여 묵살되여 왔으며 지어는 《우연한》 현상으로 랭대 받아 왔던 것이다. 때문에 이 귀중한 선진 작업 방법은 장기간 하등의 보급을 보지 못하게 됨으로써 동 공장이 응당 얻을 수 있는 보다 높은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결국 작업 방법 개선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설비 리용률 제고는 한개의 구호에 그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공장 당 단체의 꾸준한 사상 투쟁을 통하여 박 길종 브리가다의 독창적인 작업 방법은 창의 고안의 성과로서 정당히 평가되고 그의 보급 발전을 저애하는 유해로운 현상에 대한 투쟁을 전개한 결과 이 방법은 대중 속으로 깊이 침투되기 시작하였다. 더구나 이 방법은 동 공장의 전체 직장을 포괄하고 있는 대중적 증산 경쟁 운동의 테두리 안에서 그와 배합되여 실시된 결과 광범한 대중 속에 급속히 보급 전파되기 시작하였으며 처음에 《특수》 현상으로 간주되였던 것으로부터 현재는 작업 관습으로 됨으로써 작업장 마다에 정착되여 해당한 작업 성과를 올리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작업 방법을 개선하며 설비 리용률을 제고시키는 투쟁은 한개의 구호로 그쳐서는 결코 안되며 반드시 실제 생산에 정착되며 로동자들의 일상적 작업 관습으로 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사회주의적 로동 조직의 기본 방법인 대중적 증산 경쟁 운동의 한개 환으로서 그의 테두리 안에서 이 투쟁을 조직 전개하는 실천적 조치로써 안받침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 방법을 개선하며 설비 리용률을 제고시키는 사업은 결코 일시적인 깜빠니야 사업은 아니다.

이것을 실행하는 것은 1957년 계획의 성과적 수행을 보장하며 나아가서는 우리 나라에서 제1차 5개년 계획의 방대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 방법의 하나로서 장기간에 걸치는 투쟁 임무인 바 《5개년 계획 기간에는 공업 생산 장성의 상당한 부분을 새로운 작업 방법의 도입과 설비 리용률을 제고시키는 방법으로 달성》(김 일성)하여야 하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업을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항구적으로 또 에피쏘드적으로가 아니라 조직적 계획적으로 진행하며 사업 과정에서 계통적인 검열과 총화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대중의 집체적 경험을 동원 리용하여야 할 것이며 사상적으로 동원된 일'군들의 완강하고 정력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건설에서 보수주의와 침체성에 사로잡힌 일부 일'군들은 생산을 지도함에 있어서 대중의 무궁 무진한 력량에 의거하지 않고 그들의 창의 창발성을 홀시함으로써 선진 작업 방법의 도입 일반화 사업을 저애하고 나아가서는 생산 장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과 강력히 투쟁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는 작업에 사용하는 설비와 도구, 원료와 연료, 동력 등의 개별적 설비들과 물'자들에 대한 세심한 분석 연구가 있어야 한다.

우리 일'군들이 로동 도구와 소비 물'자들을 파악하지 않고서는 우수한 작업 성과를 산생하는 작업 행정의 합법칙성을 과학적으로 구명할 수 없으며 그것을 생산에 도입 정착시킴에 있어서 실제적 성과를 거두기 곤난하다.

때문에 선진 작업 방법을 적발 리용하기 위하여서는 설비와 도구에 정통하며 표준 조작 규정에 숙달하는 동시에 원료, 연료 등 소비 자재들을 더 충분히 파악하며 판단하는 능력 수준을 제고하여야 한다.

실제 경험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작업 방법을 개선하는 것은 설비와 도구를 개조하며 작업 행정을 가일층 기계화하며 자동화하는 일련의 기술 개선 사업을 동반하고 있는 바 그것은 본질상 선진 작업 방법이 소여의 설비와 물자를 보다 완전히 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또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생산 공정을 기계화하며 자동화하는 것은 설비의 리용률을 제고하는 투쟁의 한 부분으로 취급되여야 하며 별개의 것으로 분리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기업소들에서 작성되는 년간 및 분기별 조직—기술적 대책의 계획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해당 작업장의 실제적 조건을 타산한 기초 우에서 선진 작업 방법의 연구, 도입 및 보급 계획과 함께 유일한 종합 계획을 작성 집행함으로써 작업 현장들에 조성될 수 있는 불필요한 혼란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작업 방법의 개선과 설비 리용률 제고에서의 성과를 실지 생산에 고착시키기 위하여서는 달성된 성과를 새로운 기준량으로써 확정하는 동시에 이에 알맞게 로동력과 임금을 조절 통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러함이 없이는 발견되고 체계화된 선진 작업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의 적용 보급 속도가 완만하며 생산량과 품질 제고에 관한 새로운 국가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 및 초과 수행하는 영예로운 임무를 충분히 완수할 수 없을 것이다.

선진 작업 방법을 적발 리용하며 광범히 보급하는 사업은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비 리용률과 로동 생산 능률 제고를 위한 투쟁의 중요한 한개 고리이며 기업소에 잠재하는 내부 예비를 적발 동원하는 주요 방법의 하나이다.

때문에 생산 내부 예비를 적발 동원하며 기업소의 생산을 개선하는 조직적 및 기술적 제! 임무의 총 체계의 유기적 구성 부분으로써 작업 방법을 개선하며 설비 리용률을 제고시키는 투쟁이 전개되여야 한다.

그러므로 기업소내의 온갖 생산—기술적 제 활동으로부터 이 사업은 분리될 수 없으며 그와의 유기적 련관 속에서 연구 취급되며 집행되여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의 근로자들의 사회적 리익과 개인적 리익의 결합에 대하여

리 석 심

근로자들의 사회적 리익과 개인적 리익이 조화적으로 결합되는 것은 사회주의 사회의 중요한 합법칙성의 하나이며 자본주의에 비한 사회주의의 중요한 우월성 중의 하나이다. 근로자들의 사회적 리익과 개인적 리익의 조화적인 결합은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적, 사회주의적 소유가 존재하는 조건하에서 즉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가 지배하는 조건하에서 만 비로소 가능하며 또한 객관적인 필연성으로 된다.

근로자들의 사회적 리익과 개인적 리익이 결합된다는 것은 사회적 리익과 개인적 리익이 호상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한쪽의 충족이 다른 쪽의 충족을 촉진하며 사회 생활에서 량자가 다같이 타산되며 고려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계는 개인들의 리익이 서로 분리되며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합치되며 통일되여 공통한 사회적 리익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조건하에서 만 가능하다.

이러한 관계는 사'적 소유에 기초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 거기서는 매개 사'적 소유자들의 리해 관계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 한 자의 번영 치부는 다른 자들의 손실 희생을 동반한다. 그리하여 사'적 소유자들 간에는 서로 다른 자들을 희생시켜 자신의 리기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야수적 생존 경쟁이 불가피하게 일어난다. 여기에는 《각자들은 다만 자기 자신 만을 위하여 배려하며 하나님 만이 모든 자를 위하여 배려한다》는 관계가 존재한다.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말한다면 착취자 사회에서의《사회적》리익이란 그들에게 무연할 뿐 만 아니라 직접 적대되는 리해 관계를 대표한다. 그러므로 착취자 사회에서 근로자들의 사회적 리익과 개인적 리익의 결합이란 도대체 존재할 수 없다.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 하에서는 사태가 전혀 다르다. 매개 근로자들의 물질적—문화적 복리는 우선 사회적인 공동적 경리, 인민 경제 전체의 발전에 의존하며 사회적, 공동적 경리의 발전은 매개 근로자들의 절실한 리익으로 된다. 여기에서는 사회적 리익이란 근로자들 자신의 공동적인 일반적 리해 관계를 대표하며 사회는 항상 근로자 개인들의 리익의 가급적인 충족을 위하여 배려한다. 이러한 관계하에서 근로자들이 사회적, 공동적 리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배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하여 여기에서는 개인이 다른 모든 자들과 또 사회를 위하여 배려하며, 다른 모든 자들과 사회는 개인을 위하여 배려하는 호상 관계가 조성된다.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하에서 사회적 리익과

개인적 리익이 결합되며 사회는 개인을 위하여 배려하고 개인은 사회를 위하여 배려하는 관계가 존재할 때에도 사회적 리익과 개인적 리익은 동일한 리해 관계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들은 서로 구별되며 각각 독자적인 의의를 가진다. 그러면 그것들 중 어느 것이 보다 중요하며 근본적인가?

사회적 리익이 보다 근본적이며 중요하다. 왜 그러냐 하면 사회적 리익은 사회 성원 전체의 공통적인 리익으로 될 뿐만 아니라 결국에 있어서 개인의 리익 충족을 위한 결정적인 담보로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시적으로 사회적 리익과 개인적 리익이 모순될 때 사회적 리익이 우선적으로 충족되여야 한다. 그리함으로써 만 결국 개인들의 리익도 원만히 충족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하여 사회주의 조건하에서 사회적 리익과 개인적 리익이 결합된다는 것은 사회적 리익을 우선적으로 충족시키면서 사회적 리익과 개인적 리익이 다같이 배려되며 소여의 조건하에서 적합하게 량자가 다같이 충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화국 북반부에 수립된 인민 민주주의 경제 체제하에서 주도적 역할을 놀고 있으며 인민 경제에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주의 경제 형태에서 사회적 리익과 개인적 리익의 호상 관계는 일반적으로 말하여 우에서 말한 바와 같다.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비사회주의적 경제 형태들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진척됨에 따라 사회적 리익과 개인적 리익의 이러한 조화적인 결부의 가능성은 더욱 더 확대되여 가고 있다.

공화국 북반부에 잔존하는 소상품 경제 형태에서도 사회적, 국가적 리익과 근로자들의 개인적 리익간의 호상 관계는 자본주의 하에서의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조국의 통일 독립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지지하며 그것에 혈연적 리해 관계를 가지는 개인 경리 농민들과 수공업자들도 사회적, 국가적 리익의 충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타면 인민 민주주의 국가는 그들의 복리 향상을 위하여 부단한 배려를 돌리고 있다. 개인 상업자들에게 있어서도 그들이 반제,반봉건 민주 혁명의 완수에 협력하며 근로자들과 공동으로 노력하는 한 국가적 시책에 적극 협조하며 국가는 그들에게 유익한 경제적 활동을 장려하며 보장한다.

사회주의의 조건하에서 사회적 리익과 개인적 리익의 결합은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에 의하여 규정되는 객관적 합법칙성이다. 그러나 이러한 객관적 합법칙성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하고 옳게 실천에서 타산할 때에야 만 현실성에로 전화된다.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하에서의 사회적 리익과 개인적 리익의 호상 관계는 우선 근로자들의 사회적 리익을 대표하는 당과 정부에 의하여 옳게 타산되며 타면에 있어서 근로자들 자신에 의하여 인식되며 행동에서 고려된다.

당과 정부는 당면한 정치—경제적 과업들을 해결하며 사회 발전의 리익을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에 근로 대중을 조직 동원하면서 동시에 부단히 근로자들의 개인적 복리 향상을 위한 대책들을 강구한다. 타면 근로자들은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하에서의 사회적 리익과 개인적 리익의 호상 관계를 옳게 인식하는 한 국가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며 자신의 개인적 리익과 함께 사회적 리익을 타산하며 더 나아가 개인적 리익보다 사회적 리익을 더 중시한다. 이와 같이 되는 조건 하에서 당과 정부의 정책은 진정으로 인민적인 것으로 되며 타면 근로 대중의 자각적인 애국적 증산 경쟁 운동이 광범히 실질적으로 전개되게 된다.

* *

당과 정부가 모든 지책들의 실시에서 사회적 리익과 개인의 리익을 다같이 고려하는 필요성은 근로자들의 로동 결과에 대한 물질적 관심성의 원칙과 결부되여 더욱 긴절한 것으로 된다.

근로자들의 로동 결과에 대한 물질적 관심을 리용하는 것은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 하에서 근로자들을 적극적인 로동 태도에로 추동하기 위하여 불가결하다. 사회주의 하에서는 로동은 아직 생활상의 제1차적인 요구로는 되지 못하며 그것은 아직 주로 생활을 위한 수단으로 되고 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근로 대중을 사회적인 로동에 인입하기 위하여서는 그들의 생활상의 물질적 리익을 자극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있어서는 근로자들의 사회주의적 로동 태도를 조성하기 위하여 로동 결과에 대한 물질적 관심을 효과적으로 리용할 필요성이 더욱 긴절하다. 오랜 기간에 걸치는 착취자들을 위한 노예적 로동과 다만 자기 자신의 리해 관계를 위한 사'적 로동의 관습으로부터 오는 낡은 로동 태도를 청산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그들을 사회적 로동에 인입하고 사회와 자기를 위한 사회적 로동의 실천적 경험으로부터 근로자들이 점차적으로 새로운 사회적 로동의 본성을 리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주의의 조건하에서 생산 발전의 강력한 추진력으로 되는 사회주의 경쟁, 증산 경쟁은 근로자들의 물질적 관심성의 원칙이 옳게 준수되는 조건하에서 만 진실로 대중적인 운동으로 될 수 있는 것이다.

근로자들의 물질적 관심성의 리용은 생산력의 발전이 아직 불충분하며 낡은 로동 태도가 잔존하는 조건하에서 근로자 대중을 사회적 로동에 인입하기 위하여 그들의 생활상 개인적인 물질적 관심을 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그것은 사회적 리익과 개인적 리익의 결합에 대한 문제와 불가분리하게 결부된다.

사회적 리익과 개인적 리익의 결합은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적 공동 소유가 존재하는 조건하에서의 개인과 집단, 사회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합법칙성이며 그것은 사회주의적 로동 조직의 한 원칙인 개인적,물질적 관심성의 원칙과 일정하게 구별되는 내용을 가지는 하나의 독자적인 원칙이다. 그러나 이 두 원칙들은 사회 생활에서 규정하는 측면들을 달리하면서도 다같이 사회 발전의 리익과 개인적 리익의 련계, 결부 방식을 규정하는 만큼 당과 정부는 사회적 리익과 개인적 리익의 결합을 위한 시책들을 강구할 때 동시에 로동 결과에 대한 개인의 물질적 관심성의 원칙을 고려하며 준수하여야 한다.

로동 결과에 대한 개인적, 물질적 관심성의 리용은 그것이 사회적 생산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사회적 리익의 충족에 복무할 때에야 만 정확한 것으로 될수 있다. 사회적 리익의 충족을 희생시키는 개인적인 물질적 관심의 타산이란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하에서 허용될 수 없다.

그리하여 사회적 리익과 개인적 리익을 결합시키기 위한 시책들에서는 동시에 로동 결과에 대한 근로자들의 물질적 관심성의 원칙이 타산되여야 하며 타면 근로자들의 물질적 관심성의 리용은 사회적 리익과 개인적 리익의 정당한 호상 관계를 설정하는 원칙에 복종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하여 사회적 리익과 개인적 리익을 결합시키며 개인적인 물질적 관심을 리용한다는 것은 사회적 리익의 충족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면서 소여 조건에서 가능한 최대한도로 개인의 리익을 충족시키며 이러한 개인적 리익의 충족이 근로자들의 적극성을 고무하면서 최대한도로 사회적 생산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사회적 리익과 개인적 리익의 결합, 근로자들의 물질적 관심성의 리용은 로동의 질과 량에 따르는 사회주의 분배 법칙의 리용과 밀접히 관련된다.

로동의 질과 량에 따르는 분배 법칙은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하에서 개인적 소비품들의 분배를 규정하는 경제 법칙이다. 그것은 로동 결과에 대한 근로자들의 물질적 관심성의 원칙을 소비품의 분배면에서 구체화한 것이다. 근로자들의 물질적 관심을 리용하는 일은 그리하여 로동의 질과 량에 따르는 분배 법칙을 정확히 인식 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타면에 있어서 로동의 질과 량에 따르는 분배는 근로자들의 물질적 관심성의 리용 일반과 마찬

가지로 사회적 리익과 개인적 리익의 옳바른 결합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로임 조직에서 로동 생산 능률의 장성 속도가 로임의 장성 속도보다 앞서는 것이 원칙으로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만 근로자들의 복리가 부단히 향상되는 동시에 사회적 수요와 생산 발전을 위한 사회의 순수입이 부단히 증대되여 개인적 리익과 사회적 리익이 다같이 충족된다.

사회적 리익과 개인적 리익의 결합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존재하며 다만 경제 생활에서 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경제 생활에서도 그것은 생산 분배, 교환, 류통의 모든 환절들, 한 마디로 말하여 사회적 재생산의 모든 분야에서 실현된다. 그리하여 그것은 물질적 관심성의 원칙, 로동에 따르는 분배 법칙의 요구의 실현과 관련된 문제들 보다 훨씬 더 광범한 문제들을 포괄한다. 그러나 사회적 리해 관계에서 경제적 리해 관계가 기본적인 것이며 특히 개인적 리해 관계에서 물질적 리해 관계, 소비품들의 분배 관계가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만큼 사회적 리익과 개인적 리익을 옳게 결부시키기 위한 당과 정부의 실천적 제 대책에서 로동 결과에 대한 근로자들의 물질적 관심을 리용하는 문제, 로동의 질과 량에 따르는 분배를 정확히 실시하는 문제가 동시적으로 제기되며 당과 정부는 이것들을 종합적, 통일적으로 고려하면서 구체적 문제들을 해결한다.

* *

사회적 리익의 우선성을 보장하면서 사회적 리익과 개인적 리익을 옳게 결합시키는 데는 소여 시기, 소여 경우에서의 구체적인 조건들을 옳게 타산하고 소여 조건하에서 개인적 리익을 충족시키는 정도, 사회적 리익과 개인적 리익간의 적합한 호상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사회주의의 조건하에서는 소여 조건하에서 가능한 최대한도로 개인적 리익을 충족시키는 것을 생산의 한 과업으로 하지만 어느 정도로 사회적 리익을 우선 충족시키며 또 어느 정도로 개인적 리익을 충족시키겠는가 하는 문제는 당과 정부에 의하여 그때 그때에 창조적으로 해결되여야 할 문제이다. 그리하여 매개의 구체적 조건하에서 사회적 리익과 개인적 리익을 결합시키는 정도, 비중, 단계를 옳게 설정하는 것은 실천적으로 보아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사회적 리익의 우선성을 보장하면서 최대한도로 개인적 리익을 충족시키는 원칙을 실천 사업에서 옳게 타산하는 데는 인민 경제 발전의 구체적 조건들을 세밀하게 타산하여야 한다. 즉 례컨대 당면한 정치, 경제적 과업들, 인민 경제에서의 생산력의 발전 수준, 근로자들의 물질, 문화적 생활 형편, 그리고 근로자들의 정치, 사상적 의식 수준 등을 다같이 타산하여야 한다.

당과 정부는 당면한 정치, 경제적 과업들의 해결에 전체 인민을 조직 동원하면서 인민 경제의 제반 지도 사업에서 우리 나라의 구체적 조건에 적합하게 사회적 리익과 개인적 리익을 결합시키는 모범들을 보여 주고 있다.

인민 경제의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균형으로 되는 것은 생산 수단 생산 부문과 소비 수단 생산 부문간의 호상 관계, 중공업과 경공업 및 농업간의 균형에 대한 문제이다. 사회주의적 확대 재생산을 진행하며 근로자들의 복리를 부단히 제고시키기 위하여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을 보장하는 것은 사회적 리익의 우선적 충족, 사회적 리익과 개인적 리익의 옳바른 결합을 위하여 불가결한 조건으로 된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구체적 조건하에서 생산 수단 생산 부문을 어느 정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겠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 나라에서의 구체적 제 조건에 따라 결정되여야 한다.

당과 정부는 이 문제를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을 견지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침을 확립함으로써 정확히 해결하여 왔다. 즉 조선 인민 앞에 나선 정치, 경제적 과업들의 해결, 근로자들의 복리의 부단한 향상의 물질적 토대로 되는 인민 경제의 자립성과 다양성을 확립하고 나라의 경제적 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즉 근로자들의 긴절한 사회적 리익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을 보장하면서 당과 정부는 인민 생활의 시급한 안정 향상을 위하여 경공업과 농업의 발전에 동시에 주력하며 이 부문들을 중공업과 동시에 적극 발전시키는 대책을 강구하여 사회적 리익과 개인적 리익을 정확하게 결합시켜 왔다. 그리고 이러한 방침 역시 인민 경제 발전의 매개 시기의 구체적 조건에 따라 일정한 차이를 가지고 실천되여 왔다.

이와 동일한 것을 인민 경제에서의 축적과 소비간의 호상 관계에서 말할 수 있다. 당과 정부는 인민 경제의 전반적 발전을 위하여 긴절히 필요한 축적과 기본 투자를 우선적으로 보장하여 근로자들의 사회적 리익을 충족시키는 방침을 견지하면서 근로자들의 당면한 생활 향상을 위하여 허용되는 최대 한도로 소비 폰드를 증대시키는 정책을 실시하여 왔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 경제에서는 로임 조직에서 로동 생산 능률의 장성 속도가 로임 장성 속도를 앞서는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전시와 전후 시기의 어려운 조건하에서 인민 경제 발전의 전반적 리익이 허용하는 한 로임의 급속한 장성을 실현하여 인민 생활의 안정 향상을 최대 한도로 보장하는 시책들을 강구하였다.

이러한 것은 우리 나라 인민 경제 발전의 구체적 조건하에서 특히 전쟁의 후'과가 인민 생활에 커다란 손실을 준 조건하에서 사회적 리익과 개인적 리익을 옳게 결부시키는 정책으로 된다.

당과 정부는 농업 협동 경리들의 발전을 지도함에 있어서도 농촌 경리에서의 생산력 발전 수준, 근로 농민들의 물질적 형편, 그들의 정치, 사상적 의식 수준 등을 고려하여 협동 조합들의 생산물 분배에서 조합의 공동 폰드 적립의 적합한 정도를 옳게 설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조건하에서 협동 경리의 앞으로의 발전을 위하여 불가결한 불분활 폰드의 장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과도히 불분활 폰드를 많이 적립하려는 경향을 배격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당과 정부가 협동 경리들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자원성과 점차성의 원칙을 준수하며 낮은 형태의 협동 경리들을 통하여 근로 농민들을 교양하면서 점차 완전히 사회주의적인 고급 형태에로 인도하는 것 역시 사회적 리익과 개인적 리익을 결합시키는 데 있어서의 력사적, 구체적 제 조건의 타산, 사회적 리익과 개인적 리익의 결합의 적합한 정도, 단계의 선택의 실례로 된다.

사회적 리익과 개인적 리익의 옳바른 결합을 실현한다는 것은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사회적 리익의 우선적 충족을 보장하면서 소여 시기, 소여 경우에서의 구체적 조건들, 객관적인 조건들과 주관적인 조건들(례컨대 근로자들의 정치, 사상적 의식 수준 등)을 타산하여 최대한도로 당면한 개인적 리익을 충족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바 구체적인 조건들은 부단히 변화하며 발전하는 만큼 사회적 리익과 개인적 리익의 결합 방식 역시 부단히 개선, 완성되지 않을 수 없다.

사회적 리익과 개인의 리익의 결합에 대한 문제는 사회 생활의 가장 일반적인, 보편적인 문제인 만큼 크고 적은 문제에서 사회적 리익과 개인적 리익을 결부시키는 적합한 정도, 단계를 발견하는 것은 모든 부문 일'군들에게 있어서 부단한 관심사로 되여야 한다. 이 사업은 일'군들에게 객관적인 조건들을 옳게 인식 파악하며 군중과의 련계를 강화하는 조건하에서 문제를 원칙적으로 또 창조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요구한다. 소여의 조건하에서 부당하게 개인적 리익의 충족을 경시한다면 이는 군중과 리탈하는 관료주의적 오유를 산생시킬 것이며 반면에 과도하게 당면한 개인적 리익의 충족에 치우쳐 나라의 장래 발전에 지장을 줄 정도로 사회적 리익을 홀시한다면 이는 기회주의적인 오유를 낳게 될것이다.

* *

당과 정부는 인민 경제 발전을 지도하면서

객관적 조건들의 변화 발전과 근로자들의 사상—의식 수준의 제고, 인민 경제 지도 사업에서의 경험, 축적 등에 따라 사회적 리익과 개인적 리익을 결부시키는 방식을 개선하며 생산 발전을 위하여 근로자들의 로동 결과에 대한 물질적 관심성을 리용하는 방법을 개선하는 데 부단한 주의를 돌려 왔다.

당과 정부는 사회주의적 기업소들의 계획적 관리 방법인 독립 채산제를 도입하며 그것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려 왔다. 그리하여 인민 경제 계획화 사업을 더욱 개선하며 원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며 기업소들 간의 호상 관계를 정확히 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독립 채산제를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발전시켜 왔으며 현 단계에 있어서는 기업소 내부 채산제의 광범한 도입을 위한 지도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독립 채산제의 강화는 기업소 일'군들의 물질적 리해 관계와 책임감을 강화하며 절약 제도의 일층 엄격한 준수, 원가 저하, 사회적 로동 생산 능률 제고를 촉진하며 그리하여 인민 경제 발전의 전반적 리익과 기업소 일'군들의 개인적, 집단적(기업소 범위내에서의) 리해 관계를 옳게 결합시킬 수 있게 한다.

당과 정부는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하에서 근로자들의 물질적 관심성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로동의 질과 량에 따르는 로임 지불 방법을 개선하며 이와 관련하여 로력 기준량 제정 사업을 더욱 정확하게 만들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리고 있다. 그리하여 더욱 광범히, 그리고 더욱 정확히 도급 임금 제도를 실시하며 로임 계획화 사업과 로임 지불에서 기초로 되는 로력 기준량 제정을 기술—기준화의 과학적 방법에 립각하도록 하기 위하여 꾸준한 주의를 돌려 왔다. 로임 제도와 로력 기준량 제정 사업의 개선은 사회적 리익과 개인적 리익을 옳게 결부시키는 데 있어서 필수적 조건으로 된다.

당과 정부는 농촌 경리를 지도함에 있어서도 항상 농민들의 물질적 관심성을 제고하며 사회적 리익과 개인적 리익을 적합하게 결합시키기 위한 대책들을 더욱 개선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쏘련에서의 《신 경제 정책》의 경험을 리용하면서 우리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있어서의 상품 생산, 시장, 화폐 경제 등을 리용하는 경제 정책은 무엇보다도 농민들의 물질적 관심성을 타산하면서 도시와 농촌간의 련휴를 보장하며 그들을 점차 사회주의에로 인도하는 정책으로 된다. 이러한 경제 정책하에서 농민들이 잉여 농산물을 자유로이 매매하는 가능성은 농민들의 개인적인 리익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농촌 경리의 발전을 통하여 사회의 리익을 충족시키며 로농 동맹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 온다.

당과 정부는 농촌 경리와 국영 경제와의 련계를 강화하며 농민들의 개인적 리익을 가능한한 최대한도로 충족시키면서 그들의 생산 의욕의 제고가 사회적 생산 발전에 적극 기여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일련의 대책들을 강구하여 왔는 바 특히 현물세제의 실시 및 그의 부단한 개선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현물세 부과률은 최초의 논 27%, 밭 23% 균일제로부터 그후 논 27%, 25%, 밭 23%, 15%, 10% 등으로 더욱 세밀히 구분되였으며 그후 토지의 질에 따르는 구분이 일층 세밀하게 규정되였다. 이것은 농민들의 납세 부담을 더욱 합리적으로 만들었으며 농민들의 생산 의욕을 제고시켰다. 특히 1956년도부터 토지에 따르는 고정된 량의 현물세 부과 방식이 도입됨으로써 사회적 리익과 개인적 리익을 결합시키는 데 있어서 일층 유리한 조건이 지어 졌다. 농민들이 수확을 많이 내면 낼 수록 그들에게 더 많은 여유 농산물이 생기기 때문에 농민들의 개인적 리익이 더욱 더 충족되는 동시에 농산물의 증수는 동시에 국가의 리익으로 된다.

당과 정부는 기타 신개간지, 복구되는 경지 등에 대한 일부 현물세의 면제, 농산물에 대한 수매 가격의 조절 인상 등의 시책을 통하여 농민들의 물질적 관심성을 리용하는 농업 생산 발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당과 정부는 개인 상공업자들에 대하여서도 그들이 인민 생활의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에서 사업하도록 지도함으로써 이들을 개인적 리익과 인민 경제 발전의 전반적 리익을 결합시키는 방향으로 인도하고 있다.

사회적 리익과 개인적 리익을 더욱 정확하게 결합시키는 일은 한편으로는 객관적인 조건들에 의하여 제약되며 다른편으로는 지도 일'군들 자체의 주관적 능력 열성에 의존한다.

례컨대 로동자들의 로동 결과에 대한 물질적 관심을 더욱 제고시키기 위하여서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화폐 형태로서 로동의 질과 량을 세밀하게 타산한 로임을 지불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일부 평균주의적 경향을 산생시킬 수 있는 배급 제도의 존재는 사회적 리익과 개인적 리익의 옳바른 결합을 위하여 불리한 조건을 조성한다. 그러나 오늘날 배급 제도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필요하며 아직 긍정적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하여 로임 제도를 일층 개선하는 사업은 당분간 배급제의 존재를 전제하면서 배급 제도 자체의 개선과 화폐 로임의 역할 제고를 위한 대책들을 통하여 실시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소여의 조건하에서 로임 제도를 더욱 개선할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며 그리하여 당과 정부는 1956년도에 로임 제도의 현저한 개편을 실시하고 근로자들의 물질적 관심성의 제고를 위하여 효과적인 대책들을 강구하였다.

모든 부문 일'군들은 사회적 리익과 개인적 리익을 옳게 결합시키는 당과 정부의 정책을 자기 사업 분야에서 관철시키며 구체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만 한편으로는 근로자들의 애국적 열성에 의거하며 타면에 있어서 그들의 물질적 관심성을 리용하여 성과적으로 건설 사업을 추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당면한 제1차 5개년 계획의 첫해인 1957년도 인민 경제 계획의 성과적인 수행은 기업소 관리 사업을 일층 개선하며 대 중 생산 사업을 옳게 조직하는 조건하에서 만 가능하다. 그리하여 기업소 지도 일'군들이 기업소의 독립 채산제를 강화하며 특히 기업소 내부 채산제를 광범히 도입하며 절약 제도의 준수, 원가 저하, 로동 생산 능률 제고를 위한 투쟁에서 근로자들의 물질적 관심성을 제고하며 로임 제도의 일층의 개선, 도급 임금제의 일층 광범한 실시, 로력 기준량 제정 사업의 수준 제고 등으로 근로자들이 사회적 리익과 개인적 리익을 더욱 정확히 결합시키기 위한 대책들을 강구하는 것은 인민 경제 계획 완수를 위하여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나라 기업소들에서는 근로자들에 대한 물질적 자극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의 로동에 대한 적극성을 제고시켜 개인들의 로임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사회의 축적을 증대시키는 도급 임금제가 아직 불충분하게 적용되고 있다. 례컨대 1956년 상반년도에 금속 공업 부문에서는 도급제 참가률이 66%, 석탄 공업 부문에서는 60,4%에 불과하였는 바 실지 도급제로 일한 시간의 비률은 이보다 훨씬 더 적었다. 또한 많은 기업소들에서의 로력 기준화 사업에서는 아직까지 경험 통계적 방법이 광범히 적용되고 있으며 극히 적은 분야에서 측 례를 들면 1956년도에 락원 기계 제작소에서는 전체 도급 기준량 중에서 15,2%, 희천 기계 제작소에서는 2,7%만이 기술 기준화의 방법이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사태의 개선에 의하여서 만도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시키며 생산 내부의 예비들을 동원 리용하는 데 크게 기여 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 ＊

당과 정부의 정확한 시책하에 사회적 리익과 개인적 리익이 옳게 결부되는 조건하에서 근로자들 자신의 사회적 리익과 개인적 리익의 호상 관계에 대한 태도는 여하히 되여야 할 것인가? 이것은 당과 정부의 정확한 시책들과 함께 우리 나라에서의 근로자들의 사회

적 리익과 개인적 리익의 결합에 대한 문제의 다른 한 측면을 이룬다.

인민 민주주의 조건하에서 사회, 국가는 근로자들의 복리 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배려하며 사회적, 국가적 경리들은 근로자들의 리익 충족을 위한 기본'적인 물질적 기초로 된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근로자들은 사회적, 국가적 소유를 보호하며 절약 제도를 강화하며 사회적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시켜 사회적, 국가적 경리들을 발전시키는 데 혈연적인 리해관계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사회적 리익은 개인적 리익과는 일단 구별되나 그러나 그것 역시 근로자들 자신의 리익으로 되는 것이다.

근로자들의 로력으로 창조되는 모든 생산물의 일부는 국가 사회의 공동적 수요와 생산 확대의 목적에 리용되며 다른 훨씬 더 많은 부분은 근로자들의 개인적 소비를 위하여 분배된다. 이때 사회적 목적에 돌려 지는 생산물 부분도 결국 근로자들의 복리 향상에 복무하는 것이며 그것은 넓은 의미에서 근로자들 자신의 리익을 위하여 지출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사회와 국가의 주인인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모든 로동 생산물은 자기 자신의 리익을 위하여 리용되는 것이며 근로자들의 로동은 그 전체가 자기를 위한 로동으로 된다.

이러한 관계는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사회적 리익의 충족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 사회적 생산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로동 태도를 산생시킨다. 자각적인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의 비근한 개인적 리익의 충족과 함께 사회적 리익의 충족은 개인적 리익의 충족과 같이 또는 더 나아가 그것보다 더 큰 정도로 자신의 혈연적인 일로 되지 않을 수 없다.

사회적 리익과 개인적 리익의 결합에 대한 근로자들의 인식, 자기 자신을 위한 자유롭고 영예로운 로동에 대한 자각적인 태도는 근로자들 속에 애국적 증산 경쟁 운동을 산생시킨다. 증산 경쟁 운동은 자기 자신의 개인적 리익과 함께 사회적, 국가적 리익의 충족을 위하여 적극성과 창의 창발성을 발휘하는 근로자들의 자원적인 운동이다.

사회 발전의 결정적 력량인 근로 대중 속에 사회적 리익과 개인적 리익의 결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배양하며 국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그들의 자각성을 백방으로 제고시키는 것은 우리 앞에 제기된 정치—경제적 과업들의 성과적인 해결을 위하여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일본 제국주의자들로부터 락후하고 편파하게 발전된 인민 경제를 물려 받았으며 가혹한 조국 해방 전쟁에서 엄혹한 파괴를 당한 조건하에서 그리고 조국이 남북으로 량단된 조건하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서는 전체 근로자들이 난관 애로들을 극복하는 견인성과 창의 창발성을 일층 제고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사회주의, 인민 민주주의 조건하에서도 사회적 리익과 개인적 리익이 일시적, 부분적으로 모순적 관계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모순은 객관적인 조건들로 말미암아 산생되는 경우도 있으며 주관적인 요인들로 말미암아, 례컨대 일'군들이 사회적 리익과 개인적 리익을 부정확하게 결부시켜 개인적 리익을 과도히 중시하거나 또는 경시하는 경우 등에 발생할 수 있다.

일'군들의 부정확한 사업으로부터 오는 사회적 리익과 개인적 리익간의 모순은 당과 정부의 정확한 시책으로써 극복되며 시정될 수 있다. 이러한 모순의 극복, 시정은 비판과 자아 비판의 무기로써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리익과 개인적 리익이 객관적 원인들로 말미암아 모순되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그러한 모순을 산생시키는 객관적 원인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그러한 객관적 원인들이 소멸될 때까지 자각적으로 일정한 희생을 감당해야 만 된다. 이러한 희생은 일시적인 것이며 또 대국적 견지로 보아 그것 역시 결국은 개인의 보다 장기적인 리익의 충족에 복무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인민 민주주의의 조건하에서는 사회적 리익과 개인적 리익은 통일되여 있으며 그리하여 근로자들의 개인적 리익의 충족에서의 일시적인 부분적인 희생은 결국 자기 자신의 보다 본질적인 전반적 리익 충족을 위한 자각적 행동으로 되는 것이다.

개인적 리익의 이러한 일시적 희생은 례컨대 가렬한 혁명적 투쟁의 시기, 특히 간고한 사업 조건하에서의 사회를 위한 어려운 사업 수행 시기 등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조건하에서도 자각적 근로자들, 근로자들의 선봉대원들은 개인의 리익을 사회적 리익에 복종시키면서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것이다. 일시적으로 개인적 리익을 희생시켜야 될 간고한 조건하에서 서슴치 않고 사회적, 집단적 리익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은 자각적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집단주의적 도덕이며 고상한 의무이다.

사회적 리익과 개인적 리익이 조화적으로 결부될 수 있는 사회주의,인민 민주주의의 조건하에서도 개인적 리익의 더욱 더 원만한 충족은 다만 근로자들의 긴장된 로력과 일시적 희생을 요구하는 건설 사업의 성과적 수행의 결과로서 만 달성될 수 있다. 그리하여 근로자들에게 난관과 애로를 극복하며 인민 경제 계획을 완수, 초과 와수하기 위한 자각적 태도를 교양하는 일은 사회주의 건설의 위업에 착수한 우리 나라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당과 정부의 인민적 시책으로 근로자들의 물질—문화 생활 수준은 전시중의 엄청난 파괴에도 불구하고 급속히 향상되였다. 그러나 자각적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인민 복리의 계속적 향상은 우리 인민 경제의 락후성, 편파성을 청산하는 긴장된 건설 사업의 결과로서 만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 그리하여 난관과 애로를 극복하면서 인민 경제 계획의 성과적 수행을 위한 애국적 증산 경쟁 운동의 선두에 서서 증산과 절약을 위하여 분투 로력하는 것은 인민 민주주의의 조건하에서의 사회적 리익과 개인적 리익의 결합에 대하여 인식하는 모든 자각적 근로자들의 의무로 된다.

❋ ❋

제1차 5개년 계획의 첫해인 1957년도 인민 경제 계획을 완수, 초과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근로자들의 적극성과 창의 창발성을 일층 제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형제적 국가들의 원조하에 기본적으로 인민 경제의 복구를 수행해 오던 전후 인민 경제 복구 건설 3개년 계획 기간과는 달리 주로 자체의 힘으로 기존 기업소들의 기술적 개선, 새로운 기업소들의 건설을 진행하여야 하는 개건기에 들어 서면서 인민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더욱 예비들을 발견 리용하며 증산과 절약을 위하여 투쟁할 과업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과업의 성과적 수행은 근로자들을 당면한 경제 과업들의 해결을 위한 생산 혁신을 중심으로 하는 대중적 증산 경쟁에 광범히 망라시킴으로써 만 가능하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근로자들에 대한 정치—교양 사업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적 리익과 개인적 리익을 조화적으로 결부시키는 당과 정부의 정책을 모든 부문에서 창조적으로 구체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 리익과 개인적 리익의 결합을 통하여 근로 대중을 적극적인 로력 투쟁에로 추동하는 것은 생산의 확대를 위하여 우리 인민 민주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옳게 리용하는 중요한 방도 중 하나이다.

당 생활

생산 계획 완수를 위한 투쟁에서의 로동 대중의 창발성

평양 정밀 기계 공장 당 위원회
위원장 박 종 덕

당 중앙 위원회 12월 전원 회의 결정을 받들고 우리 공장 전체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은 자기에게 위임된 정밀 기계 생산의 영예로운 과업을 넘쳐 실행하기 위하여 앙양된 정치적 열성으로서 모두 다 한 사람과 같이 궐기하고 있다.

우리 공장 전체 종업원들은 당과 정부의 정확한 경제 정책과 옳바른 령도에 고무되면서 3개년 인민 경제 계획 실행 기간에 전쟁에 의하여 파괴되였던 공장을 기본'적으로 복구 정비하였으며 자기에게 부과된 인민 경제 계획 과제를 빛나게 수행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달성한 성과에 자만 도취할 수 없다. 우리 공장 전체 종업원들은 지난 기간 달성한 고귀한 성과와 경험을 토대로 하고 내부 예비를 적극 동원 리용하여 최대한의 증산과 절약을 위한 투쟁을 전 군중적 운동으로 전개함으로써 보다 적은 로력과 자재로써 금년도의 증대된 계획 과제를 완수 및 초과 완수할 결의에 충만되고 있다.

12월 전원 회의 결정 침투를 위한 군중 공작

우리 공장에 부과된 1957년도 인민 경제 계획 과제는 작년도 실적에 비하여 107% 제고된 반면에 로력은 1956년 12월 실적에 비하여 85%로 감소되였다.

이러한 실정은 공장 당 단체 앞에 당 중앙 위원회 12월 전원 회의 결정 정신에 립각하여 로력과 자재와 재정을 계속 절약하면서 금년도 계획 과제를 완수 및 초과 완수하도록 전체 당원들과 로동 대중의 지혜와 창발성을 옳게 조직 동원하는 문제를 더욱 중요하게 제기하였다.

이것은 우리 공장에 부과된 제1차 5개년 인민 경제 계획의 첫해 계획 과제가 작년도의 실적에 비하여 증대된 반면에 로력이 축소되였다는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증산하며 절약하기 위해서는 지난 해의 계획 과제 수행에서 일부 행정 지도 일'군들이 생산의 장성을 대중의 지혜와 창발성, 기술의 발전에서 그의 원천을 찾지 않고 목전 생산에만 급급하여 근시안적으로 사업한 결과 적지 않은 예비를 동원 리용하지 못하고 그를 사장하였던 엄중한 결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또한 필요한 것이다.

사실 당 중앙 위원회 12월 전원 회의 결정을 접수하던 초기에 있어서도 일부 지도 일'군들 중에서는 또 다시 과거와 같이 로력 부족을 운운하면서도 사무를 간소화하며 로력 조직을 합리화할 데 대하여 무관심한 현상과 선진 국가로부터 기대를 수입함이 없이는 증산할 수 없다는 견해를 고집하려는 현상이 음으로 양으로 발로되였다. 최대한의 증산과 절약을 위하여 그의 원천을 탐구 리용할 대신에 일부 지도 간부들이 제기하는 이러한 견해는 당 중앙 위원회 12월 전원 회의 결정 정신을 실제 생산 활동에서 구체화하려는 사상적 동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였다.

공장 당 위원회 앞에는 당 중앙 위원회 12월 전원 회의의 결정에 립각하여 최대한의 증산과 절약을 위해서 우리 공장에서 반드시 탐구하여 해결하여야 할 중심 고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적발하여 전체 종업원들에게 알려 주는 문제가 선차적으로 중요하게 제기되였다.

공장 당 위원회는 대중의 지혜와 창발력을 최대한의 증산과 절약을 위한 투쟁에로 조직 동원하기 위하여 당 중앙 위원회 12월 전원 회의 결정을 구체적으로 대중 속에 해설 침투시키면서 우리 공장의 현 실정으로부터 출발하여 가장 날카롭게 전면에 나서는 문제들, 즉 《로력을 절약하기 위하여 무엇이 요구되는가》, 《자재와 원료를 절약할 예비와 가능성은 어데 있는가》, 《전력과 석탄이 어떻게 랑비되고 있는가》등 문제들에 대중이 특별히 주의를 돌리게끔 노력하였다. 이것은 전체 종업원들로 하여금 공장 앞에 제기되는 절박한 문제들에 대하여 보다 주인답께 그리고 심각하게 사고하며 연구하도록 하여 좋은 발기들을 제기하게끔 하기 위해서였다.

한편 공장 당 위원회는 증산하며 절약하는 현실적 모범을 창조하며 증산과 절약 투쟁의 군중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당 단체 분조장 및 당 단체 핵심 열성자들에게 당 중앙 위원회 12월 전원 회의 결정 실행을 위한 일정한 과업을 주고 시범적으로 그의 실행에 솔선 동원하도록 추동하였다.

이러한 기초 우에서 공장 당 위원회는 로력 절약, 설비 리용률 제고, 전력 및 석탄 절약 등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 부문 간부들과 로동자들을 망라하여 각기 해당 부문에 잠재하고 있는 예비와 가능성이 무엇이며 그를 어떻게 동원 리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군중적인 토론을 조직 전개하였다. 이러한 토론은 대중적 발기의 단서를 열어 주었다.

이와 함께 공장 당 위원회는 전체 종업원들에게 계획 과제를 정확히 주지 침투시키기 위하여 매개 종업원들에게 공장 및 직장, 브리가다, 그리고 개인에 이르기까지의 년간, 분기별, 월별, 일별 및 품종별 계획을 카드에 기록하여 나눠 주게 하였다.

이리하여 매개 로동자들에게 자기와 자기 브리가다 및 직장에 부과될 계획 과제가 얼마나 된다는 것을 똑똑히 파악시켰다.

상술한 몇가지 군중 공작을 통하여 공장 당 위원회는 전체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로 하여금 당 중앙 위원회 12월 전원 회의 결정 정신에 립각하여 부과된 계획 과제를 어떻게 완수 및 초과 완수할 것인가 하는 데로 목적 의식적으로 점차 동원하도록 하였다.

공장 당 위원회는 군중 공작에서 체득한 경험을 살리면서 당 중앙 위원회 12월 전원 회의 결정 정신을 매개 일'군들의 생활에 보다 접근시켜 생산 활동에서 그것을 철저히 관철시키도록 계속 대중 속에 해석 침투시키고 있다.

당 중앙 위원회 12월 전원 회의 결정 정신이 침투되여 대중의 정치적 열성이 제고됨에 따라 수 많은 가치 있는 발기들이 제기되였다. 이 새로운 발기들에 의하여 우리 공장에서는 제1차 5개년 계획 과제 수행 뿐만 아니라 금년도 계획 과제를 완수 및 초과 완수할 수 있는 튼튼한 물질 및 기술적 담보를 발견하였다.

로동 대중의 새로운 발기들

대중에 의거하며 대중의 창발적 발기를 지지하면서 주조 부문 당 단체들은 공장 당 위원회의 지도 방조 밑에 최대한의 증산과 절약을 위한 투쟁에서 창조적 모범을 보여 주었다. 주조 부문 당 단체들에서는 로동자들 속에서 많은 가치 있는 창발적 발기들이 제기되였다.

용해공들 중에서는 현재 쓰고 있는 1톤 용해로와 0,5톤 용해로중에서 0,5톤 로는 페지하고 1톤로만 사용하자고 제기하였으며 우리 공장에서 생산하는 라지에다 두러이 5미리를

4미리로 전환시키자고 제기하였다.

포금 용해 브리가다에서는 포금 용해로를 무연탄로로 개조하여 귀중한 콕쓰를 절약하자고 제기하였으며 중자 건조로를 무연탄로로 개조하여 전력을 절약하자고 제기하였다.

이 밖에도 20 여 건의 창의고안과 합리화 의견이 제기되였는 바 그중에서도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기본 고리는 0,5톤로를 페지하며 라지에다 두터이 5미리를 4미리로 전환시키자는 문제였다.

용해공들의 발기에 의하면 지금 1톤 용해로와 0,5톤 용해로를 쓰고 있는 데 그것은 로의 용해 능력이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주조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교대 작업을 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0,5톤 로를 밤에 돌리게 되는 데 만일 주형 및 주입 부문 로동자들이 주조 면적만 합리적으로 리용한다면 0,5톤 로가 없이도 1톤로 하나만으로도 쇠'물을 충분히 보장하여 증산할 수 있으며 년간 콕쓰 50 여 톤, 내화 벽돌 4 500 여 매, 로력 1 200 여 공수를 절약하여 국가에 막대한 리익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각 브리가다에서 작업하고 있는 주조 위치를 변동시켜 합리적으로 주조 면적을 조절하고 주형 방법을 개선하는 등으로 한 교대로 능히 할 수 있으므로 로력도 절약할 수 있다는 창발적 의견들이 제기되였다.

주조 부문 당 단체는 당원 및 비당원들과의 사업에서 얻은 경험에 기초하여 라지에다 두터이 5미리를 4미리로 전환시키자는 의견을 군중적 토의에 부치였다.

그런데 작년에 라지에다 두터이 5미리를 4미리로 전환시키려다가 오작이 많이 남으로 실패한 경험이 있었다. 그러므로 금번에 다시 이 문제가 제기되자 일부 지도 일'군들은 성공을 의심하였다.

그러나 선진 로동자들의 발기에 의하여 라지에다 두터이 5미리를 4미리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확증되였다.

선진 로동자들의 발기에 의하면 특별한 기술적 개선이 없이도 주물사에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물사를 잘 정리하고 주물사에 물을 쳐 그를 잘 배합하며 주형에 공기 구멍을 잘내어 주입할 때 공기가 잘 빠지도록 한다면 또 발생된 오작에 대하여 매일 명확한 규명을 하고 그를 시정하기 위하여 동원된다면 의심할 바 없이 이것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며칠 후 시험 제작한 결과 그를 확증할 수 있었다.

부문 당 단체의 정확한 지도 하에 주조 직장 전체 로동자들은 이렇게 하여 절약되는 로력과 선철로 라지에다 15 000개, 1톤 저울 40대, 500키로 저울 600대, 10키로 저울 756대를 더 증산할 것을 결의해 나섰다.

주조 직장 로동자들의 결의는 공장내 전체 당 단체들과 로동자들 속에서 거대한 충격을 일으켰다. 자재와 로력과 기대를 더 받아야만 증산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절약은 증산의 커다란 원천으로 된다는 것을 잘 믿으려 하지 않던 일부 종업원들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증산하고 절약하겠는가에 대해서 참으로 열성적으로 생각하게 되였으며 가치 있는 발기들도 수다히 제기하였다.

례를 들어 부기부 일'군들 속에서는 로력의 팽창과 번잡한 사무로 일하던 지난 기간 사업에 대하여 심각히 검토 반성하고 부서 내에서 사무를 간소화하며 로력을 절약할 것을 제기하였으며 작년부터 류동고 대부를 실시하여 공장에 투하한 류동 자금중 1 057만 여 원을 절약하여 그 류동 자금을 국가적으로 더 중요하고 긴급한 부문에 돌릴 것과 기업소 내의 자재와 원료 보관 한도를 최대한으로 축소시킴으로써 그의 랑비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제기하였다.

검사부 일'군들은 로력을 더 주지 않으면 각종 제품을 매개 공정에서 검사할 수 없다고 고집하던 현상을 일소하고 로력을 더 받지 않고도 로력을 합리적으로 조직하여 순회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을 제기하였다.

형기 직장 로동자들은 주조 직장 로동자들이 로력과 자재를 더 받지 않고 증산하겠다는

결의에 고무되여 자기들도 로력을 더 받지 않고 형기들을 전부 조립 조정하겠다는 것을 결의하는 동시에 이동식 조종틀을 창의 제작하여 작업 능률을 130% 이상 제고할 것을 비롯하여 30 여 건의 창의 고안과 합리화 제안을 제기하였다.

기술 일'군들 속에서는 기술 관리의 락후성을 퇴치하며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귀중한 발기들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공장 기사, 기수들은 우선 금년 상반년 동안에 기술 관리 사업을 강화할 수 있게 공정표, 소재도면, 치구도면 등을 완성하며 년말까지 111종의 절삭 공구 및 치구와 39종의 형타를 생산에 도입하여 로력 1만 여 공수와 수다한 원료자재를 절약할 것을 계획하고 그의 실현을 위한 문제 해결에 착수하고 있다.

특히 기술 공정부 내 기사, 기수들은 현재 두가지 큰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의 하나는 제도기 생산에 대한 문제이다. 지금까지 포금을 부어 제도기 본체를 하나 하나 제작하던 것을 형타를 만들어 2미리 철판으로 푸레스에서 찍어 내여 대량 생산할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데 2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에 도입될 것이 예견되고 있다.

이것이 도입되면 훈장 직장 제도기 브리가다에서는 로력을 더 받지 않고 금년도 제도기 생산 계획을 266%로 초과 수행하게 될 것이다.

문제의 다른 하나는 시계 생산에서 지금 각종 치차를 선반에서 가공한 후 후라이스에서 치차 이'발을 하나 하나 가공하던 것을 앞으로는 탁상 홉뼁구를 제작하고 그로써 형타를 만들어 푸레스로 찍어 낼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것도 7월 말까지 그의 준비 사업을 끝내고 8월부터 생산에 도입할 것을 계획하고 그의 준비 사업을 추진시키고 있는 바 이것이 완성되면 시계 브리가다 내 로동자들은 금년도 시계 생산 계획을 250%로 초과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대중 속에서 제기된 귀중한 발기들은 금년도 계획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 공장의 힘 있는 원천으로 된다. 공장 당 위원회 앞에는 이 귀중한 발기들이 로동 대중 속에서 견지되고 실천되도록 방조하며 또 새로운 발기들을 지지 옹호하여 증산과 절약에서 물질적 력량으로 전변되도록 고무 추동하여야 할 과업이 제기되고 있다.

낡은 것과 새 것과의 투쟁

증산과 절약을 지향하는 로동 대중의 창발적 발기들이 아무런 장애나 지장도 받지 않고 접수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로동자들의 고귀한 발기들이 음밀히 때로는 공개적으로 억제되는 경우가 한두번만 있지 않았다. 공장 당 위원회는 새로운 발기를 적극 지지 옹호하여 대중의 선두에 나섰다.

우리 공장에서 대중의 긍정적 발기를 억제하며 그의 도입을 저해하는 첫째 경향은 일부 지도 일'군들이 무원칙하게 예비를 조성하려는 데서 표현되였다.

례를 들어 제단 직장 책임 일'군들은 로력과 설비에 대한 예비를 조성하기 위하여 로력 절약에 대한 로동자들의 창발적 의견을 묵살하였는 바 그들은 많은 로동자들이 1월중 계획을 완수할 창발적 의견을 제기하자 《만일 1월분 계획을 짧은 기간에 다하면 로력 예비가 있다는 것이 간부들에게 알려 진다》 하여 그의 사업 조직까지 태공하였다.

다른 경향은 일부 지도 일'군들이 로동자들의 지혜와 창발력을 적극 지지하는체 하면서도 그의 대담한 도입에 있어서는 주저하여 그를 억제하는 현상이였다.

례를 들어 형기 직장 로동자들이 년초에 들어서 로력을 31% 축소하고도 계속 로력을 절약하면서 금년도 계획을 완수 및 초과 완수하겠다고 제기하였을 때 일부 행정 간부들은 《그렇게 많은 로력을 축소하고도 금년도 계획을 완수할 수 있는가? 못하면 책임지겠는가? 충분히 검토하라》고 강조하여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마치 금년도 계획 과제 수행을 념려하는듯이 보이면서 로동자들의 의견을 억제하려 하였다.

라지에다 두터이 5미리를 4미리도 전환하겠다고 제기하였을 때에도 일부 지도 일'군들은 조언과 방조를 줄 대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술적 조건과 가능성이 무엇인가? 5미리

를 4미리로 하면 지난 해와 같이 오작이 많을 것은 뻔한 일인 데 잘못하면 절약이 오작 때문에 랑비가 되지 않겠는가》 등등으로 로동자들의 제기를 도입하는 데 의심을 전파하여 그를 억제하였다.

또한 로동자들이 높은 정치적 열성으로서 제기하는 새로운 발기들에 대하여 《그것이 어찌하여 그렇게 될 수 있는가? 그것이 실천되면 생산 능률이 얼마나 높아지며 로력과 자재가 얼마나 절약되는가?》등등 론거와 과학적 수'자를 따지며 련이어 질문을 제기하여 로동자들을 당황케 하였다.

이러한 지도 일'군들은 자기가 제기한 질문에 정연한 대답을 주지 못하며 가치 있는 발기도 실현 불가능한 제기라고 비난하였으므로 론증할 능력이 부족하고 과학적 수'자를 산출할 수 없는 일부 로동자들로 하여금 좋은 발기를 제기할 수 없게 하였다.

로력과 자재를 계속 절약하면서도 금년도 계획 과제를 완수 및 초과 완수하겠다고 결의한 로동자들의 자기 결의나 제기를 모두가 리론적으로나 기술적으로, 혹은 수'자적으로 정연하게 론증할 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다년간 얻은 경험으로 보아 자기들의 발기가 반드시 실천될 수 있다는 것을 굳게 확신하고 당 단체들의 지지에 의거하면서 자기들의 의견을 포기하지 않았다.

공장 당 위원회는 이러한 현상을 포착하고 로동자들의 발기에 대한 일부 일'군들의 그릇된 견해와 태도를 비판 시정하는 한편 매개 브리가다에 계산 통계에 밝은 사무원들을 배치하여 로동자들 속에서의 창발적 제의를 접수하며 그를 수'자적으로 계산케 하였다.

동시에 기사, 기수들과 유능한 기능공들을 동원하여 로동자들과의 개별적 및 집체적 협의를 통하여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창발적 제기들에 기술적 방조를 줌으로써 로동자들의 창발적 의욕을 더욱 북돋아 주었다.

당 단체는 로동자들의 창발적 의견을 적극 지지하면서 동시에 지도 일'군들의 그릇된 사상 관점, 즉 로동자들의 지혜와 창발력을 믿으려 하지 않으며 그에 의거하여 사업하려 하지 않는 경향, 그리고 로동자들의 발기에 대해서 그를 발전시킬 데 대하여 배려하지 않는 경향에 대하여 제때에 타격을 주면서 로동자들의 정치적 열성을 더욱 발양시켰다.

증산과 절약을 위하여 공장 당 단체는 이와 같이 낡은 것을 제거하고 새것을 지지하는 투쟁 행정에서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무궁무진한 지혜와 창발력을 적극 옹호하였는 바 이렇게 한 결과 전 공장적으로 로동자들이 제기한 창의 고안 및 합리화 제의만 하여도 300여 건에 달한다. 이 가치 있는 제기들은 생산에 도입되여 증산과 절약을 위한 투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 *

로동 대중의 창발적 발기, 기술 일'군들의 헌신적 로력으로 우리 공장에서는 당 중앙 위원회 12월 전원 회의 결정에 립각하여 최대한의 증산과 절약을 실현할 수 있는 물질 기술적 담보를 발견하였다.

우리 공장에서는 금년도에 만 하여도 창의 고안 및 선진 기술의 도입, 로력 조직의 합리화로 년 18 900 여 공수의 로력을 절약하게 되는 바 전력 60만 키로왓트시, 콕크스 200 여 톤, 선철 240톤을 절약하게 된다.

우리는 이 절약된 로력과 자재를 리용하여 국가로부터 로력과 원자재를 기본적으로 계획 이외에 더 받지 않고 라지에다, 각종 저울을 비롯하여 1천 5백 여 만원에 달하는 제품을 더 생산하게 되는 바 이는 금년도 계획을 108% 로 초과 수행하는 것으로 된다.

뿐만 아니라 로동자들의 발기에 의하여 중로동이 경로동으로, 수가공이 기계 가공으로 전환되여 공장 생산 공정을 더욱 기계화하며 기술 관리 사업의 락후성을 퇴치할 뿐만 아니라 그를 개선 강화하여 생산에 선행시킴으로써 금년도 계획 수행 뿐만 아니라 제1차 5개년 계획 수행을 위한 물질적 및 기술적 장비를 강화하게 될 것이다.

공장 당 위원회는 로동 대중의 무궁 무진한 창발력에 의거하면서 그들 속에서 제기되는 가치 있는 발기들을 제때에 지지 옹호하여 당 중앙 위원회 12월 전원 회의가 우리 앞에 제기한 1957년 계획 과제를 더욱 빛나게 수행함으로써 당의 부름에 충직한 우리 로동 계급의 위력을 또 다시 과시할 것이다.

강사 및 선동원들에게 주는 자료

조선 민족 해방 투쟁사상에서의 3, 1 운동의 력사적 의의

리 나 영

오늘 조선 인민은 전후 평화적 조국 통일을 위한 전 인민적 투쟁과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장엄한 로력 투쟁 속에서 3, 1 운동 38주년을 맞이한다.

지금으로부터 38년전에 조선 인민들이 일제 식민지 통치를 반대하고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전 민족적인 피의 투쟁을 전개한 3, 1 운동은 유구한 우리 나라 력사상에서 외래 침략자를 반대하여 항상 영웅적으로 싸운 슬기로운 조선 인민의 애국적 전통의 높은 시위였을 뿐만 아니라 조선 민족 해방 투쟁사상에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지는 거대한 혁명 투쟁이였다.

그리하여 3, 1 운동에서 발휘한 조선 인민의 빛나는 애국적 전통에 고무되면서 오늘 전 조선 인민들은 조선 로동당 제3차 대회에서 채택 제시한 조국의 평화적 통일 방안을 받들고 민족적 완전 통일 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미제와 리 승만 매국 도배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궐기하고 있다.

* *

일제의 조선 강점 초기인 1910—1918년간은 일제의 혹독한 헌병 경찰적 무단 통치 하에서 1894년 갑오 농민 전쟁 이래 반일 의병 투쟁과 애국 문화 운동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오던 조선 민족 해방 운동이 침체기에 들어가 일시 암담하던 시기이였다. 그것은 일체 반일 운동에 가해진 일제 식민지 략탈자들의 극단의 야수적 탄압과 함께 당시 조선 로동 계급의 장성의 미약과 관련하여 로동자, 농민들을 핵심으로한 민족 해방 운동의 새로운 력량이 아직 미약하였던 까닭이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시기는 조선 민족 해방 운동의 력사에서 종전 보다 새로운 형태의 민족 해방 운동이 태동하는 시기이였다.

강점후 10년간 일제의 조선에 대한 악독한 식민지 통치 정책은 조선 인민과 일제와의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 대립을 첨예화시키였다. 그리하여 일제의 헌병 경찰적 무단 정치에 의한 조선 인민의 일체 정치적 자유와 권리 박탈, 《토지 조사 사업》에 의한 토지 략탈 정책을 중심으로 강탈적 경제 정책에 의하여 인민 생활의 극도의 빈궁화, 《회사령》 실시에 의한 민족 산업 발전의 억제, 횡포한 민족 문화 말살 정책과 우민 동화 정책, 그리고 치욕적인 민족 차별 정책 등등에 대한 조선 인민의 분노는 3천리 강토에 넘쳐 흘러 이 이상 더 참을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 이것은 불가피적으로 국내에서 인민들의 대중적 반일 봉기의 혁명적 위기를 조성케 하였다.

이러한 시기에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의 우렁찬 포성은 더욱 더 조선 인민들을 일제를 반대하는 대중적 투쟁에로 고무 추동하였다. 즉 제1차 세계 대전의 결과 개시된 자본주의 전반적 위기의 와중에서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이 승리하여 지구의 6분의 1인 광대한 로씨야에서 제국주의 고리를 끊고 자유로운 인민의 나라 사회주의 국가가 창건됨으로써 전 세계 프로레타리아트 혁명의 새 시기를 열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첫날부터 실시한 레닌적 대외 정책, 민족 정책에 의거한 중국을 비롯한 제 약소 국가들과의 불평등 조약의 페기, 제 인민의 평등, 각 민족들의 완전한 독립, 자결권의 보장에 관한 각종 선언은 전 세계 식민지, 반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에게 또한 거대한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이것은 특히 로씨야와 지리적으로 린접하고 있으며 또 그 대부분이 식민지 예속 국가들로서 벌써부

터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적 략탈의 주요 대상으로 되고 있던 동방 제 약소 국가 인민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그리하여 10월 혁명 직후 중국, 몽고, 월남, 인도, 인도네시아, 토이기, 아프가니스탄, 애급 등 기타 각국들에서 혁명 운동과 외래 제국주의의 침략과 예속을 반대하는 민족 해방 투쟁이 료원의 불'길처럼 광범히 일어나 전 동방을 혁명적 앙양 속에 휩쓸어 넣었다.

이와 같은 10월 혁명이 빚어낸 혁명적 파도는 로씨야와 직접 린접하고 있는 조선에 큰 충동을 주지 않을 수 없었다. 청소한 쏘베트 공화국으로부터 도달한 새로운 소식들은 조선의 수백만 근로 대중들 속에 거대한 애국적 열성을 북돋았으며 그들의 투쟁 의욕과 혁명적 정열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지 않아도 이미 국내에 일제를 반대하는 일촉 즉발의 혁명적 위기가 조성되고 있던 때라 더욱 그러하였다. 당시 10월 혁명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조선 인민들 속에 침투되였던 사실중 몇가지 실례를 들면 조선에서 1917년에 파업 건수가 8건에 참가 로동자 수가 1 148명이던 것이 10월 혁명 직후 1918년에는 50건에 참가 인원이 6 105명으로 급격히 장성한 것을 볼 수 있고 또 10월 혁명의 영향 하에서 연해주 방면에 거주하던 조선의 인테리 청년들에 의하여 1918년에는 벌써 불완전하나마 조선에서의 첫 맑스주의 소조인 《한인 사회당》이 조직되였었다. 그리고 국내외 조선 청년 학생들에게 10월 혁명의 사상적 영향이 점차 침투된 결과로 1919년 2월 동경 류학생들은 자기들의 《독립 선언서》에서 《로씨야는 이미 군국주의적 야심을 포기하고 정의와 자유를 기초로한 신 국가의 건설에 종사하는 중이며……》라고 하면서 쏘베트 로씨야를 동경하여 썼다. 일제의 출판물들도 3, 1 운동 당시 10월 혁명이 조선 인민에게 준 영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로씨야 령토 우라지워스톡크 지방에 거주하고 있던 조선인들은 로씨야 과격파(볼쉐위크——필자 주)의 부흥……에 의하여 씨베리야 일대가 소란함을 보자 간도 지방에 있는 불평 분자들과 기맥을 통하여 과격파와 결탁하여 일본군 (10월 혁명 직후 쏘베트 공화국에 무력 간섭을 하기 위하여 씨베리야에 출병하고 있던 일본군——필자 주)을 불리하게 만들려고 기도하였다…이들 재외 조선인들의 행동은 전란이 종국에 가까워 감에 따라 구라파에 있어서 매일과 같이 왕성하여 간 민족 독립 운동의 정황과 함께 점차 신문 또는 통신에 의하여 조선 내에 전하여 점차 인심의 동요를 가져 왔다……》(조선 총독부편 《소요 사건 개항》 1페지).

이런 환경 속에서 1919년 1월 22일 일본인들이 고종을 독살하였다는 보도가 전파되고 뒤이어 1919년 2월 8일 일본 동경에서 조선 학생들이 독립 선언서를 발표하고 수천명의 학생들이 대중적 반일 시위를 진행하였다는 소식이 국내에 전해 오자 학생들과 로동자, 농민, 소시민, 종교인 등 각계 각층 인민들의 반일 봉기의 기세가 고도로 앙양되였다.

한편 이와 같은 인민들의 고조된 반일 기세 속에서 일제의 조선 강점 이후 온갖 형태로 《독립모의》를 계속하여 오던 부르죠아 및 소부르죠아 인테리 출신의 국내외 애국 인사들도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의 계급적 제한성으로 말미암아 청원적 방법 또는 평화적인 시위 방법으로, 심지어는 미 영 등 침략적인 제국주의 국가들의 《국제적 원조》에 의하여 조선 독립을 달성하려 하였다. 당시 이들은 미국 대통령 윌손의 허위적인 소위 《민족 자결론》과 제1차 세계 대전 후 제국주의 강도배들의 식민지 분할을 위한 《파리 강화 회의》에 적지 않은 기대를 걸고 있었다.

그리하여 국내에서 손 병히, 리 승훈, 한 룡운 등 33인(이외에 또 15명의 주요 인사들이 이 운동 조직에 참가하였던 관계로 48인이라고도 한다)의 소위 《조선 민족 대표》들은 1919년 1월 하순경부터 《독립 선언서》를 작성하며 주로 학교, 종교 단체들을 통하여 각 지방과 련계를 취하면서 3월 초 고종의 국장일을 기하여 독립 선언서를 발표하고 전국적인 독립 시위 운동을 진행하려고 준비하였다.

당시 조선에서 로동 계급의 력량이 미약하며 따라서 인민들의 혁명적 진출을 조직 지도할 혁명적 정당이 없던 조건 하에서 운동의 첫 시기에 있어 인민 대중의 반일 봉기 조직은 자연 이들의 《지도》 하에서 진행되게 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드디여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의 소위 33인의 《독립 선언서》 발표를 계기로 전 인민적 반일 봉기가 폭발하였다.

3, 1 운동은 이렇게 시작되였다.

*　　　*

그러나 이날 서울에서 인민 대중의 혁명적 기세와 군중적 폭동에의 진출을 예감하고 이를 두려워한 소위 《조선 민족 대표》들은 인민들과 약속한 집합 장소이였던 빠고다 공원에는 가지 않고 료리'점 《태화관》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비밀이 조선 독립 선언서를 읽고 만세를 부르고 곧 일제 총독부 경무 총감부에 투항 자수하고 말았다. 이것은 당시 그들의 주관적인 애국적 심정 여하, 계급적 제한성으로 인한 혁명적 투쟁 방법의 몰리해, 혹은 인민들의 살상을 면하려고 하였다는 등등의 주관적 의도 여하를 불문하고 객관적으로는 투항주의적 행동이였다——실지로 당시 이들중의 일부 애국 인사들을 제외하고는 그후 그들중 대부분의 인사들은 민족적 량심을 잃고 일제에게 투항하여 민족 해방 운동을 포기하였고 일부는 변절하여 일제의 주구로까지 전락하였던 것이다——그러나 인민들은 자연 발생적으로 궐기하였다.

3월 1일 서울에서 로동자, 농민, 청년 학생, 소시민, 종교인 등 각계 각층 남녀 로소할 것 없이 전체 시민들은 《조선 독립 만세》, 《일본인과 일본 군대는 물러 가라》, 《조선 독립 정부를 세우자》, 《조선은 조선 사람의 것, 자유와 평등 만세》 등의 구호를 소리 높이 웨치면서 노도와 같은 기세로써 가두에로 진출하였다.

청년 학생, 애국 인사들의 열렬한 가두 연설은 인민들을 더욱 원쑤와의 투쟁에로 궐기시키였다. 이날 분류와 같이 행진하는 대중들의 시위 운동은 순식간에 서울 전 시가를 위압하였다. 이 시위에는 총수 30만명 이상의 군중들이 참가하였다. 그리하여 교통은 정지되고 일제의 통치 질서는 마비 상태에 빠졌다.

일본 총독 하세가와는 적수 공권의 평화적 시위자들을 총 칼로써 탄압하라고 명령하였다. 이날 수 많은 사람들이 사살 당하였고 수 많은 사람들이 부상 또는 체포 투옥되였다. 서울의 거리 거리는 조국의 해방과 자유 독립을 요구하는 애국적 조선 인민들의 붉은 피로 물들었다.

3월 1일 조선 인민들은 피의 교훈을 얻었다. 인민들은 조국의 해방과 독립은 청원이나 평화적 방법으로써가 아니라 오직 혁명적 투쟁 방법으로써 만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을 더욱 깨달았다. 그리하여 포악 무도한 일제에 대한 증오심과 반항심은 한층 높아가 3월 5일 서울 인민들은 붉은 기'발을 휘둘으며 폭동에 궐기하여 일제의 헌병, 경찰들과 영웅적인 피의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같은 서울에서의 독립 선언과 대 시위 운동, 그리고 일제의 류혈적 만행의 무서운 소식은 곧 조선의 방방 곡곡에 퍼져 갔다. 감격과 흥분, 분노와 격분은 3천리 강산을 휩쓸게 하였다. 일제 식민지 강탈자들에 대한 조선 인민들의 쌓이고 쌓인 원한은 일시에 폭발하여 전국적인 독립 시위와 폭동을 격발시켰다.

3월 1일 서울에서와 함께 평양을 비롯하여 남포, 선천, 수안, 원산, 안주, 대동군 등지에서 시위와 폭동이 전개되였고 3월 2일에는 의주, 해주, 황주, 초산 등지에서, 3일에는 사리원, 개성, 상원(중화군), 함흥, 겸이포 등지에서, 4일에는 성천, 양덕, 양서 등지에서, 5일에는 기타 각 도시들에서 일어났으며 그후 시위와 폭동의 거센 물'결은 도시로부터 각 지방 농촌 지대에로 퍼져 갔다.

각지에서 인민들의 대중적 진출은 점차 평화적 시위로부터 대중적 폭동에로 넘어 갔으며 또 일부 지방들에서는 일제 군경을 반대하는 무장 항쟁에로 이행하였다.

여러 지방에서 인민들은 폭동을 일으켜 일제 군경들과 충돌하였다. 폭동에 궐기한 인민들은 식칼, 도끼, 쇠스랑, 곡괭이, 망치 등을 들고 일제의 식민지 통치 기관—군청, 면 사무소, 헌병대, 헌병 분견소, 재판소 등은 물론 철도, 체신 기관들을 습격 방화 파괴하고 오래'동안 조선 인민을 모욕 억압 착취하던 일본인 관리, 헌병, 경찰들과 그 주구들을 처단하였다. 특히 서울, 개성, 가평, 룡인, 수원, 수안, 해주, 안악, 재령, 장연, 의주, 선천, 평양, 남포, 대동, 안주, 룡천, 철산, 곽산, 정주, 맹산, 함흥, 원산, 고원, 단천, 리원, 경성, 온성, 철원, 통천, 삭령, 양양, 천안, 아산, 공주, 서산, 목포, 군산, 남원, 광주, 전주, 대구, 의성, 안동, 진주, 하동 등지에서 대중적 투쟁이 완강하고 대규모적으로 전개되였다. 그리하여 국내에서 3월—5월간에 만 하여도 전 조선 218개 부 군 중에서 203개 부 군에서 1 491건의 시위 폭동이 일어났으며 200만명 이상의 조선 인민들이 이 운동에 참가하였다(박 은식 《조선 독립 운동 혈사》 참조). 그후 일제 자신의 통계에 의하더라도 이해 12월 말까지에는 전 조선 218개 부 군 중에서 217개 부 군(11부, 206군)이 이 운동에 휩쓸렸고 3 200 여 건의 시위와 폭동이 일어났던 것이다(《조선의 독립 사상 및 운동》 96페지).

그런데 당시 이와 같은 거족적인 반일 봉기는 국내에 국한되지 않았다. 1919년 3월 국내에서 전개된 광범한 인민 봉기는 국외 동포들에게 큰 충동을 주어 중국, 연해주, 일본, 하와이 등 기타 각지에서 조선 사람들이 가서 사는 곳에서는 어데나를 막론하고 모두 반일 독립 운동이 전개되였다.

우선 국내에서의 전 민족적인 3, 1 봉기는 동만 일대에 사는 조선 인민들에게 새로운 혁명적 궐기의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고국에서 울려 오는 독립 만세의 함성은 일제에게 쫓겨 생계를 찾아 정든 고국을 등지고 이역에 와서 고통을 겪고 있던 이곳 동

포들에게 끝없는 감격과 혁명적 정열을 환기시켰다. 그들은 곧 대중 집회와 시위 운동을 조직하여 우렁찬 만세 소리로써 멀리 국내에 호응하였다.

당시 이런 시위 운동은 룡정, 훈춘, 국자가, 통화, 회인, 하르빈 등지를 중심으로 조선인이 거주하는 전 만주에 걸쳐 진행되었고 이것은 그후 일부 지역에서는 치렬한 무장 유격 투쟁으로 발전하였다. 이때 유격 부대들 중에서 가장 활동적인 부대는 홍범도, 서 일, 양 영 등이 지도한 조선 독립군들이였다. 이들은 조만 국경 지대에서 일제 군경과 치렬한 전투를 전개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던 바 1920년 봄에 전개한 청산리 전투와 봉오'골 전투는 그 대표적인 것이였다.

또 조선에서의 3, 1 인민 봉기는 당시 연해주 방면에 거주하고 있던 조선 인민들에게도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이미 10월 혁명의 직접적 영향 하에 각성하여 일제 무장 간섭자들을 몰아내고 쏘베트 공화국을 수호하기 위한 원동 쏘베트 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에 참가하고 있던 이 지대 조선 인민들에게 있어서 국내에서 울려오는 대중적 진출의 우렁찬 만세 소리는 그들을 더 한층 공동의 원쑤 일제를 격멸하기 위한 영웅적 투쟁에로 불러 일으켰다. 그리하여 그들은 1919년 4월 연해주 쑤찬에서 1천 여 명의 빨찌산 부대를 조직하였으며 이해 5월에는 니꼴리쓰끄—우쑤리쓰끄군에서 공산주의 조직 《선전부》를 창설하였다. 그리고 1920년 2월 쉬꼬도위촌에서는 1개 대대의 무장 부대가 또 조직되어 활발한 투쟁들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도처에서 일본 수비대와 국경 감시초를 습격하였으며 일본군의 군사 시설을 파괴하고 전략적 성격을 가진 많은 건설 작업을 파탄시키고 통신 시설을 파괴하였다. 그리하여 쏘베트 공화국을 압살하려던 일제에게 큰 손해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투쟁은 북부 국경 지대에서와 동만 지방에서의 빨찌산 투쟁의 장성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이와 같이 3, 1 운동은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의 독립 시위 운동으로부터 시작되어 그후 국내에서의 자연 발생적인 전 민족적 반일 시위와 폭동을 거쳐 점차 국외에로 이행하면서 비교적 조직성을 띤 무장 투쟁으로까지 발전하여 갔던 것이다.

* *

3, 1 운동은 실로 국내외 조선 인민들의 거족적인 투쟁으로 전개되었다.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요구하는 조선 인민들의 정의의 함성은 3천리 강산을 들끓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멀리 해외에까지 울려갔다. 이에는 극소수의 친일 관료, 대지주, 예속 자본가를 제외하고 로동자, 농민, 학생, 인테리들을 중심으로 광범한 소시민층, 종교인, 량심적 민족 자본가들과 심지어 일부 하급 관리, 중 소 지주들에 이르기까지 즉 이 시기에 반일 감정을 가졌던 조선 인민 치고는 그 누구나를 물론하고 모두 참가하였다. 그것은 당시 3, 1 운동이 폭발하자 전 조선 각지에서 《로동 독립단》, 《농민 독립단》, 《학생 독립단》, 《교인 독립단》, 《시민 독립단》들이 우후 죽순처럼 나타났고 심지어 각지에서 《기생 독립단》까지 나타나 활동하였던 사실 만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이들은 모두 군중적 시위와 폭동에 참가한 것은 물론이고 이 밖에 로동자들은 파업으로, 농민들은 일본인들에 대한 량곡, 소채, 신탄 공급 단절로, 학생들은 동맹 휴학과 가두 연설로, 중 소 상공업자들은 철시 페점과 일본인들과의 거래 단절, 일본 은행 예금을 전부 찾아 내는 것으로, 하급 관리들과 일본인 회사 공장 사무원들은 태업과 퇴직으로써 일제에 항거하여 투쟁하였다.

무엇보다도 3, 1 운동에 있어서 청소한 조선 로동 계급이 민족적 해방을 위한 정치적 투쟁 무대에 적극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3, 1 운동을 계기로 로동자들의 파업 투쟁이 그 전년에 비하여 급속히 장성하였던 바 즉 1919년의 파업 건수는 84건이나 되였고 이에 참가한 로동자 수는 9천 여 명에 달하였다. 그런데 이것은 량'적인 면에서 만이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 급속한 발전을 가져온 데 큰 의의가 있었다. 즉 3, 1 운동이 폭발하자 서울에서 경성 전차 차장, 운전수들의 파업, 동아 연초 공장 로동자들의 파업(1 500명), 총독부 기관지 매일 신보 인쇄 공장 로동자들의 파업 등 기타 각종 로동자들의 파업이 일어났던 바 이 파업들은 당시 일제의 비밀 출판물들도 《일종의 시위적 파업들》이였다고 한 바와 같이 경제적 성격보다도 정치적 성질을 띤 파업들이였다. 또 그후 이와 같은 파업들은 전국 각지에서 근대 산업의 중요한 부문에까지 파급되였던 것이다.

그리고 당시 로동자들은 직접 각지에서 애국적 인민들의 반일 시위와 폭동의 선두에 서서 견결히 투쟁하였던 바 그중 몇개의 실례를 들면 3월 3일 남포 제련소 로동자 200 여 명이 이곳 기독교 상층 분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민들과 함께 일대 시위 운동을 조직 진행한 사실, 3월 4일 선천의 전체 로동자들이 파업을 단행하고 이들을 선두로 약 6천 여 명

군중이 시위를 단행한 사실, 3월 19일 충북 괴산에서 로동자 20 여 명이 각 동리를 순회하면서 독립 만세를 부를 것을 선전 호소함으로써 400 여 명 군중이 이에 합류하여 시위 운동을 조직한 사실, 3월 27일 직산 금광 로동자 100 여 명이 중심이 되여 그 부근 헌병 분견소를 습격한 사실들이 모두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국내에서 일반 인민들의 대중적 봉기가 일제의 극악한 탄압으로 7월 이후 점차 하강기에 들어 갔을 때에도 로동자들의 파업 투쟁은 완강하게 계속 장성 확대하여 3, 1 운동을 줄기차게 추진 발전시켰다.

그리고 3, 1 운동 당시 조선 로동자들은 《군산 로동회》를 비롯한 각종 단체(주로 친목, 호상 부조적인 조직이였으나)들을 가지고 있었고 《로동 회보》 등 기타 각종 비밀 출판물들까지 발간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3, 1 운동을 통하여 조선 로동 계급은 경제적 투쟁과 함께 정치적 투쟁 무대에 떳떳이 그 첫걸음을 내여 디디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3, 1 운동에서 발휘한 조선 로동 계급의 완강한 투쟁은 벌써 로동 계급 만이 조선 인민 가운데서 가장 선진적이며 혁명적인 계급임을 보여 주었다.

다음으로 3, 1 운동에서는 광범한 농민 대중이 로동 계급과 함께 가장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대부분의 경우 시위와 폭동들의 주력은 농민 대중이였다. 농민들은 도처에서 시위와 폭동의 선두에 섰을 뿐만 아니라 일본인 토지 회사와 악질 친일 지주들을 습격하고 소작 계약서와 차용 증서를 소각하며 부채 환부와 세금 납부를 거절하였다. 그리고 일본인들에게 량식과 신탄까지 팔지 않았다. 함남 리원 같은 데서는 폭동에 궐기한 농민들이 일본인 군수를 몰아내고 자기들의 손으로 조선인 군수를 선출하였으며 평남 맹산과 황해도 수안을 비롯하여 기타 많은 지방들에서는 농민들이 헌병대를 습격하여 그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한동안 행정 사무까지 보았다.

경상 남북도와 전라 남북도에서는 농민들을 중심으로한 여러 부락의 폭동 군중들이 집결하여 일련의 무장 부대를 편성한 후 비교적 조직적인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다. 강원도 양양에서는 폭동에 참가한 수천명 군중들이 일제 군경의 무기를 빼앗아 가지고 원쑤들을 공격하였다.

3, 1 봉기에 있어 로동자, 농민들의 혁명적 진출은 청년 학생들의 혁명적 진출과 긴밀히 련결되였었다. 3, 1 봉기에는 각 중등 학교 이상의 학생들 뿐만 아니라 지어 각 소학교 아동들에 이르기까지 성별, 년령별을 초월한 수 많은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일제의 야수적 탄압과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일제의 식민지 노예 교육을 반대하는 동맹 휴학을 단행하였으며 항상 시위와 폭동 군중들의 선두에 서서 열화같은 애국적 연설과 격문들을 살포함으로써 군중의 혁명적 진출을 고무 추동하는 선봉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런 투쟁에 있어서 서울 학생들의 영웅적 활동은 전국 학생들의 모범으로 되였었다. 3월 5일 그들은 일제 군경의 학살적 탄압을 박차고 붉은 기를 추켜 들고 시위와 폭동에 궐기하였다. 당시 로동 계급의 장성이 미약한 조건 하에서 3, 1 운동에서 조선의 청년 학생들은 이같이 선봉자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상과 같은 3, 1 봉기의 거센 행정을 살펴 볼 때 3, 1 봉기의 기본 동력은 로동자, 농민, 학생 인테리들이였다는 것을 똑똑히 알 수 있다.

* *

그런데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이같은 조선 인민들의 애국적 봉기를 진압하기 위하여 헌병과 경찰은 물론 정규 군대와 심지어 소방대까지 총동원시켜 피비린내 나는 학살 정책을 감행하였다. 그들은 평화적 시위자들을 닥치는 대로 사살 중상시켰고 검거 투옥하였을 뿐만 아니라 온갖 식인종적 야수성을 나타내여 녀성들과 로인들,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참아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만행을 다하였다. 특히 서울, 수원, 수안, 평양, 안주, 강서, 선천, 맹산, 삭주, 정주, 창성, 벽동, 의주, 고원, 단천, 통천, 천안, 청양, 목포, 남원, 대구, 의성, 창원, 안동, 사천, 청도, 합천, 함안 등 지방에서 그들의 만행은 극도에 달하였다. 그리하여 불완전한 통계에 의하더라도 1919년 3월—5월간에 만 국내에서 애국적인 조선 인민들 약 7천 5백 여 명을 학살하였고 1만 5천 8백 여 명을 부상시키였으며 4만 7천 여 명을 검거 투옥하고 온갖 악형을 가하였다(박 은식 《조선 독립 운동 혈사》 참조). 그 중에서도 수원군 제암리, 수천리, 화수리 등의 대 학살 사건은 대표적인 것으로 4월 15일 일본 군대는 수원 제암리에 와서 동리 인민들을 전부 교회당에 모이게 하고는 이를 포위하고 닷'자 꼿'자로 전원을 총살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회당과 민가에 불을 질러 이를 전부 태워 버렸다. 이런 방법으로 일제 놈들은 당시 수원군에서 만 애국적인 조선 인민 996명을 학살하였고 889명을 중상시켰으며 1 365명을 검거 투옥하고 많은 가옥들을 소각하

였던 것이다. 일제는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당시 국외에서도 이와 같은 집단적인 대 학살, 방화, 초토화 정책을 감행하였다. 1920년 간도 지방에서 3, 1 운동에 궐기하였던 조선 독립군 토벌의 명목하에 감행된 일제의 소위 《경신년 토벌》은 그 실례의 하나이였다. 이때 약 3만 여 명의 조선인 애국자들이 학살당하였고 6천 여 호의 조선인 가옥이 파괴 소각 당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조선 인민의 거족적인 반제, 반봉건적 민족 해방 투쟁이였던 3, 1 운동은 일제의 극악한 탄압으로 결국 진압 당하고 말았다.

3, 1 운동의 실패는 당시 이같은 일제의 극악스런 탄압, 학살 정책 외에 우선 주체적 제 약점들을 가지고 있었던 바 그것은 첫째로 당시 우리 나라의 사회 경제적 발전의 제약성으로 말미암아 로동 계급의 장성이 아직 미약한 데서 이 운동을 조직 령도할 혁명적 계급과 혁명적 당이 없었다는 데 있었다. 이것은 이 운동을 실패에 돌아 가게 한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였다. 둘째로 당시 조선 로동 계급의 력량이 미약한 데서 자연이 초기에 부르죠아 민족주의자들이 이 운동의 《지도부》에 앉게 되였던 바 이들도 조선의 자본주의 발전의 미숙과 관련하여 자기들의 정치 경제적 계급적 토대가 취약한 데서 혁명적인 투쟁 방법을 채택하지 못하고 결국 청원적, 평화적《투쟁》 방법으로, 혹은 침략적인 다른 제국주의 렬강(특히 미국)들의 《국제적 원조》에 의거하려고 몽상하였고 심지어는 원쑤 일제와의 타협, 투항 로선과 중도 반단성을 로출시킴으로써 이 운동을 막다른 골목에 몰아 넣었던 것이다. 당시 소위 33인(혹은 48인)과 이들의 영향 하에 있던 부르죠아 민족주의자들은 비록 초기에 이 운동을 《조직》하며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데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또 일부 애국 인사들과 종교가들은 끝까지 일제에 항거하여 싸웠으나(혁명적으로 싸우지는 못했으나) 그 대부분은 운동의 첫시기 혹은 중도에서 변절 투항함으로써 도리여 인민들의 혁명적 궐기와 줄기찬 투쟁을 약화 마비시켰던 것이다. 또한 이 운동의 실패는 세째로 이 운동에서 토지 문제 해결을 비롯한 로동자, 농민 각계 각층 반일 대중의 일상적인 절실한 민주주의적 요구를 천명한 구체적인 투쟁 강령이 없었으며, 네째로 비록 대중 봉기가 전국적으로 전개되였으나 거의 분산적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진행되였고 더우기 이 봉기를 혁명적이고 조직적인 무장 투쟁으로 전환시키지 못한 데 실패의 주요 원인들이 있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국제 정세가 불리하여 위대한 쏘련을 비롯한 국제 혁명 력량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을 수 없었던 데 있었다.

이렇게 3, 1 운동은 당시 불가피한 주 객관적 제 조건들로 인하여 실패하였으나 조선 민족 해방 투쟁 사상에서 거대한 력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첫째로 거족적인 반일 봉기를 통하여 조국의 해방과 독립, 자유를 위하여서는 각계 각층 조선 인민이 그 누구나를 막론하고 외래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결정적으로 투쟁하는 조선 인민의 애국적 혁명적 전통과 그 억센 투지를 빛나게 시위하였으며 일제의 식민지 통치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즉 일제는 조선 인민의 거족적인 항전에 조우하여 3, 1 운동 직후 종래의 무단 정치를 《폐지》하고 소위 《문화 정치》를 표방하면서 일시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나마 조선 인민의 사회—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등 일련의 《양보》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바 이러한 《양보》는 그것이 아무리 보잘 것 없는 것이라도 투쟁에 의하여 쟁취된 것이였고 또 이것은 그후 조선 인민의 민족 해방 투쟁 발전에 일정하게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둘째로 3, 1 운동이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의 영향 하에서 일어 났다는 것과 이 운동을 통하여 조선 인민의 민족 해방 투쟁이 세계 프로레타리아 혁명 운동의 일부분으로서 새로운 민족 해방 운동에 첫 걸음을 내여 디디기 시작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실로 《로씨야에서 10월 혁명의 승리는 조선 인민을 추동하고 고무하여 주었으며 그에게 해방의 길을 가리켜 주었다》(김 일성).

그것은 세째로 3, 1 운동을 통하여 조선 인민은 많은 경험 교훈을 얻었던 바 그것은 부르죠아 및 소부르죠아 인테리 출신의 부르죠아 민족주의자들의 연약성과 그들이 민족 해방 운동에서 령도적 역할을 놀 수 없다는 것, 이에 따라 조선 인민의 반제, 반봉건 투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로동 계급과 그의 혁명적 당의 령도가 요구되며 로 농 동맹 주위에 광범한 반일 력량이 결속함으로써 만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맑스—레닌주의 기치 하에 조직적인 투쟁, 특히 발톱 끝까지 무장한 원쑤와 싸우는 데는 혁명적인 무장 투쟁이 요구되며, 그리고 매시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투쟁 강령이 있어야 하며, 제국주의 국가들의 허위적인 선전에 속아 넘어 가지 말고 오로지 국제 민주 력량과의 긴밀한 련계를 확립할 필요성 등 기타였다.

뿐만 아니라 3, 1 운동은 국제적으로 당시 미, 영, 불 제국주의자들과 함께 청소한 쏘베트 공화국을 교살하기 위한 외국 무력 간섭에 미쳐 날뛰던 일제의 후방에 직접 간접으로 심대한 타격을 가함으로써 로씨야 인민들의 10월 혁명의 승리를 고수하는 투쟁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으며 또 당시 중국 인민들의 반제, 반봉건 투쟁인 5, 4 운동에도 영향을 주는 등 기타 동방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의 장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이리하여 조선 인민은 3, 1 운동을 통하여 민족적 및 계급적 각성이 급속히 자라나게 되였고 이에 따라 3, 1 운동을 분수령으로 하여 그때까지의 낡은 형태의 민족 해방 투쟁——부르죠아 민족주의 기치 하에서 미약하나마 부르죠아 민족주의자들의 지도하에서 진행된 민족 해방 투쟁을 총 결산하고 3, 1 운동 이후 맑스—레닌주의 기치하에서 로동 계급의 령도 하에 로동 운동과 농민 운동을 주류로한 새로운 민족 해방 투쟁의 길에 들어 서게 되였다. 이리하여 조선 인민의 민족 해방 투쟁은 위대한 10월 혁명의 영향과 3, 1 운동을 계기로 그후 로동 계급이 령도하는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의 새 시대를 열어 놓았다.

그후 조선의 로동자, 농민, 선진 인테리들은 3, 1 운동의 경험 교훈을 토대로 하고 맑스—레닌주의 혁명 사상에 의거하여 반일 민족 해방 투쟁을 급속히 장성시켜 일제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던 바 특히 1930년대 이후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하는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지도된 항일 무장 투쟁과 조국 광복회 운동을 통하여 3, 1 운동에서 발휘한 조선 인민의 애국적 혁명적 전통이 더욱 질'적으로 발전됨으로써 조선 민족 해방 투쟁을 보다 높은 단계로 강화 발전시켰던 것이다.

*　　　　*

위대한 쏘베트 군대에 의하여 우리 조국이 일제 기반으로부터 해방된 후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조선 로동당의 령도 하에 3, 1 운동 당시 조선 인민 앞에 제기되였던 반제, 반봉건 혁명 과업이 짧은 기간 내에 철저히 수행되고 점차 사회주의에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들어서서 오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국 남반부에서는 아직까지 미제와 리 승만 도배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으로 말미암아 3, 1 운동 당시 조선 인민 앞에 제기되였던 반제, 반봉건 혁명 과업이 그대로 남아 있어 오늘 남반부 인민들은 계속 악독한 제국주의 및 봉건적 억압 착취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이리하여 38년 전에 조선 인민 앞에는 일제와 그 주구들을 타도하고 조국의 독립을 쟁취할 과업이 나서고 있었다면 오늘 우리 전체 조선 인민 앞에는 미제를 구축하며 리 승만 역도를 타도하고 조국의 민족적 통일 독립을 달성함으로써 전국적 범위에서 반제, 반봉건 민주 혁명 과업을 완수할 기본 임무와 이를 위하여 북반부 민주 기지를 더욱 공고화하는 사회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당면 임무가 나서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 3, 1 운동 38주년을 맞이하여 남북 조선 전체 인민들은 38년 전에 전 민족 각계 각층이 총동원하여 일어나서 강도 일제를 타도하고 조국의 독립을 쟁취하자는 구호 밑에 일제의 총칼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웅적인 피의 투쟁을 전개한 것과 같이 그 고상한 애국적 및 혁명적 정신을 계승 발휘하여 미제와 리 승만 도배를 반대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 달성을 위한 전 인민적 투쟁에 궐기하고 있으며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장엄한 로력 투쟁에 애국적 헌신성을 다하고 있다.

오늘 조선 인민의 혁명 력량은 량적으로나 질적으로 3, 1 운동 당시에 비할 바 없이 강대하다. 오늘 조선 인민에게는 38년 전과는 비할 바 없는 강대한 국제 민주 력량이 있으며 자체로서도 종국적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모든 유리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진정한 맑스—레닌주의 당인 조선 로동당과 강력한 혁명 근거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종국적 승리의 기본 조건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 당을 조직적으로 사상적으로 더욱 공고화함에 순시도 방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평화적 조국 통일의 결정적 담보인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우선 제1차 5개년 계획 첫해의 숭고한 계획 과제를 완수 및 초과 완수하는 데 일체 력량을 바쳐야 할 것이다.

맑스-레닌주의 원칙에 기초한 사회주의 력량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몇가지 문제

리 능 영

오늘날 위력한 세계적 체계로 전화 장성된 사회주의 진영의 강화 발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의 로동 계급의 해방 투쟁의 앙양, 세계 평화 애호 력량의 계속 장성,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의 전반적 붕괴 등은 자본주의 전반적 위기의 심각화와 그의 멸망을 촉진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되고 있다. 여기에서 극도로 초조하여진 제국주의자들은 자체의 출로를 찾으려고 헛되이 애쓰고 있다.

애급 인민을 반대한 침략 전쟁과 웽그리야에서의 반혁명 음모가 타파된 이후 미국을 선두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국제 긴장 상태를 격화시키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과 사회주의 진영을 반대하는 침략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소위 《아이젠하워주의》는 미제의 로골적인 침략 정책을 표현하고 있다.

《아이젠하워주의》의 본질은 가상적인 《공산주의 침략의 위험성》이라는 구실 하에 직접적인 무력 행사로써 중근동 지역의 풍부한 자원들을 략탈하며 인민들의 민족 해방 운동을 진압하며 이 지역을 미국에 예속시켜 사회주의 진영을 반대하는 전쟁 기지로 전환시키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직접적인 원자 전쟁 준비를 로골'적으로 추진시키고 있다. 미국은 류례 없는 방대한 군사 예산을 세우고 열핵무기 장비를 강화하고 있다. 1월 23일 따스가 성명한 바와 같이 미국은 원자 군부대들을 서구라파, 토이기, 일본, 오끼나와섬 등에 배치할 것을 획책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이와 같이 일방으로는 국제 긴장 상태를 격화시키며 《랭전》을 고취하면서 타방으로는 《반공, 반쏘》 깜빠니야를 강화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들을 파괴하기 위하여 미국 국회는 1951년에 《호상 안전 보장법》에 대한 수정안을 채택하였는 바 이 수정안에 의하여 매년 1억딸라, 1956년에는 2억 5천만 딸라라는 거액의 자금을 지출하였다. 미국은 이 금액도 적다하여 금년도부터는 더 증가시킬 것을 예견하고 있다. 지난 1월 10일 아이젠하워는 국회에 보낸 일반 교서에서 미국 정보국의 《공적》을 찬양하면서 《나는 우리 정보국이 그 맡은 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세출 할당을 상당히 증가하도록 요청한다》고 하였다. 바로 이러한 자금으로써 서방 국가들에 파쑈적 망명 단체와 군부대가 조직되며 간첩, 파괴 분자들이 징모 훈련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자국내 공산당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있는 바 불란서, 화란에서의 공산당 건물에 대한 습격, 독일 공산당의 비법화 이후 여러 나라들에서 공산당에 대한 비법화 조치를 기도하며 공산당원들의 활동을 박해하며 오지리, 이태리, 서서, 정말 등 일련의 나라들에서 저렬한 반공 시위를 조직하였다.

웽그리야에서의 직접적인 도발 행동에서 심대한 패배를 당한 제국주의자들은 공산주의 운동과 사회주의 진영을 반대함에 있어서 보다 교묘한 수단과 방법에 의거하려 하고 있다. 그들은 모든 인민들에게 있어서 위대한 견인력으로 된 맑스-레닌주의를 외곡하거나 그의 기초를 훼손시키며 사회주의 진영 내부의 단결을 손상, 파괴하는——델레스가 말한 바 소위 《공산당 세계의 성격을 변경》시키는——방법으로써 사회주의 체계를 《타도》하며 세계 공산주의 운동을 《소멸》시켜 보려고 타산한다.

물론 이와 같은 타산이 완전히 무모하며, 여지없이 파산 당할 운명을 지닌 것이기는 하나 조성된 정세하에서 모든 사회주의 력량 앞에는 맑스-레닌주의 원칙을 확고히 옹호하며 국제주의적 단결을 가일층 강화할 중대한 의무가 제기된다.

사회주의 력량 단결의 사상적 기초로서의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사회주의 력량의 단결의 사상적 기초는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이다.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는 본질상 국제적 운동인 공산주의 운동의 성격으로부터 흘러나온다. 맑스와 엥겔스는 《공산당 선언》에서 공산주의자들의 특징은 그가 국'적 여하를 불문하고 전체 프로레타리아트의 공통적 리해 관계를 내세우는 데 있다고 지적하면서 《만국의 프로레타리아들이여! 단결하라!》는 전투적 구호를 제기하였다.

어떤 사람들, 례컨대 파란의 한 작가 플로르챠크는 오늘날에 와서 이 구호는 《이미 낡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전투적 구호는 오늘날에 와서 낡아 질 대신에 반대로 더욱 더 새로운 현실적 의의를 가지고 실생활에서 생동하고 있으며 이 원칙에 더욱 더 충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력사적 제 사실과 경험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부인은 기회주의를 의미하며 그에 대한 충실성은 로동 계급의 리익의 고수로 된다. 최근에만 하여도 웽그리야 사건에서 우리들은 쏘련이 웽그리야 인민에게 준 진정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원조가 웽그리야의 인민 민주주의 제도의 고수와 민족적 독립과 세계 평화 유지에 얼마나 거대한 기여를 하였는가를 잘 알고 있다.

오늘날 사회주의 위업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자기 조국과 인민의 리익을 제국주의의 침해로부터 수호하고져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견결한 옹호는 결정적 의의를 가진다. 왜냐 하면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는 애국주의와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 량자간에는 아무런 모순도 존재하지 않는 바 모든 나라 로동 계급의 리익은 매개 민족의 리익에 완전히 부합된다.

레닌은 《대 로씨야인들의 민족적 긍지의 리해는 (저속하지 않게 해석한) 대 로씨야 (그리고 또 기타 모든) 프로레타리아트의 사회주의적 리해와 일치한다》(《대 로씨야인들의 민족적 긍지》)고 하였다. 사실에 있어서 공산주의자들이야 말로 국제주의자인 동시에 애국주의자이며 온갖 민족적 압박을 반대하는 민족적 독립의 옹호자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는 꼬스모뽈리찌즘과는 전연 인연이 없다.

꼬스모뽈리찌즘——이는 《세계 정부》라는 구호하에 민족적 독립, 자주권, 령토권을 포기할 것을 호소하는 제국주의자들, 특히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팽창 정책과 식민주의 정책의 사상적 표현이다. 이와는 반대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는 민족적 독립, 자주권의 존중, 령토 완정의 보장을 전제로 한다.

바로 여기에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사상의 위대성과 생활력이 있다.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는 배타적 애국주의, 민족주의와는 절대로 상용될 수 없다. 민족주의적 편향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단결을 파괴한다. 부르죠아 민족주의는 프로레타리아들의 국제적 단결과 련대성을 파괴하며, 근로자들 간의 반목과 충돌을 고취하며 나아가서 공산주의 운동 대렬을 분렬시키려는 제국주의의 사상적 무기이다.

오늘날 이러한 민족주의적 경향이 일부 사회주의 국가들에서의 불견실한 분자들 속에서 발현되고 있다. 례하면 파란 잡지 《신 문화》 지상에는 얼마전에 비브로브스끼의 론설이 게재되였는 데 필자는 《사회주의적 국제주의는…공존의 원칙에 의거하는 공산당, 로동당 및 사회주의 국가간의 옳은 관계의 강화에 있으며… 또한 쓰딸린주의와 보수주의와 반동의 낡은 사회 구조와의 투쟁…》이라고 하였다. 1956년 12월 말에 유고슬라비야 신문 《뽈리찌까》 지상에도 유·구쓰찐치츠의 론설 《모든 것을 위한 원칙》에서 이와 똑 같은 사상이 표현되고 있다. 《사회주의가 많은 나라들을 포함하고 있는 이때 사회주의 국가 로동 계급과 그의 당, 근로자들은 그들의 호상 관계에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이 아니라 공존의 원칙에 의하여 지도되여야 한다》고.

이 두 필자들은 상이한 제도간의 문제인 공존을 동일한 목적과 제도, 사상을 가진 사회주의 국가들 간, 형제 당들 간의 관계에 적용하고 있으며 《쓰딸린주의와의 투쟁》에 관해서 운운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이 반맑스주의적이며, 국제주의와는 하등의 인연

도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러한 론조는 민족주의의 한개 변종에 지나지 않는다.

민족주의의 극복은 비단 사회주의 력량의 단결을 위해서만 아니라 제국주의와의 성과적 투쟁, 나라의 진정한 독립의 보장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그 창건 첫날부터 당원들과 인민 대중을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정신으로 교양하면서 민족주의의 사소한 발현과도 단호한 투쟁을 전개하여 왔다.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충실성은 우리의 가장 숭고한 의무라고 당은 가르친다.

> 맑스-레닌주의 원칙들을 수정하며 국제주의적 단결을 약화시키려는 기도는 허용될 수 없다.

이 문제는 현 시기에 매우 날카롭게 제기된다. 여기에서는 주로 유고슬라비야 찌또 동지의 뿔라에서의 연설, 깔젤리 동지의 유고슬라비야 련방 인민 공화국 인민 회의에서의 연설에서 제기된 일련의 문제들에 대하여 언급하게 된다.

제기된 문제들을 다음과 같이 소위 《쓰딸린주의》에 대한 문제, 과도기 프로레타리아 독재에 대한 문제, 각이한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로의 이행 방도와 관련한 문제로 구분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이 모든 문제들은 결국 맑스-레닌주의, 사회주의 력량의 단결에 관한 하나의 원칙적 문제와 관련된다.

소위 《쓰딸린주의》에 대한 문제에서.

주지하는 바와 같이 쏘련 공산당 20차 대회는 쓰딸린에 대한 개인 숭배와 그 후'과들을 극복할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문제의 제기는 력사적 유물론이 가르치는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정당한 것이며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가 제기되자 제국주의자들은 일대 소동을 일으키기 시작하였는 바 사회주의 제도를 비방하며 공산주의 운동 대렬에 분렬과 혼란을 조성하며 공산당들을 내부로부터 파괴하며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의 기초를 훼손시키며 사회주의 국가들을 반대하는 데 이 문제를 리용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모든 공산주의자들 앞에는 이 문제에 대한 정당한 원칙적인 리해와 립장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

찌또와 깔젤리는 이 문제에서 맑스—레닌주의적 립장에서 리탈한 견해와 사회주의 력량의 단결에 극히 유해한 립장을 취하고 있다. 그들은 쓰딸린의 오유와 개인 숭배가 《일정한 사회 제도의 산물》이라고 하였으며 1월 6일 부 유고슬라비야 공산주의자 동맹 기관지 《볼리바》지에도 《쓰딸린주의의 사회적 성격과 오유를 끼친 그 제도의 성격과 정부 제도》에 관하여 완강히 고집하고 있다. 이로부터 그들은 민주주의의 《직접적 실현을 위하여》 《정치 제도를 변경》하며 《통일 로동자 쏘베트와 자치 꼼무나를 창설》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깔젤리는 웽그리야와 기타 나라들에 대하여 이렇게 제의한다.

맑스—레닌주의 과학은 사회 정치 제도의 본질은 생산 방식에 의하여, 그리고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계급들과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계급들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가르친다.

이로부터 웽그리야의 현 사회주의 사회 제도를 《변경》한다면 결국 사회주의 제도 아닌 자본주의 제도를 의미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반혁명의 소굴로서 로농 혁명 정부에 의하여 해체된 웽그리야의 지역적 쏘베트와 같은 반혁명 분자들에게 정권을 맡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론리적 귀결은 이러하다.

사실에 있어서 쓰딸린의 오유는 사회주의 사회 제도의 산물인 것이 아니라 쏘련이 세계에서 자본주의 포위하의 첫 사회주의 국가였다는 것과 일부 쓰딸린의 개성과 관련된 객관적 및 주관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던 것이다.

사회주의 제도는 착취자적 사회 제도의 유물인 개인 숭배와 용납될 수 없으며 따라서 사회주의 사회 제도 하에서만 개인 숭배의 극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쏘련 공산당이 쓰딸린 서거 후에도 사회 제도의 아무런 변경이 없이 개인 숭배를 극복하며 쏘베트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은 이를 실증해 준다.

유고슬라비야 지도자들의 주장은 결국 사회주의 제도에 대한 훼손이다. 나아가서 유고슬라비야 지도자들은 《쓰딸린주의》 《쓰딸린주의와의 투쟁》에 관하여 소동을 일으키면서 공산주의자들을 《쓰딸린주의자》와 《반쓰딸린주의자》로 갈라 놓으며 지어 자기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각국 당 지도자들에 대하여 《완고한 쓰딸린주의자들이…각국 공산당 내에서 그들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려 하고 있는…》 《무책임 분자》라고 욕설을 퍼붓고 있다. 이러한 욕설을 제국주의자들의 《반쏘, 반공》 중상과 구별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소위 《쓰딸린주의》에 대한 이 모든 소동은 불필요한 것이며 옳지 않은 것이다. 물론 쓰딸린은 일부 문제에서 오유를 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오유는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 일보》가 지적한 바와 같이 그의 공로에 비하여 극히 부차적인 것이다. 쓰딸

린이 쏘련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 끼친 공적은 실로 크다. 쓰딸린은 공산주의의 적들인 제국주의와 그의 앞잡이들인 각종 기회주의 분자들과의 투쟁에서 탁월한 투사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혁명의 위업이 문제로 되며 우리의 계급적 원쑤들을 반대하는 혁명 투쟁에 있어서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적 리익을 수호하는 것이 문제로 되는 한 쓰딸린은 맑스—레닌주의의 위업을 용감히 비타협적으로 고수하였다》 (1957년 1월 17일 흐루쑈브의 연설).

사실상 쓰딸린은 대 맑스주의자였다. 따라서 《쓰딸린주의》란 존재하지 않으며 《쓰딸린주의와의 투쟁》이란 문제로 될 수 없다. 쓰딸린의 오유에 대하여 비판한 것은 《〈쓰딸린주의〉와의 투쟁》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와 같은 오유에서 교훈을 얻기 위해서이다.

국제 무대에서 첨예화한 계급 투쟁이 전개되고 있는 현 정세 하에서 《쓰딸린주의》운운은 필경 제국주의와의 투쟁의 예봉을 무디게 할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 숭배 반대》와 《쓰딸린주의와의 투쟁》의 구호하에 일부 사람들 속에서 발현되는 편향, 즉 계급적 원칙성으로부터의 리탈, 당 및 국가 생활에 있어서의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 원칙의 부인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이른바 《민주주의와 자유의 확대》——《세계 사조》——라는 류행어가 나타났다.

민주주의가 좋고 그것을 부단히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 대하여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자유는 어떤 고정 불변의 도그마가 아니다. 민주주의와 자유에 관한 대립되는 두 가지 해석과 리해가 있는 바 하나는 부르죠아적 무정부주의적 견해이며 다른 하나는 맑스—레닌주의적 견해이다. 부르죠아 이데오로그들은 소위 《절대적인》 자유,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에 관하여 떠든다. 그러나 이러한 《절대적인》 자유란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 력사 안에서 살면서 사회 력사로부터 《절대적으로》 자유로울 수는 없는 바 이러한 자유는 위선과 허위다. 때문에 맑스주의는 진정한 자유란 사회—력사적 필연성의 인식이라고 인정한다.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장 기본적인 첫 조건은 계급적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이다.

사회주의는 이러한 물질적, 정치적 조건을 조성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의 리익, 계급의 리익을 떠난 민주주의와 자유는 있을 수 없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우월성은 그것이 중앙 집권제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여 있는 데 있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들은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를 주장한다.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는 일방으로는 관료주의적 중앙 집권제와 타방으로는 무정부주의로부터 구별된다는 것을 명백히 리해하여야 한다》 (전집 27권 180페지). 레닌적 당 생활의 규범은 이러하다.

무제한한 민주주의, 자유는 무질서와 혼란 및 당내 종파의 조성, 규률의 약화를 초래하며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제국주의자들에게 리용될 수 있다.

우리는 웽그리야 사건에서 임레 나지를 수반으로 한 반당적 종파 분자들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운운하면서 전 근로자당 지도부의 오유를 구실로 당내 비판을 당 밖으로, 즉 거리에로 끌어 냈으며 지어 반혁명 분자들까지 한몫 끼워서 맞장구를 쳤으며 나중에는 사회주의의 기초를 공격, 반대하는 데까지 이르렀던 것을 알고 있다. 임레 나지는 국가 반역자들에게까지 《자유와 민주주의》의 《선심》을 베풀면서 그들을 감옥에서 석방하였다. 그리하여 웽그리야에서는 종파가 엄중한 후'과를 초래하는 큰 해독적 작용을 놀았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당이 창건 첫날부터 지방주의, 종파주의 요소와 무자비하게 투쟁함으로써 당의 사상 의지 및 행동 통일을 확고히 보존한 것이 전'적으로 정당하였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된다. 우리 당은 당내에 잠입했던 미제 고용 간첩이며 종파 분자였던 반당'적 반인민적 박 헌영, 리 승엽 도당을 적발 숙청하였으며, 박 일우, 허 가이 등 반당 종파 분자들을 당 대렬에서 제거함으로써 당의 통일과 순결성을 보장할 수 있었다. 당을 공고히 하며 당의 통일을 강화하는 투쟁에서 우리 당은 최근 더욱 더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 제국주의자들과 리 승만 도당은 최근 우리에게도 소위 《세계 사조》를 퍼뜨리며 우리 당을 약화 분렬시키며 우리의 인민 민주주의 제도를 훼손시키려고 기도하였다. 이자들은 공화국 북반부에서도 웽그리야에서와 같은 《사건》이 발생되기를 열망하였으며 선동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 당이 강철같이 통일되여 있고 그가 인민 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적들의 온갖 기도와 희망은 완전히 파탄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당내에도 이 시기에 종파—반당 분자들이 책동하였다. 8월 전원 회의에서 폭로된 바와 같이 최 창익, 박 창옥, 윤 공흠, 서 휘, 리 필규 등 반당 종파 분자들은 당의 정책을 외곡 비

방하며 당과 인민이 지난 10 여 년간에 달성한 업적과 성과들을 부인하며 직맹을 인민 정권에 대립시키며 우리 당과 형제 당들 간의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단결을 약화시키며 그의 리간을 조작하려 시도하였다. 이자들은 자기들의 추악한《헤게모니야》를 참망하여 당 중앙의 지도부를 비방 중상하며 지어《종파의 유익성》까지 들고 나와 당에 도전하였던 것이다.

우리 당 중앙 위원회 8월 전원 회의가 이와 같은 반당'적 종파 분자들의 행동을 심의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여 그를 제때에 분쇄해 버린 것은 전'적으로 정당하였다.

우리 당이 적대되는 프락치야의 존재를 허용하지 않으며 그와 타협하지 않는 이 원칙적 조치는《개인 숭배 반대》와《민주주의 확대》라는 구호하에 형제 당들의 통일을 훼손하려는 반동 세력의 음흉한 시도가 가해지고 있는 현 조건하에서 더욱 더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이것은 미 제국주의자들과 리 승만 도당에 대한 타격으로 되는 것이며 국제 로동 운동에 대한 커다란 기여로 되는 것이다.

《쓰딸린주의》와의 투쟁을 운운하며《개인 숭배》를 반대한다는 구실 하에 력사에서, 또는 당 및 국가 지도에서의 지도자, 수령이 노는 역할과 의의를 부인하려는 경향에 대하여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력사에서 인민 대중이 결정적 력량이라는 데 대해서는 론의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것은 지도자, 수령의 역할을 부인해도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개인 숭배는 반대해야 한다. 그러나 지도자, 수령의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 곧 개인 숭배는 아니다. 이것은 전연 딴 문제이다.

훌륭한 지도자와 수령의 역할은 무조건'적으로 거대하다. 그러므로 레닌은《공산주의에 있어서의〈좌익〉소아병》에서《정당은 통례로 가장 권위있고 영향력 있고 경험있고 책임있는 지위에 선발된 수령이라고 불리우는 인물들로써 되는 다소간 고정된 그루빠에 의하여 지도된다는 것——이것은 일반이 다 아는 바이며 초보적인 진리이다》라고 교시하였다. 훌륭한 령도자와 수령은 그 시대 인민과 자기 계급의 형모를 자체에 체현하고 있는 바 그 령도자, 수령의 형모는 그 계급과 인민의 형상인 것이다.

조선 인민의 우수성, 그가 달성한 모든 력사적 승리와 업'적을 말할 때 우리들은 응당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 중앙 위원회와 그의 령도적 핵심의 역할과 의의를 강조하게 된다. 《개인 숭배》를 반대한다는 구실 하에——이것도 그들이 말하는 소위《세계 사조》이다——지도자, 수령에 대한 허무주의적 태도는 계급적 리익, 인민의 리익에 배치되며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인민 대중의 력량을 옳게 조직, 동원하는 것을 방해하는 유해한 경향이다. 지도자, 수령에 대한 사랑과 존경은 본질상 계급과 인민, 조국에 대한 사랑이며, 공산주의 위업에 대한 충실성의 표징인 바 이는 결코 개인 숭배가 아니다.

과도기 프로레타리아 독재 문제에서

이 문제에 있어서도 유고슬라비야 지도자들인 찌또와 깔젤리는 결코 맑스-레닌주의적 립장에 선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게 한다. 깔젤리는《과도기 모순에 관한 일정한 정치적 해결책을 신중하게 탐색하고 발견한 것은 본질상 유고슬라비야 뿐이다》고 단정하면서《사회주의 혁명의 출발점으로부터, 즉 프로레타리아트와 부르죠아지간의 충돌을 통하여 사회주의적 발전 과정을 리해한다는 것은 사상적으로 불합리하며, 정치적으로는 반동적이다》라고 선포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러한 견해야말로 불합리하고 반동적인 것이다.

과도기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학설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과도기 프로레타리아 독재 문제는 맑스주의에 있어서 가장 주되는 문제이다. 맑스는《고타 강령 비판》에서《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에는 전자로부터 후자에로의 혁명적 전환의 시기가 가로 놓여 있다… 이 정치적 과도기의 국가는 프로레타리아트의 혁명적 독재 이외의 다른 아무 것으로도 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레닌에 의하여 이 과도기에 관한 학설은 가일층 발전되였다. 레닌은 이 과도기는《패배는 당하였으나 아직 청산되지 않은 자본주의와 탄생은 하였으나 아직 전연 미약한 공산주의와의 투쟁의 시기로 되지 않을 수 없다》고 교시하면서 이 과도기의 프로레타리아 독재는《구사회의 세력과 인습을 반대하는 류혈적 및 무혈적, 폭력적, 군사적 및 경제적, 교육적, 행정적인 완강한 투쟁이다》(전집 25권 190폐지)라고 하였다. 프로레타리아 독재와 계급 투쟁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리론은 이러하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과도기의 계급 투쟁과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는 맑스주의자가 아니다.

그러나 깔젤리는 사회주의가 여러 나라에서 승리하였다는 것을 념두에 두면서 오늘날에 와서는 사회주의 발전 과정이《사회주의적 자연 성장》의 과정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자연 성장》의 리론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쏘련에서 특

히 농업 집단화 시기에 부하린을 선두로 한 우익기회주의자들이 바로 이와 같은 립장에 서 있었다.

계급 투쟁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리론은 오로지 한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승리한 조건하에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몇 개의 나라 지어 다수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승리하였다 하여도 세계 자본주의가 종국적으로 청산되지 않은 한 여전히 타당한 의의를 가진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날 우리 나라까지 포함한 많은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실시하는 자본주의적 요소의 사회주의에로의 평화적 개조가《자연 성장》리론과 공통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량자간에는 하등의 공통성도 없다.

자본주의 요소의 사회주의적 개조는 결국 경제 체계로서의 자본주의의 청산의 한 개 방도인 것이다.

물론 각이한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적 개조의 방도에는 그 나라의 구체적, 력사적 조건, 해당 시기의 외부적 환경, 계급적 력량 관계, 자본주의 요소의 반항 정도 등에 의하여 차이가 있을 것이나, 그러나 그 본질에 있어서 계급 투쟁임은 불가피적이다.

우리 나라, 중국 및 기타 나라들에서의 자본주의 요소의 사회주의에로의 평화적 개조 행정에서의 경험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이 개조는 그 내용에 있어서 제한과 반 제한간의 개조와 반 개조간의 완강한 투쟁이 가로 놓여 있다는 것을 실증해 준다.

물론 한 나라의 내부적 견지에서 볼 때 사회주의가 완전히 승리하였으며 계급들이 청산된 그러한 조건하에서는 계급 투쟁이 더욱 첨예화될 수는 없다. 이러한 시기의 프로레타리아 독재는 그 예봉이 주로 외부 제국주의자들에게 돌려 진다. 그러나 아직 사회주의에로 들어 선지 불과 10년 밖에 되지 않았으며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되지 못한 인민 민주주의 제국에서는 여전히 내부적 및 외부적 계급 투쟁이 완강히 진행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프로레타리아 독재는 무조건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웽그리야 사건은 만일 프로레타리아 독재가 확고하지 못하다면 엄중한 후'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사실상 웽그리야에서는 계급적 원쑤들이 오래'동안 국내 외에서 음모 공작을 진행하였으나 이전 근로자당 지도부와 정부는 국가의 프로레타리아 독재 기능을 원만히 실행하지 못하였으며 원쑤들에게 제때에 타격을 주지 않았다.

우리 나라의 력사적 경험에서 국토가 량단되고 미제와 리 승만 도당과 직접 대치하고 있는 조건하에서 적들의 파괴적 시도와 암해 공작은 어느 나라에서 보다 더 심하였으나 그를 매 걸음마다 성과적으로 분쇄하고 인민 민주주의 제도와 그의 혁명적 전취물을 철벽같이 보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당이 인민 민주주의 독재의 기능의 실현을 옳게 보장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실증해 준다.

이와 같이 우리 당이 반동에 대하여서는 강력한 독재를, 인민을 위하여서는 민주주의를 실시하는 인민 민주주의 독재의 실현을 정확하고도 정당하게 보장함으로써 당원들과 전체 인민들로 하여금 무한한 정치적 열성과 적극성을 발휘하며 계급적 원쑤들에 대한 혁명적 경각성을 제고함으로써 반동들의 온갖 준동을 제때에 분쇄하였으며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각이한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의《특수한 방도》와 관련한 문제에서.

맑스와 레닌은 이미 각이한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에로의 이행 방도의 다양성을 예견하였으며 매개 민족들은 대소를 막론하고 자기들의 창조적 활동으로써 맑스-레닌주의 보물'고에 거대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교시하였다.

쏘련 공산당 20차 대회는 현 시기 국제 무대에서의 근본적인 변화와 관련하여 국가들과 민족들의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에서 새로운 풍부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사실에 있어서 현재 사회주의 각국들에서는 사회주의 건설과 사회주의적 개조 및 기타 분야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의 이러 저러한 특수 방도들을 탐구 실시하고 있다. 오직 능숙하게 자기 민족과 자기 나라의 특성에 근거하여 맑스-레닌주의의 보편적 진리를 창조적으로 적용 운영함으로써만 사회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레닌은 공산당의 주요 과업은《유일한 국제적 임무의 해결에 대한 매개 국가들의 구체적인 취급에 있어서의 그 민족에 특유한 것과 그 민족에 고유한 것을 찾아 내며 알아 내며 파악하는 것》(전집 31권 72폐지)이라고 지적하였다.

만일 어떤 당이 자기 정책에서 나라의 민족적 특성, 민족적 감정, 전통 등을 옳게 타산하지 않는다면, 즉 교조주의적 방법으로 사업한다면 그는 인민

의 지지와 사랑을 받을수 없으며 지어 엄중한 후'과까지 초래할 수 있다. 바로 웽그리야의 전 근로자당의 지도부는 이점에 있어서 역시 교조주의적 오유를 범하였는 바 부분적으로 자기 나라의 구체적 특성과 인민들의 민족적 감정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인민들의 일정한 불만을 야기시켰고 이러한 불만이 반혁명 분자들에게 리용당하였다. 이와 같은 교조주의는 국제주의적 련대성이나 맑스—레닌주의와는 아무러한 공통성도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조주의는 반드시 극복되여야 한다.

우리 당은 자기 활동에 있어서 맑스—레닌주의 원칙에 의거하면서 이 맑스—레닌주의 보편적 진리를 우리 나라의 구체적 조건과 특수성에 알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왔다. 한 때 우리 당 내에서도——1955년 12월 전원 회의에서 폭로된 바와 같이——일부 교조주의자들이 있었는 바 이들은 우리 나라의 모든 혁명적, 민족적 전통을 무시하였으며 외국의 것을 기계적으로 도입하였으며 조선 인민들의 민족적 특성과 감정, 우리 나라 혁명 발전의 구체적 조건과 환경을 간과하거나 경시하였다.

그러나 우리 당은 이러한 형식주의, 교조주의 현상을 제때에 발견하고 제때에 그를 시정하는 대책을 강구 실시하였다. 특히 김 일성 동지의 제의에 의한 혁명 수행에서의 주체의 확립을 위한 우리 당의 투쟁은 그의 구체적 시정 대책이였다. 맑스—레닌주의 원칙을 우리 나라 혁명 발전에 유익하게, 우리 나라 현실에 알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는 것——이것은 주체를 옳바로 살리는 것이다. 우리 당의 이 정확한 대책에 의하여 교조주의, 형식주의는 점차 청산되여 가고 있으며, 경제 지도와 사상 사업 분야 및 기타에서 현저한 개진과 발전이 달성되고 있다.

실생활은 맑스—레닌주의 창조적 적용에 기초한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 나라 조건 하에서 조국 통일을 위한 혁명적 민주 기지의 창건과 그의 공고 발전에 대한 전략적 로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원칙적 립장과 구체적 방책의 제기, 경제 정책에서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에 기초한 경공업 및 농업의 동시적 발전 로선, 제한하며 리용하면서 자본주의 요소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방도의 적용 등은 우리 당 정책의 창조적 성격을 여실히 증명해 준다.

실로 우리 당의 이와 같은 정책은 쏘련 공산당 20차 대회의 《각이한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로의 이행 방도》에 관한 결정 정신에 완전히 부합되는 것이다.

주체 확립을 위한 우리 당의 투쟁이 맑스—레닌주의 기본 원칙과 사회주의 건설의 일반적,공통적 특성에 확고히 의거한 투쟁이라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 당은 최근 일부 나라들에서 불견실한 사람들이 맑스—레닌주의 원칙을 외곡하려 하며 사회주의 건설에 공통적인 특성을 부정하려고 하는 시도들에 대하여 명백한 대답을 주었는 바 1956년 11월 6일, 10월 사회주의 혁명 39주년 기념 평양시 경축 대회 보고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여 있다.

《사회주의에로의 이행 형태가 각 나라들에서 각이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기본적인 문제,즉 맑스—레닌주의의 원칙적인 문제로부터 유리되여서는 안된다.》

그러나 일부 나라 기회주의자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 달리 행동하고 있다. · 최근 미국 공산당내 우익 기회주의자들은 《맑스주의는 낡았고 레닌주의는 오로지 로씨야적인 것이고 맑스의 정치 경제 학설은 특수한 법칙에 따라 발전되는 미국 내 자본주의의 분석에는 무능력하다》고 주장하면서 레닌적 형의 당은 필요 없고 다만 선전을 위한 대중적 《공산주의 선전 협회》와 같은 것을 조직하면 만족할 것이라고 제기하였다. 이것은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공공연한 수정주의이다.

유고슬라비야 지도자들에 의한 《사회주의에로의 길》에 대한 일면적인 강조와 온갖 선전'적 소동도 역시 본질상 혁명 발전과 사회주의 건설의 일반적 합법칙성과 공통적 특성을 거부하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 별개의 《새 로선》을 설정하려는 시도이다.

깔젤리는 말하기를 유고슬라비야는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다른 어느 나라 보다도 더 많은 것을 이룩하였다》느니 《우리의 사회주의적 실천,즉 사회주의적 관계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가일층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국제 사회주의 사업에 대한 현실'적 기여로 될 수 있는 바 특히 그것은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그러하다》고.

유고슬라비야 지도자들은 흔히 유고슬라비야의 《특수 방도》중 두가지 방도,즉 기업소내 로동자 쏘베트와 경제 관리의 《지방 분'권화》를 특히 내세운다.

이 《특수 방도》의 가치에 대하여 시비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사회주의 건설의 《특수 방도》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은 맑스—레닌주의의 보편적 진리와 사회주의 건설의 일반적 합법칙성을 페기하거나 그에 대치될 수는 없다. 레닌은 각국에서의 프

로레타리아 독재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이 특수성은 오직 가장 주요하지 않은 것에만 관계된다》(《프로레타리아 독재 시기에 있어서의 정치와 경제》 참조)라고 교시하였다.

이러한 합법칙성, 공통적 특성이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로동 계급의 당의 지도적 역할.

로동 계급의 정권 장악과 독재 수립.

생산 수단에 대한 자본주의적 소유의 청산과 그것의 사회적 소유에로의 전환, 인민 경제의 계획적 지도.

로동 계급과 농민 및 기타 근로자 층과의 계급적 동맹.

제국주의자들과 옛 착취 계급의 침해로부터의 사회주의 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의 견결한 보위 등이다.

유고슬라비야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특수》한 사회주의 건설 경험에 기초하여 이 원칙적 문제들 중 많은 것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례하면 당의 지도적 역할을 부인하며 (깔젤리는 웽그리야 동지들의 당 재건 사업을 《무익한 시도》라고 비난하였으며 당의 지도적 역할은 《생산자 대중의 진정한 결정적 역할과 대립된다》고 하였다) 인민 경제의 국가적 계획적 지도를 거부하며, 깔젤리는 통일적 인민 경제 계획을 《기술 만능주의》라고 비난하며 경제에 대한 국가의 지도는 《관료주의》이며 이로부터는 《어떤…사회주의 체제는…문제로 될 수 없다》고 말한다.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약화시키거나 부인하려고 (이미 우에서 본 바와 같이) 한다. 보는 바와 같이 유고슬라비야 지도자들은 자국의 《특수 방도》를 사회주의 발전의 기본 문제에 대치시키고 있는 바 이는 결국 수정주의인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이 사회주의 건설 경험에 관하여 말할 때 우선 그는 쏘련의 경험에 첫째가는 의의를 부여한다. 레닌은 이미 1920년 5월에 쏘련의 경험은 《… 지방적인… 오로지 로씨야적인 의의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 의의》를 가진다고 지적하였다. 물론 이것은 꼭 쏘련의 경험만이 문제로 된다는 것을 의미함은 아니다. 쏘련 외의 모든 나라의 경험도 응당 배우며 호상 리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단 찌또에 의하여 쏘련 공산당에 대한 형제당들의 소위 《불충분한 신뢰》가 론의되며 유고슬라비야의 사회주의 건설 경험이 세계의 《모범》으로 간주되고 지어 이를 따르지 않는 당들에 대하여 공격과 비방을 가하는 데 대해서 우리들은 오직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쏘련과 쏘련 공산당의 존재, 그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력사적으로 규정된 현실이며 쏘련에서의 경험은 가장 중심적인 길이다——라고.

그러면 타국을 위한 《모범》으로 된다는 유고슬라비야의 《특수》한 사회주의 건설 방도의 《우월성》은 어데 있는가? 우선 경제 관리 및 운영에서 특수한 《반쓰딸린주의적》,《지방 분'권화》에 대하여 보기로 하자.

이러 저러한 경제 관리 방법의 우월성은 응당 생산과 인민 생활면에서 결과를 나타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유고슬라비야의 지나친 《지방 분'권화》는《각종 개인주의적, 지방주의적 경향》과 《규률의 결여, 지어는 무정부적 경향》까지 야기시킨다고 1956년 7월에 깔젤리 자신이 미국 잡지 《포리 압페어즈》에 쓴 바 있었다.

이리하여 유고슬라비야에서는 공업 부문에서 로동 생산 능률이 점차 저하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1954년에 비하여 1955년에는 로동 생산 능률이

고무 공업에서는 9%

석유 공업에서는 3%

건재 공업에서는 2%

기타 공업 부문에서는 16%가 각각 저하되였다. 그리고 총체적으로 1955년은 1952년에 비하여 공업 제품 소매 가격 지수는 27%나 높아졌다.

농촌 경리 분야에서도 《유고슬로비야식 방도》는 타국의 모범으로는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1953년—1955년간에 농업 로력 협동 조합 (고급 형태)을 단순히 판매—공급 기능 만을 가진 협동 조합으로 개편한 후 농업 로력 협동 조합은 1953년 1월의 4 792개로부터 1954년에는 896개로 축소되였다. 개인농 경리의 비중이 점점 높아 가고 있는 바 개인농 경작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1953년의 65%로부터 1955년에는 근 72%로 증대되였다. 농촌에서 사회주의의 지반이 약화되고 자본주의적 지반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유고슬라비야에 대한 이상 자료는 1956년 18호 《꼼무니쓰트》 루만쩨브의 론설에 의함)

사회주의 력량의 단결은 더욱 공고 발전되고 있다.

한 민족의 력사에서나 세계 로동 운동 력사에서 계급 투쟁이 첨예화되고 적들의 공격이 심하면 운동 내부의 일부 불견실한 요소들이 머리를 추켜들

며 일부 《동반자》들 속에서•실망과 동요가 생긴다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최근 사태는 매개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자기 립장을 검열하는 일대 시금석으로 되였다.

지금 공산주의 운동은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적의 발악이 심하다는 것은 우리의 전진이 거세기 때문이며 우리의 력량이 강대하기 때문이다.

오늘날처럼 사회주의 력량이 민주주의 및 평화의 력량과 단결된 적은 일찌기 없었다. 사회주의의 종국적 승리와 자본주의의 종국적 멸망은 다 같이 필연적이다.

특히 쏘련 공산당 20차 대회 후 각국 공산당들은 리론적 분야에서와 정치적 활동에서 보다 더한 창조적 적극성을 발휘하고 있으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은 가일층의 앙양과 전환 속에 처하여 있다. 물론 이러한 전진을 따라 갈 능력이 없는 소자산 계급의 동요는 거의 불가피적인 바 일부 당 내에서 우익 기회주의자들이 머리를 추켜 들며 일부 불견실한 자들이 당으로부터 탈락하며 일부 실망 분자들이《사회주의——이는 먼 장래의 일이다》, 《국제주의는 위기에 처하였다》고 비명을 올리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모든 력사적 경험이 증명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현상이 결코 공산주의 운동의 우렁찬 전진을 저지시키거나 사회주의의 기본 력량의 단결을 동요시킬 수는 없다. 세계 공산당,로동당들은 현재 자기 대렬에 수천만——3 000 여 만명을 결속시키고 있는 바 이는 제2차 대전 직후에 비하여 8배 이상의 장성이다. 이는 불패의 힘이다. 그의 힘은 또한 그가 인민들의 근본 리익을 위한 헌신적 투쟁으로써 인민 대중의 무한한 지지와 사랑을 받으며 인민 대중과 련결되어 있는 데 있다. 각국 당들은 로동 계급의 리익, 평화, 민주주의,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종국적으로 승리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오늘날 반동의 발악이 아무리 심하다 할지라도 모든 나라 혁명적 프로레타리아트와 그의 전위대의 기본 력량은 추호의 동요도 없이 반동에 타격을 가하면서 자기 대렬의 결속과 통일을 강화하며 맑스—레닌주의를 견결히 옹호하며,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기치에 대한 충실성을 발휘하고 있다. 불란서 공산당은 파쑈 분자들의 공격을 분쇄하였으며 락오자들은 제명하면서 당의 강화를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일부 부르죠아 인테리들이 탈당하였으나 1957년도 당증 교환 사업과 관련하여 단시일내에 로동자 11 000여명이 새로 입당하여 당은 더욱 강화되였다. 영국 공산당 및 기타 당들도 당내 동요 분자들에 타격을 가하면서 당 통일의 공고화를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2월 9일부터 개최된 미국 공산당 16차 대회는 이를 증시해 주고 있다.

미국 공산당 대회는 맑스—레닌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당 대렬을 공고화하자는 구호하에 진행되였다.

이것은 특히 당 명칭과 형태를 토의한 회의에서 가장 뚜렷이 표현되였다. 일부 우익 기회주의 분자들이 당을 한개의 교양적 목적을 가진 막연한 《협회》로 개조할 데 대한 견해를 들고 나왔는 바, 대회는 이러한 견해를 압도적 다수표로써 배격하고 이를 수정주의적인 견해라고 엄격히 지적하였다.

사회주의 국가를 파괴해 보려던 적들의 시도도 완전히 파탄되였다. 웽그리야 인민들은 사회 로동당(현시 당원수는 이미 17만에 달함)과 로농 혁명 정부의 지도하에 정상적인 경제 문화 생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한 투쟁에서 이미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증오하며 적시하는 서방 제국주의자들은 각종 비난과 중상을 퍼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난은 웽그리야가 정확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좋은 증거인 바 야노슈 까따르 동지는 《만일 서방이 우리를 칭찬하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사표를 제출할 때가 왔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1월 20일에 진행된 쎄임 선거에서 파란 인민이 쟁취한 승리도 사회주의의 승리, 제국주의 음모자들의 커다란 패배를 의미한다.

사회주의 **진영 제국의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단결**은 더욱 공고 발전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관계는 공산주의 사상과 그 위업으로써 련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독립적 주권 국가로서의 매개 사회주의 국가간의 관계는 민족적 평등, 독립 및 주권의 존중, 내정 불간섭, 협조와 원조의 레닌적 원칙에 립각하고 있다. 이는 개별적 사회주의 국가들의 근본 리익과 전체 세계 사회주의 체계의 리익간의 완전한 일치가 존재하는 데 기초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관계의 가일층 발전을 위하여 주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1956년 10월 30일부 쏘련 정부의 성명이다. 그후 형제적 당 및 정부 대표들의 회담과 접촉은 사회주의 진영 제 국가간의, 또는 형제 당들 간의 국제주의적 단결의 공고 발전과 세계 평화에 대한 거대한 기여로 되고 있다. 1957년 1월 1일 부다페스트에서의 수개국 당들 및 정부 대표들의 회담, 1월 18일 쏘련—중국 회담은 특별히 거대한 력사적 의의를 가진다. 이 회담들에서는 위대한 쏘련을 선두로 하는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친선적 협조 관계의 가일층 발전, 맑스—레닌주의의 옹호, 사회주의 력량 단결을 파괴하려는 시도의 견결한 배격, 제국주의 침략을 반대하며 세계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단호한 결의의 표시 등 일련의 주요 문제들에 의견 일치를 보았다. 그외에도 1956년 말 쏘련—파란 회담과 조약 체결, 쏘련—독일, 쏘련—루마니야 회담, 쏘련—체코슬로바키야 (1월 29일)회담, 쏘련 공산당과 이태리 공산당 대표 회담, 중국—파란, 중국—웽그리야 회담, 불란서—체코슬로바키야 당들의 회담 등이 진행되였다.

이 모든 것은 《로씨야 공산주의는 미래의 물결이 아니다》(덜레스)라고 하면서 쏘련을 선두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의 단결을 와해시키려는 제국주의자들에게 결정적 타격으로 된다.

* *

조선 로동당 3차 대회가 인정한 바와 같이 우리 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쏘련을 선두로 한 사회주의 국가들과 기타 모든 국제 혁명 력량에 튼튼히 의거하였으며 또한 우리 나라의 혁명 발전과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적 수행으로써 국제 혁명 운동에 귀중한 기여를 하였다.

우리 당은 항상 쏘련을 확고히 지지 옹호하는 것을 자기의 국제주의적 의무로 간주하고 있다. 쏘련은 조선 인민의 해방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원조자인 바 쏘련은 자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조선 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적극 성원하며 경제, 기술적 원조와 풍부한 사회주의 건설의 경험 및 선진 기술로써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을 방조해 주고 있다. 우리 나라와 쏘련과의 관계는 최초부터 완전한 평등, 령토 완정, 국가적 독립과 주권에 대한 존중, 내정 불간섭의 레닌적 원칙에 기초하고 있으며 밀접한 형제적 협조와 원조로써 맺어져 있다.

작년 11월 3일 몽고 인민 공화국 정부 대표단 평양시 환영 연설에서 하신 김 일성 동지의 연설은 1956년 10월 30일부 쏘련 정부의 성명에 대한 우리 당의 원칙적 립장을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들은 충실한 공산주의자들을 선두로 하는 모든 나라 근로 대중과 전체 진보적 력량과 함께 쏘베트 련맹에 대한 절대적인 옹호와 지지를 자기의 신성한 의무로 간주하고 있다》. 조선 인민은 현 시기 원쑤들의 《반쏘》 책동과 중상을 분쇄하는 데 자기의 노력을 단합시키고 있다.

머지 않아 우리들은 전 세계 근로자들과 함께 위대한 10월 혁명 40주년 기념을 맞이한다. 우리 당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회는 쏘련 인민들과의 친선 단결을 더욱 강화하며 조쏘 친선 월간을 설정하며 다양한 기념 사업들을 조직 진행하는 것으로써 닥쳐오는 위대한 10월 사회주의 혁명 40주년을 기념할 것을 전체 인민들에게 강조하고 있다.

오늘 국제 무대에서 가렬한 계급 투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국내에서 리 승만 도배가 제국주의자들의 고무와 지지를 받으면서 전쟁 재도발 책동을 일층 강화하며, 공화국 북반부의 인민 민주주의 제도와 그의 혁명적 전취물을 파괴하기 위하여 가진 발악적 책동을 다 하고 있다.

미국과 함께 리 승만 도배는 《정전 폐기》, 《한국군의 자유 행동》을 고창하고 있으며 미 제국주의자들의 강요로 유엔 11차 총회는 조선 문제에 관한 비법'적 결정을 채택하였으며 지금 소위 《남한》의 유엔 가입 소동을 조작하고 있다.

조성된 정세하에서 우리 앞에는 세계 및 조선에서의 공고한 평화 유지와 우리 나라의 혁명 임무의 성과적 수행을 위한 엄숙한 력사적 임무가 제기된다.

국내외 원쑤들의 발광적 침해의 기도로부터 우리의 고귀한 인민 민주주의 제도와 그의 혁명적 전취물을 견결히 고수하기 위하여 항상 혁명적 경각성을 제고하며 우리 승리의 기본 조건인 우리 당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들은 당 중앙 위원회 8월 전원회의 결정 정신을 받들고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더욱 굳게 결속하여 사소한 종파주의적 발현도 허용함이 없이 당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통일을 눈동자와 같이 보존하기 위하여 투쟁할 것이다. 온갖 형태의 수정주의, 기회주의 발현을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 원칙을 견결히 고수하며 사회주의 진영의 단결을 약화 파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허용함이 없이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기치에 더욱 충실할 것이다. 우리들은 당의 통일을 가일층 강화하며 맑스—레닌주의 원칙과 국제주의 기치에 더욱 충실함으로써만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우리들은 3개년 인민 경제 계획을 성과적으로 완수하고 인민 경제의 가일층의 앙양과 인민 생활의 가일층의 향상을 약속하는 제1차 5개년 계획을

당이 요구하는 바의 높은 수준에서 실행에 들어 섰는 바 이에 있어서 1957년도는 가장 결정적인 년도로 된다. 우리들은 당 중앙 위원회 12월 전원 회의가 제시한 증산과 절약의 전투적 호소를 반드시 실현하여야 한다. 12월 전원 회의 결정은 근로 대중을 파악하였고 조직 발동시켰다. 지금 전국은 비상한 로력적 앙양과 전환의 시기에 처하여 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들은 근로자들의 앙양된 기세와 창조적 열성을 옳게 조직 동원하기 위하여 당의 경제 정책과 결정 지시들에 대한 외곡, 또는 불성실한 태도와 무자비하게 투쟁하면서 당의 경제 정책에 무조건적이며 절대적으로 충실하여야 하며, 일체 보수주의적, 관료주의적, 주관주의적 사업 작풍을 철저히 퇴치하고 경제에 대한 지도를 근본적으로 개선 강화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만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도, 우리의 혁명 사업도 성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우리 혁명의 성과적 수행——이는 곧 국내외 반동 세력에 대한 타격이며 국제 혁명 력량에 대한 우리의 최대의 기여로 된다.

서적 해제 및 평론

레닌의 저서《공산주의에 있어서의 〈좌익〉소아병》에 대하여

정 관 률

레닌의 저서《공산주의에 있어서의 〈좌익〉소아병》은 모든 나라 공산당들의 전략과 전술에 관한 문제를 서술한 천재적 로작으로서 맑스—레닌주의의 가장 귀중한 고전적 문헌의 하나이다.

이 저서는 1920년 4—5월에 집필되여 동년 6월에 출판되였고 7월에는 독일어, 영어 및 불란서어로 출판 되였다.

그러면 레닌은 왜 국내에서 외국 무력 간섭과 국내 반혁명과의 가렬한 생사적 투쟁이 진행되고 있던 바로 그 시기에 이 저서를 서술하게 되였던가? 그것은 이 당시의 국제 정세,특히는 국제 로동 운동의 전반적 정세에서 설명된다.

이 시기는 자본주의 세계가 심각한 혁명적 위기에 처하고 있었던 것으로써 특징지어 진다. 제1차 세계 대전과 특히 위대한 10월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는 세계 무대에서의 제 세력의 호상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경시켰으며 자본주의 전반적 위기를 야기시켰으며 인류 력사상에서 새로운 시대 즉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시대를 열어 놓았다. 일련의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혁명적 로동 운동이 힘있게 전개되였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각국 공산당들은 자기들의 정확한 전술을 작성할 필요성이 제기되였다. 그러나 창건된지 얼마되지 않는 청소한 각국 공산당들은 리론'적, 전술'적, 조직'적 면에 있어서 허다한 약점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 시기에 로동 운동에서 중요한 위험성은《좌익》적 위험성이였다. 청소한 각국 공산당들은 반역'적 사회—민주당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면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종파적으로 나갔으며 심중한 오유들을 범하였다. 낡은 사회—민주당들로부터의 공산당들의 분리 행정은 일반적으로 많은 난관들이 동반하였다. 공산당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회—민주주의적 기회주의적 오유들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지 못하였으며 공산당으로서 응당 가져야 할 정확한 로선을 속한 시일내에 체득하지 못하였는 바 그들의 대부분은 《좌익》소아병적, 기회주의적 립장에 서 있었다.

이《좌익 공산주의자》들은 후에 판명된 바와 같이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숨은 대변인으로서 공산당들을 대중으로부터 분리시키며, 당을 종파에 몰아 넣는 모험주의적 길로 인도하였다. 만일에 파산된 우익 기회주의자들이 낡은 투쟁 형태들 만을 고집하였다면《좌익》기회주의자들은 일체 낡은 투쟁 형태(새 내용을 가진)를 결정적으로 반대하여 나섰다.《좌익》소아병은 1919년 독일 공산당 내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영국, 이태리,화란 및 기타 나라들에서도 나타났다.

자본주의 국가들의 공산당들 내의《좌익 공산주의자들》은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지도하는 직업 동맹에 참가하는 것을 거절하였으며, 국회 투쟁을 전개할 것을 부인함으로써 당이 로동 계급과의 밀접한 련계를 설정하여 그들을 제2 국제당의 기회주의적 영향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을 방해하였다. 이리하여 그들은 당을 청산하는 데로, 로동 계급을 혁명적 투쟁에서 패배하게 되는 데로 인도하였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각국 공산당들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낡은 사회—민주주의적 투항적 전술을 철저히 폭로함과 동시에《좌익 공산주의자들》의 해독적인 전술에 결정적 타격을 주어 당이 로동 계급의 광범한 대중들과 밀접한 련계를 맺게 하며 청소한 각국 공산당들을 사상 정치적으로 또한 조직적으로 단련시켜 공고히 하는 데 있었다. 이러한 과업들을 해결함이 없이는 로동 계급을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로 인도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레닌은 자기 저서에서 이러한 과업들을 각국 공산

당들 앞에 제기하면서 당시의 국제 로동 운동내에서의 중요한 《좌익》적 위험성을 반대하는 가강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레닌은 공산주의에 있어서 《좌익》 소아병의 모든 해독성과 일체 위험성을 폭로하였으며 10월 사회주의 혁명과 볼쉐위끼당의 풍부한 경험을 일반화하여 《좌익》 위험성을 극복할 수 있는 정확한 길을 제시하였다.

레닌은 자기의 유명한 저서 《공산주의에 있어서의 〈좌익〉 소아병》 에서 이러한 정확한 길을 주면서 사회주의 혁명의 구체적인 여러 리론'적 문제들, 즉 프로레타리아 독재에 관한 문제, 당과 프로레타리아 독재 체계에서의 그의 역할에 관한 문제, 당내 규률에 관한 문제, 광범한 대중을 프로레타리아 혁명에 인입시키는 문제 등등을 가일층 발전시켰으며 공산당들의 맑스주의적 전략과 전술의 기본을 발전시켰다.

* *

어떠한 의미에서 로씨야 혁명의 국제적 의의를 말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레닌이 자기의 저서에서 설정한 첫 문제였다. 왜 이 문제를 설정하였는가? 왜냐 하면 까우쯔끼를 위수로 한 모든 사회—민주주의자들과 기타 기회주의 리론가들은 로씨야 혁명의 경험이 로씨야에 국한된 지방적 의의만을 가지며 서구라파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레닌은 우익 사회주의자들의 비방을 폭로하면서 로씨야 혁명의 국제적 의의를 밝히였다.

10월 혁명은 로씨야에서 지주, 자본가의 정권을 전복하고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를 수립하고 착취없는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게 함으로써 전 세계에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새 시대를 열어 놓았다. 로씨야 로동 계급의 민족적 과업은 자본주의로부터 모든 나라의 프로레타리아트의 해방을 위한 한개의 공통적인 국제적 과업과 결합되며 쏘련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들은 전 세계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와 밀접히 련결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쏘련은 세계 프로레타리아트의 혁명 중심지이며 조국이며 가장 풍부한 경험을 가진 선구자로서 모든 나라의 모범으로 되고 있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금 우리는 벌써 매우 현저한 국제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 바 이 경험은 우리 혁명의 몇개의 기본 특징이 지방적인 또는 특히 민족적 특수적인 오로지 로씨야적인 의의 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확정적으로 말하고 있다》 (레닌 저작 선집 제2권 제2분책 로동당 출판사 1949년판 563—564페지). 계속하여 레닌은 《로씨야의 모범이 모든 나라들에게 그들이 멀지 않은 장래에 불가피적으로 올 매우 중대한 그 무엇을 보여 주고 있다》 (동상 565페지). 《볼쉐위즘은 누구에게든지 전술의 모범으로써 소용이 된다》 (레닌 전집 4판 제28권 270페지)고 말하였다.

그러나 레닌은 로씨야 혁명의 국제적 의의를 말할 때 그의 기본적인 특징들과 순 로씨야적 제2차적 특징들을 갈라 놓고 이 두 특징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에서가 아니라 가장 좁은 의미, 즉 국제적 범위에서 반복되는 혁명의 약간의 기본적 특징들에 대하여 말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 특징들은 세계의 어느 곳에서나 타당하는 맑스—레닌주의의 보편적 진리이다.

지난 수십년간 모든 수정주의자들과 기회주의자들이 맑스주의를 반대하여 사회주의의 변절자로 전락된 것은 그들이 바로 이 기본적 특징과 보편적 진리를 리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현 시기의 국제 정세, 특히 국제 로동 운동과 공산주의 운동에 있어서 특별한 의의를 띠고 있다. 그것은 오늘날 제국주의자들이 자기의 운명을 모면하려 하며 국제 로동 운동의 강화를 우려하여 쏘련의 역할과 쏘련이 쌓아 놓은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의 경험의 기본적 문제들에 대한 국제적 의의를 말살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현재 국제 로동 운동 내에서도 교조주의와 《쓰딸린주의》를 반대한다는 구실하에서, 또한 민족적 특수성에 근거하여 맑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한다는 구실하에서 쏘련의 혁명과 건설의 경험의 국제적 의의를 말살하려 하며 맑스—레닌주의의 기본적 명제들까지 수정하려는 일부 공산주의자들이 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형제적 공산당들과 로동당들은 자기의 혁명적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에 있어서 쏘련 공산당의 풍부한 경험을 연구하며 자기 나라의 민족적 특수성에 적응하게 로씨야 공산주의자들의 전술적 특징들 중에서 일반적인 것을 섭취하여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것을 중요한 조건으로 인정하고 있다.

조국의 통일과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혁명적 투쟁에서의 조선 인민의 거대한 성과들은 조선의 력사적 특수성에 의거하면서 쏘련 공산당의 고귀한 경험을 지침으로 삼고 있는 조선 로동당의 령도에 의존하여 달성된 것이 있다. 《만일 우리가 로씨야 볼쉐위크들의 고귀한 경험을 연구 습득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의 투쟁이 오늘과 같은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김 일성).

그러면 로씨야 볼쉐위크들의 경험들 중에서 어떠한 것을 반드시 섭취해야 하겠는가?

볼쉐위크들의 경험은 프로레타리아 독재가 로동 계급이 정권을 쟁취하기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정권을 유지하며 사회주의의 종국적 승리를 보장하기 위하여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한 프로레타리아트 앞에는 혁명에 의하여 전복된 착취 계급의 반항을 진압하며 로동 계급의 주위에 모든 근로자들을 결속시키며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여 공산주의 사회의 건설을 보장하는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과업이 나선다.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전복된 착취 계급들은 구(舊)제도를 회복하려는 발광적 기도를 하며 따라서 맹렬한 계급 투쟁이 진행된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프로레타리아 독재는 낡은 사회의 제 세력과 그 전통을 반대하는 류혈적 및 무혈적, 폭력적 및 평화적, 군사적 및 경제적, 교육적 및 행정적인 완강한 투쟁이다. 수백 수천만의 관습의 힘은 가장 무서운 힘이다. 투쟁에서 단련된 강철같은 당이 없이는, 그 계급 중의 모든 성실한 분자들의 신임을 받는 당이 없이는, 대중의 기분을 살피며 대중에게 영향을 줄줄 아는 당이 없이는 이러한 투쟁을 성과 있게 수행하기는 불가능한 것이다》 (동상 607—608페지).

프로레타리아 독재에 대한 문제는 혁명적 맑스주의와 개량주의적 사회주의간의 기본적 분기'점이다. 계급 투쟁을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인정하는 데까지 끌어 올리는 자만이 진정한 맑스주의자라는 레닌적 명제는 현재에 있어서도 완전히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유고슬라비야 동무들은 옳지 못한 립장에 서고 있는 바 깔뗄리 동무는 사회주의 발전 행정의 분석의 출발'점을 두 적대적 계급들——프로레타리아트와 부르죠아지간의 충돌에서 찾는 것은 《사상적으로 불합리하며 정치적으로는 방동적》인 바 과도기에 있어서 사회주의 사업에 중요한 위험성은 전복된 계급들인 도시와 농촌의 부르죠아지와 국제 제국주의의 파괴적 활동인 것이 아니라 《당과 국가내의 관료주의적 요소들》 이라는 명제를 내 놓았다. 그리하여 깔뗄리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역할을 저하시켰으며 사실상 프로레타리아 독재 체계에 있어서 당의 지도적 역할을 반대하여 나섰다. 그러나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학설은 모든 나라들에서 의무적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확립과 그의 공고화는 로동 계급의 혁명적 당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당을 론함에 있어서 레닌은 볼쉐위즘이 가장 견고한 맑스주의 리론에 토대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로씨야는 전대 미문의 고통과 희생, 일찌기 보지 못한 혁명적 용감성, 비할데 없는 정력과 꾸준한 탐구, 연구 실천에 있어서의 시련, 실망 검투 및 구라파의 경험과의 대비의 반세기에 걸친 력사에 의하여 유일하게 정당한 혁명적 리론으로서의 맑스주의를 애써 획득하였다》 (동상 572페지).

레닌은 볼쉐위즘 력사의 중요한 계단들을 구분 분석하면서 각이한 계단에서 볼쉐위즘의 풍부한 경험들을 보이여 주었다. 레닌은 자기 경험의 풍부성에 있어서 볼쉐위즘이 세계에서 그 류례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왜냐 하면 전 세계에서 짜리 로씨야와 같은 그러한 계급적 모순의 첨예성, 현대 사회의 모든 계급들의 투쟁 형태 및 투쟁 방법의 풍부성이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였다.

레닌은 볼쉐위크들이 자기 력사의 모든 단계를 통하여 당내의 적들과의 투쟁에서 성과를 거두게 된 중요한 조건들 중 하나는 당내의 강철같은 규률과 엄격한 중앙 집권화라는 것을 지적하였다. 만일 당의 단결성과 규률적 행동에 대하여 소부르죠아적 분산성, 불견실성과 무능력에로 방임한다면 그는 반드시 프로레타리아 혁명을 패망케 할 것이다.

그러면 프로레타리아트의 혁명적 당의 강철같은 규률은 무엇으로서 유지되며 검열되며 강화되는가? 그것은 《첫째로 프로레타리아트의 전위대의 자각과 혁명에 대한 그의 충성, 그의 인내와 자기 희생성과 용감성으로써이다. 둘째로 가장 광범한 근로 대중——우선 프로레타리아트 대중과 또한 비(非)프로레타리아트 근로 대중——과 련결하며 접근하며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융합할 줄 아는 것으로써이다. 세째로 전위대에 의하여 실현되는 정치적 지도와 정치적 전략과 전술이 옳은 것——이 정치적 지도와 전략과 전술이 옳은 것을 광범한 대중이 그들 자신의 경험으로써 확신하는 조건 밑에——에 의하여서이다》 (동상 571페지). 이러한 여러 조건이 없이는 부르죠아지를 전복하고 전 사회를 개조할 것을 목적한 선진 계급의 혁명적 당의 규률은 실현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제 조건하에서 확립된 볼쉐위크 당의 강철같은

규률은 로씨야 혁명의 성공을 보장하여 주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레닌은 《누구든지 조금이라도 프로레타리아당의 강철같은 규률을 약화시킨다면 (특히 프로레타리아 독재시기에 있어서) 그는 실질적으로 프로레타리아트를 반대하며 부르죠아지를 돕는 행위이다》(동상 608페지)라고 지적하면서 형제적 당들에게 강철같은 규률을 확립할 것을 호소하였다.

다음으로 《로동 운동 내의 어떠한 적들과의 투쟁에서 볼쉐위즘은 자라났으며 견고해졌으며 단련되였는가?》의 제목 하에서 레닌은 우익 및 좌익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은 공산당의 발전 법칙이라는 것을 밝히였다.

볼쉐위즘의 력사는 로씨야에서와 국제 무대에서의 온갖 종류의 기회주의자들과의 투쟁과 그의 극복의 력사이다.

볼쉐위크들은 그가 발생한 첫날부터 멘쉐위크, 분드, 청산파, 소환파, 뜨로쯔기파 및 사회—배외주의자들과 간단없는 투쟁을 통하여 당 대렬을 강화하였으며 쏘베트 시기에는 《좌익 공산주의자》, 《민주주의 중앙 집권주의》, 《로동자 반대파》, 뜨로쯔끼—지노비에브파 및 부하린—리꼬브의 우익 기회주의적 그루빠들과의 투쟁 속에서 강화 발전되였다.

레닌은 로동 운동 내부에서 볼쉐위즘의 주되는 적은 1914년에 종국적으로 사회—배외주의로 화하여 부르죠아 편에 전락한 우익 기회주의자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는 국제적 범위에 있어서도 주되는 것이였다. 그렇기 때문에 볼쉐위즘은 이 적에 대하여 주로 많은 주의를 돌렸던 것이며 또한 현재도 돌리고 있다. 이러한 자들로써는 멘쉐위즘, 그의 더러운 변종인 뜨로쯔끼즘(비록 그가 《좌익》의 탈을 쓰나 그는 언제나 우익 기회주의였다)이다.

레닌은 볼쉐위즘의 력사는 공공연한 우익 기회주의자들만 반대하여 싸운 것이 아니라 무정부주의와 비슷하고, 혹은 프로레타리아 계급 투쟁의 본질적 문제에서는 퇴각하면서 《좌익》적 언사로써 자기의 기회주의적 본성을 음폐한 소부르죠아적 혁명성을 반대하여 다년간 싸웠으며 그의 투쟁 가운데서 단련 강화되였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 《좌익》 기회주의자들은 좌익적 언사로써 공산당을 근로자 대중과 유리시키는 자멸의 길로 내 몰려고 하는 자본주의의 투항주의자들이다.

레닌은 《좌익》 기회주의자들의 사회적 토대는 대자본가에 의하여 파산된 도시와 농촌의 소부르죠아 출신들이며 그들은 자본에 의한 압박으로 파산과 심한 생활난을 당함으로 《광포》(狂暴)해 지며 극단적인 혁명성으로 흔히 넘어가나 이 혁명성은 불확고하며 비조직적이며 《굴종과 랭담과 망상》으로 전변하며 심지어는 부르죠아적 《류행》 사상에 발광적으로 유혹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것이 그들의 이데올로기의 계급적 본성이다.

그러나 여기에 첨부할 것은 레닌이 당시에 《좌익》 공산주의자들과의 투쟁에 대하여 말할 때 아직 그의 반역성(뒤에 판명된 바와 같은)은 알지 못하였다는 그것이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1918년에는 사태가 분렬되기까지에는 이르지 않았다. 그 때에는 《좌익》 공산주의자들이 우리 당 내의 특별한 그루빠 혹은 《프락치야》를 형성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았었는 데 그나마 오래 가지 못하였다. 1918년 바로 그 해에 《좌익》 공산주의의 유명한 대표들, 례하면 라덱크 부하린은 자기의 오유를 공공연히 승인하였다》(동상 591—592페지). 그러나 사실인즉 그들은 오유를 인정한다는 가장 밑에서 당과 레닌 자체를 반대하는 자기의 무기를 다만 일시 감춘데 불과하였다.

《좌익》 공산주의의 본질을 폭로하면서 레닌은 이 《좌익 공산주의자들》이 실지에 있어서 프로레타리아트 독재, 당, 계급, 맑스주의적 전략과 전술을 모르며 대중의 쟁취를 위한 당의 투쟁을 거절하였으며 로동 운동내에서 부르죠아 영향을 반대하는 투쟁의 곤난성 앞에 굴복하였으며 당의 강철같은 규률을 묵과하였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좌익 공산주의자들》의 이러한 결함들과 그로부터 오는 일체 해독성과 위험성을 레닌은 그 당시의 각국 공산당들에서 표현된 구체적 현상들을 들고 철두 철미하게 폭로 분쇄하였으며 그들이 옳은 전술적 로선에 서는 데 결정적인 방조를 주었다.

*　*

독일 공산당 내의 《좌익 공산주의자들》은 프로레타리아 독재에 관한 맑스주의 학설을 곡해하며 프로레타리아 독재 체계에서의 당의 역할을 외곡하며 당을 계급에게, 그리고 대중을 수령에게 대립시켰다. 《좌익》 기회주의자들의 반맑스주의적 견해를 폭로하면서 레닌은 다음과 같이 썼다.

《〈당의 독재냐 혹은 계급의 독재냐? 수령의 독재(당)이냐 혹은 대중의 독재(당)이냐?〉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그 하나만으로로도 벌써 가장 언어 도단한 터문이 없는 사상적 착란을 증명한다. 그 어떠한 독특한 것을 생각해 내려고 고심하며 너무 파고들던 나머지 우습게 되는 수도 있는 것이다. 대중은 여러 계급으로 나누어 진다는 것……그리고 제 계급은 적어도 현대 문명국들에 있어서는 보통, 또 다수 경우에 있어서 제 정당에 의하여 지도된다는 것, 정당은 통례로서 가장 권위있고 유력하고 경험있고 가장 책임있는 지위에 선발된 수령이라고 불리우는 인물들로 되는 다소간 고정된 그루빠에 의하여 지도된다는 것——이 모든 것은 일반이 다 잘 알고 있는 것이다》(동상 601페지). 그리고 계속하여 《이에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대중의 독재와 수령의 독재와를 대립시켜서 운운한다는 것은 가소로운 넌센쓰이며 어리석은 일이다》(동상 604페지)라고 썼다.

《좌익》 공담가들은 사회주의에 배반한 제2 국제당의 사회—민주당 수령들에 대한 로동 계급의 법'적인 독립성을 리용하여 로동 계급이 공산당과 그의 수령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을 기도하였다. 최근 《일정한 범위 내에서와 일정한 정도에서 군중 및 집체와 리탈하였으며 당 및 국가의 민주주의적 중앙 집권제를 파괴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쓰딸린에 대한 개인 숭배의 후'과를 반대하는 쏘련 공산당의 투쟁을 소위 《쓰딸린주의》, 《쓰딸린주의자》를 반대하는 투쟁으로 전변시킬 것을 기도하면서 수령과 대중을 대립시켰을 뿐만 아니라 웽그리야에서의 사건을 분석하면서 《반드시 근본적으로 정치 제도를 개변할 것》과 《공산당을 재건하는 데 로력을 랑비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공산주의자》가 나타났는 바 그의 의견에 의하면 《대중에게 있어 이러한 당은 관료전제의 화신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유고슬라비야의 깔젤리가 《쓰딸린주의》를 반대하는 《비쓰딸린주의 로선》의 본질이다. 이것은 대중과 계급을 당에 대립시키는 현대적 표본일 뿐만 아니라 당에 대한 맑스—레닌주의 학설로부터의 완전한 리탈이다.

레닌은 당과 로동 계급의 거대한 신임을 받고 있는 경험있고 권위 있는 수령들의 필요성을 거절하는 자는 프로레타리아당 자체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자이며 부르죠아지에게 유리하게 프로레타리아트를 완전히 무장 해제시키는 자이라는 것을 한 두번만 말하지 않았다. 쓰딸린의 개인 숭배를 반대하는 그 투쟁은 그가 자기 생존의 마지막 시기에 대중과 리탈하였으며 당의 집체적 지도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초래한 그의 부정적 면을 청산하기 위한 정당한 투쟁인 바, 다시 말하면 계급과 당, 대중과 수령의 정당한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투쟁인 바 이는 결코 탁월한 맑스주의 활동가로서의 쓰딸린을 반대하는 투쟁도 아니며 수령들의 필요성을 반대하는 투쟁도 아닌 것이다.

당과 계급간의 관계가 옳은 호상 관계, 즉 호상 신임의 정상적 관계에 있는 맑스—레닌주의 새형의 당들에 있어서는 계급과 당의 지도, 대중과 수령의 지도는 결코 대립되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한가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들 간의 정당한 상호 관계는 자본을 반대하며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투쟁에서 로동 계급이 승리를 쟁취하는 중요한 담보로 되고 있다.

*　*

레닌의 저서 《공산주의에 있어서의 〈좌익〉 소아병》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대중의 쟁취에 있어서와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 투쟁을 지도함에 있어서 볼쉐위크당의 특징적인 전술 문제이다. 레닌은 당의 전술은 해당 국가 내에서 현존하는 모든 력량들, 즉 그루빠들, 당들, 계급들, 대중들의 상호 관계의 타산의 기초 우에서, 그리고 또한 다른 나라의 경험의 타산의 기초 우에서 수립되여야 한다고 가르쳤다.

《좌익 공산주의자들》은 레닌주의의 이러한 요구를 고려함이 없이 종파와 모험주의의 길로 나아갔다. 독일과 영국의 《좌익 공산주의자들》은 합법적 및 비합법적 투쟁 형태의 결합의 필요성을 부인하였다. 그들은 계급 투쟁의 일체 형태의 적용의 필요성, 반동적 직업 동맹 내에서의 공산당들의 광범한 대중적 사업을 전개할 필요성을 거부하였으며 부르죠아 의회에 참가할 필요성을 말살하였다.

레닌은 《좌익 공산주의자들》의 반맑스주의적 견해에 치명적 비판을 가하면서 볼쉐위즘의 경험은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위한 투쟁에서 신축성있고 기동성있는 전술의 필요성을 보여 준다고 가르쳤다.

볼쉐위크 당의 전술의 특성의 하나는 그가 항상 대중들과의 련계를 확대 강화하며 대중의 정치적 적극성을 제고시키며 그들을 원쑤와의 비타협적 투쟁의 정신으로써 교양하며 대중을 가르치며 대중에게서 배우는 그것이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다만 전위대 하나만을 가지고는 승리할 수 없는 것이다. 아직 전 계급이, 그리고 아직 광범한 대중이 전위대를 직접 지지하거나 혹은 적어도 전위대에 대하여 호의적 중립의 태도를 취하거나 또는 적을 지지함에는 전연 무능한 형편에 있지 않은 한 다만

점위대 하나만이 결전에 돌입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뿐만 아니라 또한 범죄일 것이다. 그런데 참으로 자본에게 압박 받는 자와 근로자의 광범한 대중이 그러한 립장에까지 이르게 되도록 하자면 한갖 선전과 선동 하나 만으로는 부족한 것이다. 그렇게 되려면 그 대중 자신의 정치적 경험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모든 대혁명의 기본 법칙이다»(동상 703페지). 그렇기 때문에 레닌은 로동 계급의 다수를 쟁취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할 것이며 《대중이 있는 그 곳에서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사업하여야 할 것》을 가르쳤다. 이것은 반동적 직업 동맹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해당된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썼다. 《그것이 비록 제아무리 반동적인 기관 단체 조합일지라도 프로레타리아트적, 또는 반(半)프로레타리아트적인 대중이 있는 그곳에서는 반드시 체계적으로 완강히 집요하게, 인내성있게 선전 선동하기 위하여 온갖 희생을 다 할 줄 알며 거대한 난관을 극복할 줄 알아야 한다》 (동상 624—625페지).

그런데 《좌익》기회주의자들은 반동적 개량주의적 직업 동맹으로부터 공산주의자들이 나올 것을 주장하며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승인하는 《순수한 직업 동맹》을 창설할 것을 호소하였다. 《좌익》 모험주의자들의 이러한 립장은 공산주의 운동에 큰 손해를 주었으며 로동 계급의 수백만 대중 내에서 공산주의 사상이 침투되는 것을 방해하였다. 그들이 직업 동맹 내에서의 사업을 거절한 것은 수백만 로동 대중을 개량주의자, 기회주의자, 부르죠아 대리인의 영향 하에 맡겨두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실현을 연기하는 것으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레닌은 공산주의자들은 직업 동맹의 《반동성》을 겁내지 말고 그 곳에 들어 가서 사업할 것이며 직업 동맹을 자기의 영향 하에 두며 그를 대중의 정치적 교양의 학교로 전변시켜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리하여 각국 공산당들은 기회주의자들과의 투쟁을 끝까지 수행하여 10월 혁명이 승리하기 훨씬 전에 볼쉐위크들이 한 것처럼 직업 동맹에서 모든 반동적 지도자들을 구축하여 대중을 쟁취하도록 하는 과업을 내세웠다. 이러한 전술만이 로동 계급의 분렬(직업 동맹의 우익 지도자들은 항상 이것을 원하고 있다)을 극복하고 전체 로동 계급의 통일을 보장하며 그들의 종국적 해방을 달성할 수 있다.

오늘 우리 당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남북 조선의 로동자들의 통일 단결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조선에 있는 반동적 단체인 《대한 로총》에 가입한 로동자들이라 할지라도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우리 당의 영향을 침투시키고 그들 자신이 《대한 로총》의 반동적 《지도자》들을 반대하여 나서게 하며 로동자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경제적 형편의 개선과 민주주의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의 주위에 집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대중을 지도하는 볼쉐위크당의 전술의 특징의 하나는 대중 자신의 정치적 경험에 의하여 당의 구호의 정당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 점을 《좌익 공산주의자들》은 또한 몰랐다.

독일, 영국, 화란, 이태리의 《좌익 공산주의자들》은 의회주의는 《정치적으로나 력사적으로》 로폐한 투쟁 형태이므로 부르죠아 의회에 공산주의자들은 참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의회주의는 력사적으로 로폐되였는가? 그렇다. 왜냐 하면 10월 혁명의 승리로부터 부르죠아 의회주의의 시기는 끝나고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새 시기가 시작되였기 때문이다.

그러면 의회주의는 정치적으로도 로폐되였는가?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 국가의 로동 계급의 대중이 오늘에도 즉시로 공산당의 구호 하에 부르죠아 정권을 전복하고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수립을 실현하기에 준비되였는가? 이 문제에 대하여 레닌은 의회주의는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정치적으로 낡은 것이지만 대중의 의식 속에서는 아직 낡아 버리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로폐된 것을 계급에게 있어서도 대중에게 있어서도 로폐된 것이라고 오인하여서는 안된다는 데 있다》(동상 634—635페지).

그렇기 때문에 레닌은 부르죠아 의회와 의회 투쟁에 공산당원들이 반드시 참가하여야 하며 혁명적 목적으로, 또 대중을 정치적으로 교양하며 정권을 위한 직접적 투쟁에로 그들을 준비시킬 목적으로 의회 연단을 리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프로레타리 독재를 위한 투쟁 시기에 있어서 볼쉐위크 당은 로동 계급과 농민의 광범한 계층을 쟁취하기 위하여 의회 연단을 리용하는 모범을 보여 주었다.

1905—1907년 혁명의 앙양기에 볼쉐위크당은 물론 혁명의 리익의 견지에서 의회 투쟁 형태를 거절하였으며 보이꼬트 전술로써 대중을 직접 혁명에로 불러 일으켰다. 이것은 정당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을 다른 나라들에서 《좌익 공산주의자들》이 하던 것처럼 기계적으로 적용하여서는 안된다. 1905—1907년 혁명이 실패한 후의 혁명의 퇴조기에 볼쉐위크들은 짜리의 반동적 국회에 참가하였으며 여기에서 짜리 정부의 반인민적 정책과 부르죠아 당의 반동적 본질을 폭로하였으며 근로 대중들을, 우선 농민들을 부르죠아 및 소부르죠아 당의 영향으로부터 해방시켜 프로레타리아 주위에 집결시켰다.

특히 서구라파에 있어서는 락후한 로동 대중과 더우기 소농민의 락후한 대중이 로씨야에서 보다 더 심하게 부르죠아 민주주의적 편견과 의회주의적 편견에 물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 공산당들이 부르죠아 의회 내부에 들어가서 그러한 편견을 폭로하며 소탕하며 극복하는 장기간에 걸친 간고한 투쟁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의회내 투쟁만을 과대 평가하고 의회 외(外) 투쟁을 포기하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만약 이렇게 만 주장한다면 낡은 우익 기회주의자들의 립장에 전락된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이상의 부르죠아 의회에 참가할 데 대한 레닌의 교시는 불란서, 이태리 및 기타 나라들에서 성과적으로 실현되였으며 특히 현재에 있어서는 이 나라 공산당들이 의회에서 중대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였다. 오늘의 국제 정세 하에서 계급들 간의 호상 력량 관계로 보아, 그리고 또한 프로레타리아트의 의식성과 조직성이 장성된 점으로 보아 의회는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을 위한 무기로 전환될 수 있다.

*　　　*

레닌의 저서 《공산주의에 있어서의 <좌익> 소아병》에서 또 한가지 중요한 문제는 타협에 관한 문제이다.

《좌익 공산주의자들》이 어떠한 타협이든지 절대로 반대하는 데 대하여 비판하면서 레닌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국제 부르죠아지를 전복하기 위한 전쟁, 즉 제 국가간에 보통 있는 그런 전쟁 중의 가장 격렬한 전쟁보다 백배나 더 어렵고 장구한 시일을 요하는 복잡한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적들 사이에 있는 리해의 제 모순(비록 일시적이나마)의 리용, 흥정, 가능한 동맹자 (비록 일시적이고 불견고하고 불안전하고 조건부적일지라도)와의 협조와 타협을 미리부터 거부한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더 말할 것 없이 가소로운 일이 아니냐?》(동상 657—658페지).

레닌은 모든 나라 공산당들에게 타협과 협조의 체결은 력사적 환경과 계급들 간의 구체적 상호 력량 관계로부터 출발할 것인 바 그것은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서 가능하며 또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1) 계급 투쟁의 발전과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발전에 그 타협이 유리하며, 2) 당의 활동을 구속하지 않으며 일시적 동반자의 오유에 대하여 계속 비판하며, 3) 로동 계급의 다수를 쟁취하며 당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것을 보장하며, 4) 그 타협이 결코 당의 사상적 양보로서 되여서는 안된다는 것 등이다.

볼쉐위끼당이 주장하는 타협은 우익 기회주의자들이 하는 변절적 타협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볼쉐위끼당은 사상적 타협은 그 어느 때에도 견결히 반대하였으며 맑스—레닌주의 혁명적 기치를 그 어느 누구 앞에서도 굽혀 본 일이 결코 없었다.

90년대에 인민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의 《합법적》 맑스주의자들과의 협정, 1912년까지 수차에 걸친 멘쉐위크들과의 공동적 진출, 1907년 국회 선거에서의 에쓰 에르와의 쁠럭 형성, 10월 혁명 시기의 《좌익》 에쓰 에르와의 형식적인 정치적 쁠럭, 브레스트 강화 조약의 체결——이 모든 것은 사회주의 원쑤들에 대한 볼쉐위크들의 승리를 용이하게 하였고 촉진시켰다.

그러면 공산당이 각이한 당들과 타협할 필요성은 어데 있는가? 그것은 1) 자본을 반대하는 프로레타리아트의 투쟁 자체의 곤난성과 복잡성과 2) 당이 지도하고 있는 프로레타리아트, 농민 및 기타 피압박 대중의 구성의 다양성이다. 이러한 사정들로부터 공산당이 이러 저러한 계급들의 리익을 대표하는 여러 당들과의 흥정, 협조 및 타협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이 전술을 프로레타리아트의 의식과 혁명성과 투쟁 및 그의 승리에 대한 능력의 일반적 수준의 저하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그의 제고를 위하여 적용할 줄 아는데 있다.》(동상 666페지).

타협과 협조에 관한 레닌의 교훈은 오늘 쏘련과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이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각이한 나라들과의 친선 및 협조의 설정과 형제적 공산당들 및 로동당들이 민족적 통일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의 통일 전선의 창설 등으로써 훌륭하게 적용되고 있다.

*　　　*

저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레닌은 볼쉐위즘

의 력사와 그 리론에 있어서 각국 공산당들이 반드시 취하여야 할 일반적 원칙들, 기본적 특징들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매 개별적 나라들의 구체적 특수성을 반드시 타산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레닌은 제2 국제당의 수령들이 투쟁의 전술적 원칙들을 항상 천편일률화하며 기계적으로 균일화하며 동일화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각국 당들의 중요 과업은 《유일한 국제적 임무의 해결에 대한 각개 국의 구체적인 취급에 있어서 그 민족에 특유한 것과 그 민족에 고유한 것을 탐구하며 연구하며 찾아 내며 알아 내며 파악하는 것》 (동상 701—702페지)이며 반드시 《공산주의 기본적 제 원칙(쏘베트 정권과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을 적용하되 이 원칙들을 제 특수성에 맞추어 옳게 변형시키며 또 이 원칙들을 민족적 및 민족—국가적 차이에 옳게 맞추어 옳게 적용》 (동상 701페지)하는 데 있다고 간주하였다.

레닌의 이 교훈에 근거하여 각국 공산당들은 자기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의 형태들과 방법들의 특수성을 탐구하여 볼쉐위즘의 경험을 능숙하게 적용하면서 맑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의 쟁취의 특수한 형태와 방법을 강구하는 나머지 이 형태의 사회주의적 내용까지 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두말 할 것도 없다.

다음으로 레닌은 자기 저서를 통하여 불패의 당으로 되기 위하여 비판과 자기 비판의 의의를 강조하였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정당이 자기의 오유에 대한 태도 여하는 그 당의 진실성 여하와 당이 사실에 있어서 자기의 계급과 근로 대중에 대하여 그가 지닌 의무의 리행 여하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확실한 규준의 하나인 것이다. 오유를 공공연히 시인하며 그 오유의 원인들을 밝혀 내며 오유를 낳게 한 환경을 철저히 분석하아 내며 오유를 시정할 수단을 주의 깊이 연구 토의하는 것—이것이야 말로 진실한 당이라는 표징이며 이것이야 말로 당이 자기의 의무를 리행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며 이것이야 말로 계급을, 다음에는 또한 대중을 교양하며 훈련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다》 (동상 632—633페지).

마지막으로 레닌은 혁명의 기본적 법칙에 대하여 밝히였다.

《모든 혁명에 의하여 특수적으로는 20세기의 3차에 걸친 로씨야의 혁명에 의하여 실증된 혁명의 기본 법칙은 다음과 같다. 즉 혁명을 위하여서는 피착취 대중 및 피압박 대중이 옛날 그대로 살아 갈 수 없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변갱할 것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한 것이며 혁명을 위하여서는 착취자들이 옛날 그대로 살아 갈 수가 없게 되고 통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 오직 《하층》이 옛 것을 원치 않을 때 《상층》이 옛날대로 해나갈 수 없게 되는 그 때에라야만 혁명은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동상 687페지).

이상이 레닌의 저서 《공산주의에 있어서의 <좌익> 소아병》의 간단한 내용이다.

* *

레닌의 저서 《공산주의에 있어서의 <좌익> 소아병》의 전 세계 력사적 의의는 그가 모든 나라 공산당들에게 있어서 평화, 민주주의 및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지침으로 되며 강력한 무기로 된다는 데 있다.

유명한 이 레닌의 저서는 현하 국제 로동 운동의 당면한 가장 근본적 문제들도 해명하여 주며 공산당들의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의 길을 밝혀 주고 있다. 각국 공산당들은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 투쟁에 대한 리론을 이 책에서 많이 배우고 있다.

《근 로 자》 제 2 호 (루계 제135호)

편 집 위 원 회

발 행 소 근 로 자 사 인 쇄 1957년 2월 20일
인 쇄 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발 행 1957년 2월 25일

ㄱ—40 333 값 45원

8 РЗК
УЛ. ЧАЙКОВСКОГО 19.21
АМЕРИКАНСКОМУ
ПОСОЛЬСТВУ
1.12 Р8035